금주의 법구-〈숫타니파타〉
얕은 물은 소리내어 흐르지만
깊은 물은 소리내지 않는다.
지혜로운 이는 가득찬 연못과 같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4월 5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096호 2016년 5월 11일 수요일



젊은 불자들이 만든 10만 오색 연등 물결

불기2560년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기 위한 연등회가 5월 7~8일 서울 종로 일원에서 열렸다. 올해 연등회는 '청년과 함께하는 연등회'를 캐치프라이즈로 삼은만큼 여느 때보다 많은 20~30대 젊은 불자들이 축제에 참여했다. 사진은 서울 도선사 젊은 여성신도들이 연등을 들고 장엄등과 함께 행렬하는 모습. 〈관련 기사 A3, 봉축화보 A16·17면〉

특별취재팀= 노덕현 · 윤호섭 · 박아름 기자, 이승희 수습기자

비구니 원로회 출범… 역사 새로 쓰다

전국비구니회, 3일 원로회 구성 및 1차 원로회의

초대의장에 명성 스님 추대

1971년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전신인 우담바라회 발족 후 40여년이 지나 비구니 원로회가 처음으로 구성됐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육문)는 5월 3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2층 회의실에서 '비구니 원로회 구성 및 제1차 원로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지난 3월 열린 정기총회서 원로의원으로 추대된 18명의 원로의원스님 중 14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원로의원스님들은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을 원로의장에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수석부의장은 수현 스님, 차석부의장은 일법 · 운달 스님이 임명됐다. 명성 스님은 의장 추대를 정중히 사양했지만 후배스님들의 간곡한 요청에 의장석에 앉았다.

명성 스님은 "의장은 총명해야 하지만 나는 귀가 어둡고 수행력이 부족해 어울리지 않는다. 하지만 의장직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원로스님들의 고견을 모아 회의를 잘 진행하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원로의장 명성 스님은 "지금껏 비구니 원로들이 한자리에 모인 일이 없다. 이제 원로들은 자부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소임자들이 전국비구니회를 잘 운영하도록 뒤에서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비구니회 원로의원은 명수 · 행돈 · 묘관 · 명성 · 보각 · 자민 · 법희 · 재희 · 수현 · 혜준 · 혜운 · 자행 · 불필 · 자광 · 재운 · 일법 · 운달 · 대인(특별원로의원 보문종) 스님 등 18명이며, 명예원로의원은 경순 · 광우 · 법운 · 성타 · 정륜 · 혜해 · 경희 · 진관 · 현묵 · 경심 · 법용 스님 등 11명이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원로스님들에게 삼배로 예를 올리고 있는 전국비구니회 제11대 집행부 스님들.

부처님오신날 SNS 키워드는 '자비'

[기획] 빅데이터로 살펴본 '부처님오신날'

전국사찰과 불자가정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SNS상에서도 관련 활동이 활발하다. 그렇다면 '부처님오신날'과 관련해 SNS 상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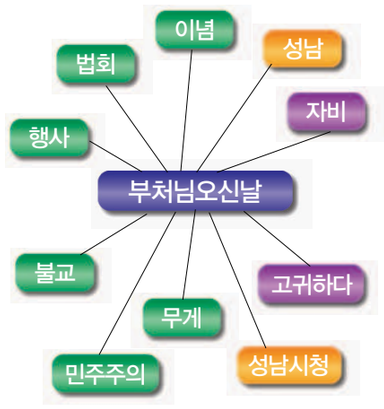
'법회' '자비' '고귀하다' '불교' 등을 비롯해 '민주주의' '커피' 등이 꼽혀 눈길을 끌었다. 본지가 SNS분석도구 '소셜메트릭스'를 이용해 4월 7일부터 5월 7일까지 한달간 트위터와 블로그 상 부처님오신날과 관련된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부처님오신날'은 2442건(트위터 1259건, 블로그 1183건), 법정 명칭인 '석가탄신일'은 16568건(트위터 14890건, 블로그 1678건)을 기록했다.

'부처님오신날' 연관어는 '법회'가 전체 1위(467건), '자비'가 2위(459건)를 차지했다. 이밖에 성남(417건, 3위), 성남시청(407건 4위), 민주주의(372건, 8위)가 연관어로 꼽혀 눈길을 끌었다.

이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4월 7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봉축법회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민주주의 이념과 상통한다'고 한 발언 때문이다. 성남시청은 자체 SNS방송을 통해 법회를 생중계했으며, 법회 후 이 시장은 이 내용을 트위터에 올려 375회 공유(리트윗)했다.

'부처님오신날' 키워드 2442건 노출
연관어 '법회·자비' 긍정적 반응
핵심 '연등회' 노출은 300건 불과
공식명칭 外 '연등축제' 혼용 원인
연등회보존위 "SNS 홍보 강화"

'부처님오신날'과 관련된 탐색어 여론조사에서는 대부분이 긍정적이었다. 분류 카테고리상 '자비' '고귀하다' '소원' '아름답다' '예쁘다' '낭만' 등 전체 10개 중 9개가 긍정여론 이었다.



부처님오신날의 법정명칭인 '석가탄신일' 키워드는 총 16568건(트위터 14890건, 블로그 1678건) 노출됐다.

이밖에 SNS분석에서는 '연등회'에 대한 SNS홍보 강화의 필요성도 드러났다. '연등' 4175건, '봉축' 923건 등의 노출량에 비해 '연등회' 노출량은 300건에 불과했다. 이는 비슷한 용어인 '연등축제'의 960건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연등회보존위 '연등회'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SNS를 통해 봉축행사에 참여하는 이들은 2013년 22.1%, 2014년 24.7%, 37.9%로 매년 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연등회'에 대한 이해는 떨어지는 것이다. '연등축제' '제등행렬' '연등행렬' 등으로 불린 '연등회'는 2012년 무형문화재 지정과 함께 전통문화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공식명칭으로 지정됐다.

연등회보존회가 구성돼 예년보다 대폭 늘어난 49개국 150여 명의 글로벌 서포터즈를 중심으로 페이스북 일지, 유튜브 영상올리기, 콘테스트 등을 통해 연등회를 알리고 있다.

강문정 연등회보존위원회 팀장은 "연등회와 연등축제 등 용어혼용문제가 있다"며 "일반 페스티벌이 아닌 전통문화 축제로서 '연등회'가 주목받을 수 있도록 SNS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016년 봉축특집호 - 64면 발행

A 특집 · 선지식에게 듣다- 축서사 문수선원장 무여 스님 5
특집 · 다시 가족을 생각하다 11·12·13
연등회 봉축 화보 16·17

B 특집 · 데스크 초대석 - 김양식 인도문화원장 1·2
특집 · 장애인 포교, 사홍서원의 실천 4·5·6·8
특집 · 초의선사 열반 150주년 12
특집 · 화가가 엿본 차 문화 14

C 특집 · 출가, 자유를 향한 길 1·2·3·5
봉축 법어 및 봉축사 7·8·9·10
특집 · 스승과의 봉축담 13
특집 · 현장 스님 출가기 15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현대불교신문 임직원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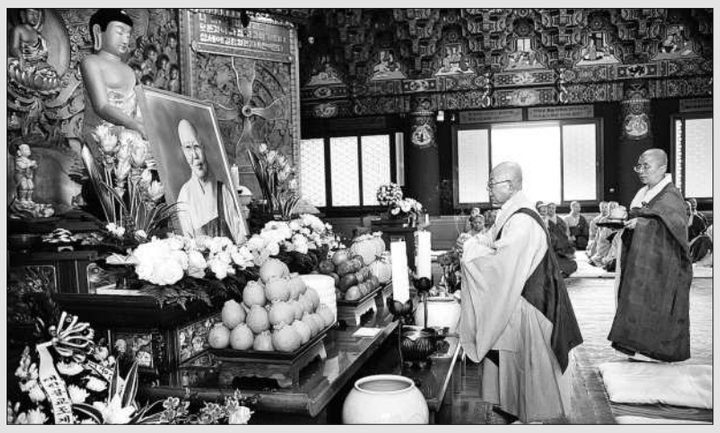
Buddha's Birthday
불기2560(2016)년
부처님오신날

자비로운 마음 풍요로운 세상

종정 진제 법원

원로회의의장 밀운 총무원장 자승
중앙종회의장 성문 교육원장 현응
호계원장 성타 포교원장 지홍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스님이 대행 스님 영정에 헌향하고 있다.

대행 스님 4주기 "삶 떠난 佛法 없다"

안양 한마음선원서 5일 다례재… 5000여 대중 운집

근현대 한국불교의 큰 스승인 대행 스님의 4주기 추모다례재가 5월 5일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에서 봉행됐다.

이날 한마음선원에는 50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운집했다. 대행 스님과 평소 인연이 깊었던 탄허불교문화재단 이사장 혜거 스님,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과 월정사 부주지 원행 스님 등 불교계 인사들과 이필운 안양시장 내외, 이종걸 국회의원 등 인사들도 참석했다.

다례재는 각령전 일동 삼배 후 헌향. 헌다. 헌화, 조사영반, 큰스님 영상법문, 추모 영상 상영 등 순으로 진행됐다.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스님과 이사장 혜수 스님, 광명선원 주지 청백 스님이 승단을 대표해 헌향, 헌다, 헌화를 했고, 전국의 신도회장단도 헌화로 추모했다.

특히 이날 다례재에서는 대행 스님의 영상법문이 큰 감동을 선사했다. "불법은 여러분의 삶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함께 하는 것입니다"는 말이 나올 때 대중들은 대행 스님이 곁에 있는 것처럼 눈물을 흘렸다.

이런 추모다례재 분위기 속에 주지 혜원 스님도 말을 잇지 못했다. 스님은 "사진으로, 마음으로 항상 계신다. 항상 뵙고 싶지만 오늘은 더욱 뵙고 싶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 다례재는 선원 불자들의 금강경 독송과 추모의식으로 마무리됐다. 다례재 후에는 대중들은 대행 스님 부도탑이 위치한 서산 정까지 참배했다.

한편, 묘공당 대행 스님은 지난 1972년 한마음선원을 설립한 뒤 국내 15개, 해외 10개 지원을 잇따라 세우고, 본지 현대불교신문사와 연구원을 만드는 등 대중포교에 앞장서 왔다. 지난 2012년 5월 22일 세수 86, 법랍 63세를 일기로 입적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6월 21일 임시종회 개원

의장단연석회의서 확정…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 관심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을 두고 조계종 임시중앙종회가 6월 21일 개원한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은 5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제206차 임시종회를 6월 21일 열기로 했다. 의안접수는 6월 14일까지며 종책질의는 16일 마감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총무원장선거제도혁신특위를 구성해 '염화미소법'을 성안한 바 있다. 당초 3월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대중공사에서 여론을 물었다. 대중공사에서는 '염화미소법'보다 직선제 도입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에 6월 임시회에서는 선거법 개정보다 선출제도 혁신을 둔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6월 임시회에서는 지난 3월 임시회에서 이월된 중앙종회의원 겸직금지 완화 골자 종헌개정안과 교구본사주지의 연임을 1회로 한정하는 지방종정법 개정안, 대각회 특별교구법 제정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는 5월 18일 서울 불광사에서 전체 대중공사를 열고 총무원장 선거제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노덕현 기자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리뉴얼' 한다

고령자 · 외국인 · 여성 등
연령 · 계층 전부 세분화
명칭 '출가학교'로 변화

시대 맞는 체계 구축하고
세대 · 계층 맞춤교육 실시
장기 및 상설 출가 학교도
메뉴얼 제작 위탁교육 추진


월정사 단기출가학교에 참가한 사람들이 삭발염의를 하고 연비를 받고 있다.

2004년 9월 문을 연 강원도 오대산 월정사 단기출가학교는 일반인이 삭발염의 하고 행자생활을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시 불교계 안팎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단기출가학교 수료생 중 10%는 실제로 출가 수행자가 돼 출가문화 진흥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한국불교의 큰 문제로 대두된 출가자 수 감소라는 소나기는 월정사 단기출가학교도 비켜가지 못했다.

단기출가학교장인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10년을 넘어서면서 시대적 변화, 젊은 세대에 공감 받을 수 있는 변화를 요구할 수 밖에 없는 한계에 부딪혔다. 물론 그동안 이런 환경을 타개하고자 전통적 행자생활 과정을 축약한 몸으로 하는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에서 감성 체험적 요소와 힐링 문화에 부합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도 했지만, 정체성에 대한 고민 때문에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기존 교육을 받던 선배들이 간략화 된 출가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냈다. 힘든 교육과정은 실제 출가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며, 졸업 후 학교에 대한 애정도 더 생기게 하는데 감성강화교육은 오히려 단기출가학교 분위기를 약화시킨다고 생각해 조언도 많았다"고 그간의 고충을 밝혔다.

이어 정념 스님은 "그래서 다시 체험 중심 교육으로 되돌아갔지만 이제 전반적 시대의 흐름을 살펴보니 현대인들이 한 달이라는 시간을 내기도 힘들고, 이미 기존 단기출가체험 수요의 상당수를 수용했기에 더 이상 학교 인원이 늘지 않아, 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래서 올해로 개교 13주년을 맞는 월정사 단기출가학교가 '출가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새로운 체재로 운영된다. 새롭게 변화한 출가학교는 기존의 단기출가 이외에도 프로그램이 계층 · 연령별로 세분화된 것이 특징이다.

장기간 수행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체험과 힐링에 초점을 맞춘 2박 3일 프로그램부터 △1주일간 출가를 체험해보는 '마음출가학교' △고령자 위주의 3박 4일 출가체험인 '나도 출가' △여성을 위한 출가학교(3박 4일) △외국인 출가학교 등이 새롭게 도입됐다.

또한, 월정사는 정식 출가를 여러 가지 이유로 망설이거나 고민하고 있는 재가자를 위해 장기출가학교 및 상설 출가학교도 계획중이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하반기부터 정식 출가자 배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려 한다. 6개월 정도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학습과 신심, 발심, 월력, 염불, 기초교리, 수행 등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자세히 가르칠 것"이라며 "요즘 전국적으로 행자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붕괴현상이 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통적인 행자생활 유지만으로는 한계에 처했음을 수용하고,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향후 월정사가 닦아놓은 노하우로 이런 행자 교육 매뉴얼의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 행자 위탁 교육도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월정사는 이 같은 변화에 맞춘 48, 49기 단기출가자를 모집한다. 48기 대상자는 대학생과 일반인 남녀 70명으로 오는 6월 7일까지 참가자 접수를 받는다. 수행기간은 7월 1일부터 23일까지다. 또한 49기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과 일반인 남녀 70명이 대상이며, 오는 12월 12일까지 참가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49기의 수행기간은 내년 1월 5일부터 2월 3일까지다. 월정사 출가학교는 모집 안내문을 통해 "단기출가학교가 종합적인 체계와 세밀한 맞춤교육을 위해 '월정사 출가학교'로 새롭게 거듭났다"면서 "출가학교서 새 전환점을 맞을 수 있는 선연(善緣)을 맺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주일 · 신성민 기자

신록의 계절, '人文불교'에 빠져봅시다

정평불 · 사찰림硏 등 불교 인문강좌 잇달아 개강

부처님오신날을 전후도 다양한 불교계 인문 강좌가 잇달아 문을 연다.

깨달음의 실천을 고민하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강좌는 정의평화불교연대(대표 이도흠, 이하 정평불)의 '눈부처학교' 4기다. 5월 12일부터 6월 16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9시 서울 전법회관 3층 보리수에서 열리는 이번 강좌는 불교계 내외로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깨달음을 어떻게 볼 것이고 이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가 강의의 큰 줄기다. 강의는 △1강(5월 12일): 대승불교에서 깨달음의 실천(이병욱/ 고려대) △2강(5월 19일): 초기불교의 깨달음과 실천(김광수/ 한양여대) △3강(5월 26일): 선의 깨달음에 대한 성찰-부처로서의 삶이 부처이다(변희욱/ 서울대) △4강(6월 2일): 깨달음과 삼독의 지멸(박병기/ 한국교원대) △5강(6월 9일): 깨달음 논쟁 비판을 통한 21세기의 깨달음의 길(이도흠/ 한양대) △6강(6월 16일): 깨달음과 사회적 실천(유승무/ 중앙승가대)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수강료는 무료다. (010)3725-4846

문화를 통해 불교 만나다

불교 건축과 미술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강좌도 열린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화범)은 오는 5월 26일부터 6월 27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2~4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공연장에서 '2016년 불교문화 강좌'를 연다.

불교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열리는 이번 강좌는 △1강(5월 23일):사찰 건축 속의 사상과 철학(원철 스님/ 조계종 포교연구실장) △2강(5월 30일):생각을 담는 그릇, 생활이 비치는 거울-불교건축(홍병화/ 조계종) △3강(6월 13일):도갑사 도선국사비와 17세기 불교 석조 미술(김민규/간송미술관) △4강(6월 20일):불교의 윤회세계, 불교 신앙의 사회적 의미(정각 스님/중앙승가대) △5강(6월 27일) 불교 내부 장엄과 의례-불탑과 불상의 내부 장엄(정각 스님/중앙승가대) 등으로 구성된다. 강좌 수강 신청은 오는 5월 17까지 이메일(mingfung84@buddhism.or.kr)로 접수받는다.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수강료는 무료. (02)2011-1960

식물과 불교, 그리고 삼국유사

불교와 식물, 나무를 탐구하는 이색적인 시민강좌도 열린다. 한국사찰림연구소는 오는 5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서울 서대문 사찰림연구소 전용 강의실에서 열린 시민강좌 '불교와 숲,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마련한다. 총 6강으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에서는 박희준 대진대 교수(사찰림연구소 탐방단장)가 '경전으로 만나는 식물 이야기'를, 이경남 명상치유연구소 원장이 '명상, 절 숲으로 가다'를, 임휘룡 사찰림연구소 전문위원이 '우리 절집의 나무들'을 주제로 각각 강의한다. 참가비는 6만원. (010)7233-6716

일연 스님이 저술한 〈삼국유사〉에 나타난 원효의 기록을 찾아가는 강좌도 눈길을 끈다. 서울 사간동 법련사는 오는 5월 12일부터 7월 28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12시 30분 2층 교육문화관에서 제2차 불일인문강좌 '삼국유사, 원효와 춤추다'를 개최한다.

총 12강으로 열리는 이번 강좌는 삼국유사 속에 나타난 원효의 기록을 촘촘히 따라가며 원효가 신라의 붓다이자 세계적 석학이자 철학자였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사는 정진원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교수가 맡는다. 수강료는 15만원. (02)733-5322

신성민 기자

대한불교원효종

종정 설제 정광

원로원장 창해 자문위원장 금봉 종회의장 태일
총무원장 우석 규정원장 성암 총무부원장 보원
상벌위원장 일륜

원로위원 혜초 수진 수경 혜봉 성호 법진
종회부의장 자안 보광
종회의원 법진 무상 자광 법원 현수 지광 향봉 수월 자성 일륜 무공 성죽 마명 청암
선거관리 위원장 석불 선거 관리위원 현수 무공 혜진

종학원장 옥천 법규원장 무상 고시원장 자광 포교원장 선운
문화원장 효산 복지원장 범일 의전실장 석해
부산교구원장 석불 대구교구원장 서응 울산교구원장 지광 경남교구원장 월함
전북교구원장 경오 전남교구원장 마명 대전충남원장 자성 경북북부원장 성죽
제주교구원장 법원 강원교구원장 성암
교육부장 도선 문화부장 대호 규정부장 상묵 기획부장 법민
사회부장 해인 포교부장 성우 복지부장 원해 의전부장 무해
사회국장 보문 규정국장 남주 복지국장 법선 사무국장 향적
조사국장 최석주

(사)대한선불교원효종 이사장 청암

봉축사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우석

마음가짐 하나로 내가 달라지고 사회가
변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진실하게 하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불공을 올린다는 것은 나의 현재
마음가짐을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다짐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광명 빛으로
오신 부처님의 위대함을 돌이켜 되새기며
우리 마음의 밝음을 믿고 오늘부터 바로 대 자유의
길을 걸어 갑시다. 그리고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품안에서 업겁을 녹이고
극락정토 인연되어 함께 성불합시다.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 주소 : 경주시 충현로 3길 4-1 TEL : 054)743-0700

靑春 함께 하니 10만 연등 더욱 밝구나!

불기 2560년 부처님오신날 연등회 성료
다채로운 燈, 거리 수놓은 장엄의 물결

'청춘과 소통' 이란 기조 아래 열린 올해 연등회에선 80대 어르신도, 5살 천진불도, 먼 나라 여행객도 모두 하나였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 이하 봉축위)가 5월 7~8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개최한 '불기 2560년 연등회' 의 성대한 막이 내렸다.

연등회의 백미인 10만 불자의 제등행렬은 7일 저녁 장충동 동국대 대운동장부터 동대문운동장, 종로, 조계사 앞으로 이어졌다. 도로를 꽉 채운 시민들은 웅장하고 아름다운 연등에 감탄하는 한편, 장시간 걸음으로 지친 행렬단에게 격려의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문헌 고증을 통해 복원한 북한등과 한글오방번, 각 사찰에서 심혈을 기울여 만든 행렬등은 온 거리를 서방정토로 장엄했다.

제등행렬에 이어 열린 회향한마당에는 진리를 통해 만 중생 제도에 삶을 바친 부처님의 원력을 찬탄하는 공연이 펼쳐졌다. 가수들의 축하공연과 연등회 노래, 모두가 하나 되는 강강수월래 등 사부대중은 꽃비 속에서 부처님 오심을 찬탄했다.

이날 오후 동국대 대운동장에서 개최된 어울림마당에는 1986년 성철 스님의 봉축법어인 '당신의 생일입니다' 를 랩으로 작곡한 청년율동곡이 행사장에 울려 퍼졌다. 40개 단체 1000여 명의 연희단은 노래에 맞춰 신명나는 율동을 선보였다. 또한 등 경연 시상식에서는 연등지혜상을 수상한 한마음선원 등 19개 사찰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1986년 성철 스님 봉축법어
청년율동곡 랩으로 재탄생
전통문화마당 청춘코너 신설
"희망과 용기의 물결 이루자"

이 자리에서 봉축위원장 자승 스님은 "우리는 선대의 공덕에 고마워하고 미래의 세대에게 보다 나은 세상을 안내할 책무를 지고 있다. 부끄럼 없이 당당히 걸어가겠다는 서원과 실천으로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어가고, 오늘을 밝히는 등불처럼 내 안을 밝히는 것을 시작으로 모두를 환하게 비춰야 한다"며 "마음에서 시작한 빛이 하나로 모여 밝은 거리를 더 넓게 열어가고 희망과 용기의 물결을 이뤄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곳, 우리가 보려 하지 않았던 곳까지 환하게 비추어 간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매일매일 걱정과 불안이 내 스스로의 욕심에서 생겨난 것임을 성찰하고, 오늘 우리가 신심으로 밝힌 찬란한 오색 연등을 향기롭게 어우러진 소중한 인연으로 다시 피어나게 하자"고 당부했다.

사부대중은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이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무명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는 이 세상은 수많은 이념 대립과 차별로 인해 갈등을 빚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상처받고 있다"면서 "몸과 마음, 입으로 저지른 모든 업장을 참회하오니 대자비를 베푸사 지혜의 눈을 열어주시고 희망의 등불을 밝혀주소서"라고 서원했다.

8일에는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서 전통문화마당이 펼쳐졌다. 올해 전통문화마당은 130여개 부스가 설치돼 행사장을 찾은 내외국인들에게 불교전통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신설해 처음 선보인 청춘마당에는 젊은이들을 위한 힐링아트 · 불교 애니메이터그룹의 불교카툰 · 연희단 체험 등이 마련돼 인기를 끌었다.

한편 부산불교연합회도 5월 7일 구덕운동장에서 부산연등회와 봉축연합대법회를 봉행했다. 수만 명의 시민이 참가한 제등행렬은 구덕운동장을 시작으로 동아대 부민캠퍼스를 돌아 대청로까지 이어졌다. 또한 송상현광장에는 용 · 공작 · 코끼리 · 탑 등 대형전통등 100여점이 전시돼 거리를 오색빛으로 물들였다.

특별취재팀


불기 2560년 연등회에서 한마음선원 연희단의 연등을 이용한 화려한 춤사위가 펼쳐지고 있다. '청춘과 소통' 을 주제로 펼쳐진 이번 연등회에서는 청년불자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5월 7일 동국대에서 열린 어울림마당에서 청년불자들이 신명나는 율동을 선보이고 있다.

'수월관음도' 보물된다
문화재청, 4건 지정예고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예고된 '고려 수월관음도'

고려시대 그려진 수월관음도가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5월 4일 '고려 수월관음보살도' 등 4건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또한 국보 제233호 '傳 산청 석남암사지 납석사리호' 의 지정명칭과 지정번호를 변경 예고했다.

보물로 지정예고된 문화재는 '고려 수월관음도' 를 비롯해 통일신라 사리장엄구의 기준이 되는 문화재인 '김천 갈항사지 동 · 서 삼층석탑 사리장엄구' 와 서울 청진동에서 2009년에 출토된 백자항아리와 조선 왕조 법률의 기본이 된 '대명률' 등 4건이다.

'고려 수월관음보살' 은 〈대방광불화엄경〉입법계품의 내용 중, 선재동자가 보타락가산에 머물고 있는 관음보살을 찾아가 깨달음을 구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보타락가산의 금강바위에 반가좌로 앉은 관음보살이 압도적인 크기로 묘사되었으며, 향 왼쪽 하단에는 무릎을 구부려 합장하며 보살도를 묻는 선재동자를 조그맣게 표현했다.

신성민 기자

4대종교, '자비 · 사랑' 원력 하나로
종교계자원봉사협의회 발족
정보 공유 · 네트워크 강화

4대 종교 봉사단체가 모여 협의체를 구축하고, 향후 국내외 재난구호활동에서 체계적 역할 분담을 실시한다. 또한 정보공유를 통한 네트워크 활성화, 올바른 자원봉사 가치 수호를 위해 합심할 예정이다.

5월 3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과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원불교봉공회, 한국교회봉사단은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종교계자원봉사협의회' (회장 손인웅, 이하 종봉협)를 출범했다. 초대회장은 손인웅 한국교회봉사단 이사장이 맡았으며, 1년 임기를 마친 후 4개 단체 대표가 차례로 회장을 역임하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 종봉협은 △종단별 자원봉사기관 네트워크 구축 △자비 · 사랑 · 은혜 등 올바른 자원봉사 가치 수호 △민간자원봉사기관으로서 바람직한 자원봉사 정책 제안 △재난현장에서 공동 협력 △자원봉사기관의 상생 및 역량 강화 등에 나선다.

또한 긴밀한 협력기반 구축을 위해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추진하는 한편, 종교계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시민사회와 연대를 모색한다. 이를 위해 종봉협은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와 업무협약, 또한 대한적십자사와는 '재난대응을 위한 협약' 을 체결했다.



종봉협은 출범식 2부 순서에서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보경 스님은 "예로부터 모든 종교적 성인들은 깨달은 후에 세상 속으로 돌아가 그 뜻을 펼쳤다. 이렇듯 사회 속에서 인간세의 행복에 기여하는 것이 종교 본연의 역할"이라며 "오늘 종봉협 출범이 재난현장에서 공동협력체계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인웅 종봉협 회장은 "사랑과 자비 정신의 봉사활동은 모든 인류를 하나로 묶는 힘이 있다. 이를 종교계 역량을 모아 함께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향후 110년 일류대학 도약 계기될 것"
동국대, 5월 6일 개교 110주년 기념식 개최

개교 110주년을 맞은 동국대가 세계 수준의 대학으로 발돋움할 것을 다짐했다.

동국대(총장 보광)는 5월 6일 서울캠퍼스 본관 중강당에서 개교1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사장 성타 스님, 총장 보광 스님, 주한인도대사 및 14개 해외자매대학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보광 스님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110년이 민족사학으로 자리매김한 영광스러운 역사였다면 앞으로 110년은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으로 한 번 더 재도약하는 역동적인 시간이 될 것"이라며 "여러 가지 어려움도 따르겠지만 교수, 직원, 학생 그리고 25만 동문, 1000만 불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합친다면 이 꿈은 반드시 현실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개교110주년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동국학술상 및 우수연구자상, 대학원 학술상, 자랑스러운 동국불자상과 함께 장기근속자와 우수 직원에 대한 공로상 시상이 함께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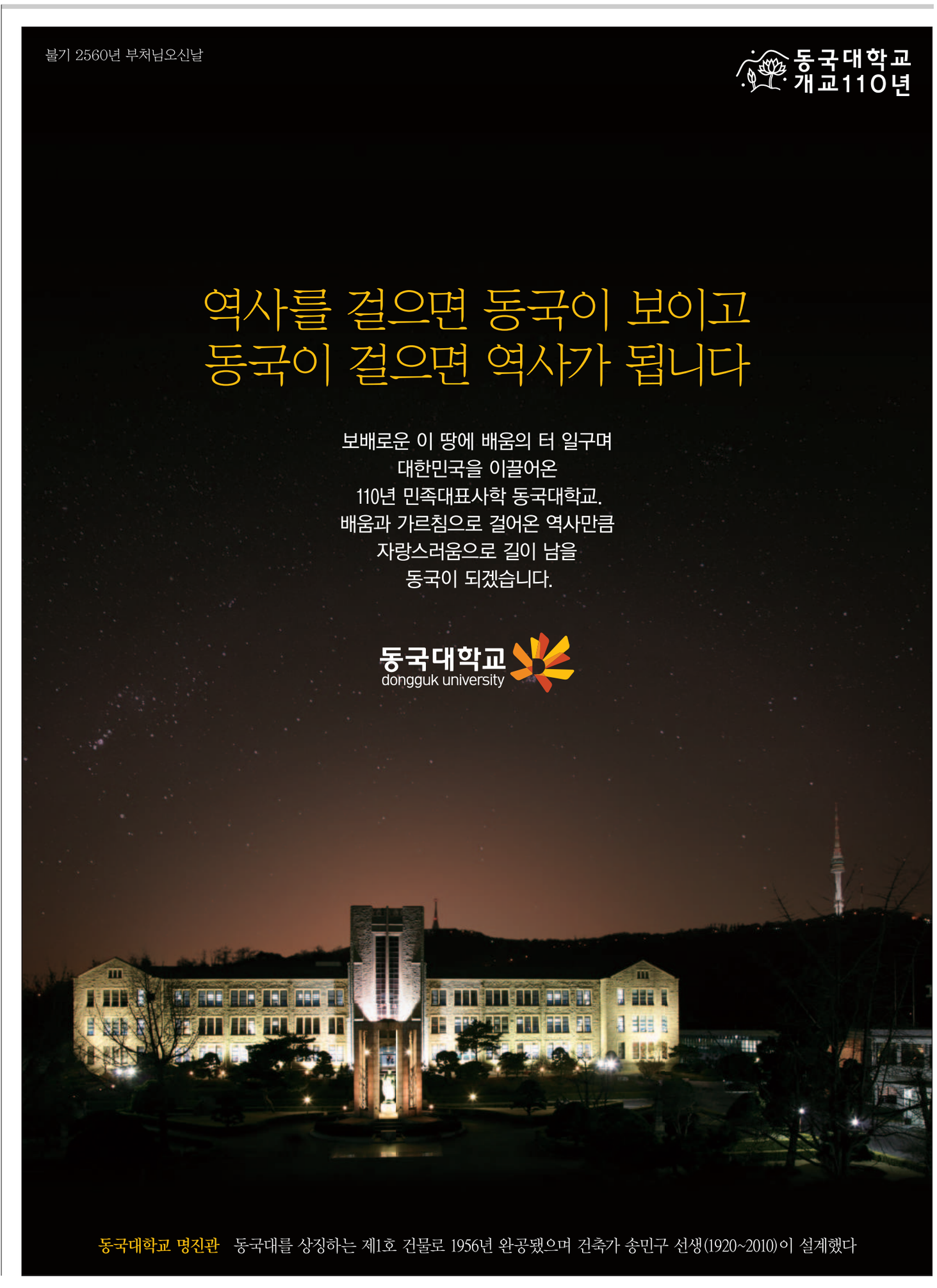
학술연구에 기여한 공로가 큰 교원들에게는 '동국 학술상' 이 수여됐다. 난치성 염증 및 중증천식 치료기술 개발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표창을 받은 약학과 이경 교수를 비롯해 연구부문 19명, 산학협력부문 20명 등 총 39명의 교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총장 보광 스님(오른쪽서 네 번째)과 동국학술상 수상자들이 함께 기념 촬영하고 있다.

우수 교원들의 연구업적을 격려하기 위한 '동국 우수연구자상' 에는 6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동국대는 직원 13명에게 공로상을, 교원 64명과 직원 17명 등 총 81명에게는 장기근속상(30년, 20년, 10년)을 수여하는 등 그동안 학교발전을 위해 노력한 구성원들을 격려했다. 자랑스러운 동국불자상에는 전자전기공학부 신재호 교수 등 2명이 선정됐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일 주 문



안양교도소 대중공양

현성 서울 도선사 조실 스님은 5월 11일 안양교도소에서 부처님오신날 맞이 수계식 및 대중공양을 펼쳤다.



탄허대종사 33주기 다례재

정념 평창 월정사 주지 스님은 5월 30일 오전 10시 30분 적광전에서 '탄허대종사 33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한다.



제14회 다맥전수 대법회

원정 하동 쌍계사 주지 스님은 5월 11일 경내 팔영루에서 '한국선다회 제14회 다맥전수 대법회'를 봉행한다.



신록愛 콘서트

토진 장성 백양사 주지 스님은 5월 1일 경내 쌍계루 앞 무대에서 '5월 신록愛 콘서트'를 개최했다.



100주년 원만성취 워크숍

전준호 (사)대한불교청년회장은 5월 28~29일 구미 죽장사에서 '100주년 사업 원만성취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삶의 '연꽃' 피우도록 교화 매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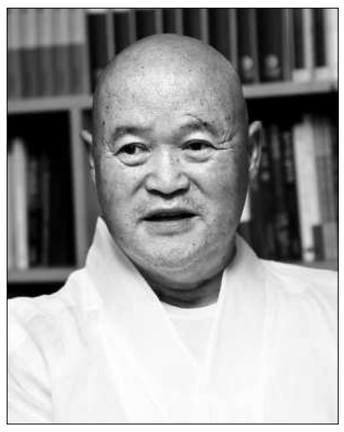
Interview

제34회 교정대상 자비상 수상 원주 성불원 주지 현각 스님

"한순간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들이지만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수행을 통해 바른 길로 나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불교를 만나 인생의 '연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교화사업의 목적입니다."

원주 성불원 주지 현각 스님〈사진〉이 제34회 교정대상 자비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1982년부터 원주교도소 교화위원 및 지도법사로 활동 중인 현각 스님은 매주 정기법회뿐만 아니라 매년 봉축 · 송년 · 수계법회 등을 실시, 재소자들의 안정적인 수형생활과 사회복귀 지원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현각 스님에게 교화사업은 생활 전반에서 우선순위로 삼을 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바로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때 도움을 주는 것은 아주 사소하더라도 인생을 좌우하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죄진 것이야 달게 받아야 하지만, 인간으로서 그들이 깊게



1982년부터 교화 활동 펼쳐

재소자들 사회복귀 적극 지원

"취약계층 위해 헌신하겠다"

뉘우친다면 그 절실함을 헤아려줘야 한다"는 스님의 평소 뜻에 따른 것이다.

현각 스님의 이러한 신념은 교화활동을 펼친 30년 동안 만난 '좋은 인연'으로 인해 더욱 굳어졌다. 현각 스님은 "20대부터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하다가 부처님 법을 만나 매일 108배를 하며 수행한 사람이 있었다. 출소 후에는 교도소에서 배운 기술로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새 인생을 살고 있다"며 "지금도 휴가 때마다 아기를 안고 한 번씩 찾아오곤 하는데 이것이 바로 좋은 인연 아니겠는가"라며 웃어보였다.

또한 스님은 교화사업과 같은 사회활동에 불교가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각 스님은 "불교에서 '깨달음의 사회화'라는 기틀을 내걸었다면 그만큼 종교가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종단 또는 교구본사 등 큰 사찰이 실시하는 포교는 기존 불자나 사찰 신도들만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것들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비불자가 불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끄는 포교활동이 궁극적인 불교발전을 가져올 것"이라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현각 스님은 향후 계획에 대해 "교정활동은 물론 다문화가정 · 새터민 · 저소득가정 등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꾸준히 일할 것"이라며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 것보다 꼭 필요한 것을 도와줄 수 있도록 내용면에서도 충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제1회 불교동화공모전 시상식

한마음국제문화원, 안양본원서 개최



한마음국제문화원이 주최하고 한마음선원이 후원하는 '2016년 제1회 불교동화 공모전' 시상식이 5월 1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열렸다.

시상식에서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스님은 수상자들에게 직접 시상하고 격려했으며, 행사를 주관한 국제불교문화원 팀장 청고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공모전의 의미를 소개했다.

노덕현 기자

보리수아래, '연꽃들의 노래' 공연

중앙승가대 학인스님 · 장애인불자 모여



장애인 불자들의 모임 '보리수 아래'는 5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제9회 보리수 아래 핀 연꽃들의 노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장애불자들의 시낭송과 음악연주, 장애불자 작사노래, 수화노래, 색소폰과 얼후 연주, 마임, 니르바나오케스트라 실내악, 해피합창단 공연 등이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서울 양천경찰서 법당 탱화 점안식

2009년 법당 개원 7년만의 경사

서울 양천경찰서 법당 후불탱화 점안식이 4월 28일 봉행됐다.

양천경찰서 법당 석가모니불 후불탱화 봉안은 지난 2009년 법당이 개원한지 7년만에 이뤄진 경사다. 이번 탱화 봉안은 지난해 11월 정기법회 당시 경승실장 성민 스님 발의로 회원들과 서부지역 포교봉사팀의 원력이 모아져 이뤄졌다.

이형세 양천경찰서장과 참석한 경찰 불자들은 여법한 후불탱화를 모셔준 스님과 불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환희심으로 더욱 더 국가와 사회의 안녕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경승실장 성민 스님은 "탱화를 모시는 형식도 중요하고 이를 내용으로 채워가는 것도 중요하다. 보시 · 지계 등 육바라밀 실천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양천경찰서 불자회는 매달 넷째주 목요일 정기법회를 통해 신심을 다지고 있다.

신성민 기자

"불교인 사회 책임실천운동 전개"

BBS, 개국 26주년 기념식… 새 비전 '선포'

BBS불교방송(사장 선상신)는 5월 2일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를 주제로 개국 26주년 기념식을 봉행했다.

BBS는 글로벌 미디어로의 도약과 불교사회인의 책임실천 운동으로 요약되는 새 비전을 선포했으며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불교방송을 후원하는 모임인 '만공회' 가입으로 화답했다. 선상신 BBS 사장은 "개국 26주년을 맞아 청년으로 성장한 BBS가 이제 그동안의 성원을 '불교사회인의 책임실천운동'으로 회향하겠다"며 "환경오염과 빈부격차, 테러 등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국제세미나와 포럼 등을 통해 불교적 해법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치사를 통해 "불교방송은 불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앞장서고, 고통과 집착으로 얼룩진 세상을 치유하겠다는 다짐으로 힘찬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25년 포교원력, 경찰병원서 꽃 피다

경찰병원 불교법당 25주년 기념법회

경찰병원 불교법당(경승실장 성범)은 5월 3일 서울 가락동 경찰병원 본관 로비에서 '불교법당 25주년 기념법회 및 봉축음악회'를 개최했다. 정다운 스님, 자용 스님, 성범 스님이 1991년 경승실을 개원한 이래 경찰병원 불교법당은 매년 입원환자들을 위해 봉축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경승실장 성범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평생을 불심으로 살던 분들이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포교 원력을 세운지 30여년이 됐다"며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다. 경찰병원에 부처님 가르침이 끊이지 않고 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계종 포교부장 무각 스님은 법어에서 "누군가 해야 할 일을 맡아 25년간 이끌어주신 경찰병원 법당측에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이어 경찰병원 불교법당 불자들은 병고로 고통 받는 환우들이 쾌차하길 기원하면서 십시일반 모은 성금 100만원을 병원원무과에 전달했다.

윤호섭 기자

대구불교총연합회, 달구벌연등회

두류공원 야구장서 법요식 봉행



대구불교총연합회(회장 효광)는 4월 30일 대구 두류공원 야구장에서 '달구벌연등회 법요식 및 연등행렬'을 개최했다.

달구벌관등놀이 봉행위원장 효광 스님은 "진흙 속에서 피는 연꽃이 흙탕물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종교와 이념을 떠나 선인들이 이룩한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며 서로 하나 되자"고 강조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문화체육관광부 법인 인가 종단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이사장·종정대행 석 도 선

승정원장 석벽봉 고 문 석암도 원로원장 석법령 종회의장 석혜령

원로위원 석종인 원로위원 석지관 원로위원 석대원 원로위원 석일장
원로위원 석혜암 원로위원 석화담 원로위원 석일우 원로위원 석무송

호법원장 석대원 의전원장 석의담 교육원장 석남산 포교원장 석보광
기획원장 석일두 총무원장 석도선 비구니회장 석혜담 연수원장 석대공
문화원장 석도명 사정원장 석법혜

법인이사 석체법 석일두 석성만 석성우 석경만 석현공 석청우 석문공 감 사 수선화. 성덕

창원중앙종무원장 석청강 영덕중앙종무원장 석지공 예천중앙종무원장 석명허
강릉중앙종무원장 석성만 성주중앙종무원장 석홍재 경기중앙종무원장 석재현
김천중앙종무원장 석경만 충북중앙종무원장 석선학 포항중앙종무원장 석체법
전북중앙종무원장 석덕진 광주중앙종무원장 석아도 충남중앙종무원장 석문공
안산중앙종무원장 석현공 제주중앙종무원장 석의공 인천중앙종무원장 석지일
경남중앙종무원장 석일지 풍기중앙종무원장 석일현 칠곡중앙종무원장 석혜천
속초중앙종무원장 석태성 울산중앙종무원장 석법운 부천중앙종무원장 석원해

총무부장 석도흥 교 육 부 장 석정허 사 회 부 장 석청암 호 법 부 장 석성보
포교부장 석도명 교 무 부 장 석보현 비구니부장 석용정 문 화 부 장 석도용
의전부장 석성담 중앙포교부장 석효성

문화국장 석민경 사 서 국 장 석성덕 사 서 특 보 석법수 기 획 국 장 석성각
사회국장 석원각 종 무 국 장 석보각 연 수 국 장 석함월 비구니국장 석지현
봉사국장 석성호 포 교 국 장 석성우

사단법인 생활불교조계종

이사장·총무원장 석 도 선

■ 종립미래로봉사회
회 장 학 산(이종길)
부회장 진불심(이순심)
총 무 대각심(김경숙)
임 원 혜명심(박현숙)
임 원 원명화(윤영아)
종립예술원 원장 묘 각(이재인)

■ 총무원포교국장
포교국장 석지명
포교국장 석법성
포교국장 석성운
포교국장 석혜공
포교국장 석태허
종립예술원 부원장 보연화(유희연)

■ 법사승단임원
경남원장 도혜 대구국장 혜련 울산원장 법광 재무국장 덕운 충남원장 보인
종무국장 혜명 경북원장 성호 국제국장 도원 포항원장 명성 부산국장 혜성
충북부장 상학 청도국장 지천 대전부장 정민 울산국장 상학 경기부장 덕산
포항국장 혜림 전남부장 혜명 구미국장 혜진 대구부장 성호 화순국장 보정
재무부장 자운 포교국장 청운

■ 각 종무원 국장
사업국장 석민허 연구국장 석경담 역경국장 석청허 홍보국장 석동운
복지국장 석용운 의식국장 석운담 교화국장 석지허 지도국장 석청도
관리국장 석지도 조직국장 석견성 조사국장 석담월 호계국장 석원호
규정국장 석성공 사정국장 석도운 감찰국장 석성도 재무국장 석노담
총무국장 석원경 의전국장 석운경

■ 법인운영이사
청강. 도명. 일현. 청암. 혜천. 의공. 법수. 성덕. 혜화. 학산. 법광. 자운. 혜림. 혜명. 이화진. 김원석. 김연우. 이혜경. 이미희

■ 총 본 산 : 경북 영양군 수비면 계2리 58-1번지 대표전화 054)682-5808 / 팩스 054)682-9848
■ 총 무 원 : 서울 서대문구 홍제 3동 279-26 2층 대표전화 02)3217-4611 / 팩스 031)963-1688

행복한 삶 원하면?… “힘들더라도 매일 참선하세요”

선지식에게 듣는다

무여 스님 축서사 문수선원장

무여 스님은 수행에 철저하다. 보통 선원이라면 하루에 대략 10시간씩 3개월간 안거에 든다. 하지만 무여 스님은 하루 15시간, 5개월간 안거로 유명한 경북 봉화 축서사 문수선원 선원장이다. 스님은 “화두선은 한국불교의 최고 자랑인 정신문화를 이끄는 보배”라며 “하루 한 시간씩만 마음을 내서 정진하면 갈등과 분쟁대신 평화와 행복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월 4일 축서사로 달려가 우리 중생들의 바램인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에 대해 무여 스님께 여쭈었다. 정리=김주일 기자



“‘나는 누구인가’라는 화두에 몰입하려면, 단전까지 깊숙한 숨을 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난 누구인가’를 생각하세요.”

“화두가 늘 있는 상태를 ‘순일’하다고 합니다. 그 정도 경지까지 가면 마음이 늘 고요하고 편안합니다. 그러면 얼굴만 봐도 달라지죠.”

▶무여스님은

1940년 경북 김천서 출생,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직장생활을 하던 중 ‘남의 집 머슴살이 같은’ 속세의 생활을 떨치고 오대산 상원사서 희섭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이후 상원사 동화사 송광사 해인사 관음사 망월사 등 전국의 제방 선원서 40여 년 동안 수선안거 했다.

1987년 이후 봉화 축서사에 주석중이다. 칠불사와 망월사 선원장을 역임하며 한국불교계의 대표적 선지식중 하나로 존경 받고 있다.

매 순간 마음의 평정과 고요를 찾는다면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 불행하다고 느끼는 순간, 괴롭다고 느끼는 순간, 화가 고개를 쳐드는 순간, 그 순간들마다 우리는 마음 속의 고요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못살겠다. 죽을 것만 같다’며 절박한 사람들도 얼굴이 절로 펴지고, 환한 웃음을 짓게 됩니다. 더 깊은 경계로 가면 행복을 노래하며 덩실덩실 춤을 출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닦기 위해선 어느 정도 고행이 필요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도나도 편하고 쉬운 것만 찾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얻어지는 것이 거의 없죠.”

참선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선(禪)은 인간이 행복하게 살고 삶에 보람과 긍지를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화두법이나 호흡법 등으로 선을 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우리 인간은 생각 하나하나가 모두 괴로움입니다. 선을 통해 잡스러운 생각을 버리고 마음을 고요히 할 수 있습니다. 가마솥에 물 끓듯 일어나는 잡념이 사라지며 마음의 평화를 느낍니다. 이럴때 온몸서 묘한 기분이 느껴집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열감이죠. 참선에 일생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는 느낌이 들고 재미가 생깁니다. 그러면 세상 만물이 즐겁게 보이지요.”

행복하려면 수행을 하라셨는데 수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며, 어떻게 화두를 드는지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이혼율이 가장 높은 반면 행복지수는 거의 꼴찌 수준이라고 합니다. 괴롭고 힘든 세상이지만 이럴수록 부처님 말씀을 되새겨야 합니다. 그 요지는 마음을 닦으라는 것이지요.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마음 닦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수행은 마음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오묘한 기분, 기쁘고 즐거운 기분을 느끼며 사는 것이 바로 수행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는 화두참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화두란 참선자가 일생동안 풀고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화두가 있는 사람은 자기 화두를 들고, 없는 사람은 ‘나는 누구인가’를 들면 됩니다. 요령은, 화두를 간절하게 정성껏 생각하고, 끊임없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의정이 일어나 화두에 ‘푹’ 빠지게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 모든 망상들이 전부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해 집니다. 내가 왜 어제까지 저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했을까 싶을 정도의 부처님 같은 얼굴로 우선 내 자신이 변합니다. 그러면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말 자체가 머릿속에서 없어지고 모든 것에 무심해 집니다.”

무심해진다는 것은 결국 마음이 커지고 넓어진다는 의미인가요?

“잡스런 마음이 사라진다는 뜻인데, 넓고 크다는 뜻과도 상통합니다. 무심한 경지에 오면 그 자체가 행복이 됩니다. 범인들은 돈, 명예, 권세에서 행복을 찾지만 그런 것들은 잠깐 일뿐이죠. 그 순간이 지나면 괴로움이 뒤따르죠. 그러나 마음 공부서 참 행복을 느끼면, 조금만 느껴도 두고두고 기억할 수 있는 행복이 됩니다. 삶 자체가 평화롭고, 기분 좋고, 살만하고 행복한, 즉 사람이 바라는 전부를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 불자들이 쉽게 행할 수 있는 호흡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화두가 잘 안되면 호흡에 의지해 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누구인가’라는 화두에 몰입하려 한다면, 단전까지 깊숙한 숨을 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난 누구인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근기가 약해서 잘 안 되는 사람일수록 호흡에 의지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연달아 호흡하고 내가 누군가를 되뇌면서 ‘의정’의 마음을 내면 됩니다. 호흡이 들어가는 각 부분을 관(觀)하면서 마음을 뒤야합니다. 호흡을 헤아리되 1에서 30까지, 30에서 1까지 숫자를 오르내리면서 호흡하세요.”

수행 하면 인간관계서 화가 없어진다고 했는데 직장 생활서 업무로 인해 마음 상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화두가 늘 달려있는 상태를 ‘순일’하다고 합니다. 그 정도 경지까지 가면 마음이 늘 고요하고 편안합니다. 그러면 얼굴만 봐도 달라집니다. 말과 행동 하나에서 수행하는 사람의 태가 납니다. 그렇게 되면 말이 함부로 나가 남을 야단치고, 욕하고, 괴로움을 일게 하는 일이 없게 되죠. 본인의 할 말을 다하더라도 편안한 상태로 말하게 되고 굳이 상대를 기분 좋게 하려는 의도 없이도 기분 좋게 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음해 한다면, 분한 마음이 일게 되는데 이것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남을 음해하고, 괴롭히는 사람에게 비슷한 행동으로 맞서면 같은 사람이 돼버립니다. 점잖고 존경스러운 모습을 잃지 않으면 상대방도 어쩔 수 없이 절로 고개를 숙이는 때가 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보다 더 점잖고, 훌륭한 모습을 보이면 근본적으로 꼼짝 못 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슷한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 받으면 그 상황을 면할 수 없지요.”

직장인들은 몇 시간씩 화두 수행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만 해도 많은 변화를 이끌 수 있을까요?

“아침 출근 전 10분~30분 정도 하면 좋고, 저녁에는 2시간까지 정기적으로 화두를 행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만약 남다르고 보람 있는 삶을 살려 한다면 그에 맞게 투자하고 애써야합니다. 처음에는 잘 안되더라도 닦다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남다른 사람으로 변모해 있을 것입니다. 수행은 매일 제대로 잘 안되고 괴롭더라도 꾸준히 노력한다면 저절로 자리가 잡힐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특히 기복적인 사람들의 기도는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닌가요?

“ ‘기도’의 본질에 엄격히 입각한다면 기복은 제대로 된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바라고 원하고, 간절함이 있는 데서 불심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애쓰다 보면 차츰 기도가 제자리를 잡아가고, 제대로 된 기도가 나오죠. 제대로 된 기도는 ‘폭’ 빠져 일체 잡생각이 없는 상태입니다. 오직 석가모니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명호 속에 빠지는 상태가 바로 진정한 기도입니다.”

결국 기도는 자신의 평화를 위한 것인가요?

“기도 목적의 출발은 ‘나’로부터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참으로 넓고 큰 것입니다. 그야말로 세계적이고 인류적인 것이죠. 출발은 나 자신이지만 결국 많은 사람을 위하는, 대승적 기도로 변하게 만듭니다. 종국에는 부처님의 자비정신, 보시정신을 발현하게 만들어 줍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고 보니, 가족에 대한 착(着)이 많이 생겨납니다. 특히 돌아가신 부모님을 향한 그리움에 괴롭기도 합니다만 이러한 착도 수행을 통해 해결할 수 있나요?

“수행을 하다보면 착의 마음,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비좁은 마음, 답답한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변하고 떨어져 나가 넓고 큰 사랑으로 변모합니다. 부모를 향한 착이 큰 마음으로 변해서, 부모세대의 노인들에게 큰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대자대비의 큰 마음을 내어 이웃들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게도 합니다. 착이 변화하는 바람직한 모습들이죠.”

부처님오신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불자들에게 들려줄 말이 있으시다면?

“부처님은 인류 최고의 스승이자 좋은 길잡이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자상하게 안내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생자부(四生慈父)라고 일컫지요. 불자님들은 부처님이 일생 동안 보여주신 많은 덕목들을 믿고 뒤따르며 실천하길 바랍니다.”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불교조계종

계율청정종단

■종 정

총무원장 : 혜인 사서실장 : 대산

율 원 장 : 혜일
중앙선원장 : 도일

방 장 : 대련, 혜경, 혜정, 일봉

의산장(경기도무형문화재) : 수원

■원 로 원 : 성민, 혜일, 혜정, 일봉, 혜경, 천불, 수원, 혜원, 지성, 춘담

▣총무원

부 원 장: 동안, 도불, 서봉금산
총무부장: 법산
재무부장: 혜만
교무부장: 혜일
사회부장: 정덕
문화부장: 지운
총무국장: 남산
재무국장: 정일
교무국장: 지성
사회국장: 법일
문화국장: 수옥
문화재관리국장: 진각

교육원장: 상산
교육부원장: 덕산
교육부장: 태산
교육국장: 진산

포교원장: 정산
포교부장: 법진
포교국장: 무량

기획원장: 혜타
기획실장: 대덕화

호계원장: 천불
호계부장: 태산
규정부장: 영암
규정국장: 지산
호법부장: 성산, 지호
호법국장: 법성

감찰원장: 정오
감찰부장: 백산지견
감찰1국장: 수산
감찰2국장: 금산
감찰3국장: 인산

비구니 회장: 지성
부장: 혜승
교수사: 덕산
총무: 금산
부회장: 혜산, 해원
재무: 도은, 정해
교무: 본각, 수정
교육: 법신, 성담
문화: 남산, 진화
포교: 보명, 홍산
강원: 각원, 현타
복지: 화광
감찰: 서호, 보현
불화: 혜담, 인산
의식: 련성, 지해

▣지방교구 종무원장

서울종무원장: 상산
경기종무원장: 도불
경기서부종무원장: 자명
경기남부종무원장: 해인
인천종무원장: 혜원
강원종무원장: 광덕
충북종무원장: 학산
충남종무원장: 혜덕
경남종무원장: 백산 지견
경남남부종무원장: 천산
경남서부종무원장: 지명
경남창원종무원장: 지원
경북종무원장: 덕운
부산종무원장: 서봉금산
부산북구종무원장: 수산
전남광주종무원장: 지각
전북종무원장: 법성
제주종무원장: 청호
울산종무원장: 법철
일본오사카종무원장: 인해
일본동경종무원장: 정대
미국뉴욕종무원장: 성산
중국남경종무원장: 해산

▣불교조계종 신문사

발행인: 혜인 편집인
편집기자: 권소라
사회부기자: 이근진, 유현석
문화부장: 태산
문화국장: 용산
사회국장: 법산
이사 : 혜원, 정산, 각원, 덕산, 금산, 해인, 정해, 지성, 보현, 법신, 도은, 수옥, 서호, 성화, 해월, 화광

▣총 림

서울총림 해인사
삼화총림 백화사
부산총림 흥국사
경남총림 백천사
강원총림 조주선관
충북총림 청룡사

▣사업부

총괄원장 : 이창훈
좋은상조: 김호철
H&G: 이영호
사업부 : 대덕화

▣전국신도회

남신도회장: 설주성
여신도회장: 김춘자
수석부회장: 윤근
신도회장단: 김생수
부산신도회장: 허민
강원신도회장: 김현재

▣청년신도회

회장: 손영진
홍보처장: 박영실
총무계장: 조일
기획실장: 심원일

▣종단법인

사단법인 불교조계종
학교법인 삼화학원
사단법인 천지무예도협회
사단법인 행복한사회
의료법인 효성
재단법인 가평그린공원
사회복지법인 정향
사회복지법인 인주
불교조계종 예술문화협회
사단법인 불교조계종 사회복지법인

◇ 학교법인 삼화학원 ◇

▣불교조계종대학림

학 장 : 혜일 부학장 : 일봉
교 수 : 해운, 월곡, 봉선, 혜정, 정산, 김수정, 김동균
조 교 : 손정, 최정화
운영이사 : 성산, 원명, 본각, 일현, 정현, 지각, 탄공, 해남, 법해, 청호, 현덕, 일행, 동명, 무진, 만공, 무공, 가산, 진법, 용산, 여연, 도원, 대각, 법신, 혜능, 대산, 지성

▣불교조계종대대학림

원 장 : 혜인
교 수 : 상산, 정수, 송암, 성민
운영이사 : 광운, 도의, 영봉, 성해, 성하, 지원, 혜법, 성공, 수원, 법우, 혜현, 지운, 지해, 도각, 동덕, 무량, 혜철, 정현, 철산, 덕산, 덕송, 진평, 동안, 진제, 연각, 성묵

▣중국남경중의약대학

총 장 : 오멘화 부 학 장 : 정오, 남산
한국총장 : 손혜인 중고등학교장 : 손영진
학생처장 : 손영진 조 교 : 심미, 유위, 손정 국제부교무과장 : 이안산
운영이사 : 법정, 혜담, 보현, 본각, 수옥, 향인, 수정, 현조, 금산, 지해, 지성, 원산, 해월, 성담, 화광, 진화

총무원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6길 8 (논현동2-14 2층)
총무국 (02)511-2026~7 / 팩스 (02)511-2028
종단사업부 : (02)549-1918

총무원장실 (02)511-1080
불교조계종신문 (02)511-2026~7
일간동국신문사 (02)511-1080

인터넷주소: 불교조계종.kr(www.shbuddhism.or.kr)
불교조계종신문: www.jogaejong.or.kr
불교조계종학림: www.njutcm.co.kr

남경중의약대학: www.njutcm.co.kr
E-mail 주소: samhwade@hanmail.net
samhwade@naver.com

佛紀 2560年 丙申年 | 전면광고

자비로운 마음 풍요로운 세상 | A6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 어떤 주인이 따로 있을까? 자기를 잘 다룰 때
얻기 힘든 주인을 얻은 것이다. (법구경)

한국불교태고종

종 정 혜 초

승정원 원장 남파
부원장 법 장

원로회의 의장 덕 화
수석부의장 지 족
차석부의장 금 용

중앙종회 의장 설 운
수석부의장 법 담
차석부의장 시 각

호법원 부원장 상 묵

총무원 원장 도 산
부원장 호 명
교육부원장 백 운
총무부장 도 안
교무부장 상 진
재경부장
문사부장 성 인
규정부장 도 법
홍보부장 자 우

종 도 일 동

■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 31(사간동 112)
전화 02)739-3450~4 팩스 02)739-3470

봉 부처님오신날 축

종정 김도용대종사

총무원

총	무	원	장	변	춘	광
총	무	부	장	김	월	도
교	무	부	장	방	경	혜
교	육	부	장	정	장	호
재	무	부	장	정	월	중
사	회	부	장	지	설	혜
규	정	부	장	이	갈	지

원로원

원로원장 전운덕
원로간사 주정산

종의회

종의회의장 이문덕
종의회부의장 김무원
김형구

감사원

감사원장 김용암
감사위원 엄행주

종정사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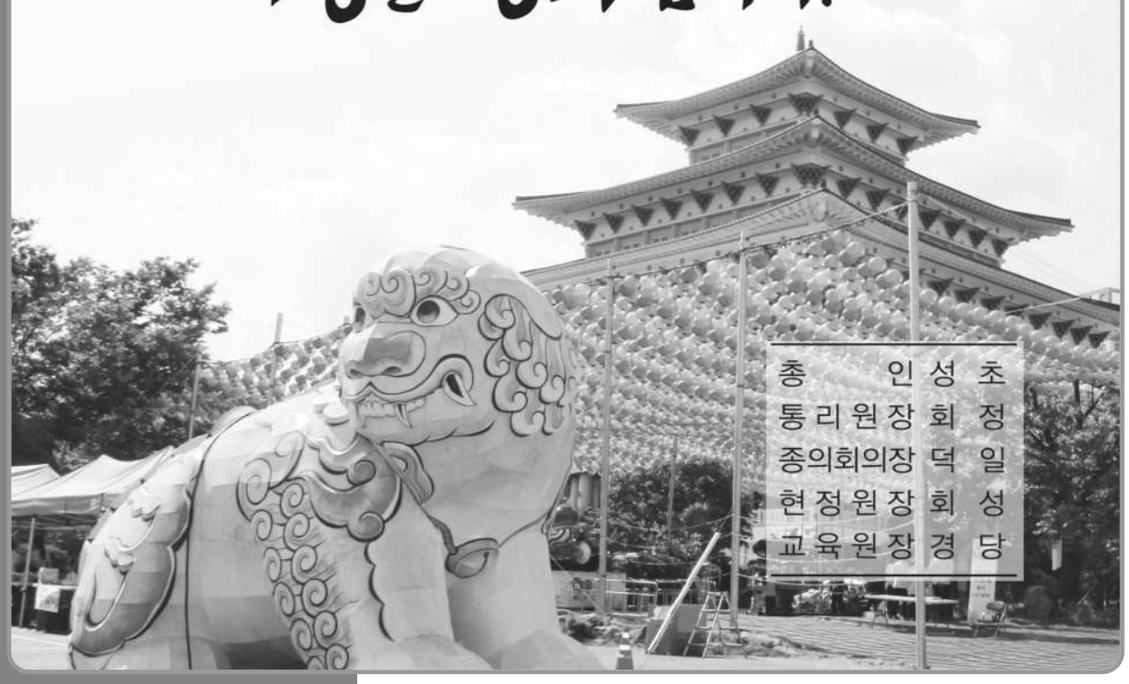
사서실장 박덕수

참의원장 김학송
금강대학교 총장 한광수

대한불교천태종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 73 구인사
전화(043)423-7100 / 전송(043)420-7399 / www.cheontae.org

대한불교 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마음의 등을 밝혀 세상을 정화합시다.



총 인 성 초
통리원장 회 정
종의회의장 덕 일
현정원장 회 성
교육원장 경 당

층기 45년
불기 2560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불교총지종

종령 효 강 대종사

통리원장 인 선

중앙종의회 의장	수 현	중앙교육원장	화 령
사감원장	법상인	동해중학교 이사장	인 선
총무부장	우 인	서울경인교구 교구장	법 경
재무부장	원 당	대구경북교구 교구장	안 성
교정부장	법 일	부산경남교구 교구장	정인화
사회부장	지 정	충청전라교구 교구장	지 정

중앙종의회 의원 | 법장원 | 총지종보 및 종보통신원
총지종 유지재단 | 밀교 연구소 | 각 교구 신정회 일동
전당건설 위원회 | (재) 사회복지재단 | 만다라요양원·바라밀지역아동센터·초록어린이집
통리원 임직원 | 각 사원 주교 및 스승 | 일원어린이집·포레스타7단지어린이집

불교총지종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5길 35(역삼동) | Tel. 02)552-1080~1083 | Fax. 02)552-1082 | www.chongji.or.kr

부처님의 탄신을 봉축드리며, 대한불교관음종은 화엄과 법화의 회통으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합니다.



대한불교관음종 사부대중 일동
서울 종로구 종로 63가길 31(숭인동) www.kwanum.kr T. 02-763-0054 F. 02-763-5851

(사) 대한불교 무량종

종 정 정혜안 사서실장 보인

원로원장 양 지 은

총무원장 보운 교육원장 보산 감찰원장 보광 포교원장 무공

중앙종회의장 법우 부 의 장 보상. 자운 사무총장 보성

고시위원장 현장 종책자문위원장 종성 선관위원장 보아

총무부장 보안 재무부장 보혜 교무부장 정운 사회부장 보련 호법부장 정목

총무국장 보림 재무국장 보심 교무국장 무진 사회국장 보정 포교국장 정심

■ 총 림 : 부산시 사하구 괴정 2동 314-7 은암천불정사 / 전화 051)292-4586
■ 총본산 : 경남 하동군 적량면 삼화실로 748-8 칠보정사 / 전화 055)883-7771. 7790

佛紀 2560年 丙申年 | 전면광고

자비로운 마음 풍요로운 세상 | A7

떳떳한 행동을 하라 나쁜 행동을 하지 말라. 진리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편히 잠든다. (법구경)

대한불교 원융종

圓融宗 四大綱領

圓融無碍 一O相 眞理體得 圓通融和 道義社會建設
圓滿融通 人格完成 圓融會通 理想世界實現

총무원장 **배 진 호**

종도일동

■ 총무원 : 서울시 구로구 구로 2동 704-39호
전 화 : 02)853-0531~2 / 팩스 02)853-0533
■ 총본산 : 원융사 전화02)853-0430~1 팩스 02)857-5094

大韓佛教 佛入宗

宗 正 勉哲

元老院長 正 觀
總務院長 鏡 岩

교육원장 **지 학** 종회의장 **법 진** 종회부의장 **상 운**

총무부장 **보 성** 역경부장 **혜 광** 재무부장 **묘 훈** 사회부장 **봉 산** 포교부장 **원 경**
법화사상연구소 소장 **혜 광** 법화불교 교육대학 학장 **혜 광**

■ 총본산 : 충북 제천시 봉양읍 옥전길 125 송화사 / 전화 043)653-4800 / 팩스 043)653-5858
■ 총무원 :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 30 안길4 / 전화 043)653-4848 / 팩스 043)642-6660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종 정 **석진 지공**
원로의장 **학산 혜천**
총무원장 **경원**

원 로 : **무찰. 봉암. 원각. 동봉. 덕봉. 혜성. 원각. 해월. 대륜**

재단이사회
고 문 **혜원**
명예이사장 **경원**
이 사 장 **일명**
부이사장 **경담**
상임이사 **혜광**
이 사 **법도화 자비행**
감 사 **혜천**

종회의장 **법성**
종회부의장 **고봉**
종회의원 **혜일 석경 도정 자림 지흘 혜등 보은 무착 일운**

교 육 원 장 **법해**
포 교 원 장 **현암**
감 사 원 장 **석성**
선거관리위원장 **지언**
총무부원장 **유정**
총 무 부 장 **승원**
교 무 부 장 **경담**
재 무 부 장 **일명**
홍 보 부 장 **해동**
총 무 국 장 **원공**
재 무 국 장 **덕운**

교구종무원장
강원동부 **보해**
경기남부 **대각**
경기북부 **도허**
경북교구 **법경**
경남교구 **승원**
대구교구 **고봉**
대전교구 **경담**
부산교구 **령산**
울산교구 **도현**
전북교구 **지명**
제주교구 **제법**
충남교구 **호암**

■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세검정로 6길 76-9,일붕선원 1층 / 전화 02)991-8175,8904
전송 02)991-8176 **www.ilbung.org**

(사) 대한불교대승종

원로원장 **동건 법경**
총무원장 **법인 운남**
종회의장 **법보 일봉**
감찰원장 **법운 성연**

연수원장 **법신 노정** 교육원장 **법기 무여**
포교원장 **법천 덕일** 기획실장 **법장 원해** 고시원장 **벽산 혜암**

서울종무원장 **심우** 경기동부종무원장 **혜암** 경기서부종무원장 **경심**
강원종무원장 **영명** 충청종무원장 **혜능** 전라종무원장 **덕운**
군산종무원장 **덕일** 경북종무원장 **탄영** 경남동부종무원장 **진공**
경남서부종무원장 **일봉**

총무부장 **진공** 사회부장 **진성** 호법부장 **진각** 교육부장 **무진**
재무부장 **성각** 연화부장 **정혜** 문화부장 **공덕** 교무부장 **원봉**

■ 총본산 : 서울시 중구 신당동 333-250번지 흥도사
■ 총무원 : 경남 창원시 회원구 양덕1동 산 30-4번지 천연암 / 전화 055)253-1074

(사)대한불교조동종

종 정 **덕담 심월**
총무원장 **덕우 대은**

부 종 정 **덕준 원봉**
승정원장 **행허 보경**

사부대중 일동

맑고 향기롭게!! 정토구현의 선도 교단!!
지계청정 지관쌍수 화합대중

원 융 교 단
대한불교 조계산문 무문총림
총본산 무문총림 영평사

증명대법주 **법 원** 대법주 **보 당**
부대법주 **정 림** 개산주 · 법인 이사장 **마 정**

사무총장 **석초오**
조계선림 제1본산 법주 **혜 조** 조계선림 제2본산 법주 **보 당**
조계선림 제3본산 법주 **법 인** 조동선림 본산 법주 **정 림**
임제선림 본산 법주 **원 돈** 정토선림 본산 법주 **법 천**
금오선원 원장 **석장현** 용봉학림 강주 **석혜조**
영산율원 율주 **석혜안** 행자교육원 원장 **석대허**
중앙불교대학원

■ 서울사무소 : 서울 중랑구 용마공원로5길 28-27 / 전 화 02)496-3952~3 FAX 02)496-3951
■ 총림 :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길 79-42 / 전 화 031)676-3960 FAX 031)676-2960

“청년들도 부처님께 반했어요!”

진홍사, 마하청춘법회 창단



취업 걱정, 스펙 쌓기 등 각박한 경쟁사회에서 여러 고민으로 지쳐가는 청춘들에게 쉼을 제공하고자 통도사 말사 진홍사(주지 정법)가 20 · 30대 청년들을 위한 법석을 마련했다.〈사진〉

진홍사는 4월 30일 송광정사 법당에서 13명의 청년들이 모인 가운데 ‘마하청춘법회’ 창단 법회를 봉행했다. 참석한 청년들은 그동안 불교를 접할 기회가 없었던 학생과 직장인들로 대부분 불교 입문자들이다.

앞으로 마하청춘법회는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5시 1부 법회, 2부 청춘의 시간이란 주제로 다채로운 활동을 펼친다. 법회에서는 예불 및 법문, 경전공부, 명상 그리고 108배 수행이 진행되며 2부에서는 불교문화 탐방, 불교교리 스터디, 사찰탐방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정기적인 봉사활동도 펼친다.

하성미 기자

혜암 대종사 탄신 97세 기도법회

혜암문도회 등 대중 200명 동참



대한불교조계종 제10대 종정 혜암 대종사 97세 탄신기도법회가 4월 28일 해인사 원당암 선불당에서 봉행됐다.〈사진〉 이날 혜암 스님 탄신 97세를 기리기 위해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과 혜암문도회장 성법 스님, 대중스님과 재가불자 200여 명이 동참했다.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은 “원당암 선불당은 어려움 속에서도 불사를 회향하신 큰스님의 유지를 받든 곳이다. 청정한 선방에서 문도스님들과 재가신도들은 더욱 열심히 수행정진하는 것이 자기 성찰과 불교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도회장 성법 스님은 “법신은 오고 감이 없으니 매사에 말을 아껴 침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큰스님의 과거생, 현생의 인연으로 수행정진해 부처님의 가피을 얻고 성불의 길을 걷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혜암 대종사는 1946년 해인사 인곡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해인총림 방장과 조계종 제10대 종정을 역임했다. 평소 ‘공부하다 죽어라’는 가르침으로 후학들에게 수행정진을 당부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한국불교대학 감포도량 ‘보은전’ 낙성

지상 3층, 면적 1200㎡ 규모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는 회주 우학 스님의 천일 문무관 결사를 기념해 5월 1일 감포도량에 사부대중 1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보은전과 공덕대탑 낙성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감포도량에 낙성한 보은전은 지상 3층, 총 면적 1200㎡ 규모다. 대중법회를 열 수 있는 1층 무일법당은 스리랑카 정부가 기증한 부처님 진신사리가 안치돼 있다. 사경명상에 사용될 2층 공덕법당은 비취로 만든 관세음보살이 봉안돼 있고, 3층 선재법당은 차실과 요사채로 꾸며져 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은 “육조 혜능 스님이 열반하셨던 도량 국은사에서 부모님을 생각해 세운 보은탑을 보고 보은전 또는 보은탑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또 “보은전 불사를 시작으로 감포도량을 불자가 아니더라도 마음을 치유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현대인들의 힐링공간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한국불교대학 감포도량을 산과 바다를 아우르는 ‘세계명상센터’ 도량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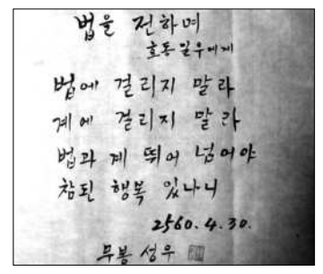
“法 · 戒 얽매임 없는 참된 수행자 되라”

성관음사 일우 스님, 성우 스님에게 율맥 전수받아



대구 성관음사 주지 일우 스님이 4월 30일 열린 전등율맥 전수식에서 조계종 전계대화상 성우 스님에게 삼보륜이 새겨진 불자를 전법의 증표로 받고 있다.





일우 스님이 성우 스님에게 받은 전법게. 한글과 한문이 따로 적혀져 있다.

한국불교의 전통 율맥이 전수됐다. 지계제일 우바리존자와 같은 또 한 명의 ‘율사(律師)’가 탄생한 것이다.

대구 성관음사 주지 일우 스님은 4월 30일 조계종 전계대화상 성우 스님(BTN불교TV 회장)에게 율맥을 전수받았다. 율사 자운 스님의 계맥이 성우 스님을 통해 일우 스님에게 전달된 것이다. 특히 종단을 넘어선 전법 인가는 드문 사례라 더욱 눈길을 끌었다.

부처님의 계법을 이어 해동 율맥의 자장 율사로부터 이어오던 율맥은 조선 후기로 와서 용성, 한암 스님에게 이어졌다. 현대에는 자운 스님이 율맥을 다시 중흥시켰고, 이 율맥은 종수 · 일타 · 지관 · 성우 · 철우 스님에게 이어졌다. 일우 스님은 자운 스님의 율맥을 계승한 성우 스님의 12번째 전법 제자가 된 것이다.

일우 스님은 영남의 대강백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의룡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6년 강맥을 전수받았다. 율사 성우 스님과는 BTN에서 ‘법화정법 법화신행 법화행자 시리즈 강의’를 하며 인연을 맺었다. 텍스트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불교를 강의하는 일우 스님에 대해 성우 스님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이윽고 자신의 계맥을 전수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날 율맥 전수식에서 성우 스님은 자신의 전법 제자에 대한 애정이 그대로 드러났다. 계맥을 전수한다는 계첩과 더불어 전법게를 한문 · 한글로 나눠 써서 전달했다. 또한 전계의 징표로 25조 가사와 삼보륜이 새겨진 불자, 죽비, 60권에 달하는 〈사분율〉을 내렸다.

성우 스님은 전법게를 통해 “법에 걸리지도 말라. 계에 걸리지도 말라. 법과 계를 뛰어넘어야 참된 행복이 있다”고 설했다.

종단 넘어선 전법은 드문 사례
성우 스님 12번째 전법제자로
한국불교 전통율맥 계승 ‘눈길’
“바른불교 전하는 데 노력할 것”

이어 “전법게와 계첩과 더불어 죽비를 함께 전달한 것은 끊임없이 정진하고 스스로를 경책하기를 당부하는 의미”라면서 “수행자는 마지막까지 성성적적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우 스님에게 율맥을 전수 받아 ‘경 · 율 · 논’에 대한 모든 인가를 받은 일우 스님은 “모든 것에 걸림 없이 살아가라는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정진하겠다”면서 “대중들에게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널리 전해 부처님께 바로 귀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전수식 이후에는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됐다. 이날 보살계를 수지한 대중은 오계를 지키며 청정한 부처님의 제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성관음사 대중들은 발원문을 통해 “가족 모두 부처님 가르침을 항상 배우고 자비행을 실천할 것”이라고 서원했다.

대구=신성민 기자

칠곡 조운사, 불상 점안 및 낙성식 봉행

성보전에 불사리 및 아라한사리 10만과 봉안



칠곡 조운사는 4월 16일 삼존불을 비롯한 불상을 점안하고, 낙성식을 봉행했다.

경북 칠곡 조운사(주지 월우)는 4월 16일 삼존불,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후불탱화 점안 및 법당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스님, 원로의원의장 보운 스님, 태고종 대구경북교구 종무원장 관정 스님 등 사부대중 400여 명이 동참했다.

1부 점안식은 칠곡 삼명사 합창단의 집회가로 시작됐다. 명진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이 집전을 맡았으며, 증명단으로 삼화상을 청하고 바라작법, 불사리, 고승사리 이운 등으로 점안의식을 장엄했다.

이에 따라 1층 성보전에는 불사리 및 아라한사리 10만과를 모셨으며 한국 고불전과 티벳, 몽골 등 여러 나라의 불전들이 전시돼 있다. 2부 낙성법회는 김경구 조운사 사무장의 경과보고와 합창단의 축가 및 축하무 등이 이뤄졌다.

이날 조운사 주지 월우 스님은 오랫동안 불사에 동참해준 사부대중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스님은 “불사를 위해 3년간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불자님들께 거듭 감사드린다”며 “대작불사 회향을 시작으로 새롭게 불법(佛法)을 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혜인심 신도회장은 “청정도량에서 자비심을 내어 부처님 법을 따라 수행정진에 게으름 피우지 않고 더욱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말했다.

태고종 대구경북교구 종무원장 관정 스님은 “지혜 있는 스승을 만난 귀중한 끈을 놓지 말고 인연의 소중함을 알아 정진해 사부대중 모두 구경열반의 길을 찾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스님은 “부처님을 모시는 공덕은 한량없는 환희와 기쁨이 충만하니 번뇌망상들을 훌훌 떨쳐버리고, 밝고 맑은 마음으로 열심히 수행정진해 불국정토를 장엄하길 바란다”고 법문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부산 송광정사, 이전 및 불상 이운

부산 송광정사(주지 진각)는 5월 2일 연수로225번길15로 이전한 새 법당에서 ‘도량 이전 및 부처님 이운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주지 진각 스님, 연제구불교연합회 회원스님들과 김해영 연제구국회의원 당선자 및 박진호 동국대 부산동창회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주지 진각 스님은 “새 법당에 자리를 옮긴 것은 어렵게만 느껴지는 불교를 융합불교문화 시대에 부응하도록 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라는 뜻으로 생각된다”며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는 근묵자흑의 의미처럼 오늘 부처님을 가까이하고 그 가피를 입어 행복하시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송광정사 새 도량은 대지면적 82평의 3층 건물이다. 진각 스님은 현재 교육포교에 앞장서 무료로 운영하는 토요 스쿨 프로그램을 열어 학생들에게 한자를 가르치고 있다.

하성미 기자

법인설립허가번호 : 제2012-43호

Buddha's Birthday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합니다

특허청 업무표장특허등록 제 42-0005657호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종정 경담 장각성 / 원로공동의장 금산. 일봉 성해 / 원로의원 도일. 무착. 보인. 원오. 지족. 도현. 지훈. 정일. 정공

■ 총무원

총무원장 장운 운산
총무부행정최고위원 천무
감찰부행정최고위원 운봉
문화부행정최고위원 락현
재무부행정최고위원 덕산
기획부행정최고위원 진허
교육부행정최고위원 월성

■ 지역최고위원

서울특별시최고위원 행산
부산광역시최고위원 월산
울산광역시최고위원 보하
대전,충남,세종특별자치시최고위원 해인
강원도최고위원 법조
경상남도최고위원 보각
경상북도최고위원 월산
전라남도최고위원 현진
전라북도최고위원 혜원
충청북도최고위원 해인

■ 특별위원회

종단종책최고위원 무산.무성
법계고시품수최고위원 각원.도천
사회복지재단최고위원 초연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연합회 THE CORPORATION KOREA BUDDHIST ASSOCIATION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 복지재단 SOCIAL WELFARE CORPORATION W.F.B. W.F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족종교종연합회 A CORPORATION TRADITIONAL KOREA NATIONAL RELIGIOUS ASSOCIATION
종교세계신문사 THE RELIGIOUS WORLD NEWS
巫敎新聞 THE KOREA SHAMANISM NEWS

■ 법사단

총재 운산
중앙단장 태을
중앙부단장 일주
서울특별시 법사단장 도광
부산광역시 법사단장 능혜
인천광역시 법사단장 해공
대전광역시 법사단장 명호
울산광역시 법사단장 법광명
광주광역시 법사단장 원광
강원도 법사단장 보경
경기도 법사단장 노사나
경상북도 법사단장 청일
경상남도 법사단장 보륜
전라북도 법사단장 보현
전라남도 법사단장 영산
충청남도 법사단장 혜연
충청북도 법사단장 상룡

※ 전국최고위원 및 특별위원 상시 모집 / 사회복지, 장애복지, 의료재단 지부 모집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 JOGYE ORDER KOREA BUDDHISM &CORPORATION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81, 909호(수송동 두산위브파빌리온) TEL 02)2198-5022~4 FAX 02)2198-5025 http://jogyejong.or.kr / kntga.or.kr E-mail:jonggyo119@hanmail.net

총본산 :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총본산 신해사

경남 사천시 곤명면 경서대로 2821-46 TEL : 055)855-1772 FAX : 055)855-0247

천진불 웃음소리로 즐거워진 사찰

전북 · 전남 · 강원 지역 사찰, 어린이날 행사 '다채'

미술 잔치 · 인형극 등 프로그램 마련
"사찰, 어린이들 교육 공간으로 활용"
아이 · 부모가 함께하는 수계법회도
월정사 '선재길 걷기' 2천여 명 몰려


선운사가 5월 4일 개최한 '제1회 선운 아동미술 큰 잔치'에는 380여 명 아이들이 함께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5월 1일 동원사가 개최한 '영 · 유아 어린이 수계산림' 법회에서 어린이가 계를 받고 있다.

어린이날, 고즈넉한 산사가 모처럼 천진불들의 웃음소리로 떠들썩해졌다.

선운사(주지 경우)가 위탁 운영하는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김명준)는 5월 4일 '제1회 선운 아동미술 큰 잔치'를 개최했다.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선운사가 처음 실시한 이번 행사에는 고창어린이집 등 11개 기관 380명 유치부 어린이들이 참가해 '사랑을 그려요, 행복을 색칠해요' 주제로 그림 실력을 뽐냈다.

이밖에도 도량곳곳에서는 합장주 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등 체험행사가 진행됐다. 특히 만세루에선 인형극 공연이 열려 어린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스님과 김밥을 나눠먹고, 도량을 운동장 삼아 뛰노는 아이들 덕분에 산사에 활기가 넘쳤다.

이날 그림그리기 대회 대상은 아이캔 어린이집 이다운(5) 어린이가 차지했다. 이밖에도 20명 어린이들이 선운상 · 맑음상 · 밝음상을 수상했으며, 선운사는 참가자 전원에게 크레파스 등 그림그리기 도구를 선물했다.

김명준 센터장은 "선생님들은 사찰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아이들은 사찰이 근엄하고 엄숙하단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선운사 연수국장 자운 스님은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고, 불교에 자연스럽게 다가가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절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 육아지원센터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아빠하고 나하고' 사진 공모전을 이달 말까지 공모한다.

동원사(주지 지장)는 지난 5월 1일 대웅전에서 '제3회 영 · 유아 어린이 수계산림'을 개최했다. 빛고을관등회 봉축 공모사업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수계산림에서는 광주지역 영 · 유아 및 어린이 50여 명과 부모님들이 함께 계를 받고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

특히 참가자들은 법사 스님들과의 가족촬영, 마정수기, 수계첩 증정, 108염주 전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수계의 참 의미를 깨달았다.

전계아사리 지각 스님(동원사 회주)은 "부처님 계율을 따르는 것은 올바른 삶을 살아가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이라며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오늘 이 계율에 따른 생활습관을 잘 교육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교수 아사리 연광 스님(광주불교연합회장)은 "수계는 공덕을 쌓고 복덕을 증장하는 것이다. 공덕과 복덕이 쌓이면 가정과 이웃에게 나누는 것이 바로 '지혜'"라며 "부모가 모범이 돼야한다. 부모의 모범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사)동연 광주지부(지부장 도제)는 5월 1일 광주여대 체육관에서 '제9회 연꽃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날 300여 명 아이들이 글짓기 · 그림그리기 · 장기자랑 등에 참여했으며, 상장과 상품은 △조계종 어린이청소년위원장상 △전라도 · 광주시 교육감상 △광주광역시장상, 전라남도지사상 등이 마련됐다.

도제 스님은 인사말에서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표현하는 것은 성장기에 매우 중요하다. 오늘 열린 연꽃문화제가 아이들 마음에 작은 불성의 씨앗을 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정광학원 이사장 원일 스님, 광주불교연합회장 연광스님, 김동철 국회의원, 장만채 전남교육감,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 등이 참여했다.

월정사(주지 정념)는 5월 5일 '제13회 오대산 천년 숲 선재길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연희패 '해랑'의 식전 풍물공연, 개막식에 이어 본격적인 선재길 걷기가 진행됐다.

2000여 명 참가자들은 오대산장부터 상원사까지 10km 구간을 걸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봉축점등, 광주 곳곳 밝히다

광주불교연합회 등 부처님오신날 점등식 개최


광주불교연합회는 지난 4월 30일 아시아문화전당 앞마당서 '불국사 석가탑(국보 21호)등'을 점등했다.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기 위한 봉축탑등이 광주지역 곳곳에서 불을 밝혔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는 지난 4월 30일 아시아문화전당 앞마당서 '불국사 석가탑(국보 21호)등'을 점등하고, 봉축 '빛고을관등회'를 개최했다. 봉축탑은 한지 등을 사용해 석가탑 높이 18m 크기를 재현했으며, 5월 16일까지 광주를 밝힐 예정이다.

수석부회장 명신 스님은 "빛고을관등회는 광주전남 불자들이 다함께 만드는 전통문화축제다. 특히 이곳 아시아문화전당은 5.18민중항쟁의 역사적인 장소이자, 아시아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해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만들어가는 곳"이라며 "오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불교와 지역의 전통적인 요소들이 함께 어우러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축사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이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에 늘 희망과 격려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점등식에는 연광 스님, 태고종광주전남종무원장 호산 스님, 원효사 주지 현지 스님을 비롯해 스님 50여 명과 이범식 광주불교연합회신도회장, 장휘국 교육감, 김성환 동구청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전남 구례사암연합회(회장 영관)도 4월 29일 구례경찰서로터리에서 점등식을 개최했다. 400여 명 사부대중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법요식, 축하공연, 점등식, 탑돌이 등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가수 주권기의 축하 공연과 어린이회 율동, 국악공연 등도 펼쳐져 광주 시민들의 즐거움은 배가 됐다.

영관 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의 참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부처님의 지혜와 복덕이 구례군민과 불자들에게 늘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순창 지역서 봉축법요식 첫 봉행

4월 30일 '순창 문화의 집'서… 100여 명 참석


순창 불교사암연합회는 4월 30일 순창 문화의집에서 봉축법요식을 봉행했다.

비교적 불교세가 약한 것으로 알려진 순창 지역에서 최초로 봉축법요식이 열렸다. 순창 불교사암연합회(회장 청암)는 4월 30일 순창 문화의집서 봉축법요식을 봉행했다. 이날 자리에는 재모암 주지 동산 스님, 강천사 주지 종고 스님, 황숙주 순창군수, 이용호 국회의원 당선자 등 100여명이 동참했으며, 삼귀의 · 반야심경 · 관불의식 · 법어 · 발원문 낭독 등이 진행됐다.

청암 스님은 "순창에서 봉행되는 첫 봉축법요식"이라며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정진하는 불자들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강천사 주지 종고 스님은 "불자들 마음마다 지혜의 등 · 축복의 등 · 나눔의 등을 밝혀 온 세상에 부처님 자비광명이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종혜 스님 9번째 개인展 열려

4월 29일~5월 16일 강천사서
그림 24점 · 소품 24점 전시


순창 강천사는 4월 29일~5월 16일 '종혜 스님의 9번째 개인전'을 개최한다.

순창 강천사(주지 종고)가 4월 29일~5월 16일 '종혜 스님의 9번째 개인전'을 개최한다. 이번 미술전에서는 종혜 스님이 강천산을 비롯해 치악산, 무등산, 설악산, 백양사 등 전국 산하의 아름다운 사찰들을 다니며 그린 100호 크기 그림 24점과 소품 24점이 전시된다.

주지 종고 스님은 29일 열린 개막식에서 "문화예술의 고장, 순창의 예술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강천사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황숙주 군수는 "스님께서 미술작가라는 사실이 놀랍다. 전시 작품 또한 매우 훌륭해 강천사를 찾는 많은 탐방객들이 좋아할 것"이라 말했다.

종혜 스님은 "미력하게나마 순창군에서 추진하는 문화융성사업에 동참하는 한편, 강천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주고 싶었다" 며 "불자들과 등산객들에게 마음의 여유를 찾아줄 수 있도록 작품 활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종혜 스님은 전남사대 미술학과를 졸업해 대한민국미술대전, 광주비엔날레 엑스포전, 아시아 인터네셔널전, 방콕 폴란드 미술전 등 다수의 미술전에서 수상한 바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어버이 가슴에 카네이션을

고창군사회복지시설, 5월 4일 어버이날 행사


고창군사회복지시설은 5월 4일 어르신 300여 명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

고창군사회복지시설(관장 대원)은 5월 4일 어버이날 행사를 개최했다. '어버이 은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란 표어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고창군사회복지시설은 어르신 300여 명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

또한 이날 참석자들에게 무료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한편, 이미용봉사 · 발마사지 · 네일아트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고창보건소에서도 의료봉사를 지원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관장 대원 스님은 "가족을 위해 헌신적 사랑을 베풀어 오신 어버이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우리 복지관 직원들은 자식된 입장에서 어르신을 모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석가탄신일을 맞이하여

대한불교전통조계종

본 종은 釋迦世尊의 自覺覺他 覺行圓滿한 根本敎理를 奉體하며 直指人心 見性成佛 傳法度生을 종지로 하고 있으며
釋迦牟尼佛을 敎祖로 太古普愚國師를 宗祖로 하여 韓國佛敎中興祖 鏡虛禪師로 부터 法脈을 이어받은
滿空禪師, 飽山禪師, 牛角道一禪師의 傳法을 傳受하여 宗旨宗風을 세운 傳統宗團입니다.

종 정 : 혜강당 석능인대종사

원로최고의원 : 도일. 각암. 지산
원 로 의 원 : 보각. 돈오. 덕암. 지원

원로의장 : 범아 / 종회의장 : 법장 / 총무원장 : 대웅 / 중앙연수원장 : 동담
사정원장 : 귀천 / 승정원장 : 덕암 / 법계고시위원장 : 혜암 / 중앙선원장 : 혜광
승가대학장 : 도안 / 교육원장 : 무아 / 포교원장 : 효천 / 율원원장 : 두현
호계원장 : 용진 / 염불원장 : 상호 / 문화원장 : 보관 / 문도회장 : 혜천

총무부장 : 지관 / 재무부장 : 수연 / 교육부장 : 응수 / 호법부장 : 혜관
사회부장 : 지혜 / 규정부장 : 혜중 / 비구니부장 : 보현 / 문화부장 : 연제
사서실장 : 성도 / 문도총무 : 청아

경기교구종무원장 : 금조 / 인천교구종무원장 : 진각 / 경남교구종무원장 : 무척 / 충북교구종무원장 : 길상 / 충남교구종무원장 : 지원
대구교구종무원장 : 법천 / 경북교구종무원장 : 홍신 / 부산교구종무원장 : 심공 / 울산교구종무원장 : 무정 / 총본산행자교육원장 : 성도

종도 모집중입니다.
현 종 도 425명
등록사찰수 412개 사찰

총본산 |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로5길 197번지 각황사 ☎ 053)325-0400. 010-7283-0089. 팩스 053)325-4848

佛紀 2560年 丙申年 | 전면광고

자비로운 마음 풍요로운 세상 | A10

깨달음을 얻어 깊이 생각하고 명상에 전념하는 지혜로운 이는
이 세상에서 떠나 고요를 즐긴다. 신들도 그를 부러워한다. (법구경)

(사) 대한불교 종단총연합회

법인이사장 **의륜 서주범**
신 임 회 장 **회암 정영춘**

수석부회장 **법장. 정일**
상임부회장 **지일**
사 무 총 장 **산수**

외 193개 종단회원 일동

(재)한국근본 불교조계종

법인이사장 **의륜 서주범**
종 정

행정원장 **산수 윤용균**

외 780여 사찰 주지 일동

■ 연합회 및 종단 사무처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설악로 2073-134 불탑사 내
전화 033)671-7751~3 팩스 033)671-7754
사무총장 겸 행정원장 010-3300-0408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본회는 1995년 창립 사단법인으로써 한국불교는 물론 세계불교 발전을 위하여 종단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면서 회원 종단 행사는 물론 애경사시 종정스님 전원이 동참하여 법석을 장엄하게 하며 화환 및 조화를 모두 보내주시고 특히 회원 종정)열반시 100만원 상당의 위로금과 회원(종정) 전원이 동참하여 조화를 모두 보내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 미가입 종단 종정스님께서는 필히 입회 하시여 본회에서 주어지는 각종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문 : 석인왕 대종사 (재)한국불교 여래종 종정
석무찰 대종사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3세 종정

원로의원 : 석정암 대종사 (사)한국불교 조계종 종정
석혜지 대종사 (사)대한불교 해인종 종정
석법광 대종사 세계불교 법륜종 종정
석석봉 대종사 대승불교 삼론종 종정
석혜봉 대종사 (사)대한불교 해동종 종정
석혜우 대종사 일광 조계종 종정
석덕산 대종사 대한불교 천지종 종정
석혜경 대종사 한국불교아함종 종정

사무총장 : 이붕 서병열 일붕신문사 발행인
기획실장 : 건진 전성배
사 무 장 : 상광 배영희
업부부장 : 보리 서숙희

회 장 : 석대응 대종사 선불교 조계종 종정
이사장 : 석월인 대종사 (사)대한불교 승가종 종정
명예이사장 : 석지산 대종사 (사)한국불교 정토종 종정

수석부회장 : 석청운 대종사 (사)대한불교 원각 조계종 종정
부회장 : 석룡담 대종사 대한선불교 조계종 종정

이 사 : 석영월 대종사 대한불교 법사종 종정
이 사 : 석진공 대종사 대한불교 광명 조계종 종정
이 사 : 석법흥 대종사 (재)세계불교 미륵대종 종정
이 사 : 석지공 대종사 (재)대한불교 일붕 선교종 종정
이 사 : 석강암 대종사 한국불교 임제종 종정
이 사 : 석혜륜 대종사 (사)호국불교 조계종 종정
이 사 : 석현불 대종사 우리불교 조계종 종정
이 사 : 석만청 대종사 (사)대한불교 대각종 종정
이 사 : 석법운 대종사 (사)대한불교 선교종 종정
이 사 : 석보덕 대종사 우주불교 법안 명상종 종정
이 사 : 석호암 대종사 대한불교 총 원효종 종정
이 사 : 석법혜 대종사 대한불교 금강 조계종 종정
이 사 : 석해월 대종사 대한불교 백두중 종정
이 사 : 석도우 대종사 대한불교 반야선종 종정
이 사 : 석연봉 대종사 대한불교 성덕종 종정
이 사 : 석정일 대종사 근본 해동종 종정
이 사 : 석혜승 대종사 대선불교 조계종 종정

대전회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동부상가맨션2층 216-1호 전화 : 042)285-1227
사무처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1 혜명빌딩 6층전관 전화 : 02)756-1227 팩스 : 774-1487 홈페이지 : www.jongjeong.com

대한불교 삼론종

종 정 **혜승**
부 종 정 **인 봉**

승 정 **혜공, 향운, 은곡, 진봉, 지운, 지심, 명산, 명재, 해불**

총무원장 **지민** 종회의장 **지경**
종회부의장 **해산**
총무부원장 **혜관**
총무부장 **성우** 교무부장 **정현**
재무부장 **중화** 규정부장 **혜륜** 사회부장 **불암**

사정원장 **명산** 사정부원장 **정산**
포교원장 **명재** 포교부원장 **보명**
문화원장 **지향** 문화부원장 **지학**
수선원장 **지화** 수선부원장 **성덕**
기획원장 **성각**
교육원장 **남륜**

서울경기교구원장 **보명** 충남교구원장 **지향**
충북교구원장 **지허** 경남울산교구원장 **해산**
전라남북교구원장 **명재** 대구경북교구원장 **어산**

중앙종회
종회의원 **명재 보명 일선 지향 성현 성각 일천 정연 어산 정산 보광 지화 지연 자원 성우 성덕 혜인 근혜**

종도일동

■ 총무원 :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음성로 773-66 / 전화 0502)321-3333

사단법인 대한불교금강조계종

종 정 **법호 서호**
부종정 **법두 수암**

승정원장 **법상 심곡**
원로원장 **법두 수암**
총무원장 **법웅 정관**

포교원장 **법봉** 교육원장 **해진**
문화원장 **법경 월명** 복지원장 **법수 청운**

기획실장 **진명** 총무부장 **원도** 총무국장 **무경**
사회부장 **정광** 사회국장 **월행** 교육부장 **심공**

부산교구종무원장 **원도** 경남동부종무원장 **법경** 경남서부종무원장 **진명**

사단법인 대한불교금강조계종에 입종하실 종도님을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총무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원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조산리 237
■ 전 화 : 055)532-4414 / 팩스 055)532-4413

※ 불.법.승 ※

(宗) 대한불교삼보종

1세종정 멸공 대종사

부 종 정 **회천** 원로원장 **금산** 원로부원장 **정공**
총무원장 **법장** 호법원장 **호신** 종 회 의 장 **대행**

부 원 장 **법경** 교육원장 **홍인** 문화원장 **법등**
감찰원장 **법도** 포교원장 **법륜**

종회의원 **법융. 법성. 법공. 해곤. 계월. 해봉 (外 21名)**
교구원장 **수산. 법인. 보산. 불광. 해원. 용현. 법융. 지훈. 법송. 지원. 도연 도륜. 청광. 정륵. 수원. 해국 (16교구)**

총무부장 **평산** 교육부장 **도오** 재무부장 **법진** 교화부장 **법보**
포교부장 **혜수** 호계부장 **청파** 규정부장 **도철** 교무부장 **도찰**
사회부장 **도암** 문화부장 **진각** 총무국장 **지일** 교무국장 **도원**
홍보국장 **강천** 전산실장 **진행** 기획국장 **청붕** 사서국장 **도율**
법무부법사단장 **법성** 사 무 장 **목련해**

■ 총무원 : 경남 김해시 호계로 499번길4 (2층) / 전화 055)338-0089. 080-333-9009

(사)대한불교법상종

종 정 : 자 봉 **총무원장 : 해 월** **원로원장 : 학 암**

총무부원장 : **도일**
사정원장 : **소운**
포교원장 : **각정**
교육원장 : **성운**
참선원장 : **선담**
홍보원장 : **일공**
연구원장 : **보월**
역경원장 : **인덕**
복지원장 : **석존**
포교부원장 : **진광**

사정위원 : **지안. 강명. 대응**
교무부장 : **현진**
사회부장 : **법산**
재무부장 : **선혜**
호법부장 : **선우**
문화부장 : **법연**
포교부장 : **선명**
교육부장 : **원각**
홍보부장 : **법성**
역경부장 : **법화**
복지부장 : **법은**
비구니부장 : **대화**

총무국장 : **관보**
사회국장 : **관덕**
문화국장 : **법지**
포교국장 : **용운**
홍보국장 : **인광**
연구국장 : **무상**
역경국장 : **임오**
교무국장 : **지묘**
복지국장 : **도법**
재무국장 : **해명**

서울종무원장 : **지선**
부산종무원장 : **혜명**
대구종무원장 : **강명**
인천종무원장 : **원각**
울산종무원장 : **석천**
광주전남종무원장 : **성운**
경기종무원장 : **원각**
경기북부종무원장 : **지월**
강원종무원장 : **석존**
충남종무원장 : **원상**
충북종무원장 : **송암**
경북종무원장 : **보공**
경남종무원장 : **일공**

중앙종회의장 : **대광**
중앙종회부의장 : **대화**

사무국장 : **용산**

■ 총 무 원 : 경기 안성시 삼죽면 텃골길 105(기솔리 33-1) / 전화 031)677-9950~1, 팩스 031)677-9953
■ 법상종 홈페이지 : www.web4.myqr.co.kr 총무원 이메일 : bsj99501@naver.com

가족 신행공동체 복원, 불교의 시대적 과제

불교, 세대전승 확보가 시급하다

한국사회에서 가족 구조는 크게 붕괴되고 있다. 부부 중심의 핵가족화, 소자녀 가족, 노령화 가족을 비롯해 독신자 가족이 크게 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 '가족변화양상과 정책 함의'에 따르면 1990년과 2010년 가구 수를 비교했을 때, 20년 사이에 1~2인 가구는 22.8%에서 48.2%로 급증했고, 4~5인 가구는 58.2%에서 30.6%로 줄었다.

통계청의 〈2010년~2035년 장래 가구 추계〉에 따르면 2010년 부부+자녀 가구가 37%, 1인 가구 23.9%, 부부 가구 15.4%이지만, 2035년에는 1인 가구가 34.3%, 부부 가구 22.7%, 부부+자녀 가구 20.3%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국 종교 '가족중심' 재편 중

반대로 종교적으로 보면 현재 한국 사회는 개종이 어려워지는 가족 중심 신앙으로 재편되고 있다.

한국갤럽이 2015년에 발간한 통계보고서 〈한국인의 종교-1984~2014〉에 따르면 개종률은 점점 축소되고 있다. 1984년에는 개종을 경험한 사람은 17%, 1994년에는 16%에 달했지만, 2014년에는 10%로 줄어들었다.

이와 더불어 신앙을 결정하는 시기도 10대 전후로 빨라지고 있다. 2014년 한국갤럽의 통계에 따르면 10대 전후로 종교를 결정하는 비율은 38%에 달했다. 30대가 21%, 20대가 1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인구센서스에도 나타난다. 출생 코호트(cohort, 특별한 기간에 출생하거나 특성을 공유하는 집단)별로 10대 이전 종교 유입율을 분석해보면, 1975~1984년에는 27.4%에서 1985~1994년 36.2%로 증가했고, 1995~2004년에는 42.8%으로 대폭 상승했다.

세대간 종교 전승 비율에 있어서 현재 불교는 나쁜 편이 아니다. 자신의 종교와 부모의 종교가 일치하는 비율에서 부친 67%, 모친 82%(2014년 통계 기준)으로 개신교, 가톨릭보다 높게 집계됐다.

하지만, 불교에서 개신교로 이동한 비율도 적지 않다. 한국갤럽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개신교를 믿고 있는 사람 중 13%가량이 부모가 불교였고, 가톨릭 신자 중 11%의 부모가 불교였다. 반대로 부모가 개신교와 가톨릭을 신앙했지만, 자녀가 불교로 개종한 비율은 각각 1%에 불과했다.

세대 전승, 불교에 불리한 이유

세대 전승에 있어서 불교가 불리한 점은 10~30대의 미래 세대가 50~60대에 비해 매우 적다는 점이다. 세대를 이어 불교를 신앙할 미래자원들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 연령별로 보면 불교는 10~20대가 전체 불교인구의 10%, 30대는 11%에 불과하다. 반면 50~60대 인구는 각각 30%를 상회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갤럽은 보고서에서 "부모가 특정종교를 믿는 경우 자녀도 해당 종교를 믿는 경향이 있고,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동일한 종교를 믿는 배우자를 찾게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현재는 불교인의 가족 구성원 종교 일치율이 높지만, 다수가 고령층이라는 점에서 인구 확장성은 다른 종교에 비해 불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족 신앙을 복원하기 위해서 이웃종교들은 매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 기독교계는 '가정 사목과 복음화'를 주제로 예전부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수세기에 걸쳐 '가정'이란 기본공동체에 기반한 신행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가톨릭은 사목 헌장에 혼인과 가정의 가치를 밝히는 한편 성직자, 교회단체, 부부들이 구체적으로 해야 할 역할들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프란시스코 교황이 "신앙은 인간의 도성에 빛을 비추는데 그 첫째 자리는 가정"이라고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가족 단위의 신행공동체 형성에 앞장서고 있다.

불교계의 세대 전승이 불투명한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불자들의 낮은 신앙 만족도가 세대 전승 '적신호'의 이유로 보인다.

실제, 한국갤럽의 통계에 따르면 종교적 신앙심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21%만이 '불심이 깊다'고 말한 반면, 개신교인은 52%가 깊다고 응답했다. 기도 · 경전 읽기 빈도, 생활 속 종교 중요도에서도 불교는 꼴찌를 면치 못했다.

이는 조계종 종책연구기관인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가 2014년 발간한 여론조사에서도 잘 나타난다. 신앙생활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신앙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 개신교가 65.1%로 가장 높았으며, 가톨릭은 50%, 불교는 34.3%였다. 지계와 경전 읽기 빈도에서도 불교는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국불교 '세대 전승' 관심가져야

전문가들은 이제부터라도 불교 역시 가족 중심의 신행공동체를 공고히 하고, 적극적인 세대 전승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조직 구성의 최초 단계는 가족이다. 불교가 이 시대에 자기 역할을 찾고 살아 움직이는 포교를 통해 대중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고려한 신행체제를 갖췄야 한다는 것이다.

불교사회연구소가 2014년 1500명을 대상으로 연령별 사찰 의식 참석에 대한 입장을 조사한 내용을 보면 가족신행공동체 구성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만 16~19세 33%, 20대 35.6%, 30대 41%, 40대 42% 50대 45.2%, 60대 53.5%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간의 사찰의식 참여의사가 극명히 나뉘었다.

이에 대해 이명호 한양대 강사는 '2030년 한국사회의 종교지형의 변화와 불교' 주제의 논문에서 "총인구 감소로 인해 절대적 규모의 종교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에는 포교활동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포교 효과는 지금보다 낮아질 것"이라면서 "이 경우 가족내 세대 계승이 포교의 기본이 되고, 종교 존립의 기본적인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고연령층 여성 신도 대부분이 가족을 대표해 자신이 기도하고 사찰에 다닌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가족 내 포교에 대해서는 무감각해 불교의 세대 간 전승은 적극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가족 내 세대 전승 활성화를 위해 이명호 강사는 "현재 음력 중심의 법회 운영과 각종 기도와 성지순례는 고연령층 여성에게 최적화된 신행활동이며 확장성이 부족한 방식"이라면서 "어린이 · 청소년 포교와 가족 단위의 신행활동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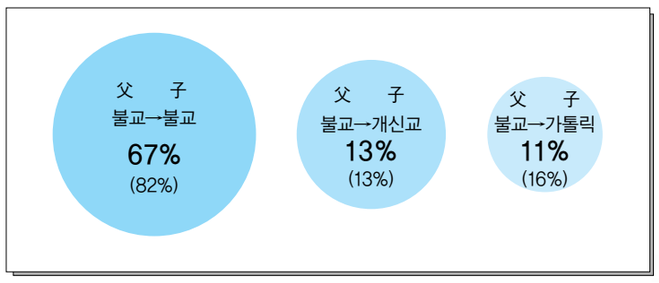
이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법회는 모든 사찰에서 운영되도록 중앙 차원에서 지원돼야 하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주직 스님의 의지와 생각에 따라 가변적으로 운영돼서는 안된다"면서 "교재 개발과 지도법사 등 법회 운영에 필요한 여러 사항은 중앙 종단과 교구본사 단위에서 제공돼야 하며 가족 신행활동은 법회 형식을 넘어 가족들이 활동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족 세대 간 불교 전승에 대해 조계종 포교부장 무각 스님은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저절로 사찰에서 신행활동을 한다. 사찰 신행활동이 자기 계발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는 종단적인 과제다. 기존 사찰의 운영구조를 바꿔 젊은 세대가 법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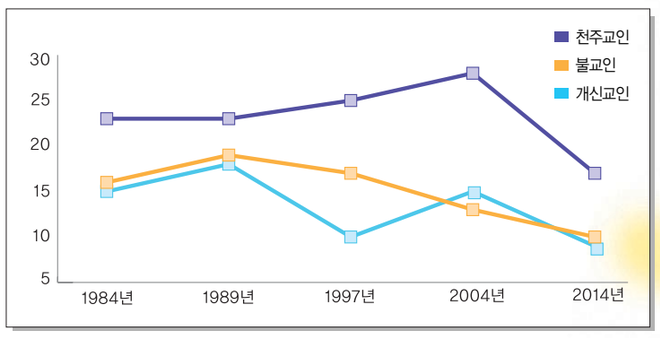
조계종 어린이 · 청소년 전법단장 성행 스님(청계사 주지)도 "가족의 연령층은 청소년, 부부, 노인 등으로 구분되고 역할과 사회적 위치도 세분화된다. 각 계층에 맞는 포교가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인성 프로그램 등을 정비해 응용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 세대 전승 추이 (괄호는 모친과의 일치율) 자료 : 한국갤럽, 2014



한국종교 개종률 추이 (%, 한국갤럽 1984~2014)



한국사회 개종률 감소 추세
10대 前 종교 결정 증가해
가족 중심적 종교로 재편 중

불교 세대전승 낮지 않지만
젊은층 없어 확장성 '적신호'
낮은 신앙 만족도 요인 지적
'불교→개신교' 비율도 높아

미래 세대위한 포교 급선무
가족들 사찰 오게 유도해야
불자 세대전승 인식 개선도



그림 · 김홍인

대한불교 총화종

2016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합니다

종정 전남정

부 종 정 이남은. 최만재 총무원장 김혜각

종회의장 백만우 종회부의장 정경옹 교육원장 김법만 호계원장 이만오
감찰원장 김혜암 문 화 원 장 이지수 선 원 장 신본원 복지원장 김지산

사회부장 성조향 호법부장 박지광 재무부장 김지오 교무부장 윤해원 감찰부장 김정산
조사부장 김지현 교육지도부장 김성담 문화부장 양혜원

서울북종무원장 이혜인 경기동,남종무원장 김법만 경기서종무원장 김혜암
대전종무원장 김해송 울산종무원장 백만우 강원1교구종무원장 정혜산 강원2교구종무원장 허승효

경남동종무원장 이광덕 경남서종무원장 김월광 경남중종무원장 이도언 부산종무원장 박지광
전남,광주종무원장 김현산 제 주 종 무 원 장 김청해

유 발 승 회 장 이지수 유 발 승 총 무 전지명

외 임원 및 종도 일동

봉 축 사



대한불교총화종
총무원장 **혜각**

참! 삶을 발원합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거룩한 날입니다.
우리중생은 누구나 다 복(福)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복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적 빈곤의 문제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도 해결하기 힘든 일입니다. 복(福)이란! 복을 짓고 복을 닦아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특히 보시를 잘 해야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보시의 복을 제대로 닦지 않으면 복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화합으로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부처님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가득하도록 함께 두손 모아 발원합시다.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93번지 2층
전화 02)743-0066, 8338 / 팩스 02)743-8448
www.chonghwajong.or

경전 속 '가족 신행공동체'

불교는 부처님 당시부터 가족 신앙

부처님은 홀로 깨달음을 얻은 이가 아니었다. 싯다르타 태자로 태어난 부처님은 가족 속에서 삶의 철학을 만들었고, 가족을 떠나 부처가 되었다. 그리고 다시 가족에게 돌아가 전법을 펼쳤다. 승단 내 부처님의 가장 든든한 지원자는 바로 가족이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가족이 함께 수행하는 공동체로서의 불교에 주목했다. 〈잡아함경〉을 보면 부처님의 이런 인식이 잘 드러난다.

부처님은 가족에 대해 "집에 같이 살면서 식구들이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 하고, 식구들이 괴로워할 때 같이 괴로워 하며, 일을 할 때 같이 뜻을 모아 하기에 '가족'(kula)이라 말하느니라"고 했다.

이런 인식은 부처님 가족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있었다. 먼저 부처님 동생인 난다의 출가와 함께 다른 가까운 형제들인 아누룻다, 밧디야, 데와닷따, 아난다, 바구, 낌빌라, 우빠난다 등이 출가했고, 더 나아가 아들인 라훌라와 어머니인 마하빠자빠띠도 출가하게 된다. 아내인 야소다라와 출가한 난다의 아내 자나빠다깔야니, 그리고 난다의 여동생 순다리 난다도 잇따라 출가하여 비구니 스님이 되었다. 부처님 당시 승단 내 가족신앙공동체가 형성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인도 아마라와띠 고고박물관 소장 '라훌라의 출가' 2세기 작품.

〈증일아함경〉에서 부처님은 더 나아가 불자들이 불교를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적극적으로 포교할 것을 강조한다. 부처님은 "믿음이 없는 부모에게 믿음을 권하고, 계행이 없는 부모에게 계행을 권하고, 인색한 부모에게 보시를 권하고, 지혜가 없는 부모가 지혜에 들게하면 이는 부모의 은혜를 갚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런 가르침을 바탕으로 부처님 당시 불자들은 가족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법하며 가족신행을 이끌었다. 재가여성불자의 롤모델로도 불리는 '비사카'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앙가나라의 '비사카'는 코살라국 부호의 아들에게 시집을 갔다.

당시 비사카의 시아버지 미가라는 자이나교의 열렬한 신도였다. 당시 부처님과 제자들은 마가다국 죽림정사에 주로 지내며 코살라국에는 불법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다. 비사카는 인내와 지혜로 시부모들을 모두 불교에 귀의 시킨다. 비사카의 초대로 코살라국에도 전법의 계기가 생겼다. 미가라와 비사카는 기원정사 건립에 큰 기여를 했고, 이어 동원정사도 보시한다. 마찬가지로 수닷따 장자의 딸 쭐라 수밧다, 불자란 이유로 남편에게 구박을 받았지만 남편을 출가시키고 자신도 출가한다 난쟈니 등의 사례도 초기경전에 전해진다.

불교는 더 나아가 '가족이 함께 믿으며 화합으로 갈 수 있는 길'도 함께 제시했다. 대승경전에는 가족화합과 효, 우애 등에 대한 중요성과 방법이 자세히 나온다.

〈무량수경〉에는 '세속의 사람들은 부자, 형제, 부부, 가족, 안팎의 친척 사이에 서로 경애하여 미워하지 않으며 화평하여 서로 뜻이 어긋나지 말도록 해야 한다'며 가족 간 화합을 중시했다. 〈아난문사불길흉경〉에는 능히 신앙을 지켜 가정이 화평하고 편안하면 현세에 경사가 있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화엄경〉 〈열반경〉 〈부모출생경〉 등에는 부모에 대한 효도와 형제간의 우애 등을 다루었다.

〈열반경〉에서는 '맹구우목(盲龜遇木)'이란 말이 전해진다.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이 백년에 한번 물위로 올라오는 눈 먼 거북이가 바다위 구멍이 뚫린 널빤지에 머리를 넣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윤회 속에서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보장은 없으며 우리 곁에 있는 가족들이 항상 곁에 있지도 않다. 그만큼 함께 가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소중한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과 같이 곁에 있는 가족부터 불법을 접하게 하는 일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가족 중심'으로 신행 체질개선을

세대전승 진흥 위한 출재가 전문가 제언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 열린 유아수계법회에서 한 아이가 마정수기를 받고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한국불교 세대 전승은 현재 '빨간불'이다. 불교를 이끌 10~30대의 미래 세대가 50~60대에 비해 매우 적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이는 세대를 이어 불교를 신앙할 미래자원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연령별로 보면 불교는 10~20대가 전체 불교인구의 10%, 30대는 11%에 불과하다. 반면 50~60대 인구는 각각 30%를 상회하고 있다.

이외에도 낮은 신앙 만족도와 이로 인해 불자 스스로 가족 포교가 적극적이지 않는 점도 세대전승의 불안요소로 꼽힌다.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신행 풍속도 역시 젊은 세대를 사찰로 이끌지 못하는 이유다.

수행 중시 · 교육 없는 풍조가
자녀에게 불교 전승 않게 해
미래세대 불교 지원 · 포교 부족
종단 미래세대위는 '휴업 중'

한국불교 전반적 변화 필요해
가족 성원 모두에게 도움 주는
다양한 문화 · 학습 프로그램 필요

"종교는 너 편한대로 믿으렴"

불교의 세대 전승이 불안한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불자들의 인식 부족과 더불어 불교 신행이 현 세대에게 메리트(Merit)를 주고 있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개인 수행을 중시하는 종교적 특성으로 인해 근대적 조직화와 전통적 신행 사이의 간극이 커져있는 것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사는 "한국불교는 해방 이후 급격하게 진행된 서구화 · 산업화 과정에서 근대적 조직으로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참선을 통한 개인 수행에 기반한 전통적인 신행 · 수행양식은 그대로 남았다"면서 "둘의 간극이 너무 벌어져 있다. 공동체와 조직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가족 간 전승이 이뤄지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조계종 어린이 · 청소년 전법단장 성행 스님(청계사 주지)은 "평소 사찰에 다니고 불법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 부모세대들이 자식세대에게 자부심을 주지 않는다. 불교사상에 위화감이 있는데 자녀들이 사찰을 오려 하지 않는다"면서 "적극적인 신앙도 권유하지 않는다. '너희는 믿고 싶은 종교를 믿어라'라고 하니 자녀들이 다른 종교로 개종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성불자들의 신앙은 대부분 '기복'에 치우쳐 있다"며 "요즘 젊은이들에게 종교는 자기 계발의 아이템이기도 하다. 교육 · 문화 프로그램들이 부족하다보니 젊은 세대에게는 적극적인 어필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계종 포교부장 무각 스님(서울 공생선원장)도 "교육을 통해 불자들의 소양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불교를 가족에게 권할 수 있다"면서 "불자 개개인이 불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불교가 관념적으로 인식되는 것이 문제다. 실제 생활에서 이익이 되고 실천적이라는 것을 교육을 통해 알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젊은 세대를 잡아라

가족들을 사찰로 이끌기 위해서는 10~20대 미래세대를 우선적으로 사찰로 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현재 가족들은 철저하게 자녀들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불교는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등 계층 포교는 붕괴 직전까지 갔으며, 미래세대 발굴과 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를 통해 조계종 종단 기구로 '미래세대위원회' 구성을 결의했지만, 현재까지 사업 예산만 잡혔을 뿐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다.

이에 대해 무각 스님은 "미래세대 포교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제대로 방향이 잡히지 않았다. 현재 새롭게 구성된 7대 포교원 집행부에서 방향부터 잡기 위해 논의 중"이라면서 "재원이 한정적이기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세대가 고민하는 취미, 취업 등을 불교계가 파악해 정말 실천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종교계 청년일자리박람회, 불교 명사(名師)의 청소년멘토링 등 해야 할 부분은 무궁무진하다. 말로만 공생, 공동체를 외쳐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성행 스님도 "종교 인구 중 1020세대가 빠르게 줄고 있다. 종교를 갖지 않으려는 것은 '종교=기복'이라는 인식이 강해서다"라며 "각 사찰이 역사문화의 관점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을 강화해야 하고, 인문학 강좌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종교 · 문학 · 문화가 어우러지는 공간이 사찰과 불교임을 젊은 세대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불교, 무엇을 할 것인가

불자 가족 내 세대 전승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불교계는 무엇을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불교계 전반에 걸쳐 신도 참여 확대와 시대에 맞는 가족 세대별 프로그램 개발 등 한국불교의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윤승용 이사는 "한국불교는 전반적으로 경직돼 있다. 신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장(場)이 드물다"면서 "사찰 운영 등에 참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불교에 대한 충성도는 높아진다. 무엇보다 인식 변화를 통해 근현대화와 전통 신행의 간극을 빨리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성행 스님은 "가족이 함께 찾는 사찰이 되려면 아이들 쉼터나 공부방 등이 연계돼야 한다. 젊은 부부들이 찾을 수 있도록 육아 관련 시설도 있어야 한다. 사찰에 놀이방이나 수유실이 있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특히 불교 특유의 인성 프로그램 등을 정비해 응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무각 스님은 "가족에게 도움이 된다면 저절로 사찰로 데리고 올 것이다. 이는 개별 사찰이 아닌 종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가장 먼저 법회문화부터 젊은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야 한다. 음성공양도 신이 나는 것으로 바꾸고, 법문도 스님들이 젊은 세대에도 어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2016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합니다

봉 한국대승불교조계종 축

총무원장 취운 사정원장 혜관
호계국장 금강 사회국장 성군 감찰국장 자공 교육국장 향광
비구니종무원장 덕산 비구니총무국장 덕심

지장사(광영) 금정사(덕심) 법성사(법룡) 문수사(성묵) 용주사(용주) 지성사(지성)
청호암(혜인) 당포사(종철) 성불사 칠성암(사우) 운고사(운고) 동방사(법운)
불현사(대공) 용연사(취암) 여래암(경담) 보문선원(보문) 천광정사(취운) 동방원(법운)
불심정사(혜관) 쌍암사(덕산) 약불암(혜각) 대왕정사(혜월) 미정사(운선) 미륵정사(미정)
칠성암(무설) 무심사(보명) 보우선원(성군) 개남사(도일) 보광정사(자공) 약불암(무여)
은진정사(고경) 도심사(도안) 쌍암사포교원(향광) 백련암(문정) 화성암(성화) 극락정사(석도)
금강사(금강) 쌍봉암(쌍묵) 종단승려, 신도일동

■ 종단 입종 안내
– 대 상 : 사찰 및 종도 (승려, 법사, 포교사)
– 문 의 : 총무원 051-514-8766 직 통 010-4983-1494

■ 총무원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361, 천광정사 (051-514-8766 / 010-4983-1494)
■ 사정원 / 울산종무원 :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59번길 30-8 불심정사 (052-275-5539 / 010-4590-5539)

우리는 佛子 3代

부처님 가르침은 중생이 고통을 벗어나 궁극의 행복을 얻는 최상의 진리다. 그렇기에 가정 내 전법은 가족애의 출발점이다. 봉축을 맞아 평생 도반으로 함께 하는 불자 3대 가족의 신행을 전한다. 〈편집자 주〉

그림 · 김홍인



홍법사에서 주최한 가족수계 법회에 참여한 문영애 불자 가족 모습.



봉은사 유아수계법회에 참여한 장항배 불자 가족.



대광명사 가족 수계법회에 참여한 최상욱 가족.

"어머니의 기도는 가피와 복의 근원"

부산 홍법사 문명애 불자 가정

"아버님을 일찍 여의고 6남매를 키우신 어머니는 삶의 고단함 가운데서도 어김없이 새벽 3시면 일어나셨고 천수경 독송 소리로 저희를 깨우셨어요. 저희는 어머니가 기도로 아침을 맞는 모습에 게으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홍법사(주지 심산)에서 가족수계법회를 한 문명애(67)불자는 평생을 지켜본 어머니 이상년(진실행 · 85)불자의 삶에 대해 이렇게 회고했다. 문명애 씨 가족은 4월 24일 홍법사 대광명전서 4대가 함께 가족수계를 받았다. 게다가 딸의 시부모님들과 사위까지 모두 함께 계를 수지했다. 그들은 할머니의 삶에서 본 부처님 가피가 얼마나 큰 복덕이 되는지를 깊이 알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딸 현정연(39) 불자는 어릴 적부터 할머니 집을 방문하면 빼곡히 적혀 있는 부처님 경전들이 곳곳에 있었고 언제나 접할 수 있었다고 했다.

증조할머니 불심 증손자까지 이어져

증손자 동자승 출가로 친구도 얻어

"그 경전들을 지금도 보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감동과 신심이 절로 생깁니다. 이런 환경때문에 〈법화경〉 〈금강경〉은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어요. 저도 지금은 어머니와 불교대학을 신청하고 깊이 있게 불교를 공부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이 진실행 불자의 신심은 증손녀와 증손자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동자승 단기출가에 손자 박도영이 참여한 것이다. 손녀인 박지원 학생과 함께 현재 매주 홍법사 어린이 동림법회에 참여하고 있다.

"처음에는 단기출가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할머니의 권유로 참여하게 됐죠. 21일 간 동자승 출가 경험은 지금도 아이가 잊지 않고 기억을 합니다. 자녀 둘 다 모두 제가 기도하며 108배를 하면 함께 자연스럽게 동참합니다."

그리고 현정연 불자는 자녀들에게 주는 가장 좋은 선물로 '도반'을 꼽았다. 어릴 때 자연스럽게 만난 좋은 도반은 서로에게 가장 좋은 가르침이 되고 불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것이다.

"좋은 친구를 만나긴 어렵습니다. 아들이 동자승 단기출가를 통해 만난 아이들과 여전히 만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도반을 얻었으니 가장 좋은 선물을 부처님께 받은 것이죠."

하성미 기자

"아버지와 아들 연결고리, 바로 불교"

서울 봉은사 장항배 불자 가정

"저희 형제와 아내, 그리고 아버님과 장인, 장모까지 모두 봉은사에 다닙니다. 한절에 함께 다니니 저절로 대화도 많아지고, 화목해지네요."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에서 활발한 신행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서경 장항배(44) 불자는 "집안이 모두 불교신자라는 것에 행복하다"고 강조했다.

장 씨의 가족은 5월 1일 열린 봉은사 유아수계법회서 온 가족이 함께 계를 받았다. 이날 수계법회에는 장 씨의 아버지인 초암 장병인 거사(75)를 비롯해 동생인 명법 장용원 씨와 아내 성덕향 박외숙, 제수 상락행 정혜승 씨, 아들 명도 장준혁, 명선 장재혁, 조카 서경심 장지윤까지 총 8명이 동참했다.

이처럼 많은 인원이 봉은사 유아수계법회에 온 이유는 집안 어른인 장병인 거사와 맏아들인 장 씨의 불심이 깊기 때문이다. 특히 장 씨에게 불교는 자칫 서먹할 수 있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고리였다.

"항상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님과 아버님을 곁에서 지켜보며 다른 이들보다 방황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형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에서 좀 더 열심히 살아야 겠다는 힘을 받았어요."

사찰은 부자지간 추억이 서린 곳

며느리 "아이들, 합창단 시킬 것"

현재 장 씨는 세계인명사전에 등재될 정도로 기업보안과 기술유출방지 등의 권위자다. 석박사 과정 후 여러 대학을 옮기면서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수 있던 것은 부모님의 이런 자식을 위한 간절함을 어려서부터 지켜봤기 때문이었다. 동생 장용원 씨도 맞장구를 쳤다.

"이제 와서 뒤돌아 보면 부모님과 어렸을 때 함께 연등을 달고 사찰에 온 것들이 모두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족의 추억이 서려있는 곳이라 매번 올 때마다 옛 생각이 나곤 해요. 온 가족이 모두 교양대학을 나왔습니다. 동문이기도 하네요."

장항배 씨도 "1981년부터 다녔다. 저희 신도 번호가 8811번인데 현재 신도번호가 수십만 번대까지 있으니 초창기 신도라고 할 수 있다. 연비만 몇 번을 받았는지 모른다"며 웃었다.

장병인 거사는 여기에 사돈도 모두 불자라고 말했다. 종교가 같기 때문에 대화가 잘통한다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이날 수계법회에 참여한 두 며느리들도 아이들에게 불교를 알리기에 적극적이었다. 며느리 상락행 정혜승 보살은 "사찰에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 같다"며 "아이가 자라서 생각이 있다면 어린이합창단을 시킬 생각"이라며 활짝 웃었다.

노덕현 기자

"멘토 부모님께 배운 신행은 삶의 지표"

부산 대광명사 최상욱 불자 가정

"부모님의 신행 생활을 어릴 적부터 보고 자랐고 그 모습이 익숙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저도 불자가 되었습니다."

부산 대광명사(주지 목종)에서 1월 26일 3대를 이은 가족이 가족수계 법회에 동참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최상욱(68) 불자의 딸 최두경(40)씨는 부모님들의 신행생활이 곧 포교였다고 했다.

특히 그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모범 멘토'의 중요성을 알았다고 했다. 지금 두 아들을 둔 어머니로 돌이켜 생각해보면 부모님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고 했다.

"아버지, 어머니는 지금도 존대를 하세요. 서로 존중하고 다투시거나 큰 소리로 싸우는 모습을 아직까지도 본적이 없어요" 이런 부모님들의 모습에 불자가 된 것은 딸 뿐 만이 아니다. 결혼 당시 무교인 사위 최지운(44)씨도 결혼 후 불교에 귀의해 가르침을 배우고 있다.

사위도 결혼 후 불교에 귀의

아이들은 '광명진언' 외우며 공부

"남편은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들어요. 자녀를 가르칠 때도 좋은 말을 사용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는데 아직도 마음 깊이 담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말씀에는 힘이 있어요. 바로 모범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죠."

아버지 최상욱 불자는 이같은 말에 "행이 없는 불자는 설득력이 없다. 최선을 다해 바른 불자로 살고자 애를 쓴다. 그리고 불교에 대해 강요하지 않는다. 단지 마음을 어떻게 쓰면 좋은지 관(觀)하는 법에 대해 한번씩 말을 해준다"고 귀띔했다.

부모의 영향력은 이제 초등학생인 그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 최연수, 최형진 학생은 법당에 들어오면 익숙한 모습으로 삼배를 올린다. 특히 유아 때 죽음에 대해 생각하며 불안해 했던 최연수 학생은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을 찾아가 일찍히 죽음에 대해 듣고 배웠다.

최연수 학생은 "스님께서 죽음은 옷을 갈아 입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하셨다. 그 설명을 지금도 기억한다. 지금은 공부 할 때 지혜를 부탁하며 기도하고 혼자 있을 때 두려움이 있으면 '광명진언'을 외우며 스님 말씀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봉 부처님 오신날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는 님. 그는 공양받을 만한 고귀한 님이다 축

붓다선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힐링명상!

붓다선은 깨달음의 경에 실존하는 가르침으로
현대인들의 감성을 자극하여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하는 행운의 행동명상입니다.

"수행자여 귀를 기울여라. 나는 감로의 경지를 성취했다.
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 삶이 변화되는
최상의 행복에 도달한다"(붓다)

세계승가회 붓다선 센터 (www.worldsangha.org)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북로 40-1 (태평동) 2층 (070-7717-2276)

붓다선 지도자 과정

1. 응시대상 : 10안거 이상 성만한 자로 정법수행을 목표로 하는 승려(종단은 무관함)
2. 교육과정 : 월 2회 8시간. 총 6개월간 이론강론 및 명상 실천법 지도
(매월 1째주와 2째주 일요일 : 오후 2시 ~ 6시까지 "견불선원"에서)
3. 응시기간 : 5월 31일까지(합격자 6월 4일 개별 문자통보)
4. 응시방법 : 자기소개서 1부 작성하여 "세계승가회 붓다선 센터"로 등기우송 할 것
(소개서에 성명. 생년월일. 법명. 수계사항. 휴대번호. 응시이유 반드시 기재)
5. 모집인원 : 16명 (방편을 벗어나 오직 정법을 수행하실 분만 신청바람)
6. 자격발급 : 교육이수 후 자격고시를 합격한 자에게 붓다선센터 빠알리어 자격증 수여
7. 지원사항 : "붓다선 힐링센타" 엠블렘 증정 및 명상포교지원(선원에 한함)

佛紀 2560年 丙申年 | 전면광고

자비로운 마음 풍요로운 세상 | A14

고독의 맛과 마음의 평화를 직접 체험한 사람은 명상의 기쁨을 맛보면서
두려움 없이 악에서 떠난다. (법구경)

(사) 대한불교승가종

종 정 월인 습득

원로원장 혜공 재무원장 무착 종회의장 혜륜
포교원장 도안 총무원장 법수 총무부장 도일

원로위원 법일
범음범패 교육원장 법수 승가종총본산 승가사 주지 선견
승가종 법사대학장 원해 월인문도회 문장 법종
비구니 범음교육원장 법관

서울종무원장 정행 부산종무원장 봉선 대구경북종무원장 지운
대전종무원장 법지 울산종무원장 도성 경남종무원장 월곡
강원종무원장 부르나 전남종무원장 선궁

장병위문 수계법회(2016년 4월16일 육군훈련소 합동수계법회) 동참 스님
정광 선웅 도광 묘전 묘경 법등 법성 법관 법전 무구 선호 선봉
도성 도안 효득 선경 무찰 불전 선오 자용 지명 보우 법지 법종

■ 종정 주석사찰 서래암 : 부산 금정구 안뜰로7번길 43-1
전화 051)552-8554. 556-0278. 팩스 051)556-8551
■ 총본산 승가사 :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길성리 / 전화 055)754-1942

사단법인 대한불교해동종

종 정 **혜봉**
원로위원 **고산. 경호. 대명. 보현**

총무원장 **송산** 총무부원장 **도현. 보성**
총무부장 **덕광** 교무부장 **무연** 재무부장 **도은** 사회부장 **현무**

중앙종회의장 **보장** 부의장 **수운. 호경**
중앙종회의원 **서봉. 삼자. 혜언. 혜광. 수진. 법우. 지선. 혜가. 혜공. 연각. 지인. 보련. 이타**

중앙사정원원장 **정화** 사정부장 **백파**
중앙포교원원장 **혜일** 부원장 **보단**
중앙교육원장 **공덕** 교육부장 **무진** 중앙선원장 **현법**
중앙복지봉사원장 **무량** 부원장 **무봉**

서울교구종무원장 **서봉** 부산교구종무원장 **삼자** 경기인천교구종무원장 **혜언**
경남종무원장 **혜광** 경북대구교구종무원장 **수진**
전북교구종무원장 **법우** 전남교구종무원장 **혜공**

중앙법사단장 **무진** 법사단부단장 **혜등** 법사단총무 **혜련**
비구니회회장 **법인** (사)해동자비원장 **덕광** 국제교화원장 **공덕**
용인소년의집원장 **무봉** (사)해동자비원부산지사장 **장양숙**

종도일동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1로 211-5 / 전화 031)262-1577 / 팩스 031)263-1353

(사) 현대불교조계종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불보살님의 상서로운 광명이 충만하세요

종 정 **벽운 해광** 대종사
총무원장 주지 **동화 영락**

종도일동 · 총무원 보광사 신도일동

■ 총무원 : 대전광역시 동구 은어송로 86-100 식장산 보광사 / 전화 042)284-3929

社團法人 大韓佛教三界宗

종정 **서허석법수**
총무원장 **박일초** 종회의장 **우원경**
교육원장 **우지공**

■ 산하단체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0-나호 범패 · 나비춤 보존회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존회
사단법인 인해전통문화예술원
한국불교예술대학. 삼계종 의료법인 정광병원. 삼계종 봉사단 · (아름다운 인연)
http:www.samgyeoijong.org
http:www.bumpae.org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999번길 4 신아빌딩 2층
총무원 자원사 : TEL 032) 523-8067 FAX 032) 523-8068
문화원 · 한국불교예술대학 : TEL 032) 529-6708 FAX 032) 529-6709

■ 총본산 연화사 :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후평1리 산 9-2호 TEL 031) 988-3531 FAX 031) 988-1876

사단법인 대승불교본원종

종 정 **대 화**
부종정 **법 용**
사 서 경 산

총무원장 **만 혁**
사 서 해 인

종회의장 **대운**
부의장 **자광 지명**

원로원장 **대원**
원로의원 **대월. 관곤. 대봉. 보명**

교육원장 **무공** 감찰원장 **대능** 연수원장 **대광** 포교원장 **청운**
문화원장 **보경** 의전원장 **두산** 염불원장 **광수**

총무부장 **법성** 교무부장 **자관** 재무부장 **성문** 감찰부장 **도일**
사회부장 **정오** 복지부장 **지연** 포교부장 **용담** 조직부장 **원광**

부산경남교구종무원장 **지명** 대전충남교구종무원장 **지천** 경북교구종무원장 **자광**
충북교구종무원장 **대월** 강원교구종무원장 **진묘**

종회의원 :
원각. 자관. 용담. 부용. 현문. 심공. 승준. 수혜. 해인. 대광. 성안. 법성. 지선. 진묘. 지명. 혜은. 혜경. 혜원. 시현. 관공. 성문. 이지혜장. 권진광명. 신청련행. 김법륜해. 김한명화.

■ 총무원 : 서울 종로구 평창동 417-3 / 전화 02)391-4376 / 팩스 02)379-2746

(사)대한불교 금강종

종정 **무학당 송천 대종사**
종정 예경실장 **청명**

총무원장 **법산당 영봉** 총무원 사서실장 **정휴**
승정원장 **무상 대종사** 원로원장 **월서 대종사**

교육원장 **정산** 포교원장 **덕산** 감찰원장 **정대**
고시원장 **혜신** 참선원장 **법일** 복지원장 **법영**
문화원장 **덕일** 비구니원장 **지명** 홍법원장 **서암**
국제교류원장 **정무** 금강불교대학장 **유일환** 보건원장 **세현**

중앙종회의장 **일타** 중앙종회부의장 **일각. 현우** 중앙종회사무총장 **정견**

서울특별시교구원장 **반야지(서원암)** 대전광역시교구원장 **정 무(지장암)**
대구,경북교구원장 **세 현(광원사)** 울산광역시교구원장 **덕 일(도성암)**
충청남도교구원장 **정 견(백련암)** 경상남도교구원장 **덕 산(광천사)**
전라북도교구원장 **월 서(삼불사)** 전라남도교구원장 **혜 신(남해사)**

■ 총본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동 294-4 (일성사)
■ 총무원 : 대전광역시 서구 내동 17-1 탑스빌 101동 1002호
전 화 : 042)935-2279. 524-2149 팩스 : 042)526-2149
사무총장 : HP 010-5381-0779. 010-3550-5153
■ 인터넷 www.bubsan.com/Bubsan/대한불교금강종

우리는 어떻게 발심하면 되는가?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해석분〉의 마지막 부분인 도에 나아가는 행상을 분별하는(分別發趣道相) 대목에서 세 가지 발심의 양상을 설명한다. 부처가 얻은 깨달음의 길을 향해 가겠다는 마음을 낸 구도자인 보살들의 실천의 지를 세 단계로 설명하는 내용이다.

먼저 마음속에 믿는 마음이 일어나 그것을 바탕으로 수행의 의지가 확고해지는 단계를 '신성취발심(信成就發心)'이라 하였다. 이는 부정취(不定聚)중생이 선근(善根)을 훈습한 힘으로 업의 과보를 믿어 십선(十善)을 일으키며, 생사의 고통을 싫어하고, 무상보리를 구하고자 하여, 부처님을 받들어 공양하고 신심을 수행하여 1만 겁을 지나게 되면 신심이 성취되어 발심의 계기를 얻게 된다. 불보살의 가르침으로 발심하게 되거나 혹은 대비심 때문에 스스로 직접 발심하기도 하며, 정법이 멸하고자 할 때에는 법을 보호하려는 인연으로 발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가 믿음을 성취하여 발심하는 경우다. 이렇게 발심을 한 자는 부정취에서 정정취(正定聚)로 들어가 마침내 물러나지 않고 여래의 종자(如來種)에 머물게 되어 성불할 수 있는 올바른 원인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수행의 지위로 말하면 십신(十信)과 십주(十住)의 지위에 있는 발심상태라 할 수 있다.

부정취와 정정취라는 말은 불도를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 여부와 관련을 지어 사람을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 말하는 삼취설(三聚說)에 나오는 용어이다.

선근을 훈습한 힘을 통해서
十善 일으켜 발심 계기 얻어
直心 · 深心 · 大悲心 발현해

• 사정취(邪定聚): 인과(因果)의 이치를 믿지 않고 전혀 불법(佛法)의 수행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 부정취(不定聚): 인과의 이치를 믿고 심신의 수행단계에 들어왔으나 아직 수행이 완숙하지 못하여 성불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

• 정정취(正定聚): 이미 부처가 될 가능성을 지니고 이승지(二乘地)로 물러나거나 삼악도(三惡道) 등에 떨어지는 일이 없는 사람들.

삼취 가운데 '신성취발심'은 부정취 중생이 정정취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 단계의 발심이다. 본문에서는 신성취발심의 양상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나간다.

"만약 어떤 중생이 선근이 미미하고 적어 오랜 옛적부터 번뇌가 깊고 두터우면 비록 부처님을 만나 공양을 올리는 좋은 업을 쌓더라도 겨우 인간과 천상의 종자를 일으키며, 혹 성문이나 연각이 되는 종자를 일으킨다. 설사 대승을 구하는 자가 있더라도 근기가 확정적이지 못해 나아가기도 하고 물러나기도 한다. 혹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되 일만 겁(劫)을 경과하지 못하고도 중간에 인연을 만나 발심하는 경우도 있다. 이른바 부처님 상호를 보고 발심하며, 또 여러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린 일로 인하여 발심하며, 또는 이승인(二乘人)들의 가르침으로 인해 발심하기도 하고, 또는 남에게 배워서 발심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경우의 발심은 모두 일정하지 않아 만약 나쁜 인연을 만나면 문득 마음이 나약해져 발심을 잃고 이승들의 지위에 떨어지게 된다."

발심의 동기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과 숙세의 선근이 어떠하냐에 따라 근기의 차별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인천의 종자란 인간세상이나 천상에 태어나서 복을 누리는 선업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인과법에 의해 좋은 과보를 받는 경우다. 발심을 하고서도 나쁜 인연을 만나 수도에 장애를 받게 되어 대승에의 신심이 없어지는 경우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또한 발심의 더디고 빠름이 일정하지 않은 부정취 중생이 이승에 떨어지는 허물을 밝히고 있다.

대승에서는 이승들(聲聞, 緣覺)의 수행을 독선적인 것으로 보고, 이타의 원력이 없는 수행은 완전한 수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믿음을 성취한 발심의 내용은 다시 세 가지로 설명된다. 직심(直心)과 심심(深心)과 대비심(大悲心)이다. 직심은 진여법을 바르게 생각하는 마음이요, 깊은 마음은 온갖 선행을 즐겨 모으는 마음이며, 대비심은 중생의 괴로움을 뽑아주고자 하는 마음이다.

오로지 진여를 생각하면서 온갖 현상을 대하더라도 신심을 잃지 않고 선행을 모으면서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이 발휘될 때 믿음이 성취되어 발심이 된다는 것이다.

보살의 자비는 활이요, 보시는 화살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⑲ 보살이 지닌 강력한 무기

慈心端嚴身 悲心為千眼
(자심단엄신 비심위천안)
施為金剛杵 菩薩如帝釋
(시위금강저 보살여제석)
悉皆能 曠 貧窮阿修羅
(실개능최괴 빈궁아수라)
菩薩悲心弓 種種施為箭
(보살비심궁 종종시위전)
破貧窮怨賊 永無有住處
(파빈궁원적 영무유주처)
悲心堅固根 愛語以為莖
(비심견고근 애어이위경)
忍辱為枝條 布施以為果
(인욕위지조 포시이위과)
求者為鳥鹿 乞者如大風
(구자위조록 걸자여대풍)
能吹施果落 貧者得滿足
(능취시과락 빈자득만족)
菩薩出時夜 慈心如滿月
(보살출시야 자심여만월)
淨施以為光 求如拘牟頭
(정시이위광 구여구모두)
以淨施光明 令彼得開敷
(이정시광명 령피득개부)

번역

자애로운 마음과 단정한 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천 개의 눈, 보시를 금강저(金剛杵)로 삼은 보살은 불법을 수호하는 제석천과 같습니다.

모든 빈궁함과 아수라를 꺾고 능히 무너뜨릴 수 있나니, 보살의 자비심은 활이며 가지가지 보시는 화살입니다.

빈궁함의 원수와 적을 부수어 영영 있을 곳이 없게 하거니와, 자비심의 견고한 뿌리에 사랑스런 말로써 줄기가 자랍니다.

인욕은 가지가 되고 보시로써 열매가 맺히나니, 구하는 이는 새나 사슴이며 얻고자 하는 이는 큰 바람과 같습니다.

능히 보시의 바람을 불어 열매를 떨어뜨리면 가난한 이가 만족함을 얻나니, 보살이 출현한 때는 밤이요, 자비심은 둥근 달과 같습니다.

깨끗한 보시로써 빛이 되면 구하는 이는 연꽃과 같나니, 깨끗한 보시로써 광명을 비추기에 그 연꽃을 활짝 피어나게 합니다.

해설

제바라보살은 말한다. 보살은 제석천왕과 같은 존재라고. 제석천왕은 신들의 왕이다. 보통 인도의 인드라(Indra) 신을 의미하며, 제석(帝釋)이라고 한역된다. 베다신화에서 가장 유력한 신이었지만 불교사상에 유입되어 불법을 수호하는 신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보살과 더불어 부처님을 위호하는 존재로 제일 먼저 등장하면서, 〈화엄경〉에서도 첫 품인 '세주묘엄품'을 통해 부처님을 찬타하며 둘째 장을 장식하고 있다.

제바라보살이 이런 신화적 존재를 끌어들여 말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절대 존재,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존재가 바로 보살이며, 보살도를 행하려는 그 마음이라는 중요성일 것이다.

온 세상의 가련하고 불쌍한 이들을 굽어 살필 수 있는 천 개의 눈을 지니고, 어떠한 악도 능히 때려 부술 수 있는 금강저(金剛杵)를 지닌 존재가 바로 보살이며, 보살의 자비심이며, 보살이 행하는 보시의 힘이다.

제바라보살이 말하는 보살상은 싸움의 신 아수라(Asura)를 무색케 한다. 강력한 적이 있었으니 바로 가난과 궁핍함이다. 그러나 보살이 지닌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가 있었으니 바로 활이다. 이 활의 이름은 바로 자비심이며, 화살은 바로 깨끗한 마음으로 베푸는 보시다. 모든 적을 무찌를 수 있는 무기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아름다운 그침으로

나이 들수록 '아름다운 그침' 실천해야
몸 · 마음 늙어 갈수록 밝고 고와야 한다

앞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내딛는 모습도 아름답지만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지혜도 아름답다. 사회 구조는 빈틈이 없을 만큼 씨줄날줄로 짜여 있다. 질서와 차례, 합격해야 할 시험과 통과해야 할 관문도 부지기수이다. 유교의 오상(五常)인 인(仁) · 의(義) · 예(禮) · 지(智) · 신(信)도 지켜야할 덕목이요, 교육과 문화생활에 있어서도 울타리도 많고 호루라기의 경고음도 많이 널려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불교의 수행집단으로 한정해 물러남의 미학(美學)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불교에는 개차법(開遮法)이란게 있다. 열 때는 열고, 막을 때는 닫는, 수행인의 생활 지침이 담긴 가르침이다.

휴선(休善)이란 말도 있다. 아름다운 그침을 의미한다. 회향(回向)이란 말도 있다. 자신이 닦은 공덕을 이웃에게 나눔을 의미하며, 아름다운 마무리의 뜻도 담겨 있다.

사회에서는 퇴임과 은퇴라는 구조적 관문이 버티고 있다. 예술분야가 비교적 창작의 기능을 중요시 해 육체의 나이를 뛰어 넘고 있을 뿐이다. 요즘에 와서는 수명이 연장되고 노령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퇴임을 압박하는 정년의 나이도 뒤로 밀려나는 현실이다. '100세 인생'의 노랫말처럼 칠순까지 청춘이요 팔구십에도 건강이 거뜬할 만큼 백세시대를 살고 있다. 하지만 늙어갈수록 아름다운 그침을 실천해야 한다. 헐떡이거나 흔들리는 모습은 늙을수록 경계해야 할 민망하고 추한 몸짓들이다. 몸과 마음이 늙어 갈수록 맑고 밝으며 고와야 한다.

재물의 끌어 모음에서도 졸업해야하고, 명예의 줄다리기에서도 자유인이 되어야 한다. 주장보다는 경청이 덕이 되고, 나서는 모습보다는 물러서는 모습이 아름답다. 드러낼 일도 감출 것도 없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자연인으로 살 일이다. 어떠한 명분과 구실을 앞세워도 늙음은 마무리를 의미한다.

힘의 논리는 젊은이들의 몫이요 늙어 갈수록 있는 듯이 없는 듯이 꾸밈과 조작에서 멀어져가야 한다. 일을 시작하고 벌이는 것은 젊은이의 차지요, 늙어 갈수록 마무리가 개운하고 말끔해야 한다.

인위적인 객기는 젊은이들이 부려야 용서할 수 있는 것이다. 무위(無爲)로서 무위(無爲)를 즐기며 무위진인(無爲眞人)으로 살 일이다.

더함도 덜함도 없이 겸손과 하심(下心)이 기본이 되어 상식이 통할만큼 말과 행동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주책 떠는 가벼움보다는 말을 줄이는 신중함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소위 평생을 수행해 온 수행승들이 명예 주변에서 서성거리거나 재색(財色)문제로 잡음을 남긴다면 그는 이름과 색깔이 수행승일 뿐 진정한 의미의 수행승은 아닌 것이다. 참다운 포교사는 입으로 하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이 더 큰 울림으로 둘레를 넓히는 것이다. 위의를 갖춘답시고 점잔부리며 허세와 허풍에 찌들어 있는 수행승은 경외의 대상은 될지언정 존경할 수 있는 인물은 아닌 것이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마음 편히 대화 나눌 수 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좋은 스승이 될 수 있고, 아무에게나 착한 벗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참된 선지식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진솔하게, 방편설을 앞세워 속이지 않는 불교가 참 불교이다. 쥐여 줄 수 없고, 보여줄 수 없는 형이상학 쪽으로 치닫지 말일이다.

진리는 숨어 있거나 깊고 높은 곳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진리는 우리네 생활 주변에 널려있는 것이다. 물처럼, 공기처럼, 자갈처럼, 빨래처럼, 가족처럼, 이웃처럼 널려있는 것이다. 다만 의식의 변화, 마음의 열림에 문제가 있을 따름이다.

불교는 오늘의 종교이다. 불교의 육도윤회는 죽어서 겪는 게 아니라 금생에 생각의 윤회를 거듭하며, 지킬 박사도 되고 괴물 하이드도 되는 것이다. 아름다운 그침으로 자유인으로 회향할 일이다.

佛紀 2560年 丙申年
Buddha's birthday
자비로운 마음 풍요로운 세상
일을 잘 처리한다고 해서 공정한 사람은 아니다. 옳음과 그름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하는 이가 현명하다. 법구경

심신치유 MBSR명상교육도량
시 선 원
지도법사 우현 조원경
MBSR은 마음챙김 명상에 근거한 과학적인 스트레스 관리 행복명상 프로그램입니다.
■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순환로 308 11층
TEL 051)746-7611
cafe.daum.net/sisunwon

사람을 귀히 여기는 절
대한불교 조계종 길 상 사
[부설] 삼계선원 · 불교대학 성현덕회 · 단월회 · 지장회 참선반
주지 만제 혜수
사부대중
■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로69번길 15(삼계동)
TEL 055)333-8202 / FAX 055)333-8203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 금 강 암
주지 정만
사부대중일동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546
TEL 051)508-4509
FAX 051)051)508-4870

대한불교조계종 고려선찰
만 덕 사
(부산지방문화재 3호 만덕사지)
주지 금산 박혜명
사부대중 일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만덕로 63-13(만덕동)
TEL (051)334-3009

한국불교태고종
천 불 정 사
주 지 고담
부 전 심일
원 주 조정자 보살
신도회 회장 이정민 변호사
거사림회 회장 홍치표
사부대중 일동
■ 부산시 금정구 금강로 230-9(장전동)
TEL 051)518-6362
FAX 051)583-6362

문화포교전문도량
동 림 사
문빈정사 포교당
주지 효산 성타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한국화 · 문인화 · 채색화 그림교실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143-12
TEL 051)508-2917 / H·P 010-6609-8011

대한불교조계종 직할포교당
진여원불교대학
(사)진여사회복지원
회 주 혜 총
원 장 남보타월
봉사단장 정보덕심
사부대중일동
■ 부산 광역시 북구 구포2동 930-8
TEL 051)338-1008, 337-1080

‘Young-Buddha’ 함께 한 환희의 축제마당

형형색색의 연등 10만개가 서울거리를 수놓았다. ‘청춘과 소통’을 주제로 열린 연등회에서는 인종, 나이, 성별, 국적을 떠나 모든 이들이 함께 한마음으로 어울렸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는 5월 7일 불기2560년 연등회를 개최했다.

연등회에서 불자들은 한땀한땀 소중히 만든 연등과 곱게 차려입은 한복을 입고 부처님오심을 봉축했다. 불자들이 1년 넘게 공을 들여 만든 장엄등은 시민들의 감탄을 자아냈고, 환희심을 고취시켰다. 이날의 환희를 화보를 통해 전한다.

특별취재팀



제등행렬에 참여한 불자들은 시민들에게 연등만큼이나 환한 미소를 보냈다. 동국대에서의 어울림 마당을 시작으로 동대문운동장, 종로, 조계사 앞까지 연등회가 펼쳐졌다.



동국대에서 열린 어울림마당에서 참가대중들이 음악에 맞춰 단체율동을 하고 있다.



어울림마당에는 아이들도 참여해 율동을 선보였다.



불교계 주요종단 대표 스님들과 참석 내외귀빈들의 행진 모습.



연등회에서는 비천상, 사천왕상 등 다양한 불교 관련 장엄등이 인기를 끌었다.




종로일대를 장엄의 물결로 물들인 10만 연등.


한마음선원이 선보인 사물등.


연등회 회향한마당에서는 국적과 인종을 넘은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제등행렬에는 해외 각국의 미녀들도 참가했다. 슈퍼탤런트오브더월드 참가자들이 환한 미소를 보내고 있다.


연등회 회향한마당에서 연희단원들이 어깨동무를 하며 흥겹게 노는 모습.


2560년 연등회에 참여한 불자들은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제등행렬에 나섰다.

이모저모

젊어진 연희단·참가자 이색 장엄등 '인기만점'

◎… '청춘' 새 옷 입은 연등회. 예년에 비해 연희단을 비롯한 행사 참가자 연령대가 눈에 띄게 젊어졌다. 의상도 젊은이들의 감각에 맞춘 밝은 색상과 세련된 디자인이 많았다. 서울 불광사 율동단 민연희 · 이정은 씨는 "공연을 위해 3년을 기다리며 준비했다. 다른 사찰의 젊은 또래들을 볼 수 있어 반가웠다"며 "앞으로도 연등회가 청춘을 감싸 안는 아름다운 행사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타종교인들도 연등회를 함께 즐기며 '화합'의 의미를 더했다. 기독교신자지만 어머니와 함께 연등회에 참석한 윤민희(25) 씨는 "비록 불교신자는 아니지만, 이웃종교 신자로서 종교행사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것 같아 보기 좋다"고 밝혔다.

아내 · 두 아이와 함께 참여한 김덕용 씨(44)는 "가족들과 청계천 구경하러 나왔다가 연등회를 처음 접했다. 가톨릭신자지만 불교에 거부감은 전혀 없다"면서 "불교에 이렇게 신나는 행사가 있는지 전혀 몰랐다. 정말 즐겁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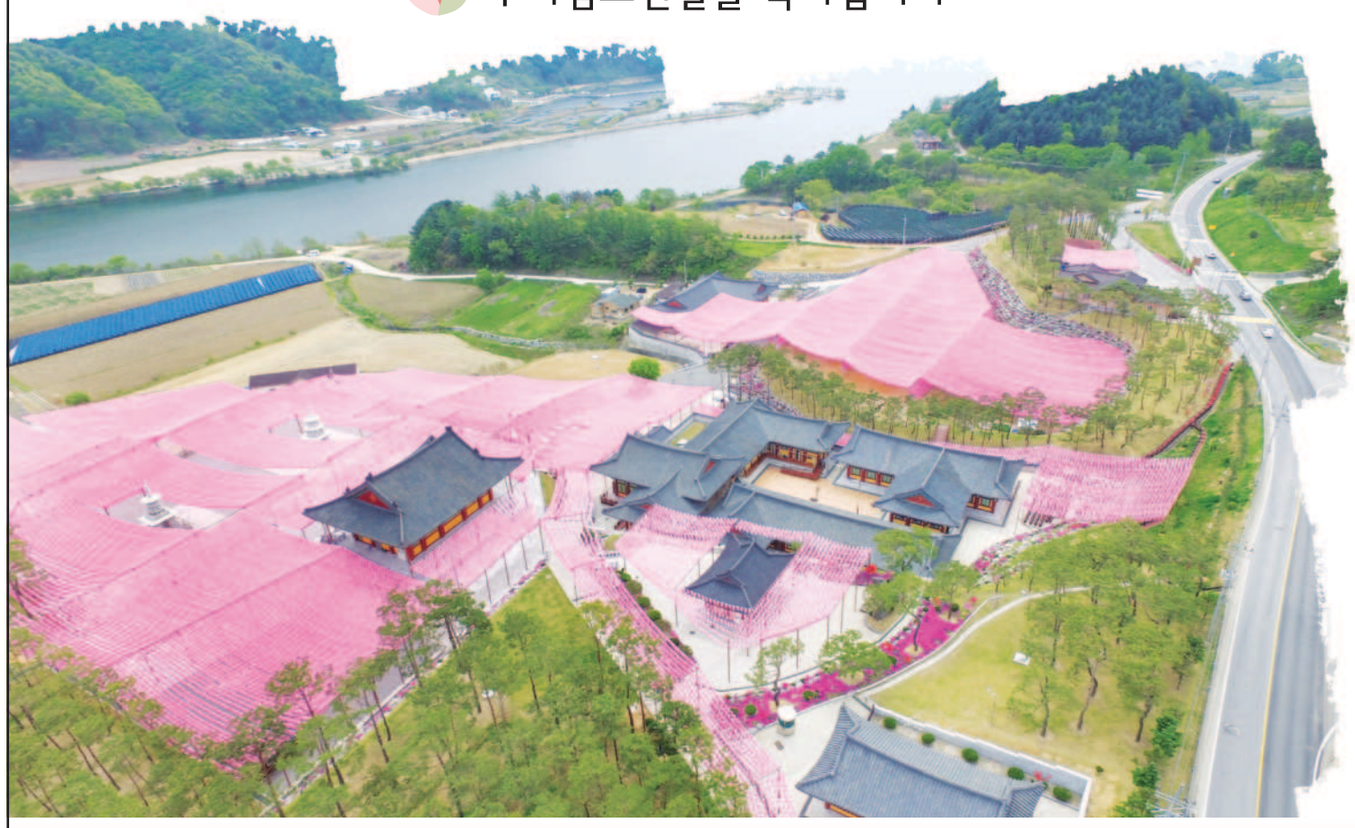
◎… 연등회의 백미인 제등행렬 중에서도 장엄등은 그 규모에서 관객을 압도한다. 올해 새로운 장엄등이 대중의 눈을 즐겁게 했다. 특히 캐릭터 타요버스 · 라바를 장엄등으로 꾸민 한마음선원의 작품은 많은 아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진각종의 날아라슈퍼보드등 역시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아이들에게는 즐거움을 선사했다.



◎… 이번 연등회 제등행렬에는 서울에서 열린 2016 세계 슈퍼탤런트오브더월드 참가자들이 동참했다. 별모양의 등을 든 이들은 SNS 등을 통해 연등회 실황을 중계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5월 4일 낙산 묘각사에서 템플라이프를 체험했다.

◎… 한국관광공사(KTO)가 초청한 외국관광객 300여명과 외국인 예약 참가객 2000여명도 등을 들고 행렬에 동참했다. 이와 함께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서 초청한 태국, 중국, 일본, 몽골, 스리랑카 스님들도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이들은 임진각 견학, 청계천 전통등 관람, 봉은사 및 고궁견학 등도 진행했다.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합니다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

영산불교 현지사

초대 교조 광명만덕 큰스님
예경실장 연 호

제2대교조 자재만현 큰스님
예경실장 성 지

장로부의장 광영
부의장 보행
부의장 도현
불교대학학장 덕산

교정원장 성광
부원장 보광
포교원장 행원
교육원장 대원
감찰원장 일도

춘천총본산 주지 정대
부주지 보문
부주지 대일
대전분원 주지 범행
서울분원 주지 지원
일본분원 주지 성도

제주제2본산 주지 성수
부주지 남전
부산분원 주지 도현
고성분원 주지 선혜
대구분원 주지 일성

■ 현지사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메일 hyunjigung@hanmail.net

• 춘천본사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892-23 ☎ 033-243-1787
• 제2본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311 ☎ 064-783-5355
• 부산분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1325 이센타워 ☎ 051-554-5150
• 대전분원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1070 ☎ 042-525-5325
• 고성분원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항길 7 ☎ 033-681-5515
• 서울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길 18 ☎ 02-453-5953
• 대구분원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5동 중앙대로 29길 20 ☎ 053-654-5557
• 일본분원 일본국 야마구찌켄 이와쿠니시 오츠죠 3-3-10 ☎ 81-827-31-1661
• 영산불교대학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1070 ☎ 042-525-5325

佛紀 2560年 丙申年 | 전면광고

자비로운 마음 풍요로운 세상 | A18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냄을 이기라, 착한 일로 악을 이기라,
베푸는 일로써 인색함을 이기라, 진실로써 거짓을 이기라. (법구경)

(사)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총 재 **혜 정** (사단법인 대한불교일승종 종정)
부 총 재 **혜 안** (대한불교무량종 종정)
무 송 (사단법인 대한불교화엄선종 종정)
우 담 (중앙불교조계종 종정)
회 장 **송 산** (사단법인 대한불교해동종 총무원장)
부 회 장 **정 림** (사단법인 수미산문조동정종 총무원장)
마 정 (임제선학원종무총리)
사무총장 **법 봉** (사단법인 대한불교승가종 前총무원장)

이 사 **법 인** ((사)대승불교육조조계종 총무원장)
향 운 (대한불교법보조계종 종정대행)
법 천 (대한불교정토조계종 총무원장)
법 성 (국제불교선덕종 총무원장)
일 초 (사)대한불교삼계종 총무원장
대 명 ((사)대민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무 각 (대한불교통일조계종 총무원장)
정 일 (한국불교근본해동종 총무원장)
대 일 (대한불교법륜종 총무원장)

■총무원 : 경기도 안산시 보개면 신장길 79-42
전화 : 031)675-0307, 676-3960 / 회장 핸드폰 010-8930-1578

(사) 대한불교염불종

종 정 **월담성인**



종회의장 **혜안 성묵**
원로의장 **무초 정락**
총무원장 **만공 호조**

미국종무원장 **용월 도황** 경기종무원장 **호암 대인** 경북종무원장 **성묵**
기 획 원 장 **설담 보현** 포 교 원 장 **수미 길상** 문 화 원 장 **정견**
사 서 실 장 **조능** 교 육 원 장 **조해** 호 법 원 장 **조구**

총무부장 **조반** 호법부장 **조관** 기획부장 **조초**

종 도 일 동

■ 총무원 : 충북 제천시 수산면 봉화재길 5 화엄사
전화 043)652-0331 팩스 043)653-0332

(사) 한국불교원광종 원 광 진 흥 회

원로원 **법민 선진 체관**

종의회의장 **경산** 포교원장 **지관** 문화원장 **자성**

종정대행 · 총무원장 **법륜**

총무원부원장	**보화**	총무부장	**진광**
사회부장	**도각**	재무부장	**도연**
사업부장	**법산**	문화부장	**선광**
복지부장	**혜암**	해외포교부장	**원진**

종회의원 **대연 명관 보용 선화 진평 지광 혜정 연화**

종 도 일 동

■ 총무원 :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395번지 / 전화 031)941-0156

(사) 대한불교율사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청송 청파** 원로위원 **법성. 혜암**

교육원장	**동담 백천**	기획실장	**대비**
감찰원장	**동암 원효**	사서실장	**동판**
고시원장	**도진 동영**	총무부장	**동봉**
포교원장	**동우 영산**		
사회원장	**덕진 도광**		
복지원장	**동춘 태산**		

종 회 의 장 **대공 동곡**
사 무 국 장 **동근**

종 회 의 원 일동

종도입종을 환영합니다

제출서류 : 등본3통, 사진(3×4), 이력서3통

■ 총무원 : 경남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459-2번지 시례마을
전화 055)336-0108, 335-0178 팩스 336-7070
핸드폰 011-595-6522 / 010-8939-6522

해동불교임제조계종

총무원장 **혜륜 동진**

종 회 의 장	**벽송**	대외협력원장	**보현**	서울교구원장	**보현**
장 로 의 장	**진성**	총 무 부 장	**벽산**	울산교구원장	**혜운**
호 법 원 장	**벽안**	감사(찰)부장	**일현**	경남교구원장	**명각**
교 육 원 장	**법산**	사 서 실 장	**상범**	강원교구원장	**원광**
감사(찰)원장	**벽송**			광주교구원장	**정인**
문 화 원 장	**종인**			부산교구원장	**지익**
포 교 원 장	**자운**			충북교구원장	**무운**
전국비구니회장	**무운**			충남교구원장	**봉정**
				대전교구원장	**천장**

종 도 일 동

해동불교임제조계종 총본산 극락사

■ 경남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172-1번지 / 전화 055)855-0191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원로위원 **봉천**
총무원장 **혜봉**

비 구 니 위 원 **법광** 중앙종회의장 **선각** 포교원장 **법타**
중앙연수원장 **도광** 중앙종회의원 **지엄**
교구종회의원 **혜각** 사 정 원 장 **대성**

총무부장	**법경**	문화부장	**무상**
비구니부원장	**혜명**	규정부장	**주광**
호법부장	**적광**	홍부부장	**혜광**
교임단장	**혜안**	포교국장	**도현**

문화국장	**선광**	비구니원장	**도견**
포교부장	**도영**	감찰부장	**도경**
감찰국장	**법성**	홍보국장	**법행**
13교구동부종무원장	**용주**		

종 도 일 동

■ 총무원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신흥로 540-17 연봉사 / 전화 054)262-5060

리메이크 '내 마음 고향' 봉축 맞아 13~14일 상영

명보아트시네마서… 하루 3차례

한국불교 최초의 영화는 1949년 제작된 윤용균 감독의 '마음의 고향'이다. 이를 현대적으로 리메이크한 영화가 박영철 감독의 '내 마음의 고향'이다.

동자승의 사모곡을 그린 영화 '내 마음의 고향'이 불기 256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상영된다. 상영 시간은 오전 10시 30분과 낮 12시 20분, 오후 2시 10분 등 세 차례다.

'내 마음의 고향'은 함세덕 작가가 1939년에 발표한 희곡 〈동승〉과 윤용균 감독이 〈동승〉을 원작으로 1949년 제작한 영화 '마음의 고향'을 리메이크했다.

제16회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틴즈아이 부문 상영작으로, 2014년 개봉된 이래 대구, 안동 등 지방에서만 상영돼 '내 마음의 고향'의 수도권 상영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명보아트시네마에서 오후 2시 10분 상영 후에는 출연배우의 무대인사와 감독의 관객과 대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양일 간 관람료는 일반인은 5천 원, 어르신은 3천 원.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다큐·연극·대담… 안방서 불교 만나다

BTN·BBS·지상파 3사 봉축 프로그램 '다채'

올해도 어김없이 부처님오신날이 찾아왔다. 불교계 방송은 물론 KBS 등 지상파 방송들도 부처님오신날을 기리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작·편성했다.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 이하 BTN)는 출가 진흥 다큐부터 선지식 인터뷰, 연극 공연 중계 등을 새롭게 제작해 부처님오신날을 전후로 선보인다.

BTN이 편성한 주요 봉축특집프로그램은 △스무살 상원이의 선택, 출가(5월13일 16:50, 5월14일 8:30, 5월15일 12:20) △진제대선사 특별대담 온누리에 지혜의 빛을(5월10일 08:30, 5월13일 23:00) △가야산에서 만나다 해인총림 방장 원각대종사(5월11일 8:30, 5월14일 14:50) △덕숭산에서 길을 묻다 덕숭총림 방장 설정스님(5월12일 20:00, 5월14일 7:30)△윤장대 천년의 비밀을 찾아서(5월14일 13:50, 5월15일 22:00, 5월17일 21:00) △연극 경허(5월10일 13:50, 5월14일 20:00) 등이다.

특히 '스무살 상원이의 선택, 출가'는 20살 청년 상원이가 결심한 출가의 과정을 생생히 담아내고 있으며, 현재 한국불교를 이끌고 있는 대표 선지식인 진제·원각·설정 스님의 연속 대담 시리즈는 부처님의 오신 뜻과 한국불교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또한 사찰에 있는 불구 윤장대에 대한 비밀을 찾아가는 '윤장대 천년의 비밀을 찾아서'와 경허 스님의 구도 여정을 담아낸 '연극 경허'의 녹화 중계도 눈길을 끄는 프로그램이다.

BBS불교방송(사장 선상신, 이하 BBS)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다채로운 특집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특히 스리랑카, 대만 등 주요 불교국가를 다루는 다큐멘터리와 40일간의 연등회 준비 과정을 영상에 담아낸 프로그램이 주목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스리랑카에서 오신 부처님(5월12일 13:30) △대만 불광산사 성공기를 담은 '기적'(5월10일 12:30, 15:30) △연등회 40일간의 기록, 봉축을 준비하는 사람들(5월14일 9:00, 5월15일 19:30) 등이다.


BBS불교방송 봉축프로그램 '연등회 40일간의 기록' 중 한장면.

BTN불교TV
진제·원각·설정 스님 대담
출가 진흥 다큐 제작 '눈길'

BBS불교방송
연등회 준비과정 영상에 담아
대만 등 주요 불교국가 다큐도

지상파 3사
부처님오신날 법회 생중계
'심우도' 주제 영화 편성도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지상파 방송 중 가장 많은 프로그램을 편성한 곳은 KBS다. **KBS**는 TV와 라디오를 통해 다양한 특집프로그램을 선보인다.

5월 7일 오전 7시 20분 방영된 2TV '영상앨범 산'에는 이기흥 조계종중앙신도회장이 출연해 괴산 낙영산과 천년고찰 공림사를 찾았다. 10일 오전 9시 방영된 1TV 아침마당에는 수락산 도안사 주지 선묵 혜자 스님이 출연해 108산사순례의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방영 예정 프로그램으로는 △1TV 다큐 '하늘에서 본 암자'(5월13일 22:00) △1TV 특집 다큐 '출가, 그들이 산사로 간 까닭은'(5월14일 20:05) △1TV 영화 '소와 함께 여행하는 법'(23:15) 등이 있다.

MBC는 5월 13일 금요일 오전 12시 12분부터 1시 20분까지 다큐 '세상을 토닥토닥 동네스님 혜민'을 재방송한다.

이와 함께 5월 14일 토요일 오전 7시 10분부터 8시까지 특집다큐를 방영한다. 또 5월 15일 일요일 오전 1시부터 2시까지는 MBC네트워크 특선 '강신주의 해탈프로젝트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를 방영한다. **SBS**는 5월 14일 오전 9시 55분 지난해 방영된 SBS스페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법륜 스님 즉문즉설'을 재방송한다. 신성민 기자

보물 흥천사 천수관음상 불교중앙博서 특별공개

봉축 맞아 오는 8월까지 공개

불기256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최근 보물 1891호로 지정된 흥천사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화범)은 오는 8월 12일까지 흥천사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 특별전을 진행한다.

천수천안관음보살은 천 개의 눈으로 중생을 응시하고 천 개의 손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로, 관음보살이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변화관음(變化觀音)의 대표적인 예다.

흥천사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은 하나의 얼굴과 42개의 손과 팔을 가진 이른바 1면 42수 관음보살상이다. 40개의 손과 합장을 하고 있는 두 손을 합하여 42수(手)로 표현됐다. 기록이 없어 정확한 조성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여말선초의 양식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불상으로, 우리나라에 현전하는 희귀한 예로 주목받고 있다.(02) 2011-1965 신성민 기자

팔만대장경 最古 인출본 한국에 온다

동국대박물관, 개교 110주년 '여시아문' 특별전 개최

6월 10일까지 5주간 진행
日 오타니대 소장본 전시
양국 구도열정 만남의 장


일본 오타니대학 소장 〈대반야바라밀다경 권제10〉.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팔만대장경 인출본이다. 동국대 개교 110주년 특별전을 위해 600년만에 한국을 찾는다.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팔만대장경 인출본이 한국을 찾는다.

동국대 박물관(관장 정우택)은 5월 6일부터 6월 10일까지 개교 11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여시아문(如是我聞)-깨달음의 길'을 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일본의 오타니대학(大谷大學) 박물관의 협조로 이뤄진다.

이번에 전시되는 성보문화재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오타니대학이 소장하고 있는 고려 재조대장경 인출본 〈대반야바라밀다경 권제10(大般若波羅蜜多經 卷第10)〉이다. 이 판본은 고려 우왕 7년에 목은 이색 등이 공민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찍은 것으로, 이번 전시를 위해 600년 만에 한국 땅을 밟게 됐다.

587상자에 4995첩에 달하는 이 판본은 경기 여주 신륵사에 봉안됐다가, 조선 태종 14년(1414)에 일본 국왕에게 선물로 보내졌다. 현재 한국에는 1865년 인출한 강원 월정사 소장본이 가장 오래된 사례로, 오타니 대학 소장본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팔만대장경 인출본이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에서 발굴한 원각사의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제1-2(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卷第1-2)〉도 주목할만 한 성보문화재다.

원각사 소장본 〈수능엄경〉은 한문을 우리말로 풀어 읽는 방법인 '석독구결(釋讀口訣)'이 표기돼 훈민정음의 창제 이후 한문본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다. 이는 현존하는 전적 중 한글이 적혀있는 가장 오래된 자료이며, 일반에는 최초로 공개된다.

정우택 동국대 박물관장은 "일본 오타니대학과의 상호협력 및 교류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특별전을 기획했다"며 "오타니대학이 소장한 경전과 해석서는 국내에서는 구할 수 없는 자료들이 많아 한국불교사상 복원에 여러 가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僧俗 넘은 20년 지기 기록 '한눈에'

명정 스님·최광호 작가, 17일까지 전시회

〈열자(列子)〉 '탕문편'에는 백아와 종자기의 우정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다. 거문고를 잘 탔던 백아의 연주에 종자기가 이를 듣고 백아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표현했다. 이내 종자기가 죽자 백아는 더 이상 자신의 소리를 알아줄 사람이 없다며 거문고를 부쉈다. 여기에서 유래한 말이 '지음(知音)'이다. 자신의 속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친구를 만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더욱이나 스님과 재가자가 쉽게 지기(知己)의 인연을 쌓기란 쉽지 않다.

통도사 극락암 호국선원장 명정 스님과 최광호 사진작가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기'이자 '스승과 제자'로 살았다. 오는 5월 17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 나우에서 열리는 '고원 명정 선묵 명필' 전시회는 명정 스님의 선묵 전시회이자 나이테처럼 켜켜이 쌓인 지음의 기록들이 담긴 전시회이다.

최광호 작가는 "잘 살기 위해 사진기를 들었다. 내면의 근원적인 의문이 생길 때마다 극락암을 찾아 명정 스님께 답을 들었다"면서 "질문에 정확한 답을 주는 명정 스님은 나에게 큰 스승이었다. 내면의 깊은 마음의 소리를 원할 때 스님께 가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다"고 작가노트를 통해 술회하고 있다.


명정 스님의 선묵 '출가'(사진 위)와 최광호 사진작가의 '명정 스님01'(사진 아래)

이번 전시회에 대해 갤러리 나우는 "지기로, 사제로 20년간 담아낸 최 작가의 사진과 녹차로 쓴 명정 스님의 선묵은 사진과 서예가 어떻게 만나는지를 보여준다"면서 "관람객들은 급변하는 디지털적 공간과 시간들 속에서 고서를 들추는 느낌으로 작품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사단법인 등기번호 234121-0001373]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합니다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종 정 정산당 석청봉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달오)
(사) 아시아 태평양전쟁 희생자 대한추모회. 총재 /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前 상임위원장


석가여래정법안장 제 77세
정산 석청봉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주민등록증 앞, 뒤 사 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 무 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원로의회
최고고문 석홍섭
원로부의장 석보행
원로의원 석원정 석덕오 석수오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법현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호계원
호계원장 석초오

문화원
문화원장 석설산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광

기획원
기획원장 석지혜

교육원
교육원장 석월오

교구종무원
구미종무원장 석혜광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대전종무원장 석법오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강서종무원장 석해륜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사무총장 석혜주
부 원 장 석용암
총무부장 석성산
교무부장 석성오
사회부장 석현오
재무부장 석성현
동원부장 석법원
정보부장 석법주
행사부장 석윤오
의전부장 석명오

중앙위원회
전국비구니원장 석도현
전국비구니회장 석능현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중앙정책위원장 황정재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종단봉사회회장 대자비
종단예술위원장 이선혜
전국청년회장 한관영

부산 제2총무원
총무원원장(직) 010-3565-2462
혜광사(종무소) 051)505-2461 / 팩 스 051)516-2461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614-6 부산지부 제2총무원 혜광사

영남 범음범패 통도사 소리 15기 교육원생 모집
■ 교육과정 : 초급반(안채비) 3개월, 중등반(범패기준) 3개월
고등반(사물 다루는 법 및 고급범패) 6개월
■ 연구반에서 부족한 나머지 부분을 특강 형식으로 계속 강의 받게 됩니다.
■ 범패교수 : 종정 청봉 큰스님의 직강으로 진행됩니다.
■ 개 강 일 : 2016년 6월 20일 오후 2시
※영남 범음범패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타종단의 스님들도 관계 없으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佛紀 2560年 丙申年 | 전면광고

자비로운 마음 풍요로운 세상 | A20

사람이 항상 깨어 있고 밤낮으로 부지런히 배우고, 절대 자유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온갖 번뇌는 저절로 사라지리라. (법구경)

(사) 대한불교본조계종

원로의원 **용담. 대호. 법우**

종 정 **회암**

사서실장 **중현**

총무원장 **융호** 수석부총무원장 **산수** 부총무원장 **법전**
고시원장 **범산** 법규원장 **혜공** 중앙선원장 **보륜** 문화원장 **구달**
감사원장 **효현** 복지원장 **대경** 호법원장 **청암** 교육원장 **중무**
법사원장 **마생** 포교원장 **혜산** 감찰원장 **도문**

중앙종회의장 **대호** 부의장 **청오**
중앙종회의원 **혜철. 반야. 현덕. 정주. 인덕. 대공. 천묵. 도일. 경담. 도일. 무진 불광. 고운. 지현. 천묵. 법향. 지환. 보호. 명진. 해련. 송현. 성무 명덕. 무심. 도인. 청공. 마월. 독견. 덕용. 덕보**

총무부장 **도현** 재무부장 **정현** 교무부장 **경덕** 사회부장 **독성**
복지부장 **덕화** 문화부장 **자은** 조직부장 **무진** 규정부장 **성담**
조사부장 **광덕** 호법부장 **법장** 포교부장 **법묵** 교육부장 **법향**

서울교구원장 **무경** 경기교구원장 **진성** 대전교구원장 **법우** 강원교구원장 **정일**
부산교구원장 **도관** 대구교구원장 **중무** 경북교구원장 **무진** 충북교구원장 **동행**
충남교구원장 **자은** 경남교구원장 **경덕** 전북교구원장 **보명** 전주교구원장 **보현**
제주교구원장 **효관**

고문변호사 **김창규. 이승민** 한국종교예술방송 사장 **산수 스님**

종 도 일 동

■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84번지 성라원 정안사 전화 02)3436-0796~7 팩스 02)745-1163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 승가회

총재 **무공**

회원일동

■ 주소 : 경남 사천시 곤명면 경서대로 2821-46길 신해사
■ 전화 : 055)855-1772

禪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경**

종도일동

■ 총무원 :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194-43 도경사
■ 전화 : 051)206-3488

(사)임제불교조계종

종정 **적진 지암**

전종도일동

■ 총본산 : 전남 여수시 돌산읍 강남1길 26번지 청암사
전화 061)644-7273, 010-3807-8428

公益法人 大韓佛教 華嚴宗

總務院長 **華 應**

中央宗會議長 **大 侘**

宗務處長 **梁威燦**

大本山 **藥師寺**
(약사추모관운영)
신도일동

仁川佛教新聞
發行人 **華 應**

財團法人 華嚴僧伽奬學財團
公益法人 大韓佛教華嚴宗奬學會
理事長 **韓相湖(華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풀무로 48(간석동 12-3) TEL 032)429-4441 / FAX 032)429-4445
■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5길 32-5(청진동 삼선빌딩 406호) TEL 02)730-0798 / FAX 02)730-0799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4.27~2015.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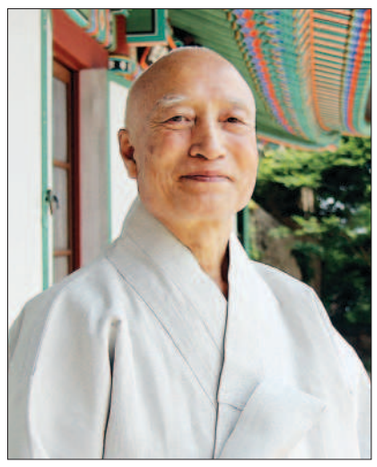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완벽하지않은것들에대한사랑	혜민	수오서재
2	월호스님의 화엄경약찬게 강설	월호	(주)조계종출판사
3	약사유리광칠불본원공덕경	원순	편역법공양
4	설전(법정이묻고성철이답하다)	성철,법정,원택	책읽는섬
5	법륜스님의행복-행복해지고싶지만길을몰라헤매는당신에게	법륜	나무의마음
6	생사의 근본에서 주인이 되라	허운/정원규	불광출판사
7	괜찮아나는나니까(성전스님이전하는희망의 토닥임)	성전스님	담앤북스
8	붓다프로젝트	원담	민족사
9	한권으로읽는불교교리	지명스님	(주)조계종출판사
10	능엄경 대의풀이	남회근/송찬문	마하연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쉽고 편안히 말고 매순간 최선 다해라”



설정 스님이 강조하는 인생 원칙

- 무엇을 하든 내 전체를 던져 집중하라
- 내 삶의 주체는 나다. 어렵고 괴로운 것도 다 내 것이다
- 어려운 길을 갈 때 비로소 당당해질 수 있다
- 공부와 노동이 함께해야 힘 있는 공부가 된다
- 어떤 공부나 종교를 갖든 좋은 성격을 갖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다. 시베리아에 갖다 놓아도 살 수 있는 자신감을 갖자
- 사람은 단풍잎처럼 늙어 간다. 나이들 수록 자기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
- 명예를 위해 자신을 천덕스럽게 만들지 말라
- 한 끼를 먹더라도 수행자는 자신 있고 당당하며 떳떳하게 살아야 한다
- 자기 정화하는 시간을 꼭 가져라

저자 **설정 스님**은?

1941년 11월 충남 예산군 덕산면 대동리서 태어났다. 다섯 살 때 주역의 대가인 부친에게 한글과 천자문을 배웠다. 열네 살이던 1954년에 아버지의 생신불공을 위해 수덕사에 들렀다가 그대로 출가해 1955년 원담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수덕사 주지와 종회의장을 역임했고, 2009년 덕숭총림 4대 방장에 취임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설정 스님, 박원자 지음 | 나무를 심는 사람들 펴냄 | 1만 4천원



“우리가 사는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인가? 삶의 보람은 무엇이며,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걸 확실히 알고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입니다.”

열네 살이던 1954년, 부친의 생신불공을 위해 수덕사에 들렀다가 그대로 출가한 설정 스님은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수행자의 길에 들어선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수덕사와 정혜사서 사는 동안 전강 스님, 송담 스님, 탄성 스님 등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기라성 같은 선사들과 지내며 참선과 농사가 하나인 선농일치의 삶을 몸으로 익혔고, 수행자로서의 근기를 알아보고 감탄한 정신적 스승 금봉 스님도 만났다.

또래보다 작고 약한 몸으로 잦은 병치레를 하면서도, 〈천수경〉이나 염불, 도량석 등을 다 외울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고, 염불 소리가 좋아 금봉 스님께 ‘저 아이가 과거에도 중이었구나’ 하는 소리까지 들었다. 법정 스님도 ‘설정 스님의 축원이 최고의 축원’이라고 하셨는데, 40대 초반 수덕사 주지 시절에 녹음한 스님의 새벽 도량석은 지금까지도 ‘금세기 최고의 도량석’이라고 회자될 정도로 유명하다.

많은 후학들이 ‘가장 스님다운 스님’으로 칭송하고 존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슨 일이든 정성스럽게 잘하면 된다’는 부처님 가르침을 매사에 몸소 실천하며 솔선수범하기 때문에 여든을 바라보는 산중의 최고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후학들과 함께 지금도 여전히 하루 8시간이상 정진하고 일하며 농사짓기 때문이다.

설정 스님은 책에서 “예전에 수덕사는 스님들이 직접 농사 지어서 자급자족하고 살았어요. 승려들이 신도들에게 의존치 않고 먹고 입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을 자급자족하면 구성원들이 건강하고 당당해져요. 옛 도반들은 나를 보고 나이 들어 너무 어렵게 산다고 하지만 나는 대중들과 함께 수행하고 일하며 사는 것이 재미있습니다”라고 밝힌다.

이 책을 집필한 박원자 작가도 출간기념 간담회에서 “책 출간을 위해 2014년부터 2년간 약 14차례 스님과 인터뷰하면서 분명히 각인된 게 하나 있습니다. 설정 큰스님은 76세라는 연세가 안 느껴지실 정도로 매순간 최선을 다해 사시는 꼿꼿한 청년의 이미지였습니다. 수덕사 스님들 말에 따르면 절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셔서 제일 마지막으로 울력을 마치시는 분이 바로 설정 스님이라고 합니다”라고 술회한다.

일평생 관통해 온 강직함과 공심의 표본

스님의 일생을 관통한 소신과 철학이 ‘강직함’이라는 것은 1980년 계엄군에 의해 자행된 10.27 법난에 대처한 모습서도 잘 드러난다. 수덕사 주지를 맡은 지 얼마 안 돼 법난이 일어나 영장도 없이 대전 보안대 지하실로 잡혀간 적이 있었다. 이유도 모른 채 잡혀가 심문을 당하자 사흘 동안 독방서 잠을 자지 않은 채 단식하며 좌선 했다. 매일같이 조서 쓰라는 강요에도 한 줄도 쓰지 않고 버텼고, 그곳서 있던 일을 나가서 얘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는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다. 그렇게 열흘 간 고초를 겪었는데 얼마 뒤 사회에 기여한 공로로 중앙관청서 표창장을 받으러 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자리서 단박에 거절했다. 그 후 정권이 불교를 탄압하는 것에 대해 규탄하는 대규모 법회를 열었다. 수행자는 공적인 마음과 원력, 신심으로 무장됐을 때 수행자다운 것이고, 스님이 스님다울 때 당당하고 진실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소신으로 살아온 설정 스님에게도 고난의 시절이 있었다. 스님은 수덕사 주지로 발령받고 출입 정지 가처분을 받았을 때와 췌장암으로 죽음과 마주했을 때라고 기억한다.

후학들 ‘가장 스님다운 스님’으로 칭송
‘정성 다해 최선 사는 삶’ 몸소 실천
“소통하려면 내 전체를 열어야 한다”
수행자가 지닐 생명줄… 신심, 원력, 공심

나이 들어서는 철저한 자기관리를 권하다

설정 스님은 선사들의 말이나 경전을 인용하기보다 어떤 질문이든 본인의 언어로 상대가 이해하기 쉽고 편하게 이야기한다. 그러면서도 정곡을 찌르는 표현으로 읽는 이를 감동시킨다. 유연한 마음으로 한 수행법만을 고집하지 않는 것처럼,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여 후학들에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 특히 설정 스님은 책 속에서 사회지도층에 대한 경책도 내린다. “지도자는 너그러워야 하며, 남의 말을 안듣는 사람은 바로 자신감이 없어서이다. 소통하려면 내 전체를 활짝 열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렇다면 책의 제목처럼 스님이 들려주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무엇일까? 설정 스님은 “참생명인 나를 찾는 것이며,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고, 그 가치관에 따라 지혜롭고 성실히 사는 것이다. 그렇게 자기 자리서 보람을 느끼며 사명감으로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을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한다.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나를 놀리지 않겠다’는 각오와 함께 나이 들수록 더욱 철저히 자기관리를 해야 한다면서 사람은 단풍잎처럼 늙어 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비록 몸은 늙었더라도 정신이 초롱초롱하고 마음은 당당한 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감을 갖고 사람답게 살면 오늘 몸을 내버린다고 해도 걱정할 게 없다는 것이다. 특히 부부간에도 다섯 가지 사랑의 조건이 있어야 한다면서 관심, 존중, 책임, 이해, 내 것을 다 놓아 버리고 주는 것을 들었다.

수행자들에게 전하는 간곡한 당부

“한 끼를 먹더라도 수행자는 자신 있고 당당하며 떳떳하게 살아야 합니다.” 수행자는 먹을 것, 입을 것, 잠, 이렇게 세 가지가 부족해야 하며, 공부와 노동이 함께해야 힘 있는 공부가 된다면서 수행자가 지녀야 할 세 가지 생명줄로 신심, 원력, 공심을 들었다.

무엇보다 명예를 위해 자신을 천하게 만들지 말라면서 수행자는 청정해야 함을 강조한다. 마음속에 규칙을 가지고 절제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행에 철저하고 사명감에 충실하라는 것이다. 일만 하는 스님은 일꾼이지 수행자가 아니며, 하루에 한두 시간이라도 반드시 수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더불어 사찰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지금의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사회, 경제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과 함께 한국 선의 전통인 경허 선사에 대해 스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도 담겨 있다. 경허 스님뿐만 아니라 만공 스님, 수월 스님에 대한 세간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감동적인 이야기도 들어있다.

정리하자면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돼 있다. 1부에선 스님의 생애와 수행 이야기를, 2부에서는 일반인에게 들려주는 인생 법문, 3부는 승가에 전하는 조언을, 4부는 수덕사 수행의 표상인 경허 스님에 대한 생각 등을 실었다.

한편 박원자 작가는 “처음에는 설정 스님이 일생을 담기에는 모순이 많은 사람이라며 책 출간을 여러 번 고사하셔서 솔직히 어려움이 있었다”며 “스님의 영원한 화두인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매순간 진지하고 몸소 실천하시며 사시는 스님의 말씀을 생생히 옮긴 것이어서 감동이 컸다”고 출간 소감을 피력했다. **김주일 기자**





편저자
독각~ 진귀 (獨覺~ 眞歸)
화엄경 강원 강주

석가를 품은 53見 가슴을 치는 화두집이 드디어 출판되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문중인
독각~진귀 존자의
화엄경 참구와 만경(萬境)이 둘이
아닌 선(禪) 삼매문을 통한
선교일승(禪敎一乘)의 평온한
안목으로 쓴 화두집(석가를 품은 53見)
드디어 출판되다!

석가를 품은 53見 목차

제1見 석가를 품다	제19見 참새집	제37見 자식인연
제2見 평온 초대장	제20見 병(病)든 부처	제38見 형제 인연
제3見 법(法)을 버리다	제21見 생화와 조화	제39見 도반인연
제4見 차 한 잔	제22見 직거래 ?	제40見 부부인연
제5見 해인 삼매	제23見 묘혜(妙慧)	제41見 대방광불 화엄경..
제6見 창조와 표절	제24見 법은 무의(無依)다	제42見 왕(대통령)
제7見 야부선사 웃다	제25見 천도(遷度)란?	제43見 독각(獨覺)은?
제8見 요지경	제26見 고구마 부쳐?	제44見 〈나〉
제9見 말 많은 석가?	제27見 마음속 부처	제45見 대도(大道)란?
제10見 히말라야 영화	제28見 개나리는 노랗다	제46見 부처님 오신날
제11見 동시구족	제29見 범부와 선지식	제47見 신통력(神通力)
제12見 법맥?	제30見 깨달음의 신호등	제48見 보시(기부)
제13見 부처와 하룻밤을?	제31見 다음생	제49見 정견(正見)을 치다
제14見 윈드서핑	제32見 종(鐘)	제50見 업(욕심의 흐름)
제15見 발효식품	제33見 스승을 찾아서	제51見 평온을 만나다
제16見 한 맛	제34見 대자유인의 길	제52見 화엄경_7행詩
제17見 뒤바뀐 안목	제35見 집착을 놓다	제53見 평온 축제
제18見 평온한 남자	제36見 종교와 현실	

• 이렇게 괴짜스럽고 이렇게 부사의 하고 희유한 안목으로 이렇게 신선한 생기(生氣)와 묘(妙)한 장엄이 감도는 ~ 화두집은 부처님 경전 외엔 느껴 본적이 없었다 ..... - 법화수행원 원일스님
• 이 화두집은 시원한 사이다를 마시는 느낌이다 ... 위광거사

도서출판 왕 산
문의 1899-9532
ISBN 979-11-87004-05-9 값 30,000원
※ 붓다북 등 인터넷 및 전국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입니다

佛紀 2560年 丙申年 | 전면광고

자비로운 마음 풍요로운 세상 | A22

무엇을 웃고 무엇을 기뻐하랴 세상은 끊임없이 불타고 있는데,
그대는 암흑에 둘러싸인 채 어찌하여 등불을 찾지 않는가? (법구경)

社團法人 대한불교 대원종
社團法人 정통불교 조계종

종 정 정허당 신풍 총무원장 **비상 대광**

원로원장 정봉 부원장 범왕
원로위원 법교 대경 지성 대원
연수원장 청암 부원장 범수
감찰원장 영암 부원장 이현
포교원장 도암 부원장 법수
호법원장 법경 부원장 대원
교육원장 도연 부원장 연화
불교예술원원장 도연 부원장 소현
비구니회장 대광 사무처장 성원 종정사서실장 소원 대경
대원신풍불교(승가)대학학장 신풍 부학장 대광

중앙종회의장 법조 부원장 지현
중앙종회의원 대광 도하 법조 도이 법경 범수 혜인
혜조 법수 혜성 도각 영암 지현 도연
소원 연화 경보 도언 이현

총무부장 경보 규정부장 혜정 교육부장 수현
재무부장 도하 사회부장 법수 홍보부장 도언
기획실장 대각

부산교구종무원장 경보 전남교구종무원장 법정
경남동부교구종무원장 도각 강원교구종무원장 각오
충남교구종무원장 진주하동산청지회장 영암
대원종법사단장 수안 신풍사신도회회장 이정민(청암)
대원종신도회회장 신우연 대원종전국신도회총무 김임숙



▸신규사암 등록하실 스님 항상 환영합니다. 행자승 모집합니다.
역학(철학, 사주관상, 성명학, 풍수지리)
대원승가(불교)대학 및 불교의식 교육생 모집합니다.
▸지역교구 종무원장 하실 스님 초빙 환영합니다.
▸역학 철학 풍수지리 속성 개인지도.
▸신규사찰 등록 환영 사찰이나 포교당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 총무원 : 경남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994 대한불교 대원종 총무원 신풍사 종정 정허 신풍
총무원 055)346-2908 / 무료전화 080-3030-5959 / 팩스 055)346-2909 / 큰스님 直 010-8548-8608
휴대폰 011-869-8608 / 대한불교 대원종 홈페이지 DW108.com / E메일 asp8990@naver.com

※본 종단은 승려증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승려제명 및 종단에서 발행한 제반증서 무효처리(폐기소각처리)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한국불교 법안조계종

종 정 운 경
부종정 **대 현** 종회의장 **법 장**

원로원장 **영암** 원 로 **승법** 원 로 **법안**
총무원장서리 **법장** 호법원장 **동선** 교육원장 **도문**
포교원장 **광월** 비구니원장 **명종**

각 교구 및 전 종도 일동

종도모집 안내

■ 입종서류
- 입종 등록 신청서 1부 (총무원 비치)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 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사진(반명함판) 4장

■ 총무원 :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사리 753-5 통관사 031)668-5829

사)세계불교조계종

종 정 총무원장 권한대행 보 성 자 현
종회의장 덕 산

포교원장 **정각** 교육원장 **혜명** 감찰원장 **원광**
총무부장 **법광** 조직부장 **성운** 사회부장 **도애**
문화부장 **인공** 비구니회 회장 **혜성**

종 도 일 동

■ 총무원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777번기 29(주교동) 031)962-5237

대 한 불 교 선 종

종 정 효 담
총무원장 정 관

재무부장 행 우 포교부장 효 은 사회부장 인 호
홍보부장 행 수 호계부장 심 인 감 사 무 구

경주교구 중앙종회의원
종회의장 무초
의 원 용현 무구 행우 효은 심인 행수

포항교구 중앙종회의원
의 원 혜문 일우 일웅

울산교구 중앙종회의원
의 원 무초 행삼

직할교구 중앙종회의원
의 원 인호 효웅

영천포교원 중앙종회의원
의 원 법인성

경주교구임원
종무원장 용현
교육국장 법운
재무·사회국장 행수

포항교구임원
종무원장 혜문
재무국장 일웅
사회국장 행화

울산교구임원

영천포교원
포교원장 법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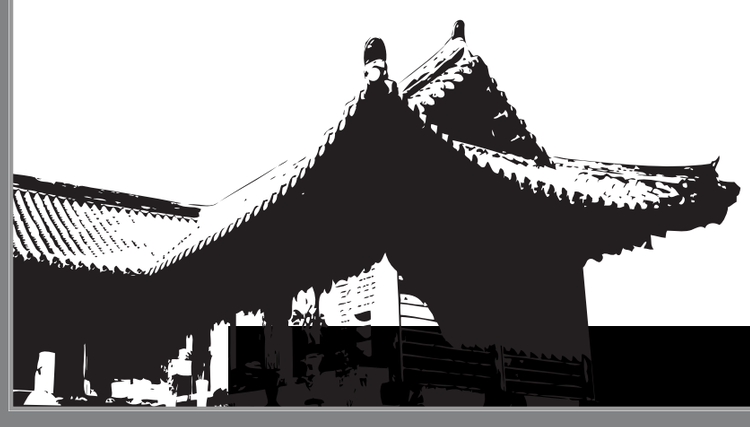
■ 총무원 : 경상북도 경주시 동방동 831-99번지 / 054)701-0505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 溪 宗

종 정 홍 산 현 불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세계불교종단연합회 (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佛紀 2560年 丙申年 | 전면광고

자비로운 마음 풍요로운 세상 | A23

물 대는 사람은 물을 끌어들이고 활 만드는 사람은 화살을 곧게 한다.
목수는 재목을 다듬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룬다. (법구경)

대한불교조계종

아차산 영화사

(사)지구촌공생회
광진노인종합복지관
복지법인 나눔의 집

위 단체는 영화사에서 후원합니다

조실 송월주 스님

사부대중 일동

■ 서울시 광진구 영화사로 107
TEL 02)444-4321, 7215

대한불교조계종

청 계 사

회 주 대궁 종상
주 지 성 행
신도회장 무상행

사부대중일동

- 청계사 부설 -
지적장애인생활시설 녹향원
의왕시립희망나래종합복지관

■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11번지
TEL 031)426-2348, 2221 / FAX 031)426-3666
http://www.chungkeisa.com

대한불교조계종

관 음 사

주지 진산 종하

사부대중 일동

■ 서울시 관악구 승방1길 109-80(남현동)
TEL 02)582-8609
www.kwaneumsa.net

대한불교조계종

승 가 사

주지 정호

신도회 일동

■ 서울시 종로구 비봉4길 213(구기동)
TEL 02)379-2996 / FAX 02)391-9975

대한불교조계종
중부제일의 독성기도 도량

삼각산 삼성암

주지 수봉 세민

사부대중일동

음력 초하루 신중기도
음력 초삼일 독성3일기도
음력 16일 산신기도

■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산164-5번지
전화 02)988-9300
wwww.samsungam.org

대한불교조계종

진관사

회주 진관
주지 계호

사부대중 일동

[부설] 보현정사 포교원 , 코끼리 유치원,
사회복지법인 진관무위원,
진관지역아동센터
불광노인복지관 · 불광데이케어센터
(사)진관사국행수륙재보존회,
진관사 산사음식연구소,
구파발 어린이집

■ 서울시 은평구 진관길 73
TEL 02)359-8410 / www.jinkwansa.org

대한불교 미륵정토종

미륵정토사

사부대중 일동

■ 충남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 389번지
TEL 041)855-3566~7

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

유네스코세계무형문화 유산 등재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천년고찰 봉원사

회 장 석선암
보유자 김구해
부회장 이기봉
총 무 조현성
교 무 김태호
재 무 조효광
사 회 이석천
사무장 엄혜담

봉원사 대중일동
관음회 화엄회 합창단 일동

■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전화 02)392-3007~8 전송 02)393-9450
www.bongwonsa.or.kr

대한불교조계종

문수산 축서사

주지 무여

문수선원.
불교대학.대학원
축서사바라밀 합창단

사부대중 일동

축서사 극락원
(수목장)자연과함께
자연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장묘문화

■ 경북 봉화군 물야면 월계길 739번지길
전화 054)672-7579



02.733.0730

선아트스페이스 www.sunarts.kr
space선+ academy선그림 studio선불화공방

대한불교조계종

용 문 사

주지 청안

사부대중 일동

예천용문사에는 국내 유일한 보물
대장전의윤장대와 목조삼존불이 있으며
대장전안에는 불교경전을 넣고 손잡이
를 돌리면서 극락정토를 염하는 유일한
중요문화재이며 회전식 장경각이다.
성보박물관에는 탱화와 영정. 불상 등
많은 불교유물이 전시되어있다.

「 사찰문화를 체험할수있는
템플스테이도 운영 」

■ 경북 예천군 용문면 용문사길 285-30
TEL 054)655-1010

대한불교조계종

소백산 지장보궁 내원암

국내3대 지장보궁 중
제2소백산
지장보궁 성지입니다.

힘있고 영험있는 지장보궁에서
자기기도할
비구니스님을 청합니다.

■ 경북 예천군상리면 명봉리 명봉사길 139
TEL 054)653-1180
010-6353-1180

영농법인 풍기정품인삼제조장

풍 삼 정

직접재배 가공하여 양심을 속이지않고
만든 100ml×60포 (한달분)

홍삼의 샤포닌은 성분과 향기를
보유하기 위하여 저온에서
72시간을 숙성발효시켜 만든제품

▷ 풍삼점 제품 ◁

풍기정품홍삼액(명품) 순홍삼액골드
인삼향기홍삼액(골드)
풍기정품홍삼액(골드)
홍삼청국장. 홍미삼. 백미삼.
홍삼먹은사과즙. 풍삼정쥬니어홍삼액

■ TEL 054)636-2174
016-815-2174

대한불교조계종

태화산 서악사

주지 도륜
사부대중 일동

■ 경북 안동시태화동 서악길 67-14
TEL 054-852-9126

대한불교조계종

화엄도량 부석사

주지 근일
사부대중 일동

■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부석사로 345
TEL 054-633-3464

대한불교조계종 전법도량

신 흥 사 청소년 수련원

부처님 교화공원
템플스테이사찰
신흥사 불교대학
경전연구반

주지 오성일
대중일동 · 신도일동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신흥사길 17-34
TEL 031)357-2695, 357-3916

안성 백 련 사

주지 태암
사단법인복지법인 둥지마을
사부대중 일동

■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한운리 산 171번지
TEL 031)674-1861 031)674-1860

'빨간머리 앤' 고향에 대규모 불교성지 조성

캐나다 대각불교회, 5월 둘째 주 개원식 거행


만화 '빨간머리 앤'의 고향으로 유명한 캐나다 프린스 에드워드 섬(Prince Edward Island)에 대규모 불교 사원이 조성됐다. 출처=CBC뉴스

12채 건물 완공… 추가 건립 중
수백 명 아시아승려들 수행 공간
개원 전 주민 소통위해 공부 매진
1800여 명 개원식 사전등록
주요시설 · 수공예 조각 등 공개

만화 '빨간머리 앤'의 고향으로 유명한 캐나다 프린스 에드워드 섬(Prince Edward Island, PEI)에 한화 약 11억 5000만 원 가치의 대규모 불교 사원이 조성됐다.

캐나다 언론 'CBC뉴스'는 5월 2일(현지시간)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 거주하는 스님들이 5월 둘째 주 주말에 대규모의 복합 불교사원을 개원한다"고 보도했다. 현재 약 100만 달러(한화 약 11억 5000만 원)의 가치를 지니는 12채의 건물이 세워졌으며, 지금도 건물을 세우기 위해 공사가 추가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 사원은 대각불교연구회(The Great Enlightenment Buddhist Institute Society, GEBIS)에서 8년에 걸쳐 건립했다. 현재 대각불교연구회에서 공부 중인 수백 명의 아시아출신 스님들은 개원을 앞두고 지역주민과 소통을 위해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대각불교연구회 공식대변인 댄 스님은 "사원의 스님들은 PEI지역의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다"며 "이번 주말과 어머니의 날이 있는 5월 둘째 주 일요일은 사원 개원식을 진행하기에 최적의 날이다. 지역 주민들과 불자들에게 불교를 알리기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댄 스님은 "대다수의 스님들이 영어로 대화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개원을 앞두고 상당히 긴장한 상태"라며 "갑작스럽게 많은 방문객이 오면 응대하기 어려우므로 사원을 방문하기 전 사전 등록을 바란다"고 말했다. 스님에 따르면 이미 1800명의 사람들이 대각불교회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 등록을 마친 상태다.

이날 대각불교연구회 스님들은 사원에서 하루 일과와 더불어 사원의 주요 시설물들을 대중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주요 시설은 황금불상이 모셔진 중앙 법당과 500명 스님들이 수행할 수 있는 공간, 스님들이 거주하는 기숙사 등이다.

리우 스님은 "학승들이 불교철학을 바탕으로 불교 논쟁을 하는 모습을 대중에게 보여줄 것"이라며 "수년간 PEI지역 주민들과 스님들 간 교류를 보여주는 이야기들과 활동사진들도 전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어머니의 날' 특별 행사로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의식을 진행하는 한편, 스님들은 버터에 알록달록 색을 입히고, 정교히 조각하는 전통 수공예 작업을 선보인다.

이에 스님들은 SNS를 통해 열띤 홍보 중이다. 리우 스님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대각불교연구회 사원에 놀러 오셔서 색다른 경험을 해보세요"라고 홍보했다. 그러면서 리우 스님은 "이곳 스님들은 빵을 매우 잘 굽기로 유명하다. 사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빵을 증정할 것"이라며 "사원을 둘러보는 프로그램은 60~90분정도 걸린다.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中 승려 법구, 황금 미라 되다

13세에 출가한 후 93년 간 고행해 온 푸호(Fuhou) 스님의 법구(法軀; 시신)가 금으로 덮였다. 푸호 스님은 생전 염원에 따라 2012년 입적 후 미라 상태로 원통형 독에 보관됐으며, 지난 1월 대중에 공개됐다.
영국 신문 'The Independent'는 5월 2일(현지시간) "스님의 몸을 거즈로 감싸고 옻칠을 한 뒤, 마침내 금박으로 덮였다"며 "푸호 스님은 불교 신자들을 위해 산꼭대기 유리함에 보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The Independent

박아름 기자

호주 브리즈번 '불교세' 거세지나

월 28~30일 봉축 행사에 20만 명 다녀가
올 8월 인구조사서 불자인구수 통계결과 '주목'

호주 브리즈번에 불교 열풍이 불고 있다.

호주 지역 언론 '브리즈번타임즈(brisbanetimes)'는 4월 30일(현지시간) "2011년 호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호주 브리즈번 불자 인구수는 침례교도 수와 대등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2011년 브리즈번에 사는 4만2227명이 자신을 불교도라고 답했으며, 4만 8천명이 침례교도라고 답했다.

이어 브리즈번타임즈는 "또한 현재 퀸즈랜드에 거주하는 6만6000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불자라고 말한다"며 "오는 8월 발표되는 인구 조사 결과를 통해 정확한 수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브리즈번타임즈는 4월 28~30일 브리즈번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제20회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보도하며 "지난 주말 브리즈번 사우스 뱅크 파크랜드에서 성대하게 열린 봉축행사는 불자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라며 브리즈번에 불고 있는 불교 열풍을 보도했다.

브리즈번 청티엔 사원의 랄프 스미스 스님은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축하하며 3일 동안 약 20만 명의 방문객들이 다녀갔다"며 "특히 올해 사원을 찾은 방문객만 전년대비 50퍼센트가 넘는데, 이런 현상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의미다. 퀸즈랜드에서의 불교 위력을 과소평가 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호주 내에서 약 6만 6000명이 열혈 불자라고 추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3~4배 많은 수의 사람들이 불교에 매료돼 부처님 가르침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며 "이번 봉축행사를 보기 위해 전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불교의 위상을 증명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우스뱅크에서 열린 불교 페스티벌에는 태극권 · 용선(龍船) 경주 · 명상 · 아기부처 관욕 · 쿵푸 시범 · 문화 역사 강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으며, 브리즈번타임즈는 한국인들의 사물놀이패 공연사진을 기사와 함께 게재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호주 퀸즈랜드 브리즈번에서는 4월 28~30일 부처님오신날 행사가 열렸다. 사진은 행사에서 사물놀이패 공연을 하고 있는 한국인들. 사진출처=브리즈번타임즈

케이티 페리, 연인 따라 불교개종?

Mirror "올랜도 블룸, 불교 신행 독려"



팝가수 케이티 페리(Katy Perry · 31 · 사진)가 연인 올랜도 블룸(Orlando Bloom · 39)을 따라 불교로 개종할 가능성을 내비춰 화제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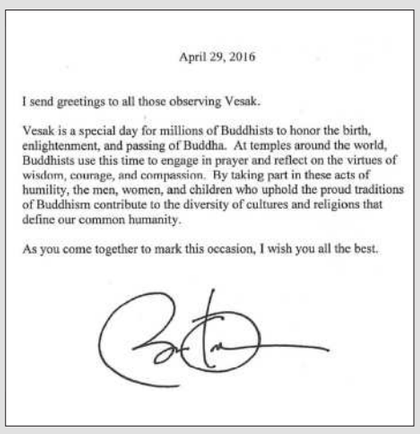
영국 일간지 'Mirror'는 4월 29일 케이티 페리 · 올랜도 블룸 커플이 지난 1월부터 공개 열애를 해 온 사실을 언급하며, "케이티의 부모님이 복음주의 기독교 신자임에도 불구, 케이티가 올랜도를 깊이 사랑해 개종을 고려하고 있다"며 "그녀는 전 남편인 러셀 브랜드(Russell Brand) 회유에도 무종교인으로 살아왔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Mirror'는 "불교에 매우 심취한 올랜도는 케이티에게 함께 신행생활에 임할 것을 권유하며, 그녀가 불교로 개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아름 기자

오바마, 美대통령 취임 첫 봉축메시지

4월 29일, 전미 불교도 위해 백악관베삭법회추진위에 보내


April 29, 2016

I send greetings to all those observing Vesak.

Vesak is a special day for millions of Buddhists to honor the birth, enlightenment, and passing of Buddha. At temples around the world, Buddhists use this time to engage in prayer and reflect on the virtues of wisdom, courage, and compassion. By taking part in these acts of humility, the men, women, and children who uphold the proud traditions of Buddhism contribute to the diversity of cultures and religions that define our common humanity.

As you come together to mark this occasion, I wish you all the best.


오바마 대통령(사진 오른쪽)이 보낸 봉축서신 원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전미 불교도들을 위해 봉축메시지를 전했다.

'2016 백악관 베삭법회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위원회 소속 윌리엄 아이켄(William Aiken) 사무총장 앞으로 봉축메시지를 보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봉축메시지에서 "베삭(Vesak)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신, 성도, 그리고 열반을 함께 기념하는 수백만의 미국 불교도들에게 매우 특별한 날"이라며 "세계 방방곡곡의 불교사원에서 불교도들은 베삭을 맞아 기도하고 지혜, 용기, 자비의 덕목을 반조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겸손의 덕목을 실천하면서 불교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유지하는 남성과 여성, 아이들은 보편적 인간성으로 정의되는 문화와 종교의 다양성에 공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방불교의 베삭은 부처님 탄신과 성도, 열반을 함께 기념하는 불교계 최대 축제 중 하나다.

남방 음력체계로 5월 15일이지만 1956년 제4차 세계불교도의회(WFB) 연례총회에서 양력 5월에 보름달이 뜬 날을 베삭데이로 지정했다. 올해 베삭은 5월 21일이다.

한편 2016 백악관 베삭법회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인 성원 스님(워싱턴 연화정사 주지)은 "올해 백악관 베삭법회는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따라서 위원회는 곧 해체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내년 1월 새로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백악관 베삭법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Buddha's Birthday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합니다

한국불교태고종

광주 전남교구 종무원

종무원장 임호산
부 원 장 박월인

총무국장 박보각 재무국장 황법진 규정국장 지정각
문사국장 김보겸

원로회의장 김지암 원로회부의장 권금용

지방종회의장 김시각 지방종회부의장 남법진
총무분과위원장 유혜종 재무분과위원장 김승범
규정분과위원장 장지명 교무분과위원장 박상종

중앙종회의원 심지암 김원일 노보현 노자원 여지공 박법일 문연봉 박성법 김도안 정원문 서승휘

■ 주소 : 광주 광역시 서구 금호운천길 85-15 전화 062)375-1820 / FAX 062)381-0944

Buddha's Birthday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합니다

한국불교태고종

태고총림 조계산 선암사

방 장 혜초 대종사
회 주 금용

원로의장 지허
비상수호대책위원장 지암
원로의원 금용 지암 일호 성천 설봉 성관 남파 원명

선 원 장 상명 율 원 장 도월 강 원 장 호명
강 주 목우 염불원장 호산

종회의장 고종
종회의원 현오 혜종 정안 혜신 원문 도성 도안 원국 보각 원일 법성

주 지 호명
총무국장 승범 재무국장 청호 규정국장 명정
템플법사 등명 원 주 홍안 총신도회장 하영철
여신도회장 김필순 불교대학회장 윤태주

신도회 일동

■ 주소 : 전남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길 450
종무소 061)754-5247. 5953 / 템플사무국 061)754-6250 / 팩스 061)754-5043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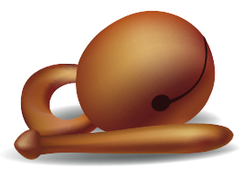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괴로움은 성현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까닭 없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괴로움은 늘 바뀌고 변하는 것이니 지혜로운 사람은 괴로움을 끊어 없애야 하느니라.

– 대본경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수강후 법사증, 승려증 발급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천도재,사십구재
(호적,바라,회심곡),점안식,
시다림,구병시식
010-5917-1242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 · 구병시식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역학,구궁,오행, 당사주,신살

배워서 상담 하실
분들 전화주세요
010-4234-2536

초상화 주문 받습니다

낡고 변형된 사진을 최고급 실크로 제작, 흑백 증명사진을 컬러로 예쁘게 만들어 드림. 청하스님 최고 氣달마. 재물과 복을 주는 놋쇠로 만든 삼조고, 업두꺼비와 복돼지 특별주문
010-8561-8253

여래사 여수불교대학

주지 및 학감스님
모십니다. 전라도 불교포교에 관심있는 비구, 비구니 스님
010-9351-6330

분원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학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영험한 퇴마, 기치료

상기병. 빙의. 퇴마. 이유없는 두려움수행에 진도가 없거나 공부에 있어 새로운 스승을 만나고자 할때. 첫발을 내딛는 제자나 재발심한 수행자.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010-8880-8911

초능력 기공

수련생 모집
3개월이면 나도 초능력 기공사가 된다.
단기 수련생 10강 / 특수수련 20회
에너지힐링
(뭐든지 다 치유)
약손 빛힐링.초염력.주열요법
(네이버 카페 묘심기공 참조)
자연전인치유 건강관리연구소
010-4611-1296

관상 손금

스님특별 책임 개인지도
– 질병을 전문으로 강의함
– 암, 질병, 재판, 묘터, 교통사고 운을 얼굴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
– 성명학+사주+백초귀장술
– 수강후 자격증 수여
– 무속인, 철학인, 일반인 (천기누설강의)
010-4014-8822

아무도 가르쳐 주지 못하는, 신경성 질환,불면증 화병, 기(氣)치유법

사찰,개인,대학병원,증세 심한분, 배울 분 출장, 최고의 치유법 자신함
저작권등록 심리철학 제C-2015-023718호
(한의학과 철학의 공통점)
다음 카페 몸과 마음 건강법 철학과 심신건강법
(심리철학, 건강철학, 부부철학)
경력 : 심리철학(관) , 결혼상담
1945년 11월생 혜천
010-4078-7810

암자 처사(기사)님 모십니다

숙식 필수
(50세 이상, 경기 성남)
010-5264-8312

기도하시면서 함께지낼 비구니 스님이나 보살님 모십니다

(대구 팔공산, 비구니 도량)
010-4314-7895

비구니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0세이하, 충북 음성)
010-5883-2255

토굴 필요하신 스님 연락주세요. 공양주 보살님 도 모십니다.

010-5269-9300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대구시내 사찰)
053-654-0408
010-3422-323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이천)
031-641-6311

신통력과 특수한 비술을 스님에게만 전수

☎ 032)664-0048 / 011-741-0867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북부역 소명사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구성학 강의

신비의 점성술
● 매주 : 화,목 강의 / 2시~ 4시 (교재무료)
● 수강료 월 20만
구성역리학회
010-4876-5353 / 051-245-535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상운사)
033)482-3382
010-3764-3661

법당 함께 운영하실 능력있는 스님, 총무님 모십니다

(인천)
010-8300-9679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2016년도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강의!
– 목,금요일 오전반, 화요일 저녁반
–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 힘"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입학 문의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종로)
010-3025-7269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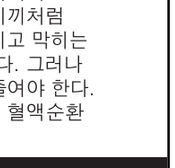
(60세이하, 부산)
010-7311-5335

신비의 령산 마이산 탑사 행자모집

▶ 나이 : 만 40세이하
▶ 학력 : 고졸 이상
최고 수준의 승가 교육보장
문의 : 063)433-0012

귀접/귀신들림/알콜중독/게임중독/도박/상습폭행등

모두 빙의현상일 수 있으며, 귀신을 확인 시키고, 책임치유, 사후관리까지... 원인을 알면 처방이 있다!
빙의치료의 대가 화엄스님 010-4293-7075
고민, 고통 해결사 060-900-8181



빙의치료 화엄선원 명리교육관
원격상담문의 010-4293-7075 부천 상동역

이근원통 관음수행

(수능엄경)
단전호흡, 수식관호흡, 관음수행
도제식 지도
010-2069-8918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법의 깊은 뜻을 관찰하는 사람 가운데도 이웃과 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법의 깊은 뜻을 관찰하면서도 자신과 이웃, 사회와 인류를 생각하고 기여하는 사람이 가장 훌륭하다.

- 선법경 -



사찰전문 30년 전통 (전국 2,000여 사찰보유)

▶ 아름다운 사찰 ◀
- 위치 : 청도(대구에서 20분거리)
- 총부지 : 400여평
- 건물 : 목조법당(250평), 요사채(3동 50평) 목조삼성각(7평), 극락전, 황토방
- 양도가 : 4억(금융대출 2억 5천 별도)

051-863-6622/ 010-3560-8522

▶ 장인이 지은 전통목조 2층 와가(신축) ◀
- 할수 있는 직종 : 사찰,명상센터,사찰음식점
- 위치 : 사천 골프장입구 아름다운 바다전망
- 총부지 : 1,400여평, 관광버스 20대 주차가능
- 건물 : 와가 약 90평, 미등기건물 40평
- 양도가 : 12억 2천(금융대출 6억 8천별도)

연산공인중개사
제 26320-2015-00027호
주소: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1, 504호(만덕동 302 다산타워)

이박사 추천암자 급 안내 (www.이박사.com)

- 청량산 부근암자. 건물 90㎡, 인법당이며 건물두채임
- 도지 8,400㎡
- 산중조용한 암자겸 토굴사용
- 해발 500정도 기도하기 좋음
- 양도가액 3억 5천만원. 조정가능(융자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대표 : 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부지 : 60평 ◎ 법당 : 30평 ◎ 요사 : 50평 ◎ 양도 : 10억 5천
◎ 위치 : 경기 ◎ 대지 : 200평 ◎ 법당 : 40평 ◎ 요사 : 40평 ◎ 양도 : 7억 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시내
- 총부지 : 230평
- 건물 : 법당(20평), 요사채(방4개), 텃밭
- 앞바다가 한눈에보이는 아름다운 절
- 가액 : 몽땅 2억 5천

010-2595-7752
부산 만덕 부동산
제 26320-2015-00027호

영주IC 부근 아늑한 사찰
- 토지 5,900㎡
- 법당, 요사채, 산신각 등
- 사찰경내 약수있음
- 앞쪽은 마을 뒷편은 산이고 경내에 멋진바위가 여러개 있음
- 가액 : 4억원

(원주이박사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규철)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부산 산사 새벽시장 뒤 (서감초등부근)
- 4층 건물에 2층
- 건 60평 포교원
- 법당 완전 구비 즉시 입주
- 가액 : 1,8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1,300만원

010-7570-2051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단양군 가곡면
- 대지 400평(주차장완비)
- 건평 50평 1동, 20평 1동
- 대웅전(요사채), 산신각, 용궁
- 가액 : 1억 7천 5백 즉시입주

010-3796-4852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인천시 서구 가정동 인천 지하철 2호선 정서진역 1분거리
- 평수 : 80여평
- 3층 건물내 3층 전체 사용
- 독립 계단, 주차장 완비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70만원 시설비 : 3,500만원
- 급안내 : 스님 불사 이전 관계임

010-2793-6199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포교원(급) 안내
- 위치: 울산시 남구 신정1동 신정시장 부근
- 평수 30평, 2층독채, 큰방3개, 거실, 욕실
- 주방, 시설비 금액은 4,700만원
- 편백나무 리모델링, 급한사정으로 2,000만원 인수하실분
- 위치 좋음, 교통도 좋음
- 삼존불, 석가모니, 약사여래, 관세음보살 후불탱화, 용왕, 산신, 신중

010-6739-0428

사 찰 안 내
- 위치 :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 법당1,요사채1,주차장 완비
- 2층 건물 각 75평,
- 건평 149평, 대지 136평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 가능
- 가액 : 20억(절충가능)

010-3752-2601
031-217-2633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 법당 : 30평 목조 건물, 문화재급 보유
- 요사채 및 식당 : 40평
- 대지총면적 : 450평
- 즉시 법회가능
- 총양도가액 : 4억 7천만원
-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 주세요 (가격조절가능)

010-4725-5907

사찰(급)안내
- 위치 : 포항 도심속 전통양식
- 아담한 사찰
- 인법당 30평, 2층 방 한 칸, 칠성각, 용왕단, 독성각
- 문수동자 200불, 소불 1,200불
- 공양간, 사무실, 주지방, 화장실 3개
- 가액 : 2억 9천만원

010-4606-7253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내 전철에서 5분거리
- 몽땅 2억

010-8861-1785

포교원(급) 안내
- 위치: 부산시 남구 용호로 부근
- 3층 건물의 3층 32평
- 삼존불 모심
- 가액 : 1,000만, 월50만원 시설비 없음

010-3742-5925

다용도 토지 안내
- 위치: 경기 양평 아신역에서 5분거리 (대지 257평, 건평40평 뒤는 산) 서울까지 60~40분 소요
- 앞은 옥천 시내, 유동 인구 많음, 전망좋음
- 용도: 암자, 포교원, 사주카페, 별장
- 가액 : 실입주금 3억 (융자 1억5 천)

010-4234-2536

암 자 안 내
- 위치 : 경주시 충효동 981-3번지 구미산, 대지 64평
- 아담하고 깨끗한 절
-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약사불, 지장보살, 신중(산신)
- 법사님 또는 타종단 환영
- 가액 : 6천 5백만원(건물포함)

폰 010-4040-3588
집 054-742-878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소재 김천시 황금시장교통 10분대 김천혁신도시 15분대
- 건물:단층독채,벽돌조104,54㎡(32평) 자기소유등기필(소유권이전),사찰등재
- 대지 : 도지료 1년 35만
- 내용 : 법당(넓음),거실주방,방2개,세면장 면중심가 2차선 큰길변 남향(교통좋음)
- 가액 : 6,400만원(절충가)

010-7295-1259
054)435-125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
- 법당 1, 요사채 1
- 대지 341㎡, 건물 72㎡
- 가액 : 1억 5천만원

010-3050-2637

사 찰 임 대
- 여기는 진주시 유곡죽전길 9-5번지 연화빌리지 4층 절을 임대합니다
- 4층 건물 전체 100평 정도 됩니다
- 전세 금액은 1억이고 스님만 오시면 됩니다
- 비구니스님이면 좋겠습니다

010-9892-3435

사 찰 안 내
순천 최고의 신도시 백화점뒤에 사찰
- 사찰창건 : 23년
- 대지 700평, 자연녹지 500평
- 대웅전(木) 22평, 삼성각 (木) 6평
- 요사채 (슬라브 2층) 방 6개, 주차장(15대 완비)
- 200M 거리 아래 : 백화점, 법원, 만(10,000)세대 아파트 단지
- 가액 : 7억 8천(1억8천 융자)

010-6898-9114

사찰안내(국유지)
- 위치: 서울 성북구 정릉동
- 대지 734, 인법당 10평 정도
- 방8개, 화장실3개,시설완비
- 주차, 마당에 10대 가능 연못, 방가로 시설
- 가액 : 6억 2천(절충가능)

010-4918-2597

대형포교원(도심사찰)안내
새로운 신도 포교하기 제일 쉬운곳
- 위치 : 울산 중구 학성동 432-206
- 규모: 3층 건물, 2,3층(약 130평) 옥상활용 가능
- 2층:공양실, 종무소, 대중방3, 스님 친견실, 스님 처소, 화장실2
- 3층: 대법당, 지장특별기도실,산신각, 화장실
- 가액 : 5천만원, 월 90만원 시설비 4,000만원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6429-507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삼랑진역에서 10분거리
- 경관 아주 좋음
- 대지 230평, 건평 75평(법당)
- 큰방 4개, 다실 1개 거실 및 주방(현대식), 심야전기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0-3547-1766

포교원 안내
- 위치 : 창원시 마산중심가
- 평수 60평 정도
- 삼존불, 후불, 신중탱화 등
- 시설완비, 즉시법회, 난방비 무
- 가액 : 2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조정

010-6208-5555
055-242-6555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 광역시 중구 복산동 소재 (아파트 단지 내)
- 4층건물 중 1층 16평
- 법당, 방1개(천권실, 주방, 화장실, 별도공간 5평
- 시설 : 신설 삼존불, 신장, 영가단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월25만원 시설비 상담후 가격 결정

052-291-3379
010-4576-228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마산리 563번지,553번지는 대지, 산은 110-6번지
- 하우스법당과 하우스산신각, 요사채1, 처사방1, 황토방1, 하우스 창고1, 자재창고 4개
- 563번지 대지 147평, 553번지 대지 230평
- 임야 산 2,007평 110-6번지
- 전기 개인전기 정화조 산에 내려온 식수
- 절충 가격

010-5348-2002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 60-1번지
- 재래시장옆, 법당40평, 3층건물중 2층
- 주불, 아미타 각 위 5존불, 각 탱화완비, 소불 300불
- 가액 : 1,000만원 월 50만원 (최고, 최상의 시설) 시설비 1,500만원(조절가능)

010-3101-1151
051-782-0110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금산군 군산읍 족실길 52
- 진악산 등산길 옆 선공암 절
- 조용하고 금산 전경이 다 보임
- 대지 454평, 법당 27평 요사 2동(방 4), 거실 大
- 가액 : 3억 5천(절충가)

010-4355-6356
010-3401-6356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동작구 사당시장 부근 7호선 약 3분거리
- 2층 전체 약 35평(도시가스)
- 삼존불, 신중, 산신, 영가단
- 주방,욕실,주차 2대
- 아주 깨끗함, 관리비 없음
- 가액: 1,000만원 월 110만원 3,500만원(답사후 조정 가능)
- 즉시법회가능

010-4646-3638

전통 찻집 임대
- 위치: 부산 금정구 청룡동 범어사 종점
- 숙식가능, 싱글 강추
- 가액 : 전세 2천만원, 월세 40만원
- 권리금 유

010-9394-148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덕 영해면
- 대지 300, 전 450평
- 대웅전30평, 요사채35평 산신각 5평
- 가액: 2억 8천만원 (새마을금고융자 3200만원)
- 사찰에서 고래불해수욕장 5분거리, 대진해수욕장10분거리 (답사후 가격 절충가)

010-4747-3164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천안시 목천읍
- 대지 173평
- 법당 25평
- 요사채 28평
- 가액 : 2억 5천만원

010-2376-5411
041-557-7786

사 찰 안 내
- 위치 : 월출산 국립공원(내)
- 법당, 요사, 와가, 목조건물 2동
- 산신각 1동, 토지, 임야포함 1천평
- 계곡있고 경관좋음
- 시내차로 5분거리
- 가액 : 2억 5천만원

010-4526-9588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곤명면 연평리
- 평수 : 대지 350평
- 목재건물 4칸 17평. 동향 안채 슬라브 28평 남향
- 가액: 2억 7천만원 (부동산 사절)

010-5838-4478

토 굴 안 내
- 위치 : 문경읍 관음리 (문경온천에서 13km)
- 건물 : 10,5평 (목조강판기와 부지 : 82평)
- 농지 : 전 221평 (귀틀집 농막 6평 포함)
- 가액 : 1억 2천만원
- 기타 : 시원한 계곡물이 있고 구거부지도 사용 중

010-8555-4480

멋진2층전원주택사찰
- 위치 : 경북 김천시내
- 평수 : 대지 217평 (아래층 방 5개, 법당, 주방, 해우소) (2층 방3개 거실, 주방, 해우소)
- 마당 잔디 황토방 조경 좋음
- 가액 : 대출 1억 포함 2억 8천 5백만원
-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8008-6781

도심 속의 기도터
- 포교원
- 위치 : 마산시외버스 아랫길
- 평수 : 약 35평(2층)
- 위치 좋음
- 몸만오시면 생활가능 즉시 입주가
- 가액 : 3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700만원

010-2400-4237
010-2831-0114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수송동) 2층
T. 02)2004-8216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佛紀 2560年 丙申年 | 전면광고

자비로운 마음 풍요로운 세상 | A27

독경하지 않으면 경전이 때 묻고 수리하지 않으면 집이 때 묻으며 옷차림을 게을리 하면
용모가 때 묻고 멋대로 행동하면 수행자가 때 묻는다. (법구경)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사부대중 일동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23-26(동삼동)
TEL (051)403-7077 FAX (051)403-1077
www.hanmaumbusan.org

보건복지부지정 장기이식등록기관

사)생명나눔실천본부 부산지역본부

본부장	원범
부본부장	자인, 목종, 심산, 고담
	이경순, 이동권, 이승표
감 사	호법
	문연주
총무이사	해암
기획이사	마나
	이욱태
재무이사	성관
	김법영
홍보이사	혜산
자살예방이사	하림

이 사 일 동

■ 생명나눔부산 자살예방센터 051)442-0429
■ 부산 동구 고관로 67, 3층 (수정동 대성빌딩)
TEL 051)853-0429 / FAX 051)853-0439
www.bslisa.or.kr / www.bsmy-life.or.kr

正法弘布를 위하여
進一步 登一段하는

㈜ 釜山佛教實業人會 妙 光 禪 院

회 장	김윤환
고 문	강병중. 서춘석.
	최 찰. 이상태.
	하문원. 박수복
부회장	이근철. 이달수.
	황인관. 강양수. 정영철
감 사	지호경. 박신욱
총무이사	이환길
재정이사	송우근
사업이사	이종환
관리이사	이규인
연수이사	박주영
부총무	양동회

회 원 일 동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37 부산불교실업인회관 4층
TEL 070-8133-9917 / FAX 051)818-9914

持戒念佛萬日修行道場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부산분원

관 음 사



늘기쁜마을 관음사

cafe.daum.net/gwanumsa1

■ 부산 사하구 제석로 79번길 33
051)294-9300

(사)부산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총 재	경선 스님
사무총장	능주 스님
협 회 장	백명숙
사무처장	천용귀
사무차장	신정희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문화로 27 사무실 1206호
전화 051)513-4306
팩스 051)513-4307

삼천배 참회기도 근본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감 로 사**

회 주	법희
주 지	혜총
부주지	경성
총 무	경원

사부대중 일동

■ 부산시 부산진구 진남로 432(전포동)
TEL 051)809-0926 / FAX 803-0188

(감로사에서 운영하는 복지기관)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부산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 가릉빈가언어치료센터
■ 용호방문요양파견센터
■ 양정노인주간보호센터
■ 무료급식(매일 400여명)
■ 용호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
■ 용호어린이집
■ 용당어린이집
■ 노인대학(매일 200여명) 등

■ TEL 051)628-6737 / FAX 628-6562

대한불교조계종

황령산 **홍 제 사**
황 령 선 원

선원장 혜 국
주 지 성 문

사부대중 일동

· 매월(음) 초하루 - 초사흘 신중기도
· 음력 보름 인등 기도

사회복지법인 화엄도량

노인요양시설 효 림 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남로304번길 34(전포동)
TEL 051)802-0130 / FAX 804-1037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기도도량

운 수 사

사부대중 일동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 219번길 173(모라동)
TEL 051) 313-3300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회 장	자 승	(조계종 총무원장)
부 회 장	성 문	(조계종 종회의장)
	춘 광	(천태종 총무원장)
	회 정	(진각종 통리원장)
	홍 파	(관음종 총무원장)
이사장	회 정	(진각종 통리원장)
부이사장	인 구	(보문종 총무원장)
사무총장	향 운	(원효종 총무원장)
여성부		
회 장	백명숙	(대일심)
부회장	박동희	(만월심)
총무	방정자	
재무	김명애	
감사	남영희	
운영위원	김경수, 김동희, 김예영	
	정지연, 박정옥, 옥영숙	
	우정해, 김명애	
국제협력부장	서경순	
문화홍보부장	신덕기	

■ 서울사무소 :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45-19 불교대학 3F
전화 02)702-1708
부산사무실 : 부산 부산진구 동천대로 24 종로학원
전화 051)818-3427

(사)부산불교지도자포럼

회 장	박수관	㈜와이씨텍 회장, 부산경남베트남명예총영사
상임고문	박순곤	용성유로지스㈜ 회장
고 문	허인구	㈜디에스이 회장
	김재운	㈜동영콜드프라자 회장
	김재진	경동건설(주) 대표이사
	박민식	국회의원
	조효식	고려화공(주)회장
	최칠관	㈜고려노벨화학 회장
	설동근	前. 동명대학교 총장
	이윤희	태금정㈜ 회장
	박홍대	법무법인 유석 대표변호사
	권청길	㈜후로링인터내셔널 회장
	이시영	㈜한국문화교류재단 이사장
	장남인	덕인산업 회장
	이상수	에스엘하이텍㈜ 대표이사
상임부회장	박영근	인제대학교 디자인대학 교수
부 회 장	김수현	백광기획 대표이사, 불교TV 부산지사장
	김종백	동일전력토건 대표
	신재철	㈜세누ENG건축사사무소 회장
	최삼섭	㈜대원플러스건설 대표이사
	양재생	은산해운항공㈜ 대표이사
	배상진	한진텔레콤 회장
	최금식	선보공업㈜ 대표이사
	최주덕	㈜하이로드 회장
감 사	윤경석	한국한의원 원장
	이종우	이종우법무사사무소 법무사
사무총장	공영석	㈜일동일동토건(주) 상무이사
재무총장	정연식	㈜태영리사이클링 대표이사
친목이사	공정근	은성도금㈜ 대표이사
홍보이사	이현수	BS종합건설㈜ 대표이사
기획이사	최대경	부산시청 도시계획과 과장
섭외이사	배도정	한비건축사 대표건축사
조직이사	박창근	㈜부영메탈 대표이사
사업이사	최상곤	세무법인 신성 대표 세무사
대외협력이사	장병주	주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이사 회원 일동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 71,9층(부전동,정산빌딩)
TEL 051)334-0108 / FAX 051)898-2674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산 **선 암 사**

주 지 원 범

원효신도회, 원효봉사단회
원효불교대학, 원효거사회
원효합창단, 원효청년회
원효다도회

사부대중일동

고품격 추모문화를 추구하는 선암사추모관
· 선암사 직영으로 신뢰 높은 운영관리
· 천년고찰 선암사와 영구히 존재
· 매월1회 발복과 극락왕생 기원합동천도재
· 설, 추석, 백중 합동제사
문의 및 접수처 ☎ 051)803-7576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산로 138 (부암동)
TEL 051)803-7573 / FAX 803-7521

대한불교조계종

해운대 장산 **원 각 사**

금강승불무도 총본원

주 지 안 도

신도회장 권환공

외 사부대중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산로 427-291
(좌동 1132번지)
TEL (051)701-8827

(부산시청 뒤) 정통교육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여여선원

(부설-자선단체) 세상을 향기롭게

선원장 정여스님(前범어사 주지)

영도대흥사	주 지	정여스님
삼랑진 여여정사	주 지	도명스님
김 해 여여정사	주 지	도명스님
해운대 여여선원	주 지	도우스님
사량도 관음낙가사	주 지	효원스님
울 산 여여선원	주 지	효암스님

여여선원 신도회 명예회장 김경환
신도회장 이향순

신도회, 총동문회, 복지회, 선림회, 명상회
백만독다라니기도회, 여여산악회, 여여선원카페,
지장회, 관음회, 청년회, 청소년회, 어린이회,
기초교리반, 여여불교대학, 선불교대학원,

■여여선원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 94 7층(연제빌딩)
TEL 051)853-5486~7, FAX 051)863-6422
■(사)세상을 향기롭게 : TEL 051)702-9944

"한국불교의 중심! 부산불교!"

화합과 번영의 21세기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가 수행과 정진에 앞장 서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불교연합신도회

명예회장 이윤희
회 장 박대성
수석부회장 양재생
상임부회장 권승렬, 문연주
감 사 권기우, 왕선자
사무총장 안병호

회원 일동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13
(양정동) 불교회관 401호
TEL 051)861-8800

사상구 불교연합회

고 문	청강(옥천사)	혜지(낙은사)	종학(불광사)
	법공(칠보정사)	성비(영수암)	경호(법성사)
자문위원장	종선(해경사)		
자문위원	무학(성학사)	청암(관음사)	만오(도원사)
회 장	유정(운수사)		
수석부회장	성문(선광사)		
부 회 장	성관(백운사)	만용(성불사)	대둔(용운사)
총무국장	혜산(봉덕사)		
포교국장	은적(관음사)		
의전국장	성림(관음사)		
사회국장	자륜(낙은사)		
문화국장	지관(약수암)		
감 사	진각(홍덕암)	법경(광명사)	

사상경찰서 경승

고 문	청강(옥천사)	유정(운수사)	
실 장	성문(선광사)		
경 승	성관(백운사)	성림(관음사)	대둔(용운사)
	혜산(봉덕사)	지관(약수암)	법경(광명사)

사상구불교연합신도회

회 장	이상갑(홍법)
수석부회장	전수덕
상임부회장	장병주(자광)
상임감사	김명조
자문위원장	심인택(수담)

각 사찰 운영위원 자문위원 일동

■ 사무국 010-8581-2045
팩 스 051)862-1024

박재완의 포토 색즉시공

화양연화(花樣年華)

숲속 어딘 가에선 개미들이 돌을 져 나르고, 때가 된 산새는 앉았던 가지를 떠나 날아오른다.

개미들의 행렬로 숲의 모습이 바뀌고, 지붕 위로 날아든 산새의 날갯짓으로 하늘의 모습은 또 바뀌었다. 이제 봄바람이 처마 밑에 매달린 풍경(風磬)을 흔들면 풍경과 봄바람 사이의 모든 것들은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된다.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다.

글 · 사진=박재완 사진작가





승한 스님의 좋아좋아 행복코칭

“하나 두울 세엣, 화 다 풀렸다!”

화 다스리는 법

“스님, 괜히 화날 때가 많아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욱할 때가 많거든요. 그냥 남편과 이야기할 때도 화가 나고, 시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 말씀이 듣기 거슬릴 때도 화가 나요. 문제는 화가 나면 감정 억제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상 쓰는 것은 기본이고, 어떤 때는 손에 잡히는 대로 마구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해요. 스님, 화가 날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얼마 전 한 30대 주부가 위 내용으로 상담을 요청해왔다.

사람의 가장 큰 적은 자기 내부에 있다. ‘화’가 바로 그놈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전쟁터에서 수천 명의 적을 물리치기보다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승자’라고.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끊임없이 내부에서 불타오르는 화와 욕심과 어리석음이다. 이를 사람을 해치는 3가지 독이라고 해서 ‘삼독(三毒)’이라고 한다.

화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욕구불만 때문이다. 뭔가를 갖고 싶거나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가질 수 없고 내 뜻대로 할 수 없으니까 화가 나는 거다.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화의 공통적인 속성이다. 사람들이 화를 가장 많이 내는 이유이기도 하다.

두 번째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괜히 남들도 미워져 벌컥벌컥 화를 내는 거다. 자아존중감이 없을 때 더욱 그런다. 자아존중감이 없거나 낮으니까 매사에 열등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누가 눈에 조금만 거슬리는 행동을 하거나 말만 해도 벌컥 화를 내는 거다.

세 번째 이유는 우울증에 걸렸을 때 화를 많이 낸다. 특히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을 보면 우울증에 걸려 있는 경우가 아주 많다. 특별히 화낼 이유도 없고, 화날 상황이 아닌데도 툭하면 화가 날 경우엔 혹시 내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건 아닌지, 정신건강의학과나 심리상담센터 등을 방문해 자신의 감정과 정신건강 심리상태를 정확히 체크해보아야 한다. 그럴 경우 간단한 심리상담과 약물치료만으로도 화내는 버릇을 쉽게 고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는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로 화를 자주 낸다. 이는 부단한 노력으로 화내는 습관의 고리를 끊는 수밖에 없다. 나도 한 세월 그 고리를 끊기 위해 노력해왔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화의 뿌리는 그만큼 깊다.

첫 열쇠는 ‘화났을 때 상대방을 탓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무의식 속에 화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화가 치미는 순간 대부분 그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린다. 그러다보니 무의식 속에 잠재해있던 화의 씨앗이 불기둥이 되어 치솟아 오르는 거다.

모든 화의 씨앗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만으로도 습관적인 화의 연결고리가 대부분 끊어진다. 화에 대한 통찰과 자각이 생기면, 화는 오히려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긍정에너지가 되어 자기 자신이 먼저 화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물론, 겸손하고 자애로운 인품을 가진 훌륭한 사람으로 변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 “나도 모르게 벌컥 화내는 버릇 인터넷 중독 같은 ‘습관적’ 에너지 상대방 탓 아닌 내 탓으로 돌려 화(火) 통찰해 에너지 끊어야”

스마트폰 중독이나 인터넷 게임중독처럼 화는 중독성이 강한 습관적 에너지라는 인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한번 화내는 버릇이 들면 좀처럼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모든 인간은 생존을 위한 자기 방어적 공격성을 본능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이다. 화도 그러한 공격성의 한 표출이다.

화에 대한 통찰과 자각만 오면 습관적인 화의 에너지를 끊는 것은 어렵지 않다. 특히 불교에는 그런 도구와 장치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 나도 승려생활을 하면서 그런 도구와 장치들을 이용해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길들여져 왔던 화내는 버릇은 물론 기질까지도 상당 부분 바꿀 수 있었다.

내가 시험해본 결과 가장 손쉽고도 즉각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건 ‘의식적으로 호흡하기’이다. 화가 나려고 할 때, 혹은 화를 내고 싶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열까지 숫자를 세며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다. 그렇게 하나- 둘- 셋- 하고 열까지 세며 큰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다보면 대개의 화는 자연스럽게 가라앉는다.

숫자를 헤아리며 숨을 쉬라는 것은 그만큼 ‘의식적으로’ 숨을 쉬라는 뜻이다. 그래야 화에 집중되어 있던 나의 에너지(주의, 생각)가 자연스럽게 숨 쪽으로 돌아오며 화가 정화되기 때문이다.

화날 때 내가 나를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도 습관적인 화의 연결고리를 끊는데 퍽 좋다. 내가 누군가? 천하의 주인이다. 스승인 용타 스님은 이에 대해 ‘천하의 주인인 나는 우주만물과도 바꿀 수 없는 혼(마음, 정신)을 가지고 있고, 천재 예술가 천만 명이 동원되어도 빚어낼 수 없는 예술품인 몸이 있으며, 그 혼과 몸으로 경험하고 사는 값진 경험세계가 있다’고 강조하셨다. 상대방도 나처럼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혼과 몸과 경험세계가 있는 고귀한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면 함부로 화를 낼 수가 없는 것이다.

화날 때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명상을 하는 것도 화를 차분하게 다스릴 수 있는 묘약이다. 예를 들어 친구가 “야, 이 나쁜 자식아!” 하고 욕을 해서 화가 나게 되었다고 해보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단계적으로 명상해보는 거다.

“친구가 ‘야, 이 나쁜 자식아!’ 하는구나.”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법, 그럴만한 사정이 있겠지. 나도 모르게 내가 친구 기분을 상하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가 컨디션이 안 좋아 짜증이 나 있는데 내가 말을 걸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도 친구가 내 멱살을 잡고 귀싸대기를 때리지 않고 욕만 하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입장이 돼 상대방의 기분과 상태를 이해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다보면 아무리 화날 상황이 되어도 감사한 마음과 함께 얼굴에 미소가 먼저 떠오르게 된다.

하지만 아무리 방법이 많고 좋아도 본인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스님들은 그걸 ‘수행’이라고 한다. 부지런히 수행하고 정진해서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화내는 버릇은 고칠 수 없다.

사찰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BORYEON 덕분입니다

보련기획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H·P 010-5381-9335, 010-9446-1862 / 전화 031)526-2201~2 찬덕연등의 원천기술 및 제품생산능력을 보유한 유일한 회사입니다.



대행 스님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진짜로 믿고 말겨야 합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그러니 우리가 몸을 벗기 전에 이 도리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몸이 떨어지면 말 잘하던 것도 다 떨어지고 생각하던 것도 다 없어지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근본, 그 자체의 앎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요다음에 또 나와도 대통령으로 나와서 일을 아주 밝고 정확하게 해서 국민들을 살릴 수도 있고, 큰 회사를 해서 직원들을 다 잘 먹여 살릴 수도 있죠. 모든 게 자기가 산 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제 얼마 안 가면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는 게 나옵니다. 모두가 꿈도 아니고 생시도 아니고 현실입니다.

그러니 부처님 법이 따로 있어서 부처님 모셔 놓은 데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처님의 형상을 모셔 놓은 건 방편으로 모셔 놓은 것이니 그 형상도 여러분의 형상과 둘로 보지 마시고 부처님의 마음도 둘로 보지 마시고 부처님의 생명도 둘로 보지 마세요. 법당에 와서 절을 할 때는 부처님과 둘이 아닌 둥근 한마음으로 예배를 올리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자기가 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즉, 자기 조상이죠. 지수화풍이 한데 합쳐지니까 밝음이, 광력이 나와서 생명이 생기고, 그 생명이 수억겁 동안 쫓고 쫓기고 진화를 거듭하면서 사람으로까지 등장하게 된 사실을 아신다면, 누가 형성시켜서 그렇게 끌고 다녔나를 아신다면 지금 자기 참주인공에게 믿고 맡기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인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인은 내 마음 가운데 만질 수도 없고 쥘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자체, 바로 핵점입니다.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고 빛깔도 없기 때문에 광대무변한 겁니다. 어디고 그 한 점이 닿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블랙홀이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불바퀴라고 합니다. 불바퀴의 그 중심, 소용돌이, 중심 한 점, 그 한 점은 육안으로 보이지도 않고 붙잡을 수도 없고 빛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간에게도 왼쪽 두뇌와 바른쪽 두뇌, 양면을 작용하는 핵점이 있습니다. 말하고 작용하고 행동하고, 크고 작은 걸 알고, 좋고 나쁜 걸 알게 하는 그 핵점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모든 거를 거기다 맡겨 놓으면 그 핵점으로 통신이 돼서 각 부서로다가 하달이 되죠. 이걸 누진이라 그럽니다. 그 핵점을 누진이라고 한다면 바로 거기서 사대로 통신이 돼서 모든 공장에서 알게 되는 거죠. 어느 공장에 파워가 일어났다든가 고장이 났다든가 그러면 모두 한마음으로 작용을 해 줘서 그 공장의 직원들이 모두 일깨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한 공장에서 일어난 파워를 딴 공장에서 모두 협조를 해서 막아 주는 거죠.



그림 · 최주현

여러분에게 병고가 많은 원인도 바로 그런 파워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파워는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영계성으로 인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유전성으로 인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세균성으로 인해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업보성 인과성, 이러한 것에서 부질없는 일들이 수없이 벌어져서, 요게 떠나고 나면 저게 들어오고 이게 들어오고…,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좀 흥락하고 삶이 좀 싱그럽고 보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자꾸자꾸 들어오니까 상이 찌푸려지고 그냥 신경질이 나고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화가 나고 옆에서 말하는 소리도 듣기 싫고, 이렇게 하게끔 만드는 장본인들이 바로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거기에 진짜로 맡겨서 누진을 통해서 통신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 지구에도 레이더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또 오신통을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천안통을 천체망원경이라고 말할 수 있고, 천이통을 무전통신기라고 말할 수 있고, 신족통을 팩시밀리라고 해도 되는데,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는 거죠. 또 숙명통을 컴퓨터라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 남의 마음을 아주 들여다보는 것처럼 잘 알 수 있는 것이 타심통인데 그것을 탐지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 것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누진통, 즉 시쳇말로 말하면 레이더망입니다. 바깥에 있는 것을 안으로 연락하고 또 안에서 일어나서 바깥으로 가는 거 연락하고, 중심을 잡아서 결정을 내려서 통신을 하는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변명할 여지가 조금도 없이 우리의 몸과 마음, 모든 생활, 우주의 섭류 이런 것이 전부 같이 돌아갑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의심할 게 아니라 진짜로 믿고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숙명통이다 컴퓨터다 이러는 것은, 컴퓨터에 그냥 과거에 살던 게 잔뜩 입력이 돼 가지고 그게 현실에 자꾸 꾸역꾸역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컴퓨터로 비유합시다. 만약에 입력을 할 줄 안다면 그렇게 꾸역꾸역 나오는 것을 나오는 대로 그냥 입력을 다시 해 버리는 거예요. 어때요? 놓으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입력이 돼서 자꾸 컴퓨터에서 나오니까 컴퓨터에다가 다시 입력을 해서 놔라 이겁니다. 그러면 앞서 입력된 게 없어짐으로써 팔자 운명이 바뀌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식들, 산 부처님들, 깨친 부처님들이 "고도 붙을 자리가 없고 집착도 붙을 자리가 없고, 멸이다 하는 것도 붙을 자리가 없고 도라는 언어도 붙을 자리가 없다. 이 모두가 그대로 여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조 스님이 말씀해 놓으신 거를 저기다 제가 써 놓았습니다. 아래 위 다 떼어 버리고 그냥 요지만 썼습니다. 본래 자기 중심은 청정한 것입니다. 본래 자기 자성은, 본래 자기 마음 중심으로 일을 해 나가기 때문에 청정이라 그랬습니다. '한가운데 중' 자를 써서 중심이 청정하다는 거죠. '본래 자성이 청정함을 알라. 여여함을 알라. 갖추어 가지고 있음을 알라. 자유자재함을 알라.' 본래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가르칠 때 모두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것이 정법이고 저것이 정법이다 이렇게 한다면 벌써 정법이면 사법이 들러붙고 사법에는 정법이 들러붙기 때문에 참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 마음은 둘이 아닙니다. 육조 스님도 "모습은 다를지언정 마음과 생명이 어떻게 둘이겠느냐." 하셨습니다. 풀 한 포기도 생명이 있는 건데요. 그래서 "마음이야 어찌 둘이겠습니까?" 이랬습니다. 비구 비구니,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둘이 아니라 이 소립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옛 조사들의 뒷발자취만 쫓아가면서 미거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밝은 세상인데도 미거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자는 성불 못한다는 둥, 비구니는 뭐 천도도 못한다는 둥, 비구니는 비구 앞에 삼배를 올려야 한다는 둥, 상황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모두 주어진 것이고 서로 주고받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비구는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비구니 속에서 나왔죠? 허허허.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양계의 모두를 아버지라고 비유한다면 산하대지의 일체 만물을 길러 주는 것은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산하대지의 일체 만물이 나고 자라는 도리를 모르니, 그렇게 말하는 분은 한번 어머니 배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여북하면 '자궁'이라고 합니까? 자식의 집이라 이 소립니다. 집의 도리를 모르니까 한 번 더 들어가서 구경을 하고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하하하….

어쨌든 간에 거짓말을 해서 남이 이익 하다면 그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또 진실을 말해서 언짢을 일이라면 거짓말을 쓱 해서 양면이 다 좋게끔 하는 것이 참 좋은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두 마음으로써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지켜보고 누가 될 일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소가 남의 파밭으로 들어가든 말든 그저 내버려 두지 말고 고삐를 쥐고 다스려라 이겁니다. 남의 파밭으로 들어가면 '아이, 똑바로 가야지!' 하고선 고삐를 잡아채는 것이 바로 마음의 다스림입니다. 마음으로써 자기를 다스리는 과정입니다. 그 모두를 그렇게 잘 다스리면서 그저 정에다 놓으셔야 잘 돌아가죠. 모든 것을 한마음 가운데다가 탁탁 놓되, 안되는 거는 '안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되게 할 수 있잖아!' 하고 놓고, 잘되는 건 감사하게 놓고 이렇게 마음을 일으키면서 굴리면서 척척 놔야

☞ A30면으로 계속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합니다



부처님 오신날 법보시

지나간 것을 쫓아가지 말라. 오지 않는 것을 바라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잘 관찰해 보면 순간 순간 변해 가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를 살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중부경전)

– 운수납자 합장



내 이 껍데기가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주인이 하는 거다

☞ A29면에서 계속

시공이 없이 돌아가는 틈에서 그냥 잘 돌아가게끔 되지 않겠습니까?

따로따로 생각해서 '병고가 있으니까 스님한테 꼭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러는 건 너무 무모한 생각입니다. 얘기를 들어 드리긴 합니다. 심부름꾼이 심부름을 해 드리려니까 들어 달라면 들어 드려야 하고, 해 달라면 해 줘야 하고, 같이 걸어 달라면 걸어 줘야 하니까요. 이것은 나라는 게 없습니다. 자유가 없는 게 아니라 나라는 게 아예 없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체가 없어질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요. 모두 사랑들을 해도 조건이 있는 사랑을 합니다. '내가 요렇게 요렇게 해 줬는데 조거는 안 그래!' 하고 말이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조건 없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자비라고 합니다, 자비!

여러분도 지금 자식들한테 조건 없는 사랑을 하고들 계시죠. 여러분, 자식들한테 조건 있는 사랑을 합니까? 조건을 붙이고 줍니까? 조건이 하나도 없이 주지 않습니까? 자식이 물에 빠지면 그냥, 자기가 죽든 말든 그냥 더퍽 뛰어들어 끌어냅니다. '물에서 건져 주면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거 없죠. 바로 그렇게 어머니가 자식들을, 아버지가 자식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자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마음과 자비는,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들을 생각하는 마음이나 그 자비와 둘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또 하나 얘기할 것은, 우리 부모의 조상이나 부처님들의 조상을 둘로 보지 마세요. 살아나가는 데 엇갈립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엇갈립니다. 이거는 부처님 조상 믿으랴, 육신을 낳아 주신 부모 조상들 위하랴. 이게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런데 한마음으로 한다면 조상들도 아주 참답게 진짜로 한마음 안에 한자리 하게끔, 즉 말하자면 해탈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도리가 있습니다. 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서 제사를 지낼 때도 찹쌀로다 둥그런 떡 세 켜든지 한 켜든지 놓고 향, 물, 촛불, 이렇게만 해 놓으시고 합장 배례를 하시고 '한마음 주인공이시여! 모든 조상들의 마음과 일체제불의 마음과 모두가, 한마음 한자리 한도량에 모두가 운집을 하셨는데 뭐 따로따로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한번 해 놓으면 그뿐이지 뭐가 또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으로 천혼문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 그게 천혼문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 둥그런 떡이 말이에요, 삼라만상 대천세계의 '세계'란 말입니다. 위는 위대로 중간은 중간대로, 즉 대천세계 소천세계 중천세계를 다 먹이고도 되남아요. 하하하…. 그 떡이 되남아요. 아시겠소? 이것이 거짓인 줄 알지 마세요. 진짜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에 '참 교묘하고 아주 조금도 빈틈없는 우리 삶의 보람이로구나!' 하고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조상의 마음도 한자리가 되는 거죠. 상에다가 조금조금 차려 놓고선 '요거 잡수시오.' 하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하는 것보다도 이 삼천대천세계 모두를 자기 집으로 만들어 주고, 자기 먹을 걸로 만들어 주고, 자기 살 곳으로 만들어 준다면 '가는 족족 내 자리이고, 가는 족족 내 먹을 것이고, 내 거 아님이 없고 나 아님이 없으니 먹고 먹고 또 먹어도 남고 또 먹어도 또 남고 하는데 끝 간 데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야 올바른 거지 그저 상에다가 조금 차려 놓고 그저 요거 요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가 미신이 됐기 때문에 미신을 외려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진짜 '사람'이라는 두 글자로 불리고 있다면 진짜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런 도리를 몰라서는 안 되죠. 알아야 위로는 부모의 은혜를 갚으면서 묵은 빚을 갚고 아래로는 자식들에게 햇빛을 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전자에서부터 살면서 해 내려오던 그 관습이 있기 때문에 이사를 가도 무엇을 봐야 된다, 혼인을 해도 무슨 궁합을 봐야 된다 하는데 궁합들을 그렇게 잘 봐서 모두들 잘 사십니까? 네? 하하하. 그리고 이사 가는 날짜를 잘 봐서, 그렇게 손을 잘 봐서 애고도 없고 병고도 없이 다들 잘 사십니까? 내가 꼭 이사를 가려고 한다면 내가 가고 싶은 날, 식구들이 모두 노는 날, 내가 가고 싶은 그 날이 그냥 이사 가는 날이에요. 두 남녀가 봐서 '나하고 평생을 사랑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대로 궁합이 좋다고 생각하시고, 주위에서 데리고 살 것이 아니니 그냥 결혼시키시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 사는 도리입니다. 그냥 엉거주춤하니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다면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노예죠, 뭐. 귀신 노예 사람 노예, 허허허…. 모두 노예가 돼 가지고, 보이지 않는 데서는 보이지 않는 대로 노예가 되고, 보이는 데서는 보이는 대로 노예가 되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상에 밥 갖다 놓고 떡 갖다 놓고 돈 갖다 놓는 거 보고서 스님 되려는 사람은 천지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 부처님 한 분만 모셔 놓고 이렇게 하는 건 이러한 기복과 관습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수없는 나날을 지내 오며 관습이 아주 조잘이 조잘이 붙어서, 기복이 조잘이 조잘이 붙어서 여러분이 그냥 요기조기 갖다가 놓고 '칠성님, 명 길게 해 주시오. 독성님, 우환 없게 해 주시오. 지장님, 나를 좋은 데로 가게 해 주시오. 부처님, 잘살게 해 주시오. 관세음보살, 잘되게 해 주시오.' 이러기 때문입니다. 관세음이라는 것이 무언 줄 아십니까? 이름이에요. 부처님의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 놓은 겁니다. 동방에는 아촉불이요 서방에는 아미타요 이 세상 사바세계는 관세음이요 지천국에는 지장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라고요.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이 한 가정에서 아버지 이름만 가지고 계십니까? 아버지 이름도 가졌죠, 할아버지 이름도 가졌죠, 남편 이름도 가졌죠, 형님 이름도 가졌죠, 사위 이름도 가졌죠. 아휴! 이름도 너무 많잖아요. 그 이름대로 "여보!" 하면 "왜 그래?" 하고선 그냥 자동적으로 남편 노릇 해 주는 겁니다. 그것도 뭐 걸림이 없어요. "아버지!" 그러면 "어, 너 왔니?" 하면서 자동적으로 남편이라는 건 없어지고 아버지가 금방 됐어요. 그렇게 나투어서 돌아가는 거 보세요. 자동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부처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부처님도 자동적으로 중생들이 '아휴, 병고에 이렇게 휘달리니 이 병 좀 고쳐 주세요, 부처님!' 이러면 약사가 돼서 응신으로 나투어 주십니다. 또 '아이고, 살림살이가 늘지 않고 만날 망하기만 하고 죽겠으니 어떡합니까?' 하면 그냥 관세음으로 응신이 돼서 나투어 주신다 이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가 한 가정에서 살면서 그렇게 자동적으로 나투면서 이 노릇 저 노릇 다 하는 것처럼 부처님의 한마음이 그렇게 나투시면서 사시는 거다 이겁니다.

부처님의 깨달은 마음이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면 깨달은 마음이 죄 각각이냐? 그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막론해 놓고 깨달은 사람의 마음은 한마음으로 돌아간단 얘깁니다, 하나로! 그래서 하나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거 할 때 나라고 할 수 없는 게 부처다 이겁니다. 없는 게 부처입니다, 없는 게. 공해서 시공이 없이 돌아가는 그 자체 불바퀴가 그냥 부처예요, 이름해서. 그래서 부처란 말은,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버지가 아들 노릇 할 때에 내가 했다고 하겠습니까, 남편 노릇 할 때에 내가 했다고 하겠습니까, 또는 자식 노릇 할 때에 내가 했다고 하겠습니까, 또는 형님 노릇 할 때에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자동적으로 돌아가니까 공했다 이 소립니다.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니라. 모두가 둘이 아니게 나투면서 돌아가고 고정됨이 없으니 그쯤 알라.' 자세히 얘기하자면 이렇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나투면서 돌아가는데 나투며 돌아가는 분의 이름은 많지만 그 나투며 돌아가는 분은 하나예요, 하나! 하나가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비교를 하자면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바세계에는 관세음보살로 해 놨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관해 보고 관해 듣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돌아가는 이 자체를 관세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입니다. 이 세상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죠. 자기 끌고 다니는 자기 주인을 먼저 발견을 해야 찰나찰나 나투는 일체제불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모든 깨달음은 하나지 둘이 아니다! 그런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로 돌아가는 건 어디로 돌아가는고?" "담 너머로 호박 넝쿨이 넘어가서 호박 열리는 까닭입니다." 했답니다. "호박은 여여한가?" 하니까 "호박은 제 나무에서 무르익어서 맛이 좋습니다." 하더랍니다. 이 도리를 여러분이 가정에서 모두 깨달으십시오.

말씀해 놓은 것이 모두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게 하고, 또 길을 따라서 이 공부를 하게 하기 위해서 관세음보살이니 뭐니 뭐니 전부 이름을 지어 놨지, 여러분이 바로 관세음보살이에요. 여러분이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가정에서 아버지 노릇 하고 남편 노릇 하고 사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름은 많지만 다 여러분의 살림살이가 바로 부처님 법이에요. 여러분이 부처고요. 중생 속에서 부처가 나고 부처 속에서 중생이 나니 어떤 걸로 갈라 놓고 중생이다 부처다 하겠습니까.

예전에 독립군이 총을 맞고 산에서 쓰러지니까 까마귀가 떼를 지어 "까욱까욱" 하고 와서 눈알도 빼 먹으려고 하고 이러니까 "까마귀들아, 나를 보고 비웃지 마라. 비록 이 모습은 쓰러지나 나를 파먹지는 못하며 나를 죽일 수는 없느니라." 했듯이 말입니다. 참 여러분은 죽고 사는 게 없습니다. 죽는다 산다도 없습니다.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자기를 발견해서 사시려면 생활 속에서 꼭 '내 이 껍데기가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주인이 하는 거다. 모든 재물도 내 것이 아니고 나는 관리인이다.' 하고 사시란 말입니다. 관리인밖에 더 됩니까? 진짜 자기 겁니까? 관리인이죠. 관리를 어떻게 잘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지 자기 게 아닙니다. 자기 거라고 한다면 슬금슬금 다 나가서 금방 곳간이 빌 겁니다. '흥, 나를 꽉 붙들어 매 놓으려고 그래?'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가니까요. 돈도 생명이 있고 돈도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 대구에 계신 여러분이 좀 더 밝게 지혜를 가지고 내 한마음을 믿고 발견하셔서 애고도 벗어나시고 병고도 벗어나시고 또 내 가정도 화목하게 이끌어 가시면서 사회도 나라도 이끌어 가세요. 남북통일도 그렇고 마음으로 규정지어서 한생각 낸다면 하지 못하는 게 없습니다. 모습이 있는 거는 걸려서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모습이 없는 마음은 지구 바깥으로도 벗어날 수 있고 달 세계도 한 찰나에 끌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아시게 되면 내가 왜 이렇게 말을 해야만 하는지 그걸 아실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잘살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얻어먹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과 모습, 그 마음이 내 마음 아님이 없고 내 고통 아님이 없고…. 어떤 때는 너무나 가슴아파서 울 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울면 나도 웁니다. 우는 것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변소나 어디 가서 그거를 생각하면 아주 가슴이 아픕니다. 옛날에는 선지식들이 깨치면 모든 걸 벗어 버리고 편안하다고 했는데 나는 안 그렇습니다. 난 깨치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나는 아파서 우는 사람을 보면 같이 울게 되고, 즐거워서 웃는 사람을 보면 나도 즐거워서 웃게 되지 그렇게 되질 않습디다. 그래서 편안한 것도 없고 편안치 않은 것도 없습디다.

그냥 여러분과 같이 그 속에서 그냥 구르고 있는 자체입니다. 그러니 조금도 다르다고 생각 마시고 높다고 생각도 마시고 '저분은 깨달은 분이다.' 이렇게도 생각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같이하고 같이 공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나는 이날까지 높은 게 되려고 생각해 본 예도 없습니다. 못났든 잘났든 자기만이 자기를 끌고 다닙니다. 절대로 한데로 믿지 마십시오! 스님들의 고깃덩어리도 믿지 마시고, 그저 이끌어 주면 이끌어 주는 대로 세 가지가 똑바른가 보시고 이끎을 받으십시오. 말과 행과 뜻이 같으면 따라도 좋다 이겁니다. 그럼 오늘은….

주인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인은 내 마음 가운데 만질 수도 없고 쥘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자체, 바로 핵점입니다.

※위 법문은 1992년 5월 24일 대구지원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봉축 수상

부처님의 맨발은 불교 정신의 요체



한승원
소설가



그림 · 나은영

초파일에 그리운 연꽃 등불 하나 / 너를 위해 달았다. / 금산사 가는 산굽이 위에서 / 밤은 별들을 초롱같이 켜 달았다. / 이 여름엔 나도 한 점 혼령이 될 거나 / 눈 부릅뜨고 수묵화 같은 너의 숲을 헤매는 / 철이른 반딧불이나 될 거나.

나의 시 〈그리운 연꽃 등불 하나〉 전문이다. 부처님 오신 날을 전후해서는 반드시 절에 가서 연등을 단다. 나와 가족을 위해 달고, 그리운 이를 위해 달고, 우리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해 단다.

우리들에게는 '가난한 자의 등불 하나(貧者一燈)' 라는 일화가 전해온다. 가난한 사람이 전 재산을 모아 켠 등불 하나라는 뜻으로, 물질의 많고 적음보다 정성이 중요함을 비유하는 말로 널리 쓰이고 있다.

등불이란 무엇인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들기 직전에, 제자들이 울면서 "스승님께서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디에 의탁해야 합니까?"하고 묻자, 부처님이 대답했다.

"우리들은 모두 하나하나의 섬이다. 신에게도 의탁 말고 악마에게도 의탁하지 말고, 자기 등불 자기가 켜들고, 부단히 정진 하여라."

나는 그 마지막의 말씀을 늘 가슴 깊이 새기고, 절대 고독자인 나를 성찰하는 한 방법으로 연등을 밝힌다. 연등을 켜는 것은 나눔의 미학이기도 하다. 빈자일등은 모든 사람들이 지갑을 열어 세상을 구제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바야흐로 이 세상은 자본주의의 시장경제 질서가 지배하는데, 그것은 일종의 정글세상이다. 부처님은 아마, 눈 감으면 코를 베어가는 무서운 디지털적인 야만의 정글세상에서 방향감각을 잃은 우리들을 구제하려고 오실 것이다.

정원에 하얗게 벌어진 불도화가 부처님 오신 날이 돌아오고 있음을 노래로 들려준다. 그 소담스럽고 하얀 노래를 듣고 들어와 이 글을 쓴다. 나는 스스로를 부처님의 신도라고 말하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라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신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처님은 신화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고매한 성인이시다. 신이 사는 하늘과 악마들이 사는 지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모두 통달한 성인이므로 신화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이다. 신화는 진리 그 자체는 아니지만 진리를 낳는 자궁은 된다고, 신화학자들은 말한다. 나는 생각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신화 그 자체, 그리고 진리 그 자체라고.

나는 한 사람의 외로운 늙은 남자이다. 나뿐 아니라 의식이 흐려진 모든 늙은이들에게는 우울증이 있다. 노인 우울증은 늙어진 영혼과 육체의 폐경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다. 그러한 늙은이인 내가 한 사람의 제자로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따르는 것은 그분의 자비로운 삶과 사상과 그 실천을 배우기 위해서이다.

'맨발' 로 대지 밟는 것, 버리고 떠나는 '출가'
부처님의 출가는 神에 의존하는 의식을 바꿔
출재가 모두 봉축과 함께 출가정신 되새겨야

*작고 가난한 나라의 왕자로 나고 자란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린 시절의 이름은 싯다르타였다. 나는 젊은 싯다르타의 고독과 고뇌와 절망과 방황과 출가와 수도와 깨달음에 이르는 고행의 과정을 한 편의 소설로 형상화한 바 있다. 소설책의 제목이 〈사람의 맨발〉이다.

〈맨발〉이란 무엇인가. 무소유와 해탈과 자비로운 구원의 실천 정신이다. 맨발로 대지를 밟고 다니는 그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출가 정신이기도 하다.

인간의 삶은 절대고독에서부터 시작된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한 '천상천하 유아독존' 은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 나 혼자 우뚝 선 존귀한 존재라는 뜻인데, 그것은 오만한 스스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신과 악마에게 의탁하지 않는 절대고독자로서의 존엄함을 말하는 것이다.

방황하는 싯다르타는 스스로 절대고독자임을 깨닫고 있었으므로, 천국이나 극락에서 다시 태어나 행복을 누리기 위해 자학 같은 고행의 수도를 하는 것을 의미 없다고 생각했다.

따지고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한 사람의 저항적인 인물이었다.

인도에는 카스트라는 계급제도가 극심했다. 승려계급인 브라만, 귀족과 무사 계급인 크샤트리아, 농사와 상업 계급의 바이샤, 노예계급인 수드라, 그리고 그 네 계급에도 들지 못하는 불가촉천민(Untouchable)이 그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그 계급을 받고 태어나는 것이 신의 뜻이라고 믿고 있었다. 수도자들은 다음 생에서는 하늘에서 태어나 영화를 누리기 위해 고행적인 수도를 했고, 일반 사람들은 다음 생에서 브라만이나 크샤트리아 계급에서 태어나기 위해 신께 기도하며 살았다.

일부의 불가촉천민이나 노예계급 수드라들은 그 삶이 하도 절망적이어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얼른 죽어 좋은 계급으로 태어나라고 그 아이를 강물에 던져버렸다고 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가는, 인간의 행복과 정치적인 부정부패까지도 신의 뜻이라 믿고, 신께 의탁하는 사람들의 의식을 바꿈으로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하여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가정신을 되새겨야 한다.

*중생이란, 가난하고 핍박 받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미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힘없어 핍박 받는 자,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죄를 지은 자, 그들의 생살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나 그 밑에 빌붙어 아부아첨하면서 힘 약한 자들에게 떵떵거리며 사는 귀족들, 돈을 억수로 많이 가지고 세상을 주물럭거리는 자본가와 그 밑에서 콩고물을 얻어먹으며 으스대는 자들도 어리석고 가엾은 중생들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출가를 한 것이었다.

출가를 할 때 맨발이었던 석가모니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다음 어리석은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세상을 돌아다닐 때에도 맨발이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삶은 운명적으로 길 위에 놓여 있었다. 석가모니의 어머니가 친정으로 아기를 낳기 위해 가던 중에 길 위에서 석가모니를 낳았는데, 석가모니는 맨발로 길을 걸어 다니다가 깨달음을 얻는 것이고, 그런 다음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맨발로 길을 걸어 다니면서 설법을 했고, 늙어 열반에 든 것도 길 위에서였다.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맨발은 곧 불교의 정신의 요체인 것이다.

*나는 절에 가면 부처님에게 엎드려 절을 한다. 따지고 보면 그것은 결국 나에게 하는 절이다. 내가 부처님이고 부처님이 나이다. 절하는 동안 나 스스로를 성찰한다. 참회하고 또 참회함으로써 더 건강하고 자비로운 영혼과 육체를 건설한다. 엎드려 하는 〈절〉은 사찰이란 뜻의 '절' 과 동의어이다.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의 한반도에는 엎드려 절하는 풍습이 없었는데, 절(데라)이 들어오면서 절하는 풍습이 생긴 것이다.

"절하고 싶어 / 절에 갑니다. / 절하고 또 절하면 내 병 낫습니다, 땀 뻘뻘 흘리며 / 절하는 한 순간 한 순간의 절은 / 영원을 짜는 피륙 / 절하고 싶어 절에 갑니다."

이것은 나의 시 〈절〉의 전문이다. 부처님오신날, 부디 절에 가셔서 나와 그리운 이와 우리들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붉은 마음으로 연등을 달고, 절하고 또 절하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가정신을 깨닫고 복 받으시기를 기원한다.

社 說

'빈자일등' 의 고결한 정신 지켜야

〈현우경(賢愚經)〉 '빈녀난타품(貧女難陀品)' 에는 '빈자일등(貧者一燈)' 이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위국(舍衛國)의 한 정사에서 머무르고 있었다.

난타(難陀)라는 가난한 여인은 등불 하나를 올리고 싶었지만, 너무 가난해 등불을 구할 수 없었다. 여인은 하루동안 구걸하며 겨우 한 푼을 구했고, 이 돈으로 기름을 사려 했지만 너무 적은 돈이라 살 수 없었다.

이에 여인은 기름장수에게 간절히 기름을 팔 것을 청원했고, 여인의 정성에 감동한 기름 장수는 등불을 켤 만큼 충분한 기름을 여인에게 줬다. 난타는 부처님을 생각하는 지극한 마음으로 등불을 켰다. 하루가 지나자 다른 사람들의 등불은 꺼졌지만, 난타의 등불만이 오롯이 빛을 내고 있었다.

이때부터 '가난한 사람이 켜는 등불 하나(貧者一燈)' 라는 소중한 이야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온 마음을 다해 베푸는 선행을 의미하거나 물질보다는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사용된다.

현재 한국불교는 '빈자일등' 의 정신을 돌아봐야 한다. 교구본사 주지를 역임한 스님과 사무장이 국조보조금 편취로 구속 수감됐으며, 조계종 · 태고종 등 주요 종단의 대내외 갈등은 식을 줄 모른다. '대입수험 기도' 와 같은 기복신앙은 21세기에도 정점을 찍고 있으며, 대궐 같은 사찰을 짓는 대형 불사가 종교적 위의를 보여준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 오늘날 우리의 불교는 붓다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매년 부처님오신날이 되면 떠오르는 '빈자일등' 의 교훈은 한국불교에 대한 준엄한 경책이다. 다시 한번 '빈자일등' 의 정신을 되새기자.

불교, '가족 신행' 에 주목할 때

모든 사회 구조의 기본은 '가족' 이다. 가족이 제대로 운영될 때 사회와 종교는 바로 설 수 있다.

현재 한국사회 종교 지형을 살펴보면 개종률은 떨어지고 있으며, '가족 중심' 으로 재편되고 있다. 1984년 개종을 경험한 사람은 17%에 달했지만, 2014년에는 10%로 줄어들었다. 반면, 가족 간 종교 일치율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10대 이전에 자신의 종교를 결정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세대 전승에 있어서 불교가 불리한 점은 10~30대의 미래 세대가 50~60대에 비해 매우 적다는 점이다. 이는 세대를 이어 불교를 신앙할 미래자원들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 연령별로 보면 불교는 10~20대가 전체 불교인구의 10%, 30대는 11%에 불과하다. 반면 50~60대 인구는 각각 30%를 상회하고 있다. 조사 기관들도 불교의 인구확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

흔히 불교계 일각에서는 이런 착각을 한다. "템플스테이나 힐링 문화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은 불교에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호감은 어디까지 호감이지 진정한 신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젊은이들에게 '힐링 문화' 는 일종의 '자기 계발의 도구' 이자 '사유를 가장한 소비' 이다.

이제는 가족들이 사찰에 올 수 있는 문화와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 이를 기반하는 것이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다. 미래세대가 사찰을 찾을 수 있도록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찰은 '스님 중심' 이 아닌 '신도 · 재가 중심' 이라는 인식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불자들 역시 개신교 · 가톨릭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법회 참석 · 경전 읽기 · 수행 빈도를 높이고, 스스로를 변화해 가족들을 불교로 이끌어야 한다. 포교는 '가족부터' 라는 것을 잊지 말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우)031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2층(수송동)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佛紀 2560年 丙申年
Buddha's birthday | 자비로운 마음 풍요로운 세상
질투와 인색함과 속임수를 뿌리째 뽑아 없애 버리고 성냄에서 벗어난 사람을 훌륭한 인물이라 한다. 법구경

부산연제구 불교연합회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합니다
회 원 일 동

배산 송광정사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합니다
주 지 교육학박사 진 각
사부대중일동
■ 부산 연제구 연수로 2225번길 15 지하철 배산역 4번출구 연산동 연미시장 TEL 051)867-8438

대한불교조계종
불 광 사
라오스 후원단체 '라오의 산들바람'
주지 보광
사부대중일동
■ 부산시 부산진구 초읍천로 77번가길 72 (초읍동) TEL 051)809-1420 FAX 051)819-14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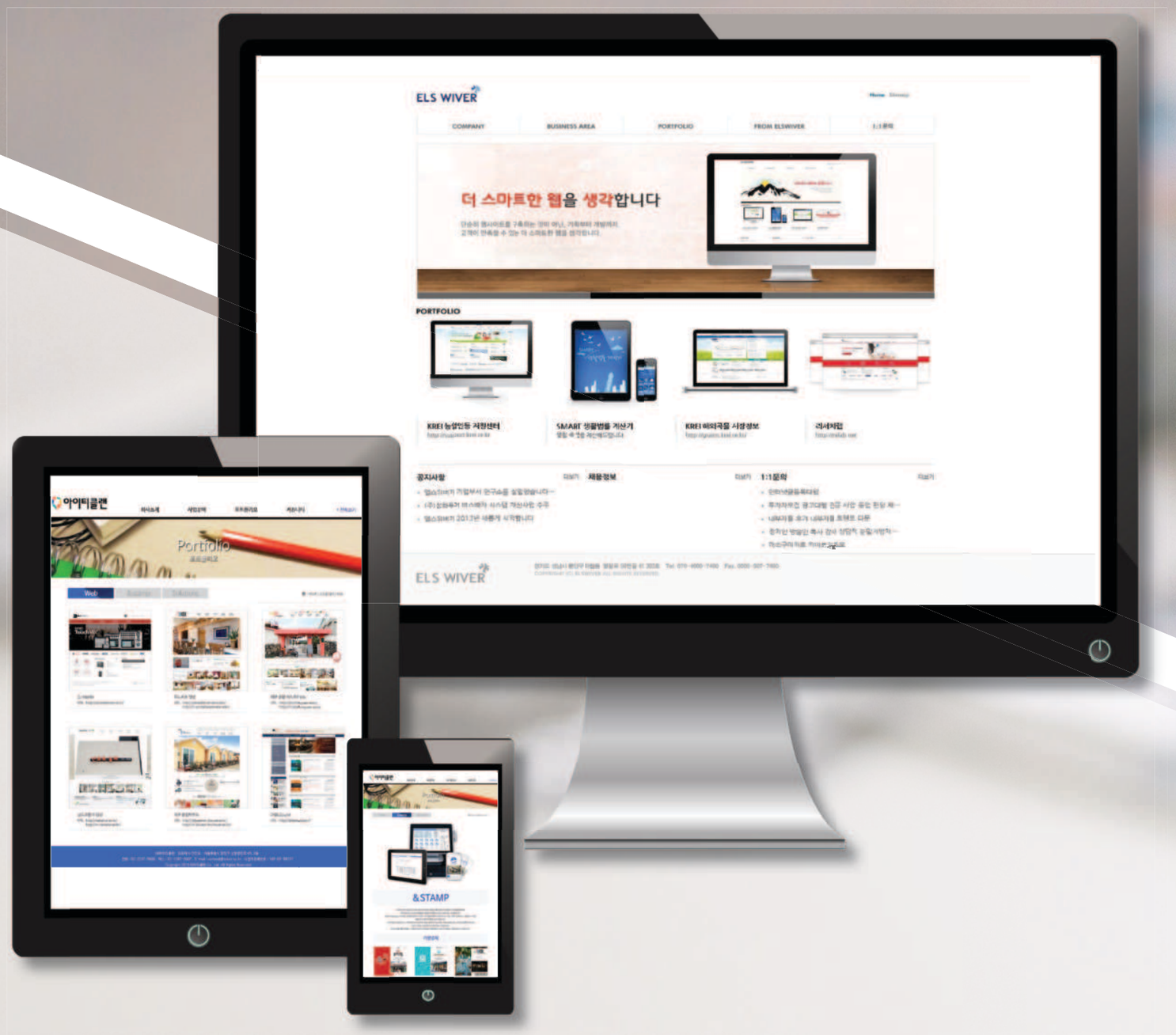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문 수 사
문수불교문화원
회 주 법흥
주 지 지원
신도회장 이금강심
신도일동
■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599-4 TEL 051)624-3754, 7848 FAX 051)623-9253

대한불교조계종
청 량 사
주지 운암 현엽
신도일동
■ 부산시 강서구 제도로 29 TEL 051)271-2774

불기 2560(2016)년 부처님 오신날

소통이 최우선인 기업!

단순한 솔루션 제공을 넘어서 고객사의 모든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를 통해 항상 최고의 만족을 드릴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티클랜
http://itclan.co.kr
Tel. 02-2207-9888
Fax. 02-2207-9887

주|엘스위버
ELSWIVER
www.elswiver.com
Tel. 070-4060-7460
Fax. 0505-507-7460

People

불교는 내 靈魂과 詩心의 안식처



김주일 부장의 데스크초대석

김양식 인도박물관장 · 시인

부처님이 정각을 이룬 성지 등이 있는 부처님의 나라 인도. 해마다 한국 성지순례객들이 많이 찾는 나라. 그래서 혹자는 아직도 현재 인도에는 불자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곳이다. 우리나라와 이 인도의 인연을 거슬러 올라가 살펴 보니 가야국을 건국한 김수로왕과 인도 아유타국 공주 허 황옥과의 결혼이 출발점이었다. 그 후 한국에 불교가 전래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인도의 흔적이 우리 역사 속에 짙게 채색돼 있다. 인도의 남부 첸나이 지방엔 특히 엄마, 아빠, 아리랑 등의 단어와 비슷한 말이 있다고 한다. 또 구자라트 지방에는 '아이스케키' 라는 말까지 같다는 게 인도서 오래 살다 온 사람들의 말이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언어, 풍습, 종교 등이 혼재한 인도는 나라 자체가 박물관처럼 생각된다.

특히 인도의 세계적인 시성인 타고르는 일제강점기 우리에게 '동방의 빛' 이라는 시로 용기를 주었다. 일본 방문중 춘원 이광수의 한국 방문요청에 건강이 좋지않아 오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 하면서 그는 시(詩)를 대신 써 보냈다. 1929년 3월 28일 일본 고베 강연 후 나가사끼서 건강을 추스르며 썼다고 한다. '동방의 빛' 이라는 짧은 시(詩)지만, 억압받던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들에게는 큰 희망의 역할을 했다. 특히 일본으로부터 받은 백작 작위를 반납한 김윤식처럼 영국의 작위 수여를 반납한 타고르를 보고, 만해 한용운 스님은 '인도에도 김윤식 같은 사람이 있었구만' 하고 칭찬했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타고르에 대한 존경 가교 역할로 인도에 관심 갖기 시작
40년간 왕래하며 인도의 희귀한 문화 유물 수집에 진력
구순 바라보는 나이 무색할 정도로 '영원한 현역' 과시
동시대를 산 위안부할머니들 위한 헌정시 및 음반 발매

평생을 이 타고르에 대한 존경과 사랑으로 인도의 모든 것을 사랑한 불자 시인이 있다. 김양식 인도박물관장(86)이다. 인도를 40여년 간 왕래하며 모은 인도유물로 2011년 인도 박물관을 개관했다. 서울 서초동 남부 터미널 근처 광림빌딩 2층에 위치한 박물관은 인도의 생활문화와 관련된 유물 뿐 아니라 초등생이나 유치원생을 위한 문화 체험 공간도 있었다. 5월 2일 김 관장을 인도박물관에서 만났다. 1층 입구에 전시된 법륜을 보며 2층 메인 전시관에 올라가니 마치 고대 인도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다. 복도 제일 잘 보이는 곳에 크게 걸려 있는 타고르의 사진은 김 관장이 평생 시의 스승으로 존경하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인터뷰를 한지 10분도 지나지 않아 예감은 적중했다. 타고르는 그의 멘토였다. 김양식 관장은 인물전기학회서 타고르 시인에 대한 강연을 했었는데 이때 새로운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다. 시인(詩人)인 줄만 알던 타고르의 그림이 인도서 국보급 대접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인도 대사조차도 처음 듣는 일이라면서 놀라워했다고 한다.

80대 중반인 김 관장은 나이를 무색케 할 정도로 아직도 영원한 현역이었다. 소녀 같은 감성은 끊임없는 시심을 발동시켰다. 동시대를 살았던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시를 짓고, 곡을 붙여 음반을 만들어 전국에 무료로 배포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3월 20일에는 W스테이지 안국에서 '애국시 낭송과 가무의 어울림' 이란 주제로 '어허 恨이로다 恨이로다' '어머니, 어찌 그리도 슬피 우시는가' 등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노래를 낭송하고 부르기도 했다.

"어허, 恨이로다 恨이로다/ 한평생 피멍든 恨이로다/꽃다운 나이에 꽃도 피기전/왜놈에게 끌려가 총칼 앞에 무릎 꿇고/산 넘고 물 건너 수십 만리 놈들의 전쟁터에서/갖은 행패로 죽을 고비 수없이 넘고 넘기며/내 평생 씻지 못할 깊고 깊은 속병 들어/울다 울다 피눈물 흰 치마폭에 펑펑 쏟았구나" (어허 恨이로다 恨이로다 中에서)

"어머니, 어찌 그리도 슬퍼 통곡하시는가/어찌 그리도 피멍진 아픔 끝내 풀지 못하고/한평생 깊은 어둠속에 남몰래 숨어들어/왜놈에게 짓밟혀 산산 조각난 몸뚱이를 겨우 추스르시고/피눈물 쏟아내며 이리도 恨 많은 세상을 사셨는가" (어머니, 어찌 그리도 슬피 우시는가 中에서)

B1면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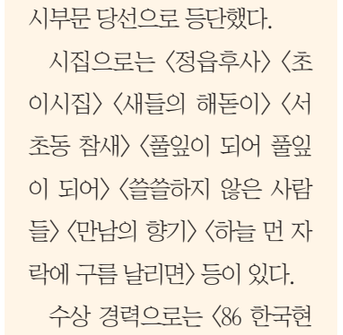
김양식 인도박물관장이 박물관 입구 1층 로비에 전시된 대형 '법륜' 앞에 서 환하게 웃고 있다. 자신의 애장품중에 하나인 이 '법륜' 은 산스크리트어로 '달마 차크라' 라고 하며, 만(卍)자와 더불어 불법을 나타내거나 부처님 형상을 대신하는 상징으로 사용된다. 또한 모든 중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보물이란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다. 사진=노덕현 기자

B5 장애인포교의 어제와 오늘
장애인들 왜 사찰에서 멀어졌나?

B6·8 장애인포교 모범도량과 제언
모범도량 심층취재 및 발전 방안

B12 초의선사 열반 150주년 특집
〈철축첩〉서 본 수행승 '초의'

김양식 인도박물관장은?



1986년 인도 발미키 페스티벌때 열린 세계시인대회의 한국대표로 참석한 김양식 관장이 인도 대통령과 인사 나누는 모습.

1931년 서울서 태어난 김양식 인도박물관 관장은 이화여대 영문과와 동국대 대학원 인도철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69년 월간문학 '제 1회 신인상' 시부문 당선으로 등단했다.

시집으로는 〈정읍후사〉 〈초이시집〉 〈새들의 해돋이〉 〈서초동 참새〉 〈풀잎이 되어 풀잎이 되어〉 〈쓸쓸하지 않은 사람들〉 〈만남의 향기〉 〈하늘 먼 자락에 구름 날리면〉 등이 있다.

수상 경력으로는 〈86 한국현대시인상〉 〈세계시인대회상〉 〈세계뮤즈상〉 〈제 3회 이화문학상〉 〈한국펜문학상〉 등이 있다. 특히 김 관장은 인도 문화의 이해와 전파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2년 인도 정부로부터 최고 권위의 시민상인 '파드마 슈리상'을 받았다. 또한 김 관장은 1981년 한국인도문화연구회를 창설했으며, 타고르의 저서를 포함한 다수의 인도 문학 작품을 한국어로 번역했다. 국내 대표적인 1세대 발레리나인 김혜식 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의 친언니이기도 하다.

"내 詩는 세월에 흐트러진 마음 씻어낸 흔적들"



'김양식 관장' B1면에서 계속

불교는 '내 영혼과 시심의 안식처'라고 밝히는 김 관장에게 시세계와 불교, 인생 전반에 대해 들어봤다.

▲시 중에 불교가 반영된 대표적 작품을 꼽자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삶의 단상처럼 2행으로 쓴 시가 있습니다. 시집 제목이 〈하늘 먼 자락에 구름 날리면(2009)〉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두 줄로 쓴 이행시들 100여 편 들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기도와 발원으로 뽑아낸 정수라 할 수 있죠. 순간 순간을 머물게 한 사유의 편린들을 두 줄의 글귀로 남겨온 것을 한자리에 모아 봤습니다. 마치 강가 뽀얀 모래밭에 남겨 놓은 물새들의 발자욱 처럼 말이죠."

▲이 작품이 독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독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정적인 분위기가 지극하고, 심금을 울리는 이행시라고 반응해 주었습니다. 메시지는 불교사상의 함축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는 세월에 밀고 밀리며 흐트러지기 쉬운 마음과 정신을 산골짝 맑은 샘물로 씻어 청정으로 향하고자 한 흔적들이죠."

▲그런 시들을 쓴 계기는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등 종교 생활 때문이었나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불교 속에서 전하는 가르침은 아름답고 고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동하고 삶을 사는 건 그 가르침을 따라가지 못하지요. 당시 여든에 가까운 내 나이에 다 털어버리고 정말 맑게 살고 싶다는 발원을 했습니다. 머릿속에 스쳐오는 생각들이 깔끔하고 고귀했기에 저 자신도 아주 기뻤습니다. 불교서 전하는 가르침과 힌두교 경전, 특히 리그베다 같은 경전과 하나 되는 감동에 스스로 눈물을 흘린 적도 있습니다."

▲이 울림은 시의 멘토인 타고르의 '범아일여' 사상과도 일맥상통 한가요?

"그렇습니다. 범아일여 사상은 바로 리그베다서 나왔습니다. 타고르에 대한 연구가 국내엔 미흡하고, 저의 연구도 마무리 짓지 못해 아쉽습니다. 그러나 그를 연구하는 동안 마음 깊숙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인도는 언제부터 본격 방문 했는지요?

"1975년도 인도서 열린 '아세아 시인대회'에 조병화 시인과 함께 참가한 것이 인도의 첫 방문입니다. 나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어려서부터 동경한 그 땅을 마흔이 넘어서 방문한 감동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체류하는 열흘 동안 불편하더라도 인도 현지인처럼 생활했지요. 현지의 훌륭한 학자, 작가, 시인들 틈바구니서 지낼 좋은 기회를 놓치기 싫었습니다. 인도인들과 똑같이 손으로 밥을 먹고 지내니 그곳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대해 주셨지요. 그리고 유명 여류시인이 내 시를 언급했을 때에는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후반기 시 주제는 불교 기도와 발원으로 뽑은 정수 사유와 편린 두 줄 시어로 불교사상의 함축 메시지

45세 동국대 인철과 입학 1975년 인도 첫 방문 후 인도관련 공부 필요성 느껴 대학원서 우파니샤드 연구 한국 최초의 타고르 관련논문

2011년 인도 박물관 개원 70세까지 30여 회 인도 답사 40년간 3천여 점 유물 수집

타고르 국제대학 불사 진력 한국간 건립 위해 MOU체결 200평 규모 도서관 건축 예정

김양식 관장에게 불교란?

"살아있는 한 반드시 숙명처럼 따라야 하는 큰 스승"

▲인도를 보고 받은 인상은 어떠셨나요?

"인간답게 살고 있다는 점. 아직도 현대문명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생각과 생활이 감명 깊었습니다. 조금만 맛봐선 인도를 알 수 없단 생각에 한국에 오자마자 당시 유일한 동국대 인도철학과 대학원에 입학해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여기서 타고르 작품에 녹아있는 우파니샤드 사상을 연구했습니다. 한국서 연구된 최초의 타고르 석사논문이라고 합디다."

▲인도서 활발한 수집활동을 하며 우리나라에 인도를 알리려고 생각한 계기는?

"타고르에 관한 책을 꾸준히 탐독하며 1980년대 후반부터 인도에 눈 떴습니다. 인도 마을을 둘러보면 그 자체가 박물관처럼 보여요. 그러나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도에 대해 너무 몰랐습니다. 아직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로만 인식합니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정신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크고 방대한 생각들을 하면서 삽니다. 거기에 매료 됐지요."

▲인도 박물관이라는 숙원 사업을 이루셨는데 40여 년 간 컬렉션의 수는 어느 정도이며, 만들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 소개해 주세요.

"컬렉션 한 수는 약 3천 여점이 됩니다. 타고르는 인도 콜카타의 유복한 가정서 나고 자랐습니다. 나중에 돌아와 고향 흙바닥 위에 학교를 만들었지요. 당시 그는 교실이라는 교육환경을 감옥으로 불렀습니다. 아이들을 움직이지 말라고 야단치는 감옥말이죠. 그래서 비스바 바라티(숲속의 학교)를 만들었지요. 나뭇가지에 작은 칠판을 걸어 놓고 유치원서부터 대학원까지 나무 밑에서 받는 교육을 이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학교를 세우고 싶었는데 그러진 못하고 수집으로 방향을 틀어 박물관을 열었습니다. 2011년 7월에 개관해 올해로 벌써 만 5년이 되는 군요. 어려운 일이지만 꼭 해내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졌습니다."

▲수집에 어려운 점도 많았을텐데요. 특히 재정적인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그나마 3~40년 전에는 수집품 값이 쌌습니다. 지금은 물가가 많이 올라 더 힘들어졌지만 나에게 주어진 업이기에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어려움을 헤쳐 나갔습니다. 수집하느라 먼길을 가면서 시간에 쫓겨 점심을 굶어도 배고픈 줄 모르고 열정 하나만으로 버텼지요. 주로 회의와 시낭송 등 문학행사에 초청돼 인도 여러 지역을 둘러 보는 와중에 수집을 다녔습니다. 그렇게 내 나이 70세까지 30여 회 정도 인도를 방문하며 수집을 했습니다."

▲앞서 소개한 대로 인생의 후반기 작품인 〈하늘 먼자락에 구름 날리면〉에 불교가 많이 투영됐다고 했는데, 인생을 많이 살고 난 이후에 다가오는 불교는 이전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나를 버리고 욕심을 내려 놓으라는 불교의 가르침이 더욱 와 닿더군요. 남들이 수집할 돈으로 재테크나 보석에 관심 갖으라고 권했을때도 이상하게 그런 쪽으로는 욕심이 없었어요. 〈법구경〉과 특히 〈임제록〉이 주는 가르침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홑껍데기 옷을 걸쳐도 수행자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생각도 했지요. 불경을 읽으면서 나 스스로를 반성할 기회가 많아져 오히려 과욕을 부리지 않게 되더군요."

▲최근에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음반도 내서 화제가 되셨는데요? 그분들을 위한 시를 쓰게 된 계기는요?

"수요집회에 몇 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시를 지어 일본어와 영어로 번역하고 출력해서 참석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할머니들께 막말 했던 도쿄 도지사에게도 일본어로 직접 편지도 썼어요. 물론 답장은 없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내 종교를 존중하는 만큼 다른 이의 종교도 존중하라고 했는데요.

"저도 동감입니다. 마땅히 남의 종교도 존중해야 합니다. 과거 일부 개신교인들이 불상을 부순 것과 같은 일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인도사람들은 힌두교임에도 절에서 향을 피우고 경건하게 절을 올립니다. 불교와 다 같은 뿌리라고 말하는 인도인들의 얘기에 가슴 뭉클했던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최근, 타고르 국제대학에 한국관을 건축키로 하고 MOU 체결을 했습니다. 중국학관, 일본학관은 이미 있는데 한국관이 없다는 사실에 열불이 나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5억여원을 기부해 200평 규모의 멀티정보도서관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산티니케탄(평화의 마을)에 있는 비슈바바라티(타고르 국제대학, '숲속의 학교'라는 뜻)에는 한국인 유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불사를 마무리 할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생각하는 불교를 한마디로 정의하신다면요?

"내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따라야하는 숙명적인 큰 스승이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불교는 단지 종교의 대상이 아닌, 뜻을 따를 수 있는 큰 스승이지요."

















선묵혜자 스님과 마음으로
53 선 지 식 을 찾 아 가 는

53 길도량

‘해탈과 성불 위한
구법순례’







선묵 혜자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순례기도회
www.108sansa.com
Tel.(02)900-0193 Fax.(02)900-0195

우린 아나율의 후예… “참된 불제자입니다”

Story Telling

장애인불자의 ‘예불의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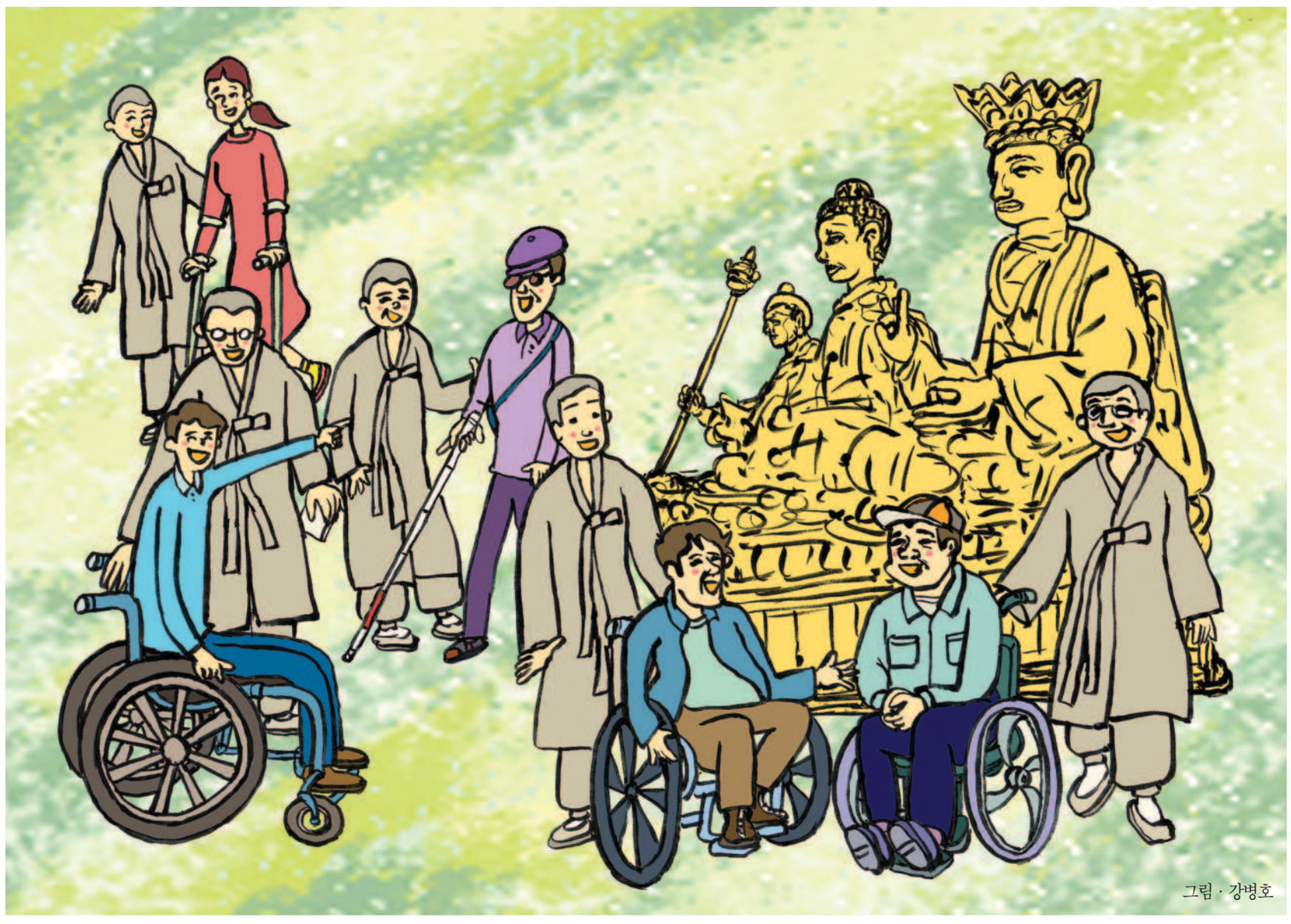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보리수 아래 핀 연꽃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장애인불자들의 모임인 보리수아래 회원들이 이 땅에 나투신 부처님을 기리는 날이었다. 다양한 예술공연으로 어우러지는 장애인불자들의 잔치 ‘제9회 보리수 아래 핀 연꽃들의 노래’를 대중에게 선보이는 소중한 자리.

공연일인 5월 3일, 흐린 날씨 탓에 하루 종일 비바람이 불었다. 뉴스에는 몇 년 만에 불어 닥친 강풍이라며 조심하라는 소식이 지칠 줄 모르고 전해졌다.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걱정이 앞섰다. 1년에 한 번 있는 중요한 행사였기에 더욱 그랬다. 일찍 공연장에 도착해 공연에 나서는 회원들의 무대를 점검하고 격려하면서도 마음은 줄곧 건물 밖에서 비바람을 맞고 있었다. 이렇게라도 그칠 수만 있다면…. 회원들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으리라.

다행히 부처님도 이런 마음을 아신 걸까. 우리의 걱정은 기우였다. 공연을 시작하기 전, 언제 그랬냐는 듯 비바람은 멎었다. 내내 건물 밖을 서성이던 불안한 마음도 어느새 우리들의 가슴속으로 돌아왔다. 물론 듬성듬성 비어있는 객석을 채울 순 없었지만.

이날 춘천에서 올라온 중증뇌성마비 장애인 정상석 씨는 자신의 시 ‘하늘을 사랑할 수 있다면’을 낭송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좋아/ 아무리 배고파도 나는 좋아/ 하늘을 안아볼 수 있다면/ 하늘을 품에 안고서/ 고은님 환한 미소로 노래할 수 있다면.

정 씨는 ‘손가락 시인’으로 불린다. 이것은 그가 장애로 인해 바닥에 누운 채 손가락을 움직여 시를 쓰기 때문에 붙여진 별칭이다. 이 별칭에 담겨 있는 ‘도전’의 의미는 다른 많은 장애인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다. 시 낭송을 도와준 중앙승가대학 동아리 ‘자비나눔’ 스님들을 향해 띄운 그의 미소는 천만불짜리였다.

지체장애가 있는 김미선 소설가는 ‘허공이 사랑이다’, 뇌성마비인 이순애 씨는 ‘한강’, 고성연 씨는 ‘나’를 스님들과 함께 낭송했다. 발달장애인 최준 씨는 사랑가와 대장부를 가야금 병창하고, 한사랑파주공동체 지적장애인들의 난타 연주는 흥을 돋웠다. 수화로 무음(無音)의 노래를 들려준 학인스님들과 장애인불자들의 시어(詩語)를 가사로 만든 노래 등 다양한 공연은 같은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됐다.

장애인불자들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준 이들의 정성, 좋은 공연을 위한 열정, 후회 없는 최선의 노력,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 하나 됨이 있을 뿐이었다. 벅찬 감동이 한 방울의 눈물 돼 흘러내렸다. 말은 없어도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염화미소’가 공연장에 가득했다.

현 조계사 주지인 지현 스님의 원력 아래 결성한 보리수 아래를 이끌어온 지 11년. 감회가 새롭다. 물론 지난해에 느꼈던 것과 조금은 다른. 매년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은 우리들의 원력이 끊이지 않게 뒷받침해주는 엄마 같다. 이 마음 더 키워 이제는 장애인 템플스테이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공주 마곡사에서 체험한 템플스테이가 장애인불자들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겐 평범한

“회장님, 저는 법당에 있는 부처님 앞에서 진심어린 기도를 올려보는 게 소원입니다. 이것도 욕심일까요?”

지체장애로 인해 휠체어를 타는 한 회원이 나에게 말했다. 비장애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행위를 ‘욕심’이 되는 건 아닌지 묻는 그의 말에 쉽사리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마음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남 일처럼 쉽게 얘기하고 싶지도, 현실적으로 도움 되지 않는 응원을 하고 싶지도 않아서였다.

“그 소원을 위해 열심히 불심을 닦고 있잖아요. 스스로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간절히 바라고 정진하면 이뤄진다는 것을.”

> **평범하게 보이는 신행활동도 장애인 불자들에겐 절실한 꿈 장애를 장애로 보는 건 분별심 관심이 불교 · 세상을 바꾼다**

가슴 먹먹해진 나도 별 다른 대단한 얘기를 해줄 순 없었다. 장애인들이 신행생활을 하며 마주하는 환경이 어떠한지 알기에.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없는 미안함과 그럼에도 마음 놓지 않고 정진해나가는 모습에 대한 고마움이 복잡미묘하게 얽혔다.

법당에서 예불 보는 것, 스님과 차담을 나누고 값진 법문을 듣는 것, 풍경소리 댕댕거리는 사찰에서 하룻밤 묵는 것. 전부 장애인불자들이 소원처럼 여기는 일이다. 장애 때문에 선뜻 마음 내기가 힘드니 그 바람은 상대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누군가에게는 지극히 평범한 일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 고민하다가 서로 힘을 모아 장애인 템플스테이를 기획하게 됐다. 준비과정은 순탄치 않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질수록 멀게만 느껴졌던 꿈이 점차 눈앞으로 다가오는 듯했다. 그렇게 우리는 마곡사에서 지금까지의 그 어느 날보다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특히 우리와 함께해주신 중앙승가대 학인스님들은 그 모습 하나하나가 관세음보살의 화신과 같았다. 장애인불자와 스님이 1대1로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며 난관에 부딪힐 땐 함께 넘고, 즐거움을 나누는 모습이 감격스러웠다. 가본 적 없는 서방정토가 이러할까. ‘스님, 우리 함께 가을 속 피안(彼岸)으로 가요’라는 템플스테이 주제처럼 우리는 이날 미혹의 차안(此岸)을 넘어 깨달음의 피안에 다다른 듯 장애라는 멍에를 벗어던질 수 있었다.

법당에서 예불을 올릴 때는 모두 환희에 가득 찬 얼굴이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이들이었지만 그런 표정은 나조차도 본 적 없는 감동이었다. 우리는 삼존불 앞에 스님들과 함께였다.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하나의 꿈이 이뤄진 순간이었다.

“예불이 이런 느낌이군요.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법당에서 예불을 봤습니다. 그동안 법당은 저에게 마치 다리 없는 강을 건너야만 갈 수 있는 곳처럼 멀었어요. 그 거리만큼 저와 불교는 멀다고 생각해왔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오늘에야 알게 됐네요.”

옆에 있던 한 회원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그리곤 눈물 한 방울 툭. 법당 마루에 떨어져 터진 눈물방울처럼 그의 오랜 편견도 깨졌다.

이루기 어려운 것을 가까스로 해냈을 때의 감동은 누구나 그렇듯 대단할 것이다. 하지만 그 해냄이 계속되면 그것은 더 이상 감동이 아닌 당연한 일로 변해버린다. 그리고 그 당연함에 감사한 마음은 묻혀 잊히기 마련이다. 작은 것에 대한 감사함, 눈물을 떨군 그에게서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진심이 느껴졌다.

이날 부슬비 아래 장애인 불자와 스님이 함께 걸으며 나눈 속내는 진실했고, 같은 공간에서 함께한 위빠사나 수행은 번뇌로부터 멀어졌으며, 같이 밥 먹고 잠을 잔 추억은 가슴에 오롯이 새겨졌다.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내준 스님들이 승가대를 졸업하고, 어느 사찰에서 소임을 맡게 된다면 그 절만큼은 장애인들이 부담 갖지 않고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조금씩 조금씩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을까?

분별심을 내어 장애를 장애로 보면 그것은 장애가 된다. 하지만 장애를 개성으로 보고 그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준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 혹자는 제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포교를 하느냐고 말할 것이다. 곁에 있는 사람과는 다른 삶, 분명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일은 쉽지 않고 부처님 품안에서 불자로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은 더욱 어려운 일인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누가 시켜서가 아닌 그저 불교가 좋아 모인 장애인들이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할 수 있었던 건 부처님의 한량없는 자비행이 세상을 맑히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옆에서 지지해준 스님과 도반들의 아낌없는 격려 덕분이었다.

지난해 가을의 추억을 가슴에 품고 또 다른 희망찬 내일을 꿈꾸던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이 왔다. 함께 템플스테이를 즐겼던 학인스님들이었다. 스님들은 말했다.

“그때 그 템플스테이에서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됐어요. 참 좋았어요. 우리 다시 템플스테이 하러 가요.”

먼저 손 내밀어 준 고마운 스님들, 그렇게 우리는 5월 21~22일 동해바다가 끝없이 펼쳐진 양양 낙산사로 두 번째 여행을 떠나게 됐다.



최명숙
보리수아래 회장





알맹이 빠진 중생무변서원도, 장애인 지원책 '거북이 걸음'



장애인들 왜 사찰서 멀어졌나?

1972년 4월 20일, 장애인을 위해 민간단체에서 시작된 재활의날이 햇수로 45년째다. 1981년 장애인의날로 명칭이 변경되고 장애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했지만 유독 사찰에서 장애인을 만나기란 어렵다. 만 중생이 평등하고, 모두 불성의 씨앗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는 불교에 장애인이 드문 이유는 무엇일까? 불교계 장애인포교, 문제의 원인과 현황을 진단해봤다. 〈편집자 주〉

중생무변서원도(衆生無邊誓願度). 사바세계에서 헤매는 모든 중생을 구제해 생사해탈의 열반에 이르게 하겠다는 사홍서원의 제1서원. 대승불교의 근본 원이며 법회를 비롯한 한국불교 의식을 마칠 때 반드시 외는 서원이다. 우리는 이 서원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을까? 단순히 하나의 의식으로 자리 잡아 무심코 입으로만 외고 있진 않을까? 앞서 소개된 장애인불자들의 신행이야기에서 그동안 비장애인불자들이 놓치고 있던 중요한 가치를 되새기게 한다.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 250만 명(2014년 기준). 즉 국민의 약 5%는 장애를 갖고 살아간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고용패널조사가 경제활동 가능한 15~75세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 2014년 발표한 '장애인의 종교 유무별 추정 수 및 비율' 통계에 따르면 90여만 명의 장애인이 종교를 신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는 종교별 장애인 수가 없었지만 2001년 한국갤럽이 발표한 '장애인 생활실태 및 장애인에 대한 의식조사'에 따르면 개신교(61.5%), 가톨릭(12.6%), 불교(7.2%) 순이었다. '천만 불자'를 자랑하는 불교에 유독 장애인이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장애에 대한 낮은 인식

지난 2014년 9월, 한국불교 1번지 서울 조계사에서 '빈곤문제 해소를 위한 시민초청 무차대회'가 열렸다.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와 빈곤사회연대가 공동주관한 이 행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숙자, 장애인 등을 초청한 자리였다. 행사 후 1주일이 흘러 장애인정보문화누리의 논평이 발표됐다. 논평에 따르면 행사에 참석한 청각장애인은 수화통역이 없어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동장애인뿐만 아닌 다양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당시 결사본부 관계자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불미스런 일이 발생했다.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흔히 '장애인'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동에 불편을 겪는 지체장애인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물론 지체장애인이 장애인의 절반가량에 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청각, 뇌병변장애인도 상당수를 차지한다. 기본적인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있었다면 불거지지 않았을 문제다.

한편 위와 같은 문제는 작게는 '아쉬움'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장애인불자들이 사찰에서 겪는 고충은 깊은 상처로 남기도 한다.

오래 전부터 불심을 다지며 신행을 이어온 시각장애인 김지훈(가명) 씨는 10여 년 전 한 사찰에서 느낀 차별적 대우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이 함께 있으면 번거롭고 손이 많이 간다는 이유로 비장애인과 같은 법당에서 법회를 볼 수 없었어요. 별도의 방에서 스피커로 법회를 들으라고 했거든요. 시각장애가 있으니 보지 못해도 상관없다는 거겠죠. 우리도 같은 법당에서 숨 쉬고 법석을 느끼고 싶어요."

장애로 인해 사찰을 찾아가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한 그에게 비장애인들의 곱지 않은 시선은 가슴을 후벼 파는 손톱 같았다. 김 씨는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해 겪으면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법회를 여는 사찰만 다니게 됐다.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장애를 '업에 따른 결과'라고 받아들이는 불자들도 있다는 것이다. 장애에 대한 불자들의 인식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가늠케 한다.

장애인 신행단체 보리수아래 지도법사를 맡고 있는 법인 스님(일지암 주지)은 "장애인에 대해 전생에 지은 죄업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걸 느꼈다"면서 "이런 시각으로 인해 장애인들이 법당에 찾아오는 걸 불편하게 느끼는 불자들이 늘고, 휠체어 법당 출입을 반대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불교계 장애인 포교는

불교계에서 장애인 포교를 전담하는 단체는 조계종 포교원 산하 '장애인전법단'이 유일무이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경찰·병원·국제·어린이청소년 등 기타 전법단에 비하면 활동이 많이 미약한 수준이다. 장애인전법단에 누적 등록된 장애인불자의 수는 약 600명.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불자의 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실정이다.

2011년 출범한 장애인전법단은 지금까지 불교수화동영상·점자경전 등을 제작해 보급하고 있다. 이외에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과 성지순례, 문화유적 답사 등을 실시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사업 역량이 감소하고 있다. 올해 장애인전법단 사업계획은 〈사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가이드북〉 제작과 해외성지순례, 지역별 장애인불자회 구성 등이다. 하지만 예산의 90%가 성지순례에 집중돼 있어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거나 기타 사업 진행에 있어 소홀할 수밖에 없다. 해외성지순례가 주요 사업으로 자리 잡은 지는 4년째다. 게다가 결과보고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아 포교원도 예산지원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전법단 실무를 맡고 있는 이승배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기획운영지원부장은 "전법단 예산으로는 전담인력을 두는 것이 어렵다. 결국 누군가 실무를 겸해야 하는데 개인 업무에 치여 세심하게 챙기기 쉽지 않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장애인전법단은 현재 〈사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가이드북〉 제작을 위해 장애인복지 전문가들로 실무위원을 꾸린 상태다. 올 연말까지 책자 발간을 목표로 집필에 들어갔다. 하지만 지역별 장애인 불자회 구성은 스님들의 열정과 노력이 뒤따라야 하기에 난항을 겪고 있다.

아울러 종단차원의 장애인식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점도 장애인 포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승려연수교육 종단지도자과정에 '한국사회와 복지'를 주제로 한 강좌가 있지만 개괄적인 현황만을 다룰 뿐이다.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따라 승려 연수점수를 부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장애인시설은 소외돼 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봉사활동 인증을 요청하는 스님은 월 평균 30~35명이지만 장애인시설 봉사는 10%남짓이다. 대부분의 스님들은 배식봉사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나마 장애인전법도량이 장애인 포교에 앞장서고 있어 다행이지만 6곳에 불과하고,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방을 아우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현재 장애인전법도량은 서울 화계사·국제선센터·광림사, 의왕 청계사, 김포 용화사, 영주포교당이 전부다. 장애인전법도량은 대부분 정기적으로 장애인불자들의 편의를 도와 법회를 실시하고 있다. 전통사찰양식인 경우에는 이동에 도움이 되는 경사로 설치 및 장애인전용 화장실 마련 등을, 현대식 도량은 점자 및 수화법회 등에 힘을 쏟고 있다.

특수학교 부재·법령 한계도

장애인불자들의 이탈은 불교계 특수학교가 없다는 점에서도 발생한다. 지난해 기준 전국 사립특수학교는 총 92곳이지만 불교계가 운영하는 곳은 없다. 게다가 국내 최초 사립특수학교는 1946년 4월 이영식 목사에 의해 설립된 대구맹아학교이고,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특수학교 역시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기독교계 학교들이었다.

강태봉 한국시각장애인불자회장은 "대부분의 특수학교 법인이 기독교계여서 장애인불자들의 종교가 바뀌는 일은 흔하다. 특히 기숙사 생활이 많아 그곳에서 기도문을 외우고, 관련 교리를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레 가까워진다"며 "1대1 결연 등의 혜택도 교회를 다니는 장애인들에게 돌아가 불심을 다지기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통사찰의 경우,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종교시설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은 500㎡ 이상인 곳에만 해당된다. 이마저도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은 △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경보 및 피난설비가 전부다. 장애인을 위한 계단 및 승강기를 비롯해 화장실 등은 설치를 권장할 뿐이며, 점자블록이나 유도 및 안내시설 등은 권장사항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처럼 다양한 원인이 복잡하게 얽힌 불교계 장애인 포교는 발전 속도가 더딘 편이다. 사회 역시 타 분야에 비해 장애인 분야의 발전이 뒤처지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범불교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 2014년 기준

249만446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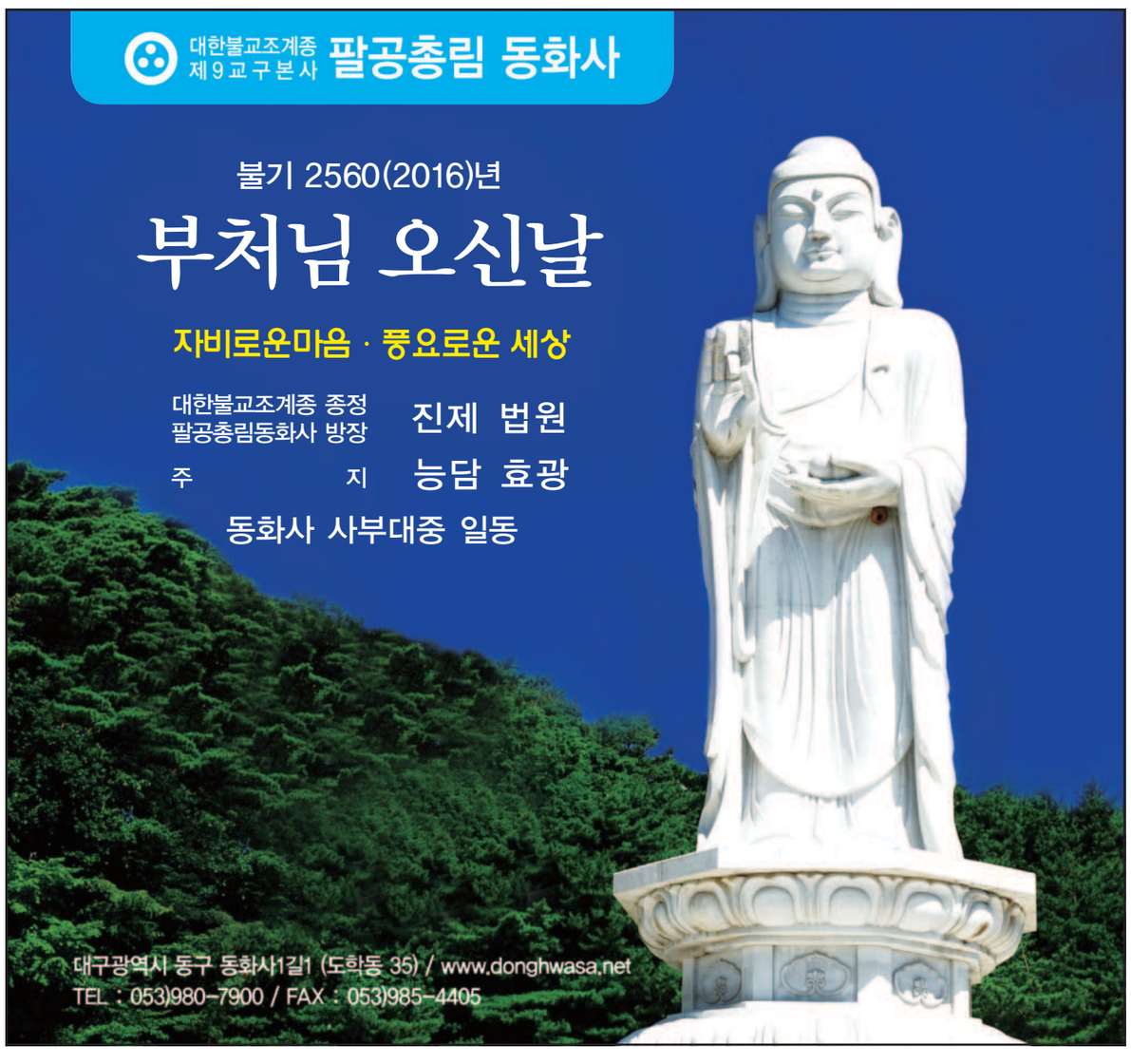
(종교있는 장애인 90만명 추정)

장애인 생활실태 조사 2001년 기준



사립 특수학교 92곳 중
불교계 운영학교 全無

장애인 종교 中 불교 7.2%
접근성 결여·사찰 무관심
전법도량 전국 6곳 불과하고
편의시설 법적 강제성 없어





배려·이해 'UP' 하니 절 문턱은 'DOWN'



강북장애인복지관 소속 불자회 '바라밀' 회원들을 위해 화계사 스님들이 직접 나무 경사판을 제작했다.

장애인포교 모범도량을 가다

불교계 전반은 일부 도심사찰을 제외하면 대부분 산중 높은 지대에 위치하거나, 전통건축양식을 유지하는 지리 ·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장애인의 이용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로 인해 부처님께 삼배라도 올리고 싶은 마음에 절을 찾았던 장애인 불자들은 엄두도 못 내고 돌아서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에 몇몇 사찰에선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경내 이동 서비스 제공 △장애 편의시설 확보 △장애인 포교프로그램 개발 등 장애인의 사찰 이용 편의 방안을 확충하는 데 힘쓰고 있다.

전통사찰양식 한계, 극복하기 '나름'

서울 강남 **봉은사**(주지 원명)는 전통사찰양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직접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봉은사는 보통 사찰의 일주문과 같은 '진여문' 양쪽에 각각 '도움벨'을 부착, 경내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벨을 눌러 도움을 요청하면 경비원 또는 종무원들이 직접 나와 경내 진입을 돕는다. 진여문부터 법왕루로 이르는 길목에 계단 옆으로 평지 경사로를 확보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이 가파른 경사로를 오르기 위해선 인적 도움이 불가피하단 판단에서다.

신도 김규연(80) 씨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나처럼 나이가 들어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많다. 사찰에 이런 시스템이 생겨 매우 기쁘다"며 "작은 사찰에도 이런 제도가 많이 도입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봉은사 측은 "현재 장애인들이 도움벨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은 한 달 평균 4~5건 수준"이라며 "장애인들은 대부분 보호자를 동반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진 않지만, 혼자 방문하는 장애인들도 부담 없이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봉은사는 전각 등 경내 곳곳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세요'란 안내판을 명시하고, 장애인들이 이용시 불편함을 느낄 때마다 전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올 초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2곳도 확보했다.

서울 강북 **화계사**(주지 수암)는 산중에 위치한 특성상 계단이 많단 점이 장애인들 이용에 불편요소로 작용하지만, 휠체어를 타고 대웅전 내부에 진입해 직접 법회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장애인 불자들이 선호하고 있다. 특히 대웅전으로 진입하기 위한 경사판은 사중 스님들이 직접 법당과 어울리도록 나무로 제작해 특별함을 더했다.

강북장애인복지관 소속 불자회 '바라밀' 회원들은 매월 셋째 주 일요일마다 화계사서 법회를 봉행한다. 평균 20여 회원들이 꾸준히 참석할 만큼 열의가 대단하다.

노옥선(67) 바라밀 회장은 "처음엔 일반 신도들과 사찰에 불편을 끼칠까 늘 걱정스런 마음이었다. 그러나 회원들끼리 조금씩 정성을 모아 매달 부처님께 꽃 · 향 등 공양물을 올리며 마음 한 구석이 떳떳해졌다"며 "또한 사찰 측 배려가 더해져 이제는 우리 스스로 '바라밀'을 행한단 생각으로 열심히 신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움벨' 누르면 이동도우미 출동
스님들 직접 경사판 제작키도
"따뜻한 환영에 주인의식 생겨"

장애인 전용 주차 · 화장실 완비
'점자 법요집' 제작해 법회 열기도

이와 관련 노 회장의 딸 박보현(41) 씨는 화계사가 계단이 많아 오르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비롯한 바라밀 회원들의 참여율이 높은 것은 '사찰 측의 배려 덕분'이라고 말한다. 박 씨는 "화계사는 장애인들이 직접 법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간을 따로 마련해 준다. 장애인들에겐 대웅전에 들어가 스님 법문을 직접 듣고 부처님 전에 합장할 수 있단 것만으로 큰 위안이 된다"며 "이로 인해 바라밀 회원들은 신심이 돈독해질 뿐만 아니라 사찰에 대한 소속감을 갖게 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주지 수암 스님은 "우리 사찰을 이용하는 신도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일 뿐, 그 누구에 대한 특별대우가 아니다"며 "젊든 나이가 많든, 건강하든 병이 들었든 모두 같은 이웃이다. '장애인 포교'라 분류할 것도 없이 그저 모든 이웃이 부처님 품안에서 불편 없이 어우러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봉은사가 진여문 양쪽에 배치한 도움벨.



빌딩식 사찰인 서울 목동 국제선센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판 핸드레일을 설치했다.



광림사 주지 해성 스님이 제작한 〈점자법요집〉으로 법회에 참석 중인 시 · 청각 장애인들.

빌딩식, 편의시설 완비로 만족 UP

최근 지어진 현대양식, 즉 빌딩식 구조 사찰은 주출입구 접근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장애인용 승강기 · 위생시설 · 안내 설비 등 비교적 장애인 편의시설을 잘 갖추고 있다.

서울 목동 **국제선센터**(주지 탄웅)는 출입문에 점자 보도블록과 더불어 3층 법당까지 이르는 길에 점자 안내판 핸드레일을 설치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한다. 또한 경사판을 이용해 휠체어가 법당 내에 직접 진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용 승강기 · 화장실 등 대부분의 편의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특히 국제선센터는 장애인 시설 및 단체와 MOU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시설 이용 장애인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연중 1~2회 개최함으로써 장애인 불자 포교에도 앞장서도 있다.

국제선센터 측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휠체어를 이용하는 노보살님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편"이라면서 "또한 불자가 아니었더라도 협약 시설 이용자들이 템플스테이에 참여하며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자체만으로도 불교에 대한 접근성과 친밀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 **불광사**(회주 지홍)도 진입 경사로 · 장애인용 승강기 및 화장실은 물론, 대웅전을 제외한 모든 전각에 휠체어를 타고 입장이 가능하도록 설비했다. 특히 대부분의 주요 행사가 열리는 보광당은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장애인들 스스로 진입할 수 있도록 바닥 턱을 없애고 법당 뒤편에 발코니석을 따로 마련, 휠체어에 앉은 채 법회 및 행사에 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

수화동영상 · 점자경전 '맞춤형 포교'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광림사**(주지 해성)도 20여 년 전부터 시 ·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정기 법회를 열고 있다. 매달 둘째 · 넷째주에 열리며, 주지 해성 스님과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이 교대로 법문을 설하신다. 특히 법회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이 직접 스님의 법문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시각 장애인들에게는 점자 경전을 제공하고,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선 빔프로젝트를 통해 수화동영상을 상영한다.

광림사는 당초 주지 해성 스님이 장애인 불자들을 위해 법회를 열고, 우리나라 최초로 청각장애인 운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규모 사찰로는 이례적으로 장애인 포교에 앞장서왔다. 그 후 2003년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을 개원하고 본격적으로 장애인 복지사업을 펼쳤다. 2009년에는 6층 광림사 법당 아래 5층 공간에 '연화직업재활원'을 개설, 장애인의 자립 생계유지를 돕고 있다.

2010년부터 광림사 법회에 참석 중인 한국시각장애인불자회 강태연(36) 씨는 "그 전에는 매주 이절 저절 옮겨 다니며 법회를 봤다. 우리에게 '오지마'라 하는 절은 없지만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아 법회 볼 장소를 찾기 매우 어려웠다"며 "광림사는 스님이 직접 사찰예절도 가르쳐주시고 점자 법요집으로 법회에 참여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해성 스님은 "과거에는 '법륜회'라는 택시기사 불자모임에서 지체장애인들의 이동을 도와줘 지체장애인을 위한 법회를 열곤 했다"며 "지금은 자원봉사자들이 없어 운영이 어렵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佛紀 2560年 丙申年 | 전면광고

자비로운 마음 풍요로운 세상 | B7

대지와 같이 너그럽고 문지방처럼 의무를 다하고,
흙탕이 없는 호수처럼 맑은 그 같은 사람에게 윤회는 없다. (법구경)

지장보살의 사상을 실천코자 노력하는
대한불교조계종
오봉산 영선사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꿈을 실천하고 있는
등용청소년공부방
매 방학기간
'국가사회 동량 양성기원
방학 학업 특별용맹정진'
봉행됨
사단법인 사람과 희망

■ 전북 남원시 인월면 상우리 산 32번지
TEL 063)636-2195
http://www.youngsunsa.org/
http://cafe.daum.net/youngsunsa

대한불교조계종 17교구
익산 관음사

주지 덕림
관음사 성지순례단
신도 일동
이리 불교대학
학 장 덕림
부학장 김진수

■ 전북 익산시 갈산동 31-9
TEL 063)854-1578, 842-6652

대한불교조계종 17교구
금 선 암

주지 덕산
사부대중 일동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1192-1
TEL 063)221-8486

대한불교조계종 24교구
성 불 사

주지 월은 종명
사부대중 일동

■ 전북 군산시 경암동 서래내길 34
TEL 063)445-3266
http://seungbulsa.com/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함라산 숭림사

(보물 제 825호 보광전)
템플스테이 지정사찰
주지 지광
신도회 관음회 일동

■ 전북 익산시 웅포면 송천리 5번지
TEL 063) 862-6394
홈페이지 : http://www.sunglimsa.com/

대한불교조계종 24교구
청량산 문수사

주지 태효
사부대중 일동

■ 전북 고창군 고수면
은사리 48
TEL 063)562-0502

대한불교조계종 24교구
강천산 강천사

주지 종고
대중 일동

■ 전북 순창군 팔덕면
강천산길 270
TEL 063)652-5420

대한불교조계종 17교구
정 각 사

주지 일행
사부대중 일동

■ 063) 857-6533

정각복지센터
주간보호방문요양

■ 전북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865-5
TEL 063) 841-1355

한국불교태고종
순창 장덕사

주지 청암
사부대중 일동

■ 전북 순창군 순창읍
장덕마을길 37-19
TEL 063)653-1525

포교로 사회를 밝히는
전북포교사단

단 장 이정상
부단장 구강식
송동기
총괄팀장 강석춘
김진구
사무국장 석진금
전북포교사 일동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56-5 전북불교회관내
TEL 063)252-4940

전북불교신도회

회 장 청광 김백호
수석 부회장 이근재
차석 부회장 홍대법성
부 단 장 임규래 문석순
최병헌 이정희
한덕남 김영섭
조영석 강철기
한광수 정순례
나유인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56-5 전북불교회관 1층
TEL 063)562-0502

대한불교조계종 만행산 자비도량
남원 선원사

사랑실은 스님짜장
주지 운천
사부대중 일동

■ 전북 남원시 용성로 151
TEL 063)631-0108
http://www.seonwonsa.kr/

무등산 두암동 꽃피움 절
선각불교문화원

회주 자공
주지 일행

■ 광주광역시 동구
두암2동 7번지
TEL 062)263-0108

정 안 사

주지 정안
신도 일동

■ 전북 군산시 회현면 고사리 310번지
TEL 063)466-6055

월명산 흥천사
흥천사 반야회관

회주 지환
주지 법회
[부설] 반야유치원

■ 전북 군산시 회현면 고사리 310번지
TEL 063)466-6055

대한불교조계종
등명낙가사

주지 청우
신도 일동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 1리
TEL 033)644-5337,5475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반야회
동산불교대학

법 주 법산경일
이 사 장 이종헌
봉축위원장 안동일
www.dongsanbud.net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
TEL 02)732-1206 FAX 02)732-1207

너와 나, 둘 아니듯 장애도 共業

불교계 장애인 포교, 발전 위한 제언

1700년이라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불교. 속세에서 벗어나 번뇌망상을 떨쳐내고, 해탈열반의 길에 들어서기 위해 고된 수행을 하는 불교는 우리나라에서 늘 산에 가야만 접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불교는 '산중불교' 성격이 짙었고, 세간과는 거리가 먼 '신비함'을 간직한 것으로 인식돼 왔다. 포교보다 수행에 중점을 뒀던 역사에 비춰볼 때 당연히 장애인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었다.

한국불교가 장애인 분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다. 사회변화에 따른 도심포교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대중과 호흡하는 불교를 기치로 내걸었다. 조계종은 95년 장애인생활시설인 소쩍새마을을 인수, 98년 서울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을 수탁 운영하면서 장애인복지에 역량을 쏟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큰 발전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개선해야할 문제가 많다.

장애는 業의 결과가 아니다

장애인 포교에 매진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가장 큰 문제로 꼽은 것은 바로 '인식'이다. '업(業)'을 강조하는 불교 특성으로 인해 불자들이 장애를 '업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애의 대부분은 후천적인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상대방의 잘못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연기에 의해 얽혀 있고, 서로 작용을 주고받기 때문이다. 단지 '나와는 상관없다'고 치부해버릴 뿐이다.

시·청각장애인불자들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이사장 해성 스님(서울 광림사 주지)은 "우선적으로 장애의 8~90%는 후천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장애는 연기에 따른 공업이기에 단순히 상대방의 문제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며 "교통사고도 내 잘못만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불교의 평등사상을 가슴 깊이 새기고, 모두 같은 부처님 제자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인 스님도 "본인 의도와 관계없이 다양한 원인이 얽혀 사고가 발생하는데 장애 역시 전생의 죄업에 대한 결과라고 해석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이어 "스님과 재가불자 모두 장애인을 보는 시각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에 대한 불교계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적이다. 우선적으로 승가의 경우, 승려 인증교육 연수에 장애인 관련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일례로 현재 조계종 교육원 2016년 인증교육 연수에는 △국제전법의 현황과 포교 전략(국제전법단) △불교임상지도자과정(병원전법단) △경찰포교와 법회활성화 전략(경찰전법단) 등 포교원 산하 전법단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이 마련돼 있다. 장애인전법단 역시 체계적인 강좌를 기획하고 교육원 인증을 받는다면 불교계 장애인식 개선에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물론 현재의 역량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포교원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최근 집행부를 새로 꾸린 포교원은 '포교 비전'을 준비하면서 장애인전법단에 대한 개선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재가불자들을 위한 교육은 각 사찰 법회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아닌 인식 개선을 위한 것이기에 교육에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된다.

조석영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장(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본 협회는 최근 서울시와 함께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캠페인' 동영상을 제작해 보급하고 있다. 누구나 무료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며 "사찰 법회에서 스님이 직접 장애에 대한 바른 이해를 설명하거나 이 같은 동영상을 이용한다면 비장애인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지만 있다면

대부분의 사찰이 산에 있기 때문에 불교는 타 종교에 비해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해체 가능한 이동식 경사로 등의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의지만 있다면 개선의 여지는 충분하다.

법인 스님은 장애인 포교 방안으로 전담법사 제도와 장애인 템플스테이를 제시했다. 스님은 "가톨릭은 본당이 아닌 병원·교도소 등 특정 단체에서 사목직을 담당하는 특수사목이 활성화 돼 있다. 하지만 장애인불자들은 지도법사 한 분 모시기도 힘든 게 현실"이라며 "전담법사 제도를 통해 장애인불자들 가까이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한다면 무엇보다 값진 법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 "장애인을 위한 템플스테이는 그들이 불교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말했다.

해성 스님은 "불교계의 노력은 두말할 것도 없이 당연한 것이지만 장애인불자들도 계속 용기를 내 현실과 부딪쳐야 한다. 인근 사찰을 찾아가 신행활동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요청해야 한다"며 "그러다보면 불교계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관련 단체 등을 설립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석영 회장은 장애인을 배려한 사찰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 회장은 "편의시설을 단순히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순 없다. 불교신자 고령화로 낮아질 수 있는 접근성을 되살리는 길이기도 하다"면서 "편의시설을 잘 갖춘 사찰모델을 개발하면 여건이 되는 일선 사찰부터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결국 임산부나 유모차 등 모두를 위한 포교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전법단장 도륜 스님은 "모든 일에 순서가 있듯 장애인 포교를 활성화하는 데도 순차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사찰이나 법당 출입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장애인불자들이 있는 곳에서 손쉽게 부처님 가르침을 접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 포교사를 양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중요한 건 '마음의 평화'

이처럼 장애인 포교 활성화를 위해 불교계가 관심을 기울여야할 제반사항은 분명 많지만 정작 장애인불자들이 바라는 건 아주 소박하다. 바로 '마음의 평화'다. 편의시설보다 반갑게 맞이하는 얼굴 하나가 더 고맙고 감동적이라는 얘기다.

장애인 신행단체인 보리수아래 최명숙 회장은 "장애인불자들이 절에 가면 비장애인들이 불편해한다. 그것은 장애인이 싫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도와줘야할지 몰라서, 또는 꼭 도와줘야한다는 생각에 미안하기 때문"이라면서 "계단 하나, 문턱 하나 없애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장애인들의 느린 말을 들어주고 환영해주는 자세가 더욱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장애인이라고 해서 굳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강태봉 시각불자회장은 "예전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불교계의 인식은 많이 좋아졌다. 비록 더딜지라도 꾸준히 변하고 있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며 "단어 표현이나 친절한 모습 등 사소한 것부터 바꿔 간다면 장애인불자들의 증가도 먼 미래의 일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설명했듯 장애는 결코 업의 결과가 아니지만 과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차별할 자격이 있을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존재하는 연기의 세계에서, 또 서로 무명을 밝혀 지혜를 찾아가는 불법(佛法)의 길에서 다른 이의 장애는 나를 괴롭히는 마구니도 아닐뿐더러 어쩌면 나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미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말이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육안이 멀어버린 아나율 존자가 "나를 위해 바늘에 실을 꿰어줄 사람 없느냐"고 외쳤을 때 가장 먼저 달려온 이는 바로 부처님이었다. 글자 하나를 외우면 다른 하나를 잊어버렸던 주다반탁가에게 "먼지를 쓸고 때를 닦으라"는 가르침으로 아라한과를 얻게 한 것도 부처님이었다. 부처님은 업을 강조했지만 결코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또 다른 공덕으로 나아가는 길을 걸었다. 부처가 되기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불자들이 어떤 자세로 장애인을 대하고 각자의 삶에 임해야 할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전문가들의 개선방안

장애 인식 교육방법

승가-승려교육 장애인 분야 추가

재가-동영상 콘텐츠 법회에 활용

장애인 접근성 향상

편의성 높인 사찰모델 개발

전문포교사 양성해 법회 지원

특수사목 같은 전담법사 제도



장애인불자들은 휠체어나 안내견이 필요해 법당 출입에 자유롭지 못하다. 편안한 마음으로 법회를 보는것이 그들의 소박한 바람이다. 사진은 연화원 이사장 해성 스님(왼쪽)과 시각장애인 스님·불자들이 지난해 법주사 성지순례를 하며 법회를 보는 모습. 사진제공=해성 스님







佛紀 2560年 丙申年 | 전면광고

자비로운 마음 풍요로운 세상 | B9

자기 자신을 이기는 일은 남을 이기는 일보다 뛰어난 것 그러니
자신을 억제하고 항상 절제하는 사람이 되라. (법구경)

대한불교조계종
정혜결사도량 오백나한기도도량
팔공산 거조사(암)

주지 태관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신원리 622
TEL 054)335-1369
FAX 054)335-2609

대한불교조계종
관 운 사

주지 지산

■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길 38
TEL 054)931-7777
FAX 054)933-0808
www.gwanusa.org

대한불교조계종
최정산 광덕사

주지 운성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190-2
TEL 053)763-0068

대구불교총연합회신도회

회장 류병선

www.yeonvia.com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4길 39
TEL 053)721-8550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신도회

신도회장 손창수

사부대중

■ 대구광역시 동구 동화사1길 1(도학동 35)
TEL 010-3510-9985
사무국장 이달용

'부처님의 가피를 가족과 함께하는…'
대한불교조계종
문수급식센터

센터장 효신

급식센터봉사자 일동

「매월 둘째 토요일-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점심무료급식」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1470-5
TEL 053)637-0900

대한불교조계종
문 수 사

주지 덕화
(포항불교 사암연합회장)
회장 김중근
총무 성도일
자원봉사회장 만법화
합창단장 수일심

사부대중 일동

■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인두리 151
TEL 054)285-8516

대한불교조계종
보 경 사

회주 법달

주지 철산
재무 지범

사부대중 일동

■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622
TEL 054)262-1117 FAX 054)262-0149

천년기도성지, 삼국통일의 염원이 담긴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천년고찰 팔공산 **불굴사**

주지 덕조

신도일동

■ 경북 경산시 와촌면 강학리 5
TEL 053)854-0440
http://cafe.daum.net/bulgulsa.ok

대한불교조계종
서 봉 사

회주 경희

주지 명연

사부대중 일동

■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439-2
TEL 053)471-4812
FAX 053)471-4813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태실기도도량 **선석사**

주지 법인

사부대중 일동

템플스테이 / 사찰음식 강좌

■ 경북 성주군 월항면 인촌2리 217
TEL 054)933-9800
www.seonseoksa.org

대한불교조계종
송 림 사

사부대중 일동

■ 경북 칠곡군 동명면 구덕리 61-6
TEL 054)976-8116
FAX 054)976-6802

대한불교조계종
연화산 옥천사

사부대중 일동

■ 경남 고성군 개천면 북평리 408번지
TEL:055-672-0100
FAX:055-672-0481
www.okcheonsa.or.kr

대한불교조계종
월 인 사

주지 포전 혜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로 85길 52
TEL 053)767-3971

대한불교조계종
청량선원(팔공산)

사부대중 일동

[부설] 아헹가 요가

■ 서울 청담센터 02)540-0955
■ 대 구 센 터 053)753-3550
■ 대구 달서센터 053)633-3353
■ 부 산 센 터 051)526-5262

■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41-17

佛紀 2560年 丙申年 | 전면광고

자비로운 마음 풍요로운 세상 | B10

많은 재물을 가진 상인이 동행이 적으면 위험한 길을 피하듯,
더 살려고 하는 사람이 독을 피하듯, 모든 악행을 피해야 된다. (법구경)

대한불교조계종

성주 취운향당

주지 능혜

■ 경북 성주군 선납면 도성리 845
TEL 054)933-6371~2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산 통천사

주지 선지
(대구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부처님 진신사리 모신 적멸보궁』

사부대중 일동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1동 3-1(아양교옆)
TEL 053)941-3503, 053)953-448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포항지원

지원장 혜문

사부대중

■ 경북 포항시 북구 우현동 13-1
TEL 054)232-3163
FAX 054)241-3503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지원장 혜안

사부대중

■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927-7
TEL 052)295-2335
FAX 052)295-2336

대한불교조계종

팔공산 파계사

관음기도도량

파계사 원통전
보물 제1850호 지정

조실 청운 도원
주지 무해 법민

■ 대구광역시 동구 파계로 741(중대동)
TEL 053)984-4550
FAX 985-7118
www.pagyesa.org

대한불교천태종

대 성 사

주지 류화산

< " ¿... ǂ>
· 동해유치원
053)652-5760
· 대구금강불교대학
053)624-0133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520-3
TEL 053)624-0542 / FAX 053)623-0265
홈페이지 www.daesungsa.or.kr

대한불교천태종

대구 동대사

주지 김도산
신도회장 정동수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모동 667-1
TEL 053)795-1357,795-1733
FAX 053)795-1731

사단법인 대일불교조계종
호법감찰선원
호법봉사회

자 인 사
(구,구룡사)

호법선원/원장 구룡

■ 대구광역시 동구 파계로 120길 91-1
TEL 053)984-1125
FAX 053)984-1129
휴대폰 : 010-7142-1339
leegoog111@naver.com

대한불교법화종

무우소 가람 수 참 사

주지 영암

신도회원 · 관음회원 일동

고통의 삶에 기적은 일어난다.
한가지 소원만 말하세요.
'30년 전통 맞춤형
방편 전문도량'

■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로 137-1
(평리 6동 640-5)
TEL 053)561-3129

재단법인 선학원

기 원 정 사

주지 우록

■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1152-5
TEL 053)982-9329
FAX 053)983-1698

사단법인 대한불교법화종

대구경북교구종무원

종무원장 도광

임직원 일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51-102
TEL 053)766-7231

"생활불교 실천불교"

대한불교진각종 대구교구청

교구청장 정효

대한불교 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 3동 584-1
TEL 053)255-1450,1411
FAX 053)252-9703
홈페이지 www.jingak.or.kr

대한불교원효종 부산교구종무원

자 비 원

'불자의 안식처'

종무원장 석불
주 지 법선
무진 · 무운스님
사무국장 이홍순

■ 부산광역시 동구 조천4동 883-8
TEL 051)644-8361
FAX 051)642-8361

지장불교조계종

팔공총본산 지장선원

총무원장 지공

법회안내

◇ 신중기도 점찰법회 :
매월 첫째 일요일
◇ 지장기도 천도법회 :
매월 셋째 일요일

지장보살 원불 명옥봉안 납골당

■ 대구광역시 동구 갓바위로 35
(진인동 234)
TEL 053)986-0151,983-0152

한국불교태고종 대구경북교구

종무원장(칠곡 비룡사) 강관정
행정부원장 (대구 관음사) 임법운
재정부원장 (김천 칠장사) 김도법
지방종회의원종회의장 (안동 연봉사) 권법도
종회부의장 (대구 적멸보궁) 강원봉
감사위원장 (대구 삼룡사) 정혜운
총무국장 (창녕 우포정사) 홍영범
교무국장 (김천 월정사) 서지산
재무국장 (칠곡 비룡사) 강법성
규정국장 (안동 금계사) 김도우
전법사 교임국장 (문경 백화사) 차성좌

■ 경북 칠곡군 가산면 인동가산로 1045 (구. 송학리 235-3)
TEL 054)975-4339 / FAX 054)975-0206

佛紀 2560年 丙申年 | 전면광고

자비로운 마음 풍요로운 세상 | B11

모든 것은 폭력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 이치를 자기 몸에 견주어 남을 죽이거나 죽게 하지 말라. (법구경)

보건복지부지정
(사)생명나눔실천본부 대구지역본부

'자원봉사자,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본부장 박종명

장기기증 / 헌혈지원사업
환우지원사업 / 결연사업

■ 후원계좌 안내
대구은행 188-13-073651
농 협 301-0031-1553-61
국민은행 805501-01-375024
예금주:생명나눔실천본부 대구지역본부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북로 324(구.신암동)
TEL 053)945-0007/FAX 053)945-0008
■ 산하기관 : 행복나눔지역아동센터
TEL 053)944-0007

합동석물(주)

석재가공 석공사
전문건설업체

대표 탁진규

■ 경북 고령군 다산면 나정리 714-10
TEL 054)955-8200~1
FAX 054)955-8202

'달리는 법당, 거리의 포교사'
대구 운불련 호출택시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대구지회)

회장 조신제

■ 대구광역시동구 용계동 763-11
053)766-7777,053)323-7777
053)566-7777,053)744-8888
053)764-0763~4
FAX 053)764-0766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출가학교 수행자 모집

(나의 길을 밝혀주는 무문관)
산과 바다가 함께한 수행과 걸기명상 및 힐링체험

- 입재 : 2016년 5월 17일 화요일 오후 2시
- 프로그램 : 무문관체험, 불교교리, 사경, 염불습의, 걸기명상(지도:법사스님), 참선(지도:無一우학스님)
- 교육기간 : 21일간 (3주)
- 참 가 비 : 15만원
- 대 상 : 50세 미만의 남자 독신
- 문 의 : 금호스님 ☎ 010-9562-8228

※ 미혼 청년회도 모집중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불기 2560년 부처님오신날 연등밝히기

영험의 도량, 불가사의한 도량!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에 복덕과 지혜, 성취와 건강의 연등 밝히시어 부처님의 가피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국불교대학
☎053-474-8228
2016 신입생 모집 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수계 후 공부 100% 지원, 큰절 또는 감포도량 택일

대한불교조계종
관 음 사

주지 임대

■ 경북 포항시 북구 덕수동 939-1
TEL 054)247-2729(FAX 겸용)

대한불교조계종
팔공산 구룡사

주지 효재

■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 2리 328
TEL 054)975-9045, H·P 010에9045또9045

대한불교조계종
법 성 사

주지 부용

■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6동 386-3
TEL 053)553-5371

대한불교조계종
보리사 보리불교대학

학장 증악
대중일동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신묘장군대다라니독송법회(문화강좌안내)
선체조 / 다도 / 어린이 천자문 교실
■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958-10
TEL 053)522-7611 FAX 053)522-7612

마음청정 · 국토청정
대한불교조계종 보현암

하루헌 · 영남불교문화원
보현회신도회 일동
사부대중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257
TEL 053)767-0274 FAX 053)762-8950
휴대폰 010-3534-8950

대한불교조계종
불광사·경북불교대학

"나와 이웃과 자연이 함께하는 삶"
학장 운곡돈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욱수동 444
TEL 053)792-1353, 1181 FAX 053)791-4951

대한불교조계종
성 화 사

주지 진공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1동 521
TEL 053)625-9030

대한불교조계종
석 가 사

주지 경암

■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천동 97-3
TEL 053)791-8137
FAX 053)792-0784

대한불교조계종
가야산 심원사

주지 응관

■ 경북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산 65-1
종무소 : 054)931-6886
팩 스 : 054)932-3838
www.simwonsa.kr

대한불교조계종
아 미 사

주지 덕현
신도일동

■ 대구시 동구 지묘동 팔곡로 91길14(지묘236)
TEL 053)983-1816

대한불교조계종
청 계 사

회주 무공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동 626
(월드컵 경기장 안쪽)
TEL 053)793-1551

대한불교조계종
향 림 사

주지 정관
사부대중 일동

천수경 에세이집
「마음을 주는 손」 - 저자 정관스님 -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우록리 산1번지
TEL 053)767-7504

대한불교 법화종
용 화 사

주지 혜각

■ 경북 영천시 신녕면 화석리 740
TEL 054)332-0235

대한불교원효종
고 왕 사

주지 상일
사부대중일동

■ 경북 포항시 흥해읍 옥성2리 367-3
TEL 054)262-0991

관음보살원만성취 지장보살업장소멸 기도도량
까치산 길조암

주지 보현

■ 경북 성주군 용암면 본리 3리 471
TEL 054)931-5204

대한불교선각종
영천보현산 등명사

조 실 석정암
주 지 석혜명
신도일동

■ 경북 영천시 화북면 오동리 603-2
TEL 054)337-4572 / H·P 010-5506-9448

포항 자명선원
■ 경북 포항시 중앙로 131번길 46-2
TEL 054)281-7712, 7719

우리불교 우리절
용암산 미륵사

주지 석청송

■ TEL 053)981-1199
FAX 053)982-0683

불 종 사

주지 현진

■ 경북 경산시 남방동 276-2번지
TEL 053)802-4043

관음기도도량
수 국 사

주지 지원

■ 경북 성주군 초전면 대장 3리
TEL 054)932-9847

팔공산 갓바위 앞산
용 주 암

주지 韓成鶴
사부대중일동

■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동 산44

가야산 영통사

주지 혜오

■ 경북 성주군 가천면 용사2길 44
054)933-8475(팔자치료)
FAX 054)933-8476
010-8955-9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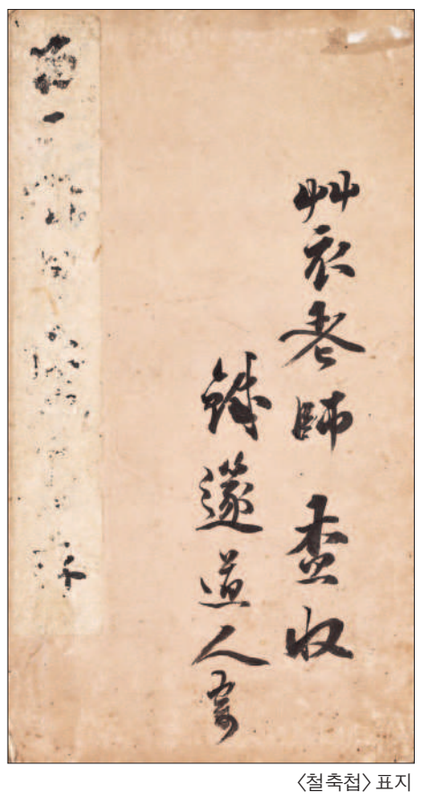
'큰사람을 키우는 민족사학'
자비와 지혜를 배우는 전법도량
학교법인 능인학원 능인중·고등학교 상아유치원

이 사 장 자현
능인고등학교장 조상승
능인중학교장 김상만
상아유치원장 정인애

■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7(지산동 800)
TEL 053)232-9176/ FAX 053)763-1807

〈철축첩〉서 본 수행승 '초의'

"깨달음 없다면 종자 발아 했지만 거칠고 조잡"



〈철축첩〉 표지

초의선사, 추사제자들과도 교유

조희룡 "산에도 삼매가 있음 알아"

초 의 "진실로 그 마음을 깨달아야"

올해는 초의선사가 열반한 지 꼭 150주년이 되는 해이다.

부처님의 탄생일을 경축하는 특집서 조선 후기의 수행승 초의와 관련된 자료를 살펴본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의 열반 150주년에 즈음하여 초의학(草衣學)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기를 기원한다.

이런 의미에서 필자는 초의와 깊이 교유하며 영향을 주고받았던 문인 중에 추사 김정희의 제자 조희룡(1789~1866)이 초의에게 청교(淸交)의 증표로 써 보냈던 자료를 소개 한다.

박동춘(동아시아차문화소장)

초의선사(1786~1866)는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학승(學僧)으로, 선교(禪敎)와 율학뿐 아니라 시 · 서 · 화(詩書畵)에도 능했던 인물이다.

특히 그는 대흥사에 전해진 선차(禪茶)를 복원함으로서 차 문화를 중흥할 토대를 구축했다. 그러므로 그를 한국의 '다성(茶聖)'으로 칭송하는 연유는 분명하다. 바로 사라져 가는 선차의 우수한 제조법을 복원했으며 이를 토대로 완성한 '초의차'를 매개로 하여 사대부들의 차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국 차문화의 자긍심을 담아낸 〈동다송〉을 저술, 그의 차에 대한 안목뿐 아니라 그와 교유했던 인사들에게 우리 차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체계를 갖춘 셈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조선은 신분제도가 엄격했던 시대였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 일부 유학자는 신분을 초월하여 승려들과 교유했는데 이는 다산이나 추사 같이 북학에 관심을 가졌던 인사들이었다. 이들은 인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일로향상(一路向上)을 상보(相補)했던 자취를 남겼으니 이를 통해 진솔한 우정을 공감할 수 있다.

초의 또한 스승과 벗을 통해 수행과 예술, 차의 안목이 확충된 경향을 보인다. 사람이 인연을 통해 이상적인 삶으로 확장하는 존재이라는 점에서는 초의도 같았는데 이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동락(同樂)을 이룬 흔적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가 운흥사에서 완호를 만난 것은 숙연(宿緣)이었다. 이는 초의의 일대사에 가장 큰 획을 긋는 일이었다. 초의의 인연의 연결고리는 완호에서 시작되어 다산으로, 그리고 유산으로 이어졌고 다시 추사로 연결된 것이다.

따라서 초의의 인맥은 대략 완호와 정약용 같은 사제 인연과 뜻을 공유했던 수행승들과 김정희, 정학연, 권돈인 등 같은 유학자로 나누워 볼 수 있다. 특히 초의는 김정희의 형제들 및 제자들과도 깊이 교유했다. 물론 정약용의 자제들과 손자들과도 깊이 교유했다.

특히 조희룡의 〈철축첩(鐵筑帖)〉은 그의 불교에 대한 이해와 초의와의 교유를 살펴 볼 수 있다. 원래 이 첩은 조희룡의 친필본 첩인데 초의에게 보낸 것이다. 이 첩 속에는 장시 4 편이 수록되었는데 지면 관계상 그 일부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一庭花影晝冥冥　蒙烟橫斜研山靑
忽驚尺素雲間墮　翰墨之氣貫竹 H
忙手開緘還稽首　觀音寶像自亭亭
吉祥端嚴妙相具　足底靑蓮花更馨
道人海外盡理長　胸中萬象已ABW靜
昔貌五百阿羅漢　筆力終能回滄溟
千里寄惠豈徒爾

뜰에 가득한 꽃 그림자, 낮인데도 어둑어둑
안개와 저녁놀에 씻긴 산, 더욱 푸르구나
한자나 되는 흰 비단, 홀연히 구름사이로 떨어져 놀랬고
붓의 기세, 죽통을 뚫었구나
급히 편지를 뜯어보니 도리어 고개가 숙여지고
관음보살의 모습, 스스로 당당하네
길상의 단아하고 엄한 모습, 오묘한 모습 갖추었고
발아래 푸른 연꽃, 다시 향내를 풍길 듯하네
도인은 해외의 궁구한 이치 다 갖췄구나

煩惱苦趣共欲除
吾生未窮天下書
仙都佛界登楮墨
恐被風雨飄烟瀛
環 d伶冷無處所
發皇愧無大手筆
世間文字是臼 a
若使千古通梯航
七十二家封禪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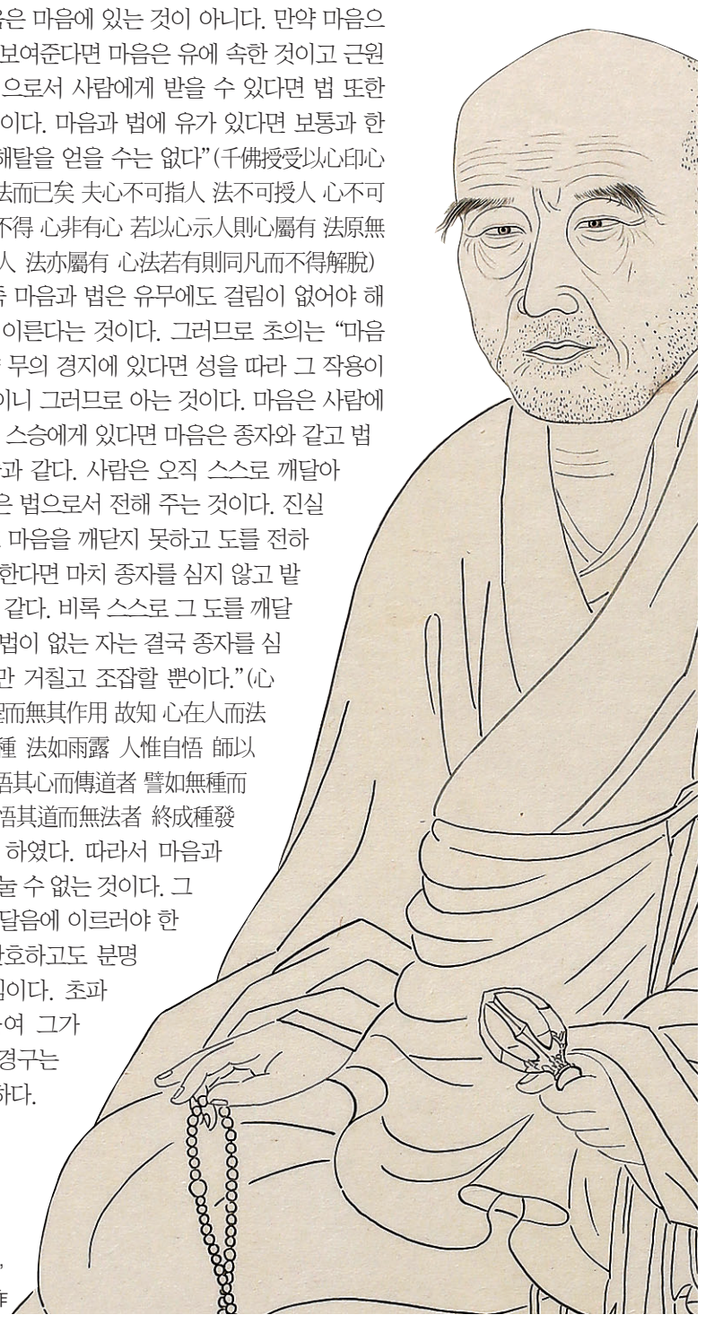
도(道)로 향한 선남 선여
번뇌와 고통을 다 없애려고
머리를 조아려 금강저에 빈다
내 천하의 책을 다 보지 못했으니
누가 장차 이런 경지를 글로 쓸까
신선의 땅, 부처의 세계를 유생이 올라가
진흙같은 도랑에서 흰 연꽃 피웠다는 소식 듣지 못했네
비바람을 맞고 파도에 휘날릴까 두려워
유선에 숨을 수 있을지를 나루에 묻는 마음
댕그랑 패옥 소리 울려도 머물 곳이 없어
다만 노을 바라볼 뿐 마음대로 가지 못하네
황괴가 일어나도 큰 붓이 없어서
공연히 세상을 향해 무리지은 쇠파리처럼
세간의 문자란 오목한 절구 구멍이라
어찌 모양 밖을 다 들 수 있을까
만약 천고를 통하는 사다리와 배를 만든다면
여기서 황왕의 공덕을 칭송하리
칠 십 이가에 제사지내는 일
옥문갑에 번쩍이는 금니를 모으리라

그가 부주(附注)에서 말한 것처럼 "홀로 헐성루에 올랐습니다. 사람이 이 묘체를 증명할 사람이 없어서 이를 기록하여 포연상인에게 보내니 돌려서 초의선사에게도 보냅니다. 아울러 법교를 청합니다"라고 하였으니 초의에게 만남을 청하면서 보낸 것이다.

당시에도 초파일엔 세상의 선남 선여가 번뇌와 고통을 없애려고 부처님 앞에서 기도를 했던 듯하니 고래로 초파일은 성시(盛市)를 이룬 축제였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만약 천고를 통하는 사다리와 배를 만든다면/ 여기서 황왕의 공덕을 칭송하리"라고 한 것이다.

이밖에도 "초의법사께서 금강산을 돌아보시고 쓴 시는 지금 저에게 있으니 때때로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해악에서 돌아 온 후 처음으로 산을 보는데도 삼매의 경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는 조희룡이 〈철축첩(鐵筑帖)〉을 지은 시기가 추정할 수 있는 근거이다. 초의가 수홍과 함께 금강산을 유람한 것은 1838년이다. 그러므로 이 첩은 대략 1838년 이후에 지은 듯하다.

한편 초의는 수행자로서 마음과 법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가 밝힌 법과 마음은 〈전수인증(傳授引證)〉에 자세하다. 이 글에 "천불이 심인으로서 마음의 도를 주고받는다는 것은 마음과 법일 뿐이다. 대저 마음을 사람이 가리킬 수 없고 법은 사람에 받을 수 없으니 마음을 깨달지 않을 수가 없고 법을 얻지 않을 수가 없다. 마음은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마음으로서 사람에 보여준다면 마음은 유에 속한 것이고 근원적인 법을 법으로서 사람에게 받을 수 있다면 법 또한 유에 속한 것이다. 마음과 법에 유가 있다면 보통과 한 가지이지만 해탈을 얻을 수는 없다"(千佛授受以心印心之道者 心與法而已矣 夫心不可指人 法不可授人 心不可不悟 法不可不得 心非有心 若以心示人則心屬有 法原無法 若以法授人 法亦屬有 心法若有則同凡而不得解脫)고 하였다. 즉 마음과 법은 유무에도 걸림이 없어야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초의는 "마음과 법이 만약 무의 경지에 있다면 성을 따라 그 작용이 없어지는 것이니 그러므로 아는 것이다. 마음은 사람에게 있고 법은 스승에게 있다면 마음은 종자와 같고 법은 비와 이슬과 같다. 사람은 오직 스스로 깨달아야하고 스승은 법으로서 전해 주는 것이다. 진실로 스스로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도를 전하는 자는 비유한다면 마치 종자를 심지 않고 밭을 가는 것과 같다. 비록 스스로 그 도를 깨달은 듯하여도 법이 없는 자는 결국 종자를 심어 발아했지만 거칠고 조잡할 뿐이다."(心法若無則隨聖而無其作用 故知 心在人而法在師 心如穀種 法如雨露 人惟自悟 師以法傳 苟不自悟其心而傳道者 譬如無種而耕耘 雖然自悟其道而無法者 終成種發而荒穢)라고 하였다. 따라서 마음과 법은 서로 나눌 수 없는 것이다. 그는 스스로 깨달음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단호하고도 분명히 밝혔던 셈이다. 초파일에 즈음하여 그가 우리에게 준 경구는 이처럼 명료하다.



'초의 진영' 김호석 作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 운 사

조실 일승 성성
조회 근혜 각호
동주 봉암 조전 운
주당 현송 원남 등
지지 부주

총무국장 도륜 기획국장 용담
교무국장 성공 사회국장 등안
호법국장 정우 포교국장 동우
연수국장 돈현

고운노인요양원 원장 석우
의성노인복지관 관장 선주
영주장애인복지관 관장 도선
사찰음식체험관 관장 원해
연화마을관장 구견
안동청소년문화센터 관장 최유형
안동장애인복지관 관장 이호걸

사부대중일동

◆사찰음식체험관 :
사찰음식강의, 청국장, 두부만들기체험
◆템플스테이 :
프로그램형, 상시형, 휴식형 템플스테이
신묘장구대다라니철야정진 매월 첫째주 토요일

•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길 415 (구계리 116) ☎ 054)833-2324
• 사찰음식체험관 ☎ 054)834-2324 템플스테이 833-6933 / 전송 834-6935 (www.gounsa.net)

유가종찰 · 미륵성지
대한불교 조계종 제17교구 본사

Buddha's Birthday

모 악 산 금 산 사

조실 태공 월주
조회 금산 도영
주지 자산 성우

총무 원혜
기획 화평
교무 응묵
재무 구담
사회 덕림
호법 혜오
포교 지월

신도회장 청광 김백호 외 사부대중 일동

부설 전북불교회관 | 서원노인복지관 | 룸비니 어린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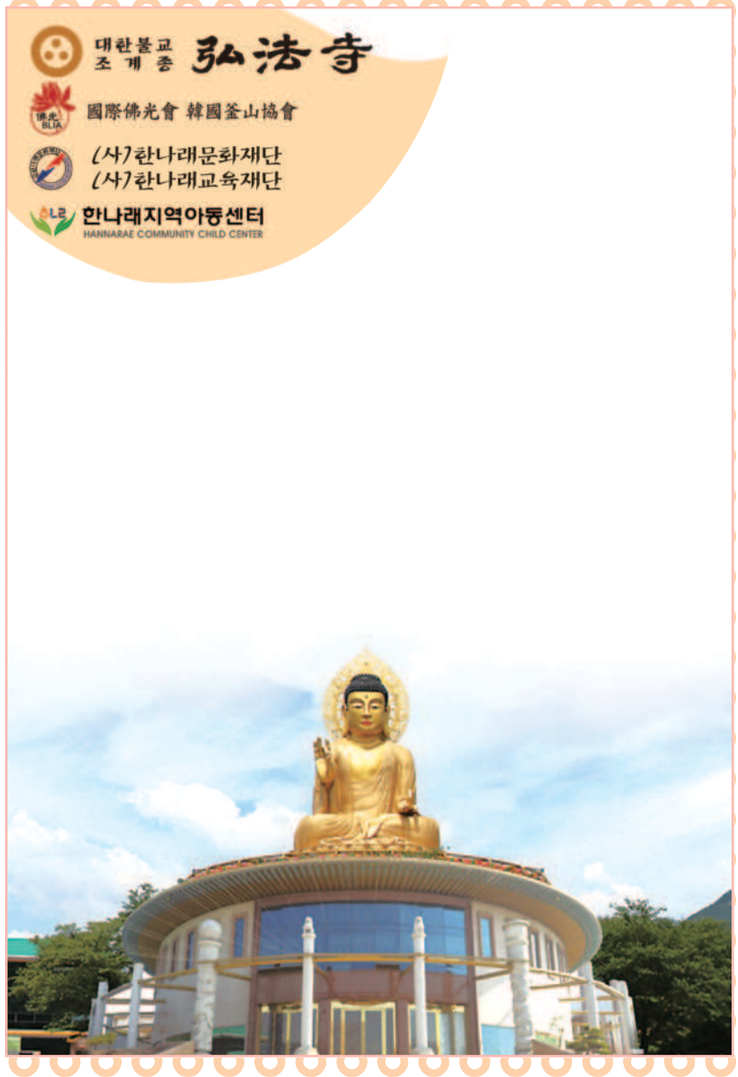
전북 김제시 금산면 모악 15길 1 전화 063)548-4440~2 / 팩스 063)548-1390
홈페이지 www.geumsansa.org 이메일 geumsansa@hanmail.net





대 한 불 교 조 계 종
대광명사







'畵茶不二' … 수묵화·차 지향점은 같다

화가의 차문화 엿보기



김호석
수묵화가



김호석 수묵화가 작품 〈물질2(190cmx95cm)〉. 수묵화 특유의 번짐과 세밀한 묘사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한 번의 붓질로 대상을 표현하는 수묵화와 한 번의 우려냄으로 맛과 향을 극점으로 끌어 올리는 녹차는 닮아 있다.

화가에게 '녹차'란 어떤 것이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림 그리는 일을 지속해 온 나는 이 단순한 물음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고 살아왔다. 그만큼 나에게 녹차란 일상이었다. 녹차 산지, 만드는 방법, 찻잎을 따는 시기, 잎의 모양과 크기 같은 것에 구애 받지 않고 그저 형편 닿는 대로 구하여 마시곤 했다. 그러다 몇 년 전, 녹차의 향과 색, 맛과 같은 것들이 내가 추구하는 예술 세계와 맞닿아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선 녹차 나무는 특성에서부터 그 의미가 각별했다. 녹차 나무는 뿌리가 직근(直根)이다. 직근은 잔뿌리가 거의 없는 채로 나무의 지상 높이에 약 5배 정도 깊이로 내려있다.

이런 사실은 물질 이상의 상징성을 갖는다. 차나무가 지니는 이러한 특성은 인간이 취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품성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녹차는 고결한 정신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속에 깊이 스며있다.

또 녹차 나무는 근본을 준수한다. 씨앗으로 발아한 나무는 생장 조건을 기억이라도 한 듯 옮겨심을 경우 살 확률이 매우 낮다. 차나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몸을 바꾸는 인간들의 행위를 생태적으로 거부한다. 이런 점은 한국인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삶의 방식, 즉 의리와 명분 그리고 지조와 절개와 일치한다.

녹차는 만드는 방법이 독특하다. 찻잎이 지니는 자체의 수분만으로 마지막 숨을 다스린다. 어린 순이 지닌 강한 생명력을 뜨거운 불기운을 이용해 순간적으로 잎 속으로 감추게 한다. 이렇게 건조시켜 완성한 덖음 차이다. 잎의 성장점에서 나오는 독하고 사나운 기운은 덖음 과정을 통해 맑고 순한 기운으로 변환된다. 이런 녹차의 제다 방식은 중국의 차가 '향'을, 그리고 일본의 차가 '색'을 중시한 것과 달리, 향과 색 그리고 맛을 중시했던 한국 문화의 고유성이다. 뜨거운 기운으로 생잎을 덖고 이를 문지른 뒤 다시 100도 이하의 온도에서 건조시켜 완성한 것은 다시 물로써 생명력을 재생시킨다. 여기에는 '불'과 '물'이란 '상극의 조건'이 만나 '상생의 원리'로 뒤바뀌는 생명의 원칙이 내재되어 있다.

녹차는 뜨거운 물로 짧은 시간에 우려낸다. 완성된 차는 자신을 알아보는 이에게 마음을 열어 모든 것을 헌사 한다. 단 한 번으로 전체를 이야기한다. 본질이 궁극의 선택인 것이다.

녹차는 뜨거운 가슴을 차로 식혀준다. 녹차는 내면을 고양시키기 위한 수행의 수단으로써 의미가 있지만, 대화를 통한 소통의 계기도 만든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런 점에서 차는 인격과 품격의 도구이면서 사회적 순기능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수묵화와 차는 감정을 나누고 정신적 공유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상호 지향점이 다르지 않다.
>
> 수묵화가 일획 일필로 생명력을 표현하고 녹차는 한 번만 우려내 맛·향을 극점으로 몰고 간다.



작품 〈불이(125x111)〉처럼 수묵화와 차는 정신적 공유를 추구하는 동일한 가치 지향점을 가졌다.

차나무는 10월과 11월 사이에 꽃을 피운다. 이런 사실은 일반적인 자연의 이치와 조금 다르다. 대부분의 나무가 잎과 꽃을 떨어트릴 때 꽃을 피우는 것도 그렇고, 열매 맺힘이 일 년 뒤에 이루어진다는 점도 그렇다. 깨달음이란 시절이 무르익을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 기다림은 영원에 가까운 시간일지 모른다. 요즘과 같이 조급한 것이 일상이 되어 버린 때에, 차나무가 찻잎의 언어를 통해 무르익기 기다리라는 것을 가르치는 듯하다.

나는 그림을 그리며 불현듯 수묵화의 본질이 녹차의 덕성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묵화는 정신 표현을 최우선으로 한다. 사실보다 사의를 추구하는 예술 형식이다. 사물의 외형을 넘어 사물 밖에 드리워져 있는 정신을 그린다. 먹 스스로는 저절로 뜻을 얻지 못한다. 선을 통해 움직이고 변화해가는 우주 생성 변화의 원리를 궁구하는 것이다. 수묵화가 드러나지 않고 내재된 정신의 영역을 형상화 한다는 점과 숨겨진 차나무 직근의 곧추 선 특성, 즉 지층의 다양한 유기물을 빨아들여 이파리를 통해 생명을 분출한다는 점은 유사하다. 이런 요소는 곧고 바르게 맑음을 지향하며, 몰입해 들어가는 선비나 수행자에게 또 다른 가르침이었을 것이다.

수묵화를 그릴 때 사용하는 먹은 청·적·황·백·흑, 이 다섯 가지 색을 모두 합쳤을 때 나온다. 먹색은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통합시키는 힘이 있다. 그래서 수묵화는 사실적인 묘사보다 함축적이고 여운이 있는 사의적인 세계를 특징으로 한다. 수묵이 정신의 힘을 표현하는 데 유용한 방식이 되어왔음을 동양회화사가 증명한다. 더 이상 변하지 않는 먹빛을 통해 우주의 생성·변화 원리를 그린다는 것과 차나무가 근본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상호 일치한다.

수묵화는 '흑과 백'이라는 상반된 것을 이용하여 조화를 찾는 조형예술이다.

'흑'은 '먹'이다. 먹은 나무나 식물성 기름을 태울 때 생성되는 그을음을 통해 만들어진다. 이 그을음은 물을 만나면서 비로소 형상과 뜻을 얻게 되는데, 불과 물이라는 상충되고 상반된 것이 만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수묵화의 기본이치다. 녹차는 불기운으로 응축시킨 것을 물로써 풀어내는 것이다. 수묵화와 차는 '반대의 조화'란 측면에서 매우 유사하다.

수묵화는 한 번의 붓질로 대상을 장악한다. 일필이 곧 전부이며 완성인 것이다. 대상 표현은 한 번의 붓질을 허용할 뿐 덧칠이나 부가설명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도로 수양된 자가 아니면 좀처럼 접근하기 어렵고, 그 정신의 진수를 얻기 쉽지 않다. 수묵화가 일획 일필을 통해 생명력을 표현한다는 점과 녹차에서 한 번만 우려내어 맛과 향을 극점으로 몰고 간다는 것은 흡사하다.

수묵화는 형상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한다. 그림은 보는 자의 학식과 경험, 그리고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면서 후대와 연결되기도 한다. 객관화되고 일반화되면서 개성이 드러나는 그림은 시대와 지역 그리고 역사를 초월한다. 수묵화와 차는 감정을 나누고 정신적 공유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상호 지향점이 다르지 않다.

수묵화는 고요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먹을 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붓을 잡는 시간보다 사물의 본질을 꿰뚫기 위한 생각을 통해 형상을 구체화시킨다. 수묵을 통해 형상을 표현하면서 더 이상 보탤 수도, 지울 수도 없는 경지까지 밀고 가는 것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수행과정과 닮아 있다. 먹과 종이는 추운 겨울에 만든 것을 최고로 친다. 추운 계절이 아니면 좋은 종이와 먹은 만들 수 없다. 차나무가 차가운 시기에 꽃을 피우고 일 년이 지난 뒤 열매 맺는 것은 수묵화 재료가 갖는 정신성과 같다.

나는 녹차가 삶과 예술의 영역으로 들어온 뒤 자연스레 차계 사람들과 만나는 기회도 많았다. 현재 한국의 차계에는 자신만의 주장이 옳고 자기가 만든 차만이 정통이라며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 시끄럽다.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함은 물론 상호 배척하며 자신의 의견만이 옳은 것이라는 주장이 난무하다. '차'는 자신의 마음을 갈고 닦는 수행의 수단으로써 뿐 아니라 대화를 나누는 순기능이 더 큰 자리를 차지한다. 차를 마시면서 차 맛과 향이 이렇다 저렇다 다담을 나누는 데 집중해야 한다. 남과 대화를 갖는다는 것은 대화의 폭을 넓혀 자신의 의식을 넓게 확장시키는 계기가 된다. 1970년대 국학 붐과 함께 도래한 녹차 바람은 차인들 스스로 무위화 시킨 것은 아닌지 반추해 볼 일이다.

또 하나 의문이 있다. 여러 해 동안 스님들을 만나면서 귀한 음료로 녹차를 대접 받았다. 그러던 것이 어느 때부턴가 스님들의 세계에서 녹차 대신 보이차 열풍이 불었다. 선방 수좌들이 해제비를 받고 달려간 곳이 보이차 판매점일 정도로 가히 열광적이었다. 그러다 원하는 양질의 보이차를 구하기 어렵고 진위조차 의심되는 현실을 목도하게 되면서 이 사재기 열풍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다. 지금은 원두커피 열풍으로 뒤바뀌었다. 커피믹서 기계가 있는 절집 찾기가 어렵지 않다. 심지어 걸망 속에 커피 분쇄기를 가지고 다니기까지 한다. 원두의 산지와 종류 그리고 맛과 향의 특징 등 전문가의 수준까지 육박해 있음도 확인했다. 이제는 차의 정신이 아니라 형식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다. 세속화는 승속에도 예외가 없다.

글로벌 시대다. 그러나 국제화를 표방하며 불교의 세계화를 부르짖었던 큰스님들, 이를테면 성철·일타·법정 스님 같은 분이 홍차·보이차·커피를 가까이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심지어 차를 멀리 하며 식탐조차 끊어버린 이유가 알고 싶어졌다.

꽃 아닌 것 없이 푸름이 천지에 가득한 시절, 이 물음을 안고 남도를 찾았다.




불기2560년 부처님오신날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좋은 일을 실천하여 몸과 마음이 치유될 수 있도록 정진합시다
CNN 선정, '한국에서 가봐야 할 아름다운 50선'
삼광사 연등축제
년 월 월~ 월 월
불 두 화 축 제 : 4월 27일 ~ 5월 15일
봉축전야점등대법회 : 5월 13일 오후 6시30분
봉 축 법 요 식 : 5월 14일 오전11시
좋은 등불과 좋은 사람들로 행복한
'삼광사 연등축제와 불두화축제'로
초대합니다.
- 삼광사 주지 김무원 스님 외 사부대중 합장 -
대한불교 전태종 힐링사찰 삼광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천로 43번길 77
TEL.(051)808-7111~6 FAX.(051)803-1332
홈페이지 http://www.samkwangsa.or.kr


www.angukzen.org


용두산 미타선원






불기 2560(2016)년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 조계종 기원사
사부대중일동
한국불교꽃예술연구원
보림꽃예술중앙회
꽃꽂이 강의 매주 수요일 오후 2시~4시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392-106
☎ 02)918-0034

자비로운 마음 풍요로운 세상



불기 2560년

부처님 오신 날

일체가 나 아님이 없고, 내 도량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으니, 평등공법으로 모든 생명 건지는

한마음 밝은 등불을 밝힙시다

주지 혜 원

사부대중 일동

국내지원

- 광명선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402 TEL(043)877-5000 FAX(043)877-2900
- 제주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황사평6길 176-1 (영평동) TEL(064)727-3100 FAX(064)727-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23-26 (동삼동) TEL(051)403-7077 FAX(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04번길 23-1 (치평동) TEL(062)373-8801 FAX(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달래골길 26-12 (천곡동) TEL(052)295-2335 FAX(052)295-2336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41길 76 (중동) TEL(053)767-3100 FAX(053)765-1600
- 중부경남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35 TEL(055)345-9900 FAX(055)346-2179
- 진주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 오방로 528-40 TEL(055)746-8163 FAX(055)746-7825
- 공주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위안양골길 157-61 TEL(041)852-9100 FAX(041)852-9105
- 포항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로 59 (우현동) TEL(054)232-3163 FAX(054)241-3503
- 청주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교서로 109 TEL(043)259-5599 FAX(043)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하평5길 29 (포남동) TEL(033)651-3003 FAX(033)652-0281
- 통영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여황로 131 (도천동) TEL(055)643-0643 FAX(055)643-0642
- 목포지원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952-19 TEL(061)284-1771 FAX(061)284-1770
- 문경지원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봉서1길 10 TEL(054)555-8871 FAX(054)556-1989

국외지원

- 미국 뉴욕 플러싱지원(NewYork) 144-39, 32 Ave. Flushing, NY 11354, USA TEL:(직통)070-7883-5239 TEL:(1-718)460-2019
- 미국 워싱톤지원(Washington D.C.) 7807 Trammel Rd. Annandale, VA 22003, USA TEL:(1-703)560-5166 FAX:(1-703)560-5166
- 미국 로스엔젤레스지원(Los Angeles) 1905, S. Victoria Ave. L.A., CA 90016, USA TEL:(1-323)766-1316 E-mail : hanmaumla@naver.com
- 미국 시카고지원(Chicago) 7852 N. Lincoln Ave. Skokie, IL 60077, USA TEL:(1-847)674-0811
- 캐나다 토론토지원(Toronto) 20 Mobile Drive North York, Ontario M4H 1H9 CANADA TEL:(1-416)750-7943 FAX:(1-416)981-7815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지원(Buenos Aires) Miró 1575, CABA, C1406CVE, República Argentina TEL:(54-11)4921-9286 FAX:(54-11)4921-9286
- 아르헨티나 뚜꾸만지원(Tucumán) Av. Aconquija 5250, El Corte, Yerba Buena, Tucumán, T4107CHN, República Argentina TEL:(54-381)425-1400
- 독일지원(GERMANY) Bro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49-2131)969551 FAX:(49-2131)969552
- 태국지원(THAILAND) 86-1 soi 4 Ekkama, Sukhumvit 63, Bangkok, Thailand 인터넷전화:(070)8258-2391 TEL:(66-2)391-0091
- 브라질 상파울로지원(Brasil) R. Newton Prado, 540-Bom Retiro-Sao Paulo-CEP: 01127-000 - Brasil TEL:(55-11)3337-529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www.hanmaum.org (본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1282(석수동) T. 031-470-3100 F. 031-470-3116


출가상담전화 '인기'
어떻게 운영될까? C5




조계종 행자교육원에서 사미 · 사미니계를 받기 위해 장궤합장을 하고 있는 출가자들. 발심을 통한 자질있는 출가자가 늘어야 승가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관련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최고의 출가는 '發心출가' … 해답은 '수행'과 '전법'

신도 발심출가를 늘려라

현재 한국불교는 출가자 감소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조계종의 경우 최근 10년 동안 출가자 수는 급격하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으며, 연령도 고령화되고 있다.

수계교육이 도입된 1991년부터 2000년 사이에는 매년 400~500명의 행자들이 사미 · 사미니계를 받았다. 하지만 2000년 이후 출가자는 매년 200~300명 수준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출가자 감소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먼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출가자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계층 포교의 붕괴로 출가 예비군들이 줄었다는 점도 출가자 감소의 원인이다. 사실상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으로 이어지는 포교 라인이 무너지면서 어릴 때부터 불심을 키우며 출가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게 됐다.

은퇴자 출가 어디까지나 '대안'

이런 상황에서 조계종은 은퇴자 · 고령자 출가 제도를 카드로 꺼냈다. 공청회 등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입법화를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은퇴자 · 고령자 출가를 추진하는 것은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조기퇴직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능력있는 40~50대 사회인들을 출가 인재로 영입하겠다는 목적이 내포돼 있다.

하지만 은퇴자 · 고령자 출가는 여러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고령 출가자들은 이미 가정을 꾸린 전력이 있고, 습의를 익히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승려복지에 대한 종단적 부담도 증가할 요지가 많다. 또한 전문직 은퇴자 출가가 활성화 돼 이들이 전문 분야 소임을 맡을 경우 정상적으로 출가해 법계를 승급해 온 출가수행자와 갈등과 차별이 불거질 수 있다. 또한 은퇴자를 어디까지 수용할지에 대한 전형 문제도 남아있다. 은퇴자 · 고령자 출가가 '방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 있다.

'발심출가' 진흥을 고민해야

어디까지나 출가는 '발심(發心)'을 기본으로 해 이뤄져야 한다. 그렇다면 '발심'은 어떻게 정의내릴 수 있을까?

사전적 의미로는 '깨달음을 구하려는 마음을 일으킴'이다. 이에 대해 현대 선지식 일타 스님은 저서 〈초발심자경문 '발심수행장' 강의〉에서 "진리의 세계에 이르는 공부를 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을 발심이라 하는 것이니, 발심은 곧 신심이요 환희심이다.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편안함"이라고 찬술하고 있다.

깨달음에 이르겠다는 결심에 이르는 '발심'을 내기 위해서는 신도로서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하고 신행하면서 종국에는 사문의 길을 고민토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순환구조다.

신도 발심출가, 이렇게 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부산의 대표 사찰 중 하나인 안국선원은 신도 출가의 모범 사례다. 현재 신도 가정의 자제 20명 가량이 수불 스님의 상좌로 출가를 했다. 가족들도 자녀가 사문이 되는 것에 거부감이 없었다.

안국선원에서는 출가를 특별히 강조하거나 권유하지는 않는다. 단지 수행을 강조하고 수불 스님이 법문을 통해 법을 펼치는 것을 쉬지 않는다. 특히 초심자를 위한 간화선 프로그램에서는 일주일 동안 직접 수불 스님이 지도하며 점검을 한다. 수행을 통해 알게 되고 법문을 통해 해결하지 못한 것을 알기 위한 구도심이 출가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국선원 석산 스님은 "안국선원은 수행을 강조한다. 해봐야 알고 확신한다. 직접 경험한 수행의 결과가 확신이 되는 것"이라면서 "수행을 통해 부모들이 변화하고 자녀들이 그 변화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변화에 대한 확신이 들면 젊은이들도 출가를 결심한다"고 말했다.

서울 도심 사찰 비로자나국제선원 주지 자우 스님은 외국인 포함 20~30대 신도 5명을 출가시켰다. 내년 1월에는 스님을 통해 20대 남성 1명이 또 출가를 계획 중이다. 모두 사찰에서 신행과 수행을 하면서 출가를 마음먹었다.

자우 스님은 "평소 꾸준히 참선법회를 열고, 젊은이들을 자주 만나 상담을 한다"며 "이중에는 '의미있는 삶'을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 이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출가를 권한다"고 말했다.

이어 "흔쾌히 출가를 하겠다는 친구도 있었지만, 고민 하는 사람에게는 '기도를 해보라'고 한다. 대부분이 기도 한 뒤에는 출가를 마음 먹는다"고 밝혔다.

거창 행복한절 주지 은산 스님은 1995년 서울 구로구 관음포교원에서 총무 소임을 보면서 중 · 고등학생들을 포교했고, 이렇게 인연이 된 학생 11명이 5년 뒤인 2000년에 출가했다.

은산 스님은 "그들에게 출가를 하도록 특별히 권유를 하거나 강조를 한 것이 아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전법 했다"면서 "그랬더니 불교에 대해 알아가며 스스로의 삶에 대해 고민 했고, 출가의 삶에 대해 확신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아이들이 출가 결심을 하기까지 은산 스님은 최선을 다해 포교했다. 학생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비디오 게임기를 갖추고 소통했다. 이 같은 스님의 노력에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불교에 관심 갖고, 공부하기 시작했다.

은산 스님은 "학생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공(空)'이다. 그동안 집착하는 삶의 방식을 벗어날 것을 이해시켰고, 집착이 결국 자신을 괴롭히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유도했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출가의 마음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신도 출가 많은 사찰 살펴보니

안국선원 신도 자녀 20여 명 출가

평소 수행 · 포교를 강조하고

스님들이 신도와 자주 상담

젊은 세대와 함께 호흡 노력

모범적 승가상 보여야 '발심'

'전법 · 수행' 기본 지켜야 출가도 늘어

위의 사례를 정리하면, 수행과 전법에 노력하고, 상담 등을 통해 미래세대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려는 시도들이 꾸준히 이뤄질 때 신도들의 출가에 대한 발심이 생겨남을 알 수 있다.

석산 스님은 "수행이 제일 중요하다. 지금은 삶의 질이 높아져 있고 변화의 속도는 너무나 빠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에게 정보는 넘쳐난다"면서 "마음을 직접 알 수 있는 체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출가 진흥은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자우 스님도 "평소 출가 수행자로서 자질이 보이는 젊은이들에게 출가를 권한다. 그 이유는 내 자신이 출가자로서의 삶에 만족하기 때문"이라며 "무엇보다 애써 발심해 출가한 인재가 되돌아 나오는 일이 없도록 종단적으로 예비교육에 많은 신경을 썼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월정사 단기출가학교서 삭발염의를 하는 청년. 무명초를 잘라내는 발심을 가진 진정한 출가 인재가 필요하다.

Inside

C2~3 스님 · 재가전문가가 말하는 한국불교 출가 진흥 방안은?
C13 부처님오신날 더 그리운 스승과 함께한 봉축 이야기
C15 '구도행 대명사' 현장 스님 그의 출가를 재구성 하다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 국 사
佛紀 2560 年

회 주	성타	관 장	종상
주 지	종우	학 장	덕민
부 주 지	정문	총 무	종천
교 무	정수	재 무	종천
사 회	정빈	포 교	탄경
호 법	성담	문 화	성요
신도회장	이영숙		

부설기관
• 분당포교당 석가사
• 불국사 문화회관
• 성림 어린이집
• 불국 성림원(노인요양시설)
• 불국 유치원
• 경주장애인종합복지관

대 중 일 동



■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로 385(진현동) TEL 054)746-9912~4 / FAX 054)746-1476

시대 맞는 출가 정책·종단 인식 변화 필요…

봉축 특집 대담 – 출가 진흥을 말하다

현재 한국불교는 '출가 절벽'에 마주하고 있다. 한국불교 대표 종단인 조계종의 경우 1년동안 200명이 안되는 인원이 출가를 하고 있다. 조계종 교육원이 올해를 '출가 진흥의 해'로 선포하고 적극적인 출가 정책을 진행 중이지만, 출가자 감소는 단편이 아닌 총체적인 문제다.

이에 본지는 불기256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출가자 감소의 원인 분석과 이를 통한 출가 진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담을 진행했다. 대담자로는 조계종 교육부장 진각 스님, 동학사 주지 유곡 스님,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김석희 광동중학교 교장이 참석했으며, 진행은 본지 김주일 취재부장이 맡았다.

정리=신성민 기자 · 이승희 수습기자



진각 스님 조계종 교육부장

옛 스님들은 눈여겨 본 학생
직접 나서 출가 권유하기도
적극적 출가정책, 시대 과제



유곡 스님 동학사 주지

현대인에게 출가 메리트 없어
보람·성취감 있는 승가상 절실
"전통적 한문 교육 필요" 강조



김석희 광동중학교 교장

종립학교, 포교적 역할 높아
스님과 만남·상담 기회 확대
'3040대 독신' 출가 권유하자



김응철 중앙승가대학 교수

대만불교, 어학 엘리트 양성
일반인 영향 받아 70% 출가
한국불교 출가문화 변화해야

김주일 부장(이하 김 부장)=현재 한국불교는 출가자 감소가 심각하다. 원인을 분석해달라.

▲진각 스님=일단 출산율이 줄어 젊은이들이 많이 없다. 정부가 30년 전부터 저출산 고민을 했지만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사교육비가 많이 들고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시설도 부족하다. 내가 출가했을 때는 출가자 수가 정말 많았다. 해인사에 출가했을 당시 1년에 400여 명이 넘었다. 수행과정을 매우 힘들게 진행해 그것을 견디는 사람만이 수계를 받았다. 출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받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하산하기도 했다. 국가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진 것과 더불어 불교계가 출가자들에 대한 배려, 교육, 관심이 부족했다.

▲유곡 스님=동감한다. 출산율 감소가 당면한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가자는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들을 끌어들일만한 요인이 없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속세를 버리고 불교에 귀의하도록 하는 메리트(Merit)가 없다. 스님의 생활이 보람과 희망이 있고, 인생을 맡길만한 가치가 있고, 즐거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온다. 길거리에 다녀보며 우리 승복(僧服)과 속세 사이에 큰 괴리감이 느껴지는 것을 봤을 때, 과연 이 모습을 따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의 가치가 변했다. 나는 삶이 윤택해지고 부처님처럼 내면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출가했지만, 후배가 될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후배들에게 가치 있는 무언가를 제시해야 한다.

▲진각 스님=세속인들이 추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때 권력, 명예, 친구, 돈이 따라오듯이 우리도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출가를 끌어올지를 고민해야한다. 바깥세상의 치열한 경쟁을 놓아버리고 부처님의 삶이 어떤 것이고, 얼마나 가치있는 것인가를 그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종단 전체적으로 관심도 더 쏟아야한다. 과거에는 출가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출가홍보를 적극적으로 했다. 옛 스님들은 일반 중고등학교 등하교 시간에 학생들을 계속 관찰하고, 마음에 드는 학생은 집까지 찾아가 집요하게 권유해 출가 시켰다.

▲김석희 교장(이하 김 교장)=세속적 입장에서 봤을 때 부모들이 너무 자녀에게 몰입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예전만큼 자녀가 주체적으로 인생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부모가 대학교 때까지 자녀들을 꼼짝 못하게 한다. 그래서인지 요즘 아이들은 삶과 세상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기 어렵다. 많은 스님들이 훌륭한 상좌들을 데려오고 싶어하지만, 현재 상황이 편안하지 않을 것이다.

▲김응철 교수(이하 김 교수)=출산율 감소와 사회가치관 변화라는 외적요인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 매력적인 요인을 제공하면 출가자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매력을 주기 위한 출가 제도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

결정적인 이유는 포교의 부재가 출가의 부재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린이, 청소년 포교를 하지 않으니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막은 셈이다. 또 하나는 출가 이후 오롯이 수행자의 삶을 살지 않고 환속하면 비하하는 분위기가 있다. 이럴 바에는 출가하지 않겠다는 경우도 많다.

대만이나 미얀마의 경우 자유롭게 출가하고 자유롭게 돌아간다. 상징적으로 일곱 번까지 드나들 수 있다. 출가경험을 쌓고 싶은 이들이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통로가 있는 것이다.

종단에서 출가를 폭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일반인들이 출가 경험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야한다. 자유로운 출가를 행하는 이들 중에서 평생 출가자도 나오거나, 자녀들에게 본인이 못한 출가를 권유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런 출가문화를 조성해야한다.

김 부장=엄격하고 틀에 짜인 승가생활에 대한 현대인의 두려움이 출가의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진각 스님=불교가 승속과 거리가 있고 어렵게 비춰지는 이유로 언어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한다. 흔히 불교를 '고통의 바다' 혹은 '고해' 등으로 표현하는데, 이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다. 역으로 말하자면 부처님 뜻을 제대로 이해했을 때, 수행생활이 매우 즐거울 수 있다. 불교가 대단히 합리적, 논리적, 과학적이고 정확한 근거를 들어 백팔번뇌 우주법계가 인연에 의해 만들어진 화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이 점을 제대로 이해시키지 못해 어렵다는 오해를 산다고 생각한다.

▲유곡 스님=사실 사찰 생활이 바깥에서 보는 것처럼 경직되거나 고통스럽지 않다. 오히려 매우 재밌다. 친구, 눈물, 그리움, 아픔, 동지, 도반이 있는 다른 세계가 생기는 셈이다. 그런데 일반매체에서 불교하면 무조건 참고 인욕하는 모습만 비춰준다. 재밌는 일상의 모습도 노출할 필요가 있다. 종단과 포교원이 이를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단기출가를 당당하고 자연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종단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출가하다 사회로 돌아가면, 마치 결혼한 뒤 소박맞은 것과 같은 낙인을 찍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바뀌어야 한다.

▲김 교장=이야기를 들어보니 출가는 즐거운 것이라고 느껴졌다. 물론 세속의 즐거움이 아니라 수준이 높은 청정한 즐거움일 것이다. 그런데 현재는 즐거움에 대한 이미지화 정도가 너무 미약하다. 속인들 입장에서 보면 마치 해병대 같은 이미지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훈련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이 보이는 것이다. 물론 굉장히 평화롭고 좋아보인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신과 연결된 게 아닌 동떨어진 다른 세계 사람이라고 여겨 '저들의 삶이 내 일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김 교수=과거에 어머니의 권유로 8개월간 절에서 생활한 적이 있다. 세속과 다를 바 없는 분위기를 내는 곳이었으며, 치병의 의미로 머물렀다. 이 말의 요지는 제대로 된 출가 통로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곳이 없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종단에 연락을 해봐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 단기출가의 경험을 하고 싶어도 스님과 개인적 인연이 없으면 쉽지 않다.

교육원에서 출가에 관심이 많은 젊은이들을 모아 단기출가 경험과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출가자들이 늘 것이라 예상한다.

김 부장=현재 교육원이 활발하게 출가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평가해달라.

▲김 교수=포스터를 제작했지만 사찰에만 붙어있어 홍보 효과가 미미하다. 포스터를 봐서 발심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만한 곳에 붙여야 한다. 공공장소, 대학가, 고등학교 등에 배포돼야 한다. 출가콘서트도 마찬가지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채널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접근방법을 사찰에 공문을 보내 포스터 붙이는 것에 국한하지 말고, 불자들이 관심을 갖고 직접 지역사회에 확산시키는, 2차적인 홍보의 방식이 필요하다.

▲김 교장=올해 '출가의 해'를 맞아 출가콘서트, 청소년 단기출가 특별법 등이 마련되어 있지만 홍보가 되지 않고 있다. 시행횟수나 지속력도 부족하다. 특히 출가콘서트가 대학을 위주로 했으면 한다. 요즘 대학을 4년 만에 졸업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대부분 휴학을 해서 어학연수와 아르바이트, 배낭여행 등으로 1년을 보내는 것을 당연히 여긴다. 이렇듯 1년간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하는데 출가콘서트가 이들과 연계된다면 상당한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출가동호회도 생길 수 있다.

▲유곡 스님=포스터 한 장 만으로 누가 출가를 결심할지 의문이다. 스님들은 절대 단아하게 웃고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차라리 불교계 언론을 통해 스님들이 도반과 더불어 밥 짓고, 빨래하고, 웃고, 싸우는 일상을 보여줘야 한다. 수행자의 삶을 즐기는 와중에 웃음 넘치는 모습을 미디어에 노출할 필요가 있다. 지원을 강화해 일반 언론에서도 다양하고 현실적인 출가자들의 모습이 나올 수 있게 해야 한다. 출가 정책을 홍보·기획하는 전담부서가 있어야 한다.

▲김 교장=최근 파주 보광사에서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포스터를 봤다. 보기는 좋았지만 막상 출가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받진 못했다. 포스터가 주는 매력은 있지만 '나'와 연관이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진각 스님=그래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동영상 공모전도 진행했다. 대학가에서 종교와 관련된 일체의 행사를 허가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륜 스님, 원영 스님과 함께 출가콘서트도 준비 중이다. 젊은이들의 고민을 듣고 해결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출

부처님 오신날 연등 밝히는 것을 스승으로 삼으소서

봉 축

화합불교의 일불제자 구현 (사)호국불교조계종

중앙원로의장 삼장 (산청군 삼장면 삼장사)
원로의원 대웅. 법수
교육원장 봉덕 (거창읍 중산길 봉덕암, 010-8582-1309)
포교원장 운암 (의령읍 벽화로 문황사)
감찰원장 서암 (동래 온천 약수사)
우리춤, 한국무용원장 조론심
총무부장 정무 (수영구 지장암)
재정부장 무여 (동래구 법전사)
규정부장 정학 (전포동 수도암)
홍보부장 청오 (대구 달서구 홍주암)
감사부장 청타 (해운대 관음사)
종단고문변호사 허종범 (부산)
종단 사무처 : 총무 010-4566-4504

중앙종회의장 일봉 (포항 남구 관음사, 011-508-3100)
종회의원 용현. 진여. 무천. 법광. 연화. 범희. 참회. 원희. 관희. 석수. 재현. 혜림. 범주. 덕행. 도경. 관우. 희장. 교각. 법무. 법광. 무상. 청곡. 성우. 변파. 해광

중앙비구니회장 창회 혜명 (부산 부암 백광사, 010-4751-3806)
비구니부회장 의광 (대구 평리 약사사)
비구니회총무 무여 (부산 동래구 법전사, 011-9505-1560)
비구니회감사 천희 (경주 안강 상원사)
비구니회원 무향. 묘향. 진여. 연화. 참희. 원희. 관희. 범희. 재현. 법광. 혜림. 진설. 법연화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합니다

종도와 불자 여러분 이땅에 아픔과 갈등 치유를 기원합니다

(社)護國佛敎曹溪宗 총무원장 유심 성도 jogyejong.kr

전국각교구원장
총무원직할 (서울교구)
대구종무원장 의 광 (약사사, 016-9886-0860)
울산종무원장 대 일 (마하선원, 010-3434-8034)
거창종무원장 봉덕암 (거창읍, 010-8582-1309)
창원종무원장 범 혜 (부용암, 010-8729-9600)
사천종무원장 무 무 (연지암, 010-4595-2120)
의령종무원장 운 암 (문황사, 010-4551-5143)
포항종무원장 일 봉 (관음사, 011-508-3100)
부산종무원장 무 천 (천궁사, 010-2455-0160)
경주종무원장 천 희 (상원사, 010-3187-6337)

총무원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231번길 16 부산역앞 관음정사 / 전화 051)468-5657 팩스 051)442-5659 / 모바일홈페이지 http://m/jogyejong.kr
부설단체 051)442-5658 / 부산대학병원시신 및 장기기증모임 / 한국대승불교실천연합

입종업체

수봉전자 (불교음향기기 특수제작)
선거음향, cctv, 노래방, 야외앰프
부산시 진구 부전동 29 (부산전자종합시장 1층 7호문)
홈 http://www.kukjeav.com 010-3832-8855 수봉 합장

우리춤체조, 한국불교무용연구소 (자격증반 수시모집)
가릉빈가 무용단 (각종불교행사) / 살풀이, 해원무, 오공양작법, 기타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99-30 / 051)512-0115
원장 조론심 010-3834-6677

“엘리트 인재 양성하는 ‘출가문화’ 조성하자”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김석희 교수, 유곡 스님, 진각 스님, 김응철 교수, 김주일 본지 취재부장이 5월 2일 조계종 교육부장실에서 출가 진흥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노덕현 기자

가자의 고통 없는 삶이 있음을 안내해주려 한다. 동영상과 방송 프로그램도 제작하고 있지만 불교계 밖으로 이것들을 다 알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김 부장=은퇴자 · 고령자 출가 등 대안적 출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 교수=출가 유형을 몇 가지로 나눴다. 가장 이상적인 출가는 발심출가다. 20~49세 이하의 시기동안 발심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정상적 출가가 이상적이다. 그동안 동진출가가 이를 뒷받침해왔다.

요즘 월정사를 중심으로 단기출가가 생겼다. 나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기간출가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만의 불광산사에서는 사찰에서 한 공부로 사회에 나가면, 어학 실력 하나로 먹고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엘리트로 교육시킨다. 스님과 학생들이 같이 공부하니 일반인들이 스님들에게 물들어 보통 60~70% 정도가 출가한다. 우리도 기간출가를 정하고 엘리트교육 기회를 제공해서 출가자를 끌어들이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하나, 회향출가도 있다. 은퇴자 출가인데 이 경우 발심출가와는 구분해야 한다. 종단의 위계를 해치고 문화를 그릇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허용한다면,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다시 정비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발심출가다. 숫자는 적지만 출가자 수준은 꽤 높아지고 있다. 사회에서 석 · 박사를 마친 분들이 들어오기도 한다. 종단이 출가를 전향적으로 바라보고, 진정한 발심출가자는 소수정예화가 돼야 된다는 시각도 필요하다.

▲김 교장=주변에 40대 미혼 교사, 공무원들이 많이 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30대 미혼이 30%가 넘고, 40대 미혼도 굉장히 많았다. 안정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을수록 결혼을 안하는 추세다. 이들에게 출가를 발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을 것 같다. 또 요즘은 100세 시대이다. 퇴임 이후에 5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제2의 인생을 꿈꿔볼 수 있다. 실제로 50대 공직자들에게 퇴임 이후의 행적을 물었더니 1위가 여행, 2위가 봉사였다. 이들과 맞물리는 출가를 예상해 볼 수도 있다.

▲유곡 스님=은퇴한 후에 오신 분들과 몇 십년을 헌신한 발심출가자를 구분할 수 있는 제도와 분위기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 더불어 꼭 삭발하지 않더라도 출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삭발염의와 함께 유발제자도 허용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유발출가자들을 허용하면 자원봉사자 부족 문제도 해결되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이들도 합류해서 종단이 더 건강해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진실된 불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저출산 · 고령화, 포교 부재 등
現 출가자 급감의 주요 원인
‘불교=고통’ 이미지 개선해야

출가포스터 · 콘서트 등 좋지만
사찰과 종립학교에만 홍보하나
대사회 메시지 전달력 강화해야

▲김 교수=그래서 나는 ‘도반마을’을 제시했다. 은퇴자들이 스님들을 모시고, 법당을 공유하면서 마치 유발수행자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현재 가톨릭에는 부제 제도가 있다. 부제란 신부는 아니지만 신부처럼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약간의 생활비를 받는 시스템을 말한다. 천태종도 처사 제도가 있다. 승복을 입고 목탁을 치지만 호칭이 처사이다. 그들은 기도하고 염불하는 것이 의무다. 사찰 운영 방식도 여법한 제도를 만들어서 새로이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김 부장= 출가 예비인재를 기르는 종립학교의 역할은 무엇인가?

▲김 교장=종립학교에서 교법사 생활로 시작해 관리자 역할을 맡기까지 올해로 30년이 넘게 흘렀다. 중학교 762명 중 72%에 해당하는 550명이 수계를 받았고, 고등학교 1255명중 68%에 해당하는 850명이 수계를 받았다. 종립학교 운영은 불교신자수를 늘리는 데 확실한 효과가 있다. 그러나 불교학생회와 졸업생을 대상으로 청년회도 운영해봤지만 출가의 경우는 극소수였다. 이유를 생각해보니 출가는 직접 스님을 대면해보고 직접 절을 방문해봐야 된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매 방학마다 가야하는 수련회에서,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 희망자를 받아서 절을 방문하고 스님들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경우가 늘어난다면, 출가의 계기가 늘어날 것이라 예상한다.

김 부장=모범이 될 만한 승가상 정립이 중요하다고 본다. 불교계에서 일어나는 범계나 교단 갈등의 모습이 출가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나?

▲김 교수=어느 정도는 있다. 매년 11월 대검찰청에서 〈범죄백서〉를 발간한다. 이를 따르면 어떤 범죄는 종교인들이 일반인들보다 훨씬 많이 저지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신뢰가 많이 떨어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대만의 사례를 참고해 볼 수 있다. 대만은 스님들이 지키는 복잡한 계율을 7가지로 단순화했다. 예를 들면 ‘스님은 호텔에서 자지 않는다, 식육대처하지 않는다’ 등 간단한 것들이다. 이를 지키기 위해서 어른 스님들부터 스스로 계를 다시 받아 정화작업을 펼쳤다. 우리도 내부에서는 복잡한 계율을 지켜나가더라도, 사회를 향해서는 단순화된 계율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

▲김 교장=불교라면 다른 종교보다도 더 비폭력적이고 자비로워야 하는데 때로는 스님들의 모습이 굉장히 권위적이고 폭력적으로 보일 때가 있다. 독신승들이 가지고 있는 냉정함이라고 할까. 나무가 뿌리 내리기 전까지 잘 돌봐줘야 하듯이 새로 오는 스님들에게 따뜻함으로 대해줬으면 한다. 사형사제끼리 지켜봐주고, 지켜주는 자비로운 모습을 봤으면 한다.

현재 20대에게는 휴학은 기본
기간 · 단기출가 제도 활성화해
사회생활 도움됨을 알게 해야

스님과의 소통이 출가에 영향
종단 출가T/F 구성 ‘한목소리’
유연한 의례 · 복식 개정도 필요

▲유곡 스님=스님들이 청정한 삶을 산다면 범계 문제도 해결될 텐데 그렇지 못하니 잡음이 생겨난다. 그런 의미에서 위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위의를 지키면 범계는 저절로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종단에서 끊임없이 계도하고 새로 교육시켜도, 수행자 개개인의 문제이기에 쉽지 않다. 자각한 한 사람이 인류 전체를 구도할 수 있는 것처럼, 스님들 개개인이 자각되어 있다면 이런 문제는 대두되지 않았을 것이다.

▲진각 스님=대만은 말만 국교가 아니지 불자가 70~80%로 거의 국교나 다름없다. 계율을 바탕으로 신뢰감을 줘서 부처님 사상이 완전히 생활화 되었다. 한편, 유럽의 가톨릭은 범계 때문에 위태해져 개혁주의자인 새 교황이 들어왔다. 일반 스님의 위의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종교지도자가 지키는 위의는 남달라야 한다. 불특정다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다. 달라이라마 존자가 존경받는 이유는 부처님 법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이다.

김 부장=현재 행자교육이나 승가대학의 현대화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

▲김 교수=교육내용은 교육원에서 열심히 보완해서 바뀌어 가고 있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한자 시대가 다시 오는데 한자를 포기한다는 느낌이 든다. 동아시아 공통점은 한자다. 종단 교육이 너무 한글화만으로 획일화되어 있어서 한자를 연구하고 싶은 스님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은 문제다. 그 외에는 일반 강원에서도 현대적인 교육내용과 방법들을 사용하는 등 많이 바뀌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본다.

▲유곡 스님=한문을 접할 수 있는 창구를 차단시키는 것은 문제다. 강의가 너무 많아 한자를 익힐 시간이 없다. 교육원의 현대화는 필요하지만 전통적인 교육도 한편으로는 반드시 행해져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 든다. 한글과 한문을 병행하는 절충안이 필요하다. 세속에서는 한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막상 절에는 한문을 연구하는 인재가 없어 안타깝다. 윗세대가 사라지면 한자를 아는 스님들의 대가 끊길 것이다.

▲진각 스님=현대적으로 재편된 승가대학에서 공부량이 상당하다. 전통교육만으로 신심이 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완해야한다. 그간 전통 교육을 해왔지만 고문 해석에 대한 전문가나 선지식이 많이 배출되지 않았다. 물론 한문이 ‘뜻 글자’이기 때문에 좋은 점은 있지만, 현재 한국 실정에는 맞지 않다. 모든 사람들이 손쉽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글로 염불하고 배워야 한다.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은 한문을 사용하지만, 모든 사람이 한문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한글이 근본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꾸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김 교수=가톨릭 신부들은 라틴어를 배우고 이를 집전할 때 사용한다. 단순히 대중포교만은 위해서는 한글이 쉽기에 받아들여야 하지만, 일반인과 구분지을 수 있는 스님만의 특별한 능력을 지녀야 하는데 그것이 고전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김 부장=마지막으로 재가자 패널들에게는 출가진흥책에 대한 의견을, 스님들에게는 출가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조언의 말을 묻겠다.

▲김 교수=스님들이 유발상자 제도를 활성화해서 일반 젊은 층과 접촉을 넓혀갔으면 좋겠다. 스님과 접촉하는 와중에 출가 · 발심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 사찰과 학교가 더 많은 결연을 맺어야한다. 종립대학 수가 30~40여 개가 채 되지 않는데, 이로는 전국화가 불가능하다. 때문에 주요사찰 본사는 지역 학교에 연대와 후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스님들이 대중과 접촉을 넓혀가야 한다. 사찰로만 불러 모으려고만 한다면 포교의 한계에 부딪힌다.

▲김 교장=스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내 인생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기회, 절집에 가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불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의 진로가 될 수 있는데, 나와 다른 세상 사람들이라는 막연한 느낌이 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라는 느낌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또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100일 출가 같은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었으면 한다. 불교의 긍정적인 이미지 구축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길 바란다.

▲유곡 스님=출가 수행자로 산다는 것은 상당히 매력 있다. 삶을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다. 선뜻 이 문을 들어서기가 두렵겠지만, 막상 들어서면 우리 삶을 벗어나지 않는 신세계다. 차원 높은 가치를 이룰 수 있는 공간이다.

▲진각 스님=출가 전후의 삶은 확실히 구분된다. 출가 전에는 나를 위한 욕심으로 경쟁하고 싸워서 이겨야하는 관계를 맺었다. 그런데 이곳은 직장임에도 불구하고 경쟁관계가 아니다. 다른 이가 성공해도 내가 뿌듯하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음으로 인해 더욱 행복해진다. 주는 행복이 매우 크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자 출가의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출가는 여러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선택이다.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합니다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의 큰 뜻을 함께하실 종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12인연법의 가르침속에서 쉼없이 활동하는 종단!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제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목탁 대승정과 뜻을 함께할 사찰과 암자, 포교당 주지스님과 원장이라면 누구나 종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교법인 : 국제선불교조계종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대승정 목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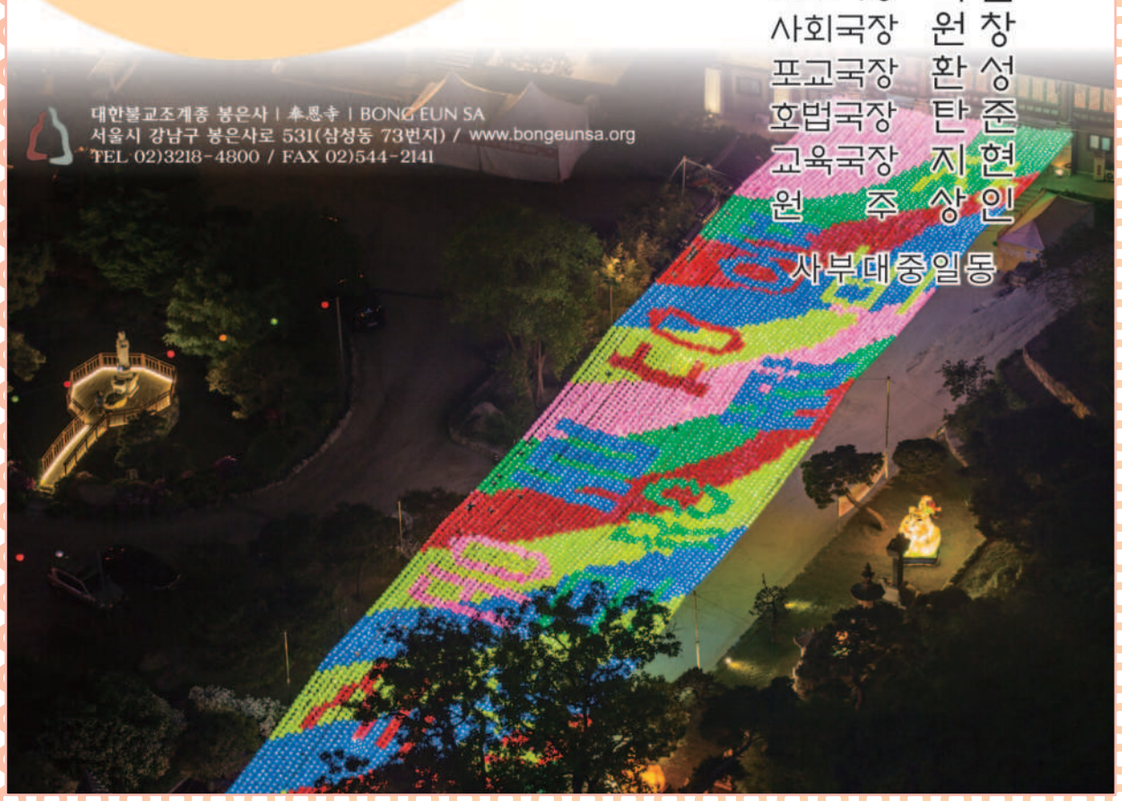
대표 전화번호 02)733-5665, 010-3618-6061 / 기획실 010-4467-9600

가족과 함께하는
봉 은 사

회주 원학 주지 원명

총무국장 법원
노 전 법상
재무국장 덕엄
사회국장 원창
포교국장 환성
호법국장 탄준
교육국장 지현
원 주 상인

사부대중일동



대한불교조계종
흥 천 사
삼 각 산

사부대중일동

"흥천사에 오시면 당신의 꿈이 이루어 집니다"



서울시 성북구 흥천사길 29(돈암동)
TEL 02)929-6611

대한불교조계종
낙 산 사

주지 도 후
사부대중일동

www.naksansa.or.kr
관음진신주처 관음성지 오봉산낙산사

■ 무산사(양양포교당)
· 낙산유치원
· 낙산사불교대학
· 템플스테이
· 강원파라미타청소년협회

■ 무산 복지재단
· 낙산요양원
· 노인복지센타
· 양양군노인복지관
· 무산지역아동센타
· 의상도서관
· 양양시니어클럽
· 아동청소년장학사업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낙산사로 100 ☎ 033)672-2447~8 www.naksansa.or.kr

해운대 해운정사

주 지 도 무
신도회장 박대성

사부대중 일동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2로 40-6 (해운정사) 전화 : 051) 746-2256 / 744-4812 홈페이지 : www.seon.or.kr

대한불교천태종
우면산 관 문 사

주지 변춘광



부 주 지 김월도
총 무 남진성
교 무 박대거
재 무 김효성
부 전 전선관
부전거사 박상남
신도회장 김수웅

사부대중 일동

◆ 정기법회 : 매월 첫째, 셋째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옥불보전

■ (우 137-9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7길 111 / TEL 3460-5300. FAX 3460-5200

행복바라미

제4회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ARS 후원 060-701-0108

4/15 서울 · 4/16 강릉 · 4/17 청주 · 4/23 전주 · 4/23 대구 · 4/24 오산 · 4/26 공주 · 4/29 울산 · 4/30 광주 · 5/4 부산 · 5/15 인천

2016 행복바라미는 올해 연말까지 계속됩니다.

(사)날마다 좋은날
www.everygoodday.org



|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 (사)날마다 좋은날
| 주관 | 2016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조직위원회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한국관광공사 KBS 한국방송

출가상담사 가섭 · 승천 스님

출가 고민하는 이에게 '삶의 출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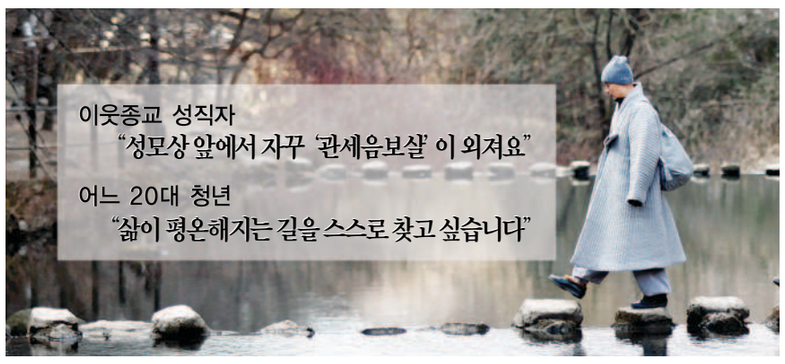
"저는 천주교 신부입니다. 그런데 성모마리아상 앞에 서면 자꾸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이 외져요. 어떡하면 좋을까요?" 이웃종교 성직자에게서 걸려온 전화에 순간 식은땀을 흘렸다. 애써 평정심을 찾고 조심스럽게 다시 되묻는다.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마음에 느끼시는 바를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5~6차례 걸려온 전화에서 몇 번은 술의 힘을 빌린 듯 했으나, 출가 상담사 가섭 스님은 "결코 장난으로 한 말은 아니었다"고 한다.

조계종 교육원이 지난 2월 19일 '출가상담 전화'를 신설한 후 3달여, 하루 50여 건 이상 전화가 쇄도할 만큼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녹록지 않은 취업현실로 좌절을 느낀 20대, 기존 종교에 회의를 느낀 이웃종교인, 여생을 수행자로서 마감하고 싶단 중년까지. 각자가 출가를 고민하게 된 사연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했다.





교육원 2월 19일 상담전화 개설… 1일 50여 건 이상 쇄도
취업좌절 20대 · 이웃종교인 · 장애인 등 사연 '각양각색'
개종 상담건 가장 조심… "종교, 절대적인건 아니기 때문"

상담사 스님들이 가장 곤혹스러웠던 경우는 이웃종교 혹은 이웃종단에서 출가상담 전화를 걸어올 때다. 종교란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절대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기에 개종(改宗)하려는 사람들에게 조언하는 것이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출가 상담사 승천 스님은 부모님의 영향으로 태어나면서부터 특정종교의 신자가 되어야 했던 20대 여성 A씨의 사연을 회고하며 "가장 안타까운 상담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가족들이 모두 세대 간 전승이 의무와 다름없는 특정종교를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A씨도 부모님을 따라 어려서부터 그 종교를 믿었는데, 성인이 되면서 점점 회의감을 느꼈던 거죠. 그러다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으로 호주 유학을 떠나 그곳에서 만난 남성과 결혼까지 했지만, 이혼의 아픔을 겪게 돼요."

그 후 A씨는 친정에 들어가 살게 되는데, 딸아이에게까지 종교를 강요하는 가족들 모습에서 환멸을 느꼈다고 한다. 그러다 틱낫한 스님의 책 〈화〉를 접하고 불교에 관심을 갖게 돼 인터넷 · 서적 등을 통해 불교 공부에 깊이 빠져들었다.

"자신이 출가 한다면 딸을 맡아줄 보육시설이 불교계에 있는지 물었어요. '아직은 그런 시설이 없다'고 말하니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자라는 아이에게 지금은 엄마의 존재가 필요할 시기'라고 당부하며 딸과 함께 이곳저곳 사찰을 찾아가 스님들과 차담도 나누고, 절에 대해 직접 느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A씨는 '알겠다'며 전화를 끊긴 했지만,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아 도와줄 수 없는 현실에 저도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이처럼 출가 상담사 스님들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사연들을 직접 들으며, 불교계가 앞으로 해 나가야할 과제를 발견하기도 한다.

가섭 스님은 30대 중반 남성 B씨와 통화를 마친 후 '장애인 특수출가'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B씨는 "스님이 돼서 장애인을 위한 포교를 펼치고 싶다"며 상담을 요청해왔다.

"현행은 장애인 출가를 불허하고 있는데, 장애인 특수출가 제도를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B씨는 절실한 신심으로 출가에 대한 뚜렷한 의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장애인 포교가 미약한 불교계 현실에서 B씨와 같은 뜻을 가진 장애인들을 받아들인다면, 불교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섭 스님은 "언젠가 장애인도 출가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꼭 연락드리겠다"며 B씨의 연락처를 수첩에 메모해두었다.

그런가하면 20대 청년들의 상담 요청도 줄을 이었다. 출가에 대한 가벼운 호기심으로 걸려온 전화가 대부분이었지만, 팍팍한 삶의 출구를 찾고자 출가를 고민하는 청년들도 많았다.

"고등학교를 중퇴했어요. 부모님도 안계셔서 하루에 아르바이트를 3개 이상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게만 살아왔는데, 이제는 저스스로 평온해지는 길을 찾고 싶어요."

조금은 긴장한 듯 머뭇거리던 20대 청년 C씨는 '괜찮다'며 다독이는 가섭 스님에게 불우했던 어린 시절 사연을 털어놓았다. 얼굴을 마주하지 않았지만 진심을 통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C씨의 사연을 전하는 가섭 스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원래 불교적 정서를 가지고 있는 청년이었어요. 전화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섣불리 출가를 권유하지 않지만, C씨에게는 꼭 출가가 아니더라도 삶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직접 만나고 싶었지만 부담스러워할까 그만두었습니다. '출가를 위해선 검정고시를 봐야한다'는 제 당부에 C씨는 '마음정리를 마친 후 검정고시에 응하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승천 스님에게는 '외상 후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20대 남성 D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몇 해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화재사고의 피해자였다.

"C씨는 바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옆에서 함께 웃고 있던 사람들이 한 순간 죽어간 것을 보고 엄청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현재는 많이 나아진 상태지만, 과거엔 불안장애 · 공황장애까지 함께 찾아와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C씨는 마음챙김수행을 하며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불교적 수행법으로 아픔을 극복하며 출가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종법상 정신질환자의 출가는 금지된다. 승천 스님은 C씨에게 차마 이 말을 하지 못해 "여건이 나아지면 꼭 도와드리겠다. 꾸준히 치료해 하루빨리 쾌유하길 바란다"며 에둘러 위로할 수밖에 없었다고 애석해했다.

"전화하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믿고 아픔을 털어놓는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할 수 없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울고 웃으며 얘기를 나누다보면 항상 마지막에는 서로 '감사합니다'라며 웃으면서 끊어요. 전화를 걸어주는 모든 분들이 출가를 하든 안하든 자신이 정말로 행복한 길을 찾아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가섭 · 승천 스님은 머리맡에 '상담 전화기'를 두고 잠든다. 24시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순 없지만, 출가를 고민하는 이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은 한시도 쉬질 않는다.

박아름 기자



佛紀 2560年 丙申年
Buddha's birthday | 자비로운 마음 풍요로운 세상
어진 사람들은 히말라야처럼 멀리서도 빛난다. 못된 사람은 밤에 쏜 화살처럼 가까이서도 보이지 않는다. (법구경)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기장불교연합회
및 연합신도회

회 장 정 오 외 회원일동

신도회 회장 이재순 외 회원일동

사하구 불교연합회

고 문 법운스님 (보광사) 남운스님 (남운정사)
자문위원 법인스님 (약천사) 만일스님 (미륵암)

회 장 혜우스님 (약수사) 부회장 혜원스님 (성불사) 승공스님 (칠보사)

총무국장 송우스님 (해장암) 교육국장 선혜스님 (대부암) 복지국장 묘덕스님 (문수암)
조직국장 보승스님 (무학사) 감 사 해봉스님 (백용사) 포교국장 자은스님 (성불사)

정홍스님 (용주암) 서천스님 (미륵암)
보원스님 (미타사) 지송스님 (지송사) 지연스님 (옥련암)

사하사암 무료급식소
성불사 대부암 약천사 길상사 문수암 약수사 해장암 무학사 이귀연 외
문 의 : 송우스님 010-4410-0061
후원계좌 : 부산은행 101-2007-6617-08 (예금주 : 사하사암무료급식소) 매주 월, 화 오전 9시

사하구불교신도연합회
회장 김흥남 수석부회장 이용한 총무 박형숙. 김정년



자비로운 마음 풍요로운 세상

신비령산 소원천지탑
음이온 명상치유 선도량

마이산탑사



禪本寺 갓바위

_ 불기 2560(2016)년 부처님오신날 _



Buddha's Birthday

부처님께서 이땅에 오심을 찬탄하오며
나와 남이 둘이 아님을 알아
상생하는 고마움을 가지며 자비와
지혜의 등불로 오신 부처님의 진리를 따라
항상 실천하는 우리가 되길 서원합니다.

- 주지 법성 두손 모음 -

● 갓바위 부처님전에 소원성취와 지혜광명의 등불을 밝히는 12지 석등불사

선본사 갓바위 기도 일정

매주 토요일	철야기도 (오후10시~새벽2시30분)	신묘장구대다라니
매주 음력 3일	만불보탑 발원지 기도	신묘장구대다라니
매월 음력 15일(보름)	광명기도	광명진언
매월 음력 그믐	소원성취기도	항마진언

◉ 문의 053)853-9877, 851-1869(갓바위접수처) 053)851-1868(선본사)

대한불교조계종 팔공산 선본사 갓바위







마음의 등불 밝혀 세상을 환하게 비춥시다

정진수행으로 참나 깨닫기를

진제 스님
조계종 종정



山廣野百花爭發요
月色江光冷相照라.
撥開淨妙圓明眼하여서
識取唯我獨尊意어다.

산과 넓은 들에는 백가지 꽃들이 다투어 피고
달빛과 강빛은 냉랭하게 서로 비춤이라.
깨끗하고 묘하고 뚜렷이 밝은 지혜의 눈을 열어
부처님께서 오직 나만이 홀로 높다하신 이 뜻을
모든 이들은 바로 볼지어다.

부처님께서 사바에 오신 진리는, 농부는 밭 갈고 씨 뿌리며 땀 흘려 농사지어 추수하는 기쁨의 웃음소리 가득하고 노동자는 산업현장에서 망치 소리와 기계 소리가 쉼 없이 울려 퍼지고, 남북한 동포들이 조국강산(祖國江山)에서 각자 맡은바 직분(職分)에 충실할 때, 그 날이 바로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이웃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며, 그 고통을 덜어주고 대신 앓는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대승보살도(大乘菩薩道)를 시현(示現)하는 그 곳이 부처님 오신 도량입니다.

우리겨레의 엄숙한 소명과 책무(責務)인 조국이 하나 되어, 남북동포가 겨레의 얼과 동질성(同質性)을 회복하여 서로가 얼싸안고 춤추며 태평성대(太平聖代)를 구가하는 그 때가 부처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과학의 본질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구촌의 평화에 기여하여야 함에도 중생들의 탐욕(貪慾)으로 인해 인간존엄(人間尊嚴)과 생명존중이라는 절대적 가치가 전도(顚倒)되어 가공(可恐)할 무기를 개발하고 자연을 훼손함으로써 도리어 인류의 안전과 지구촌의 미래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고귀한 생명을 경시하고 무상(無常)한 물질을 숭배하는 이 깊은 병통(病痛)을 치유하는 유일한 길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라는 화두(話頭)를 들고 각고(刻苦)의 정진수행으로 일념삼매(一念三昧)에 들어 참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주만유의 본질인 생명의 존엄성과 우주(宇宙)의 원리를 자각하여 일체중생(一體衆生)이 비애(悲哀)와 고뇌가 없는 영원한 생명의 실상(實相)을 현실세계에서 수용(收容)하여 대자유해탈(大自由解脫)의 경지(境地)에 이르도록 합시다.

불일(佛日) 밝혀 현세 정화하세

성초 정사
진각종 총인



무수(無憂樹) 꽃비 흩날리는 사월 초파일, 광명을 놓아 세상의 뭇 아픔을 쉬게 하려고, 부처님이 귀하신 몸을 사바에 보여주시니, 군생(群生)이 봉축하고 새날을 열어가도록, 함께 한마음으로 신심을 다독여 서원합시다.

부처님은 시공에 걸림이 없이 거래금 자재하여 중생이 있는 곳마다 자비의 손길을 내리시나 삼독(三毒)의 미혹은 사심(私心)을 치성하게 하고 아상(我相)의 덫이 공도(公道)를 어지럽게 하여도 청량한 감로법음(甘露法音)만은 귀담아 들읍시다.

미증유의 첨단기술이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물질문명의 혜택이 운해(雲海)처럼 넘쳐나도 세상에는 여전히 귀천의 차별이 도를 더해가고 세사(世事)는 피아(彼我)의 시비에 빠져드니 자타일여(自他一如)의 불심을 살려 구제합시다.

광복정국의 갈등이 사회의 혼란을 부추기고 병빈쟁(病貧諍)의 중생고(衆生苦)가 깊어갈 시기에 각성종교(覺性宗敎)의 자주실천의 종문을 일으키고 의뢰하는 습성과 비법(非法)에 집착하는 관습(慣習)을 밝게 정화(淨化)하신 진각성존의 원력에 귀명합시다.

일광(日光)은 먹구름 뒤에서 항상 빛을 내고 뭇 강물은 빠짐없이 바다로 흘러들 듯이 중생의 청정한 혜일(慧日)이 어둠을 걷어내고 고하(高下)가 상보하고 빈부가 상생하여 화해의 온기가 봄기운처럼 가득 피어나도록 예경의 마음모아 부처님의 정법을 실천합시다.

절망은 희망으로, 갈등은 화합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자비로운 봄바람이 지나는 들녘마다 생명의 기운이 피어나는 계절입니다. 생명이 움트고 희망으로 가득한 오늘은 부처님께서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은 우리 모두가 생명의 주인이며, 희망이라는 진리를 밝혀 주셨습니다. 온 중생이 주인공이라는 환희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존경하는 불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부처님은 오로지 중생의 행복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 안에 가장 소중한 보물을 하나씩 갖고 있는 주인이므로, 신분의 귀천도 남녀의 구분도 재물의 많고 적음도 없는 평등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삶이 진정한 진리임을 밝히셨습니다.

아직 우리는 중생이기에 그 자리를 이기심으로 채우기도 합니다. 중생심에서 비롯된 욕심과 분노, 어리석음으로 인해 나와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안타까운 일들도 많습니다. 사회를 이루는 근본인 가족공동체마저 파괴되고 있다는 소식이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이 우리 모두가 지혜와 자비의 새싹을 틔워 모든 생명을 감싸는 대자비의 연꽃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류와 민족의 번영, 남북의 화해와 평화 공존, 고통과 절망에 빠진 이웃과 함께 하는 동체대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부처님입니다. 절망은 희망으로, 갈등은 화합으로, 불신은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밝은 공동체를 염원합니다.

탐욕 버릴 때 자신의 가치가 살아난다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



불자와 국민 여러분! 오늘은 축복의 날,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우주법계의 참 진리를 가르치시고 일체중생의 존엄과 평등 평화를 일깨우신 부처님의 탄신을 만 생명과 더불어 봉축합시다. 부처님께서 오신 것은 한 송이 연꽃이 피어 난 것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절대불변의 법향기를 온 누리에 비추고 있습니다. 영산에서 보이신 한 번의 미소가 억겁 세월을 밝히고, 한 마디 말씀이 억만 국토에 자비를 심었으니, 부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불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오늘 부처님오신날은 먼 곳의 부처님을 맞이하는 날이 아니라, 바로 자기 안의 부처님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것이 우주법계의 부처님을 맞이하고 그 가르침을 장엄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처님오신날, 모든 사람이 본래불의 진면목을 깨달아, 일체의 대립과 갈등, 전쟁과 테러의 공포를 벗어던지고 화합과 평등, 자비와 평화, 광명의 등불을 밝힙시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손잡고, 부처님께서 열어 보이신 참 생명의 길을 걸어갑시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감사하길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창교 70년에 맞이하는 부처님오신날입니다. 눈 있는 자는 보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와 자비의 화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룩하게 이 땅에 오신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이 부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며 우리 모두 마음의 등불을 밝힙시다.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을 받들어 나와 내 이웃, 생명을 가진 모든 유정들이 부처인 것을 자각하면서 은혜를 베풉시다.

지혜롭고 자비한 마음으로 눈을 뜨고 귀를 열어 뭇 생명과 은혜를 나누는 보살행(菩薩行)이야말로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불자의 자세요, 길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이 풍요로운 세상을 만듭니다. 지혜로운 생각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듭니다. 진각기원 70년에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한 종단은 풍요롭고 아름다운 행복세상을 만들기 위해 연초 종책목표로 정했던 혁신을 통한 진각 100년 불사의 토대마련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혁신을 통해 수행과 신행을 새롭게 하는 가운데 '봉사로써 희사바라밀'을 실천하며 개인의 인격완성과 현세를 정화하기 위한 불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을 찬탄하고 봉축하며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인류에 평화가 깃들기를 서원합니다.

맑고 밝은 법의 본래 자리로 갑시다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인연이 지중하신 불자 여러분! 부처님 오심을 다 같이 봉축합시다. 부처님은 깨달음으로 이 세상에 오셨으므로 여래(如來)라 합니다. 부처님은 진리의 세계에서 오셨으므로 여여하게 정변지(正遍知) 하십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들로부터 공양을 받으실 자격을 갖추셨기에 응공(應供)이라 하고, 공양을 올려야 합니다. 가시는 발걸음 머무는 자리, 그 어느 곳이라도 부처님의 행보는 밝고 맑은 법의 자리이므로 명행족(明行足) 합니다. 부처님은 가장 큰 기쁨으로 중생의 행복을 알게 하시고, 오셨다 가셨다 하므로 선서(善逝) 합니다.

부처님은 세상의 좋은 일과 그릇된 일을 잘 고르고 다스리는 분이라 조어장부(調御丈夫)하십니다.

신과 하늘까지도 감복하여 천인사(天人師)라 칭명하셨으니 부처님(佛)이라 우러르고, 이 세상 모두가 존경과 찬탄하기에 세존(世尊)으로 사바세계에 오셨기에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마음 밝혀 불 밝혀서 불자님 가정과 삶이 부처님 같이 닮아가는 정진 염불을 하며 부처님의 위대하고 숭고한 모습을 우러르며 찬탄하며 봉축합시다.

자비의 눈빛으로만 중생 굽어보자

총지종 통리원장 인선 정사



불자 여러분 성도 합시다.

불기 2560년 부처님오신날을 진심으로 경축드립니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는 무엇보다도 육도윤회의 수레바퀴에서 고통 받는 중생들을 구제하시고자 오셨습니다.

부처님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뒤로한 채 출가하시어 깨달음을 얻고, 그날로 만중생의 깨달음을 위한 고된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 하나 중생의 본질을 깨닫고, 불성을 깨치는 것입니다. 자비의 눈빛으로 만 중생을 굽어보시는 부처님의 따뜻한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교도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는 부의 양극화로 많은 사회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세속적 욕망을 조금씩 양보하는 순간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입니다. 가진 자들은 자신의 부를 조건 없이 나누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보다 더 노력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 사회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화합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 진리의 법음이 온 세상에 울리길 서원합니다.

상생 실천하는 날이 되길

혜초 스님
태고종 종정



오늘은 부처님께서 무명 속에서 부처를 찾아내는 밝은 길을 알려주고자, 자비와 지혜의 화신으로 우리 곁에 오신 날입니다. 즉 여래라는 희망의 종자를 가지고, 모든 중생들이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해탈의 길을 몸소 실천해보이시기 위해서, 사바세계에 현신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석존의 이러한 숭고한 뜻을 잘 받들어서,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존재하는 모든 중생을 내 몸같이 수용하고, 더불어 그 아픔과 괴로움을 어루만져주고, 나누면서 상생하는 삶을 실천하는 서원의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노력들을 모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의 수없이 많은 인류의 끊임 없는 고통과 괴로운 삶을 외면하지 않고, 공동선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부처님 오신 뜻의 근원이고, 연기적 세계관의 실천이며, 올바른 마음가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가난한 여인이 지극정성을 다해 등을 켰다는 '빈자일등(貧者一燈)'의 말씀처럼 우리도 진지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자성을 일깨우고, 어둔 마음을 밝히기 위해 지혜의 등불을 켜는데도 진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본래는 범부요, 성인이라는 분별도 없으나 어둠의 미혹으로 인하여 중생이 되고, 부처가 되었으니 오늘은 부처님 현신하신 인연으로 번뇌의 얽매임에서 벗어나는 깨달음의 등불을 밝혀 모든 분들이 부처로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비우고 비워 부처 만나리

도용 스님
천태종 종정



모든 중생의 마음에 부처님 성품
빛나고 있듯 행복도 고통 속에
이미 자리하고 있구나.
역경 속에서 희망의 싹이 자라고
있으니 진흙 속에 연꽃이
피어나는 도리가 여기에 있도다.
마주 하면 떠오르는 해가, 등을 돌리니 지는구나.
부처님오신날을 지극히 맞이해야 하는 소이가
여기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살아보면 짧기만 한 인생, 허망한 범부의 삶이라.
팔만 사천 법문도 모자라 채우고 또 채우려 애를 쓰는구나.
부처님보다 가진 게 없어 범부가 아니라 더 가져서
중생인 것을 잊지 말라.
오늘은 비우고 비워 무심(無心)으로
아기 부처님을 만나러 가는 날

타인 배려하는 마음 갖자

효강 정사
총지종 종령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는 우리 중생들이 생명의 존엄성을 자각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화합의 정신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이며, 모든 중생들은 불성이 있어 모두 성불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자연도 생명이 있어 함께 더불어 살아나가야 함을 교시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태어날 때 부터 천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태어날 때부터 바라문이 되는 것이 아니다. 행위에 의해 천한 자가 되고, 행위에 의해 바라문이 되는 것이다. 또한 태어난 가문을 묻지 말고 그 행위를 물어라. 불은 온갖 습에서 일어난다. 천한 집에서 태어난 자도 성자와 같이 도에 대한 뜻이 굳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근신한다면, 곧 귀한 인간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한국사회는 헬조선, 금수저, 흙수저 등 보이지않는 계층적 차별과 신분적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화합과 희망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중생들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서로 겸양하고 화합하여 살아가야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부처님 마음은 둘이 아니고,

계율을 청정히 하라

불교조계종 종정대행 혜인 스님



生死의 苦에서 해탈하라, 대자비심으로 수행하라. 너희들은 내가 열반에 들어도, 戒律을 지키면 내가 있고, 戒律을 지키지 않으면 태산 같은 사원을 지어도 나의 법은 아님이라. 세상은 무상하고 위태롭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오로지 수행 정진하라. 나의 수행법은 戒·定·慧 三學이다. 여기서 벗어난 불교수행의 길은 없다.

그러므로 계율을 청정히 하라. 언제나 내가 있다. 청정한 계율의 지킴은 정진의 시작입니다. 성불하는 그날까지 몸과 마음을 바로 하여 정진 또 정진 합시다.

새로운 탄생, 새로운 삶의 시작

국제선불교조계종 대승정 목탁 스님



4월 초파일 이날이 오면 우리는 등불을 밝혀 부처님 오심을 축복합니다. 나와 이웃과 그리고 역사의 짙은 어둠을 깨쳐서 그 앞길을 비추는 보편의 진리로서의 '빛의 탄생' 이요 '자비의 오심' 이기 때문입니다. 수행자라 흉내 내면서도 불제자가 아닌 분별의 능력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불쌍한 중생들이 바르게 세상을 보고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지혜로운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심을 찬탄하는 중생 모두가 머리로 살지 말고 가슴으로 살아가는 인간다운 인간, 불자다운 불자이기를 두 손 모아 합장 기원합니다.

칠보산 돌사자는 보이지 않고

대한불교무량종 종정 혜안 스님



"박쥐의 출세는 컴컴한 굴속을 차지 함이요 봉황(鳳凰)은 오동(梧桐) 아니면 깃들지 아니하고 대호(大虎)는 굶주려도 죽은 고기를 취(取)하지 않느니라. 북천에 번개치니 남천에 천둥이라 청산에 소쩍새 울음은 날새는 줄 모르네. 오호라 칠보산(七寶山)에 돌사자는 보이지 않고 온갖 잡새만 지저귀도다. 부처님 말씀에 영원(永遠)한 것이 없거늘 무상살귀는 문전에 와 있는데 어찌하여 천년 근심에 세월만 보내는가. 부처님 이 한등의 공양을 저버리지 마옵소서" 부처님오신날 뭇생명이 부처님 자비광명에 귀의하길 기원합니다.

팔엽연화 활짝 피웁시다

대한불교불입종 종정 면철 스님



불기 2560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합니다.

중생들이시여. 눈(眼)이 청정하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느니라.

귀(耳)가 청정하면 가릉빈가의 노래소리 듣느니라. 코(鼻)가 청정하면 삼라만상 연화향을 맡음이로다. 혀(舌)가 청정하면 내는 소리 모두 불음이로다. 몸(身)이 청정하면 일체중생이 보기를 원하노라.

마음(意)이 청정하면 자타 모두 부처님이로다. 우리 모두 부처님 마음속으로 함께 들어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을 얻어 팔엽연화 활짝 피웁시다.

평화와 화합 서원 세우는 날로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도선 스님



부처님 오신날 사바에 나투신 크나큰 뜻을 따라 평화와 화합, 생명존중의 서원을 세웁시다. 진정한 불자로 돌아가 참 불자로서 청정하고 아름답게 세상을 장엄하여 봅시다. 인간의 몸 받기 어렵고, 그 몸이 부처님 법 만나기 더욱 어려운데 부처님 법 받아 우러르며 여래의 진실법을 깨달아 갑시다. 부처님 법 모르는 이에게 알게 하고 참 생명의 자아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합시다. 우리의 마음과 부처님은 둘이 아니어서 마음 밖에 부처가 없음을 나부터 알고 행하도록 합시다. 나무석가모니불.

부처님 자성의 꽃 피워라

대한불교삼론종 종정 혜승 스님



佛法元來無二相 불법원래무이상
來同水月去山雲 래동수월거산운
見似夢形聞谷響 견사몽형문곡향
但空性是釋迦文 단공성시석가문

불법에는 원래 두 가지 모양이 없나니 옴은 물속의 달과 같고 감은 산마루의 구름 같아라.

봄은 꿈속의 형상과 같고 들음은 골짜기 메아리니 공한 성품 이것이 바로 석가모니로다.

공한 그 자리 꽃 피는 그 모습이 그대로 석가모니의 대의니 두 손 들어 찬탄하며 노래 부르고 춤을 추세. 등꽃 만발한 새벽 날.

묵조선풍 일으키는 날

대한불교조동종 종정 심월 스님



坐禪風裏默照發
月夜慇懃對佛心
曹洞不必須話頭
滅却寂寂火自涼

좌선 바람속에 묵조선풍 일으키니 달밤에 은근히 부처님의 마음을 만나는구나! 조동종은 반드시 화두를 필요하지 않지만 고요함을 멸해 불이 스스로 서늘해 지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신지 2560년이 흘러가 버렸지만 아직도 그 법은 수승하기에 아직까지 전해지고 있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맞이하여 모든 종교와 이념을 떠나 자비의 실천을 행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본 생명인 원각을 성취하자

(사)대한불교승가회 총재 무공 스님



부처님은 빛과 원음으로 오시고, 법신으로 오신다. 육체의 질곡과 마음의 미혹을 깨우쳐 주시고 오직 인간은 본래부터 자유인이요, 영원이요, 완전자임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것이다. 다시 부처님오신날을 맞으며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것은 부처님 오심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되새겨 보는 일이다. 즉 대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 라는 허구를 자각하고 대 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의미도 바로 이러한 인류최대의 자유자재인을 기리는 데에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지혜의 깨달음을 얻어야

(사)대한불교승가종 종정 월인 스님



오늘 진리의 꽃비가 사바의 중생들에게 두루하는 신록지절에, 이 땅에 오신 아기부처님을 맞이하여 중생 모두가 등불이 되어 어둠을 걷어내고 광명천지 부처님의 가피로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등불을 밝히는 것은 무명을 태워 광명의 세계에 들어가 지혜를 밝히는 것입니다. 연등만으로 무명을 다 걷어낼 수는 없겠지만 마음의 불을 밝혀 지혜의 깨달음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을 부처님 같이 공경하고 존경하여 내 몸 같이 사랑한다면 이 세상은 비로소 살기 좋은 부처님 세상이 될 것입니다.

마땅한 행을 실천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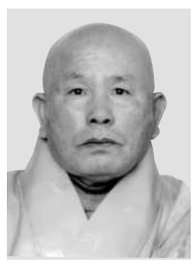
한국대승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취운 스님



불기 2560년 부처님 오신날. 석가모니부처님의 탄생을 함께 봉축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분의 가르침대로 각자가 서원을 세워 견성 성불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참 불자라면 오늘 당장 자신의 마음을 관조(觀照)하고 단박에 깨우쳐서 성불하여 매일 매일이 부처님오신날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위대한 스승이신 부처님의 등불에 자신의 등불을 켜고 나를 비롯하여 우리 이웃과 인류 모두가 함께 평안하도록 마음을 내고 마땅한 행을 실천해 가는 것이 부처님 오신날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반야광명으로 슬기롭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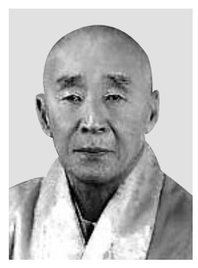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정 지공 스님



부처님의 탄신을 축하하고 온 누리에 등불을 밝혀 부처님의 공덕을 기리고 우리의 소원을 간절히 빕니다. 그러면 아기 부처님이 탄생하자마자 동서남북으로 일곱 발자국씩 걸으신 후 외치셨다고 하는 탄생계의 첫 구절은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 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천상천하' 는 하늘 위 하늘 아래라는 말이므로 이 세상 이 세간을 말하고 '유아독존' 은 내가 홀로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병신년도 초파일은 우리 다 같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서 몰아내고 슬기롭게 살아갑시다.

마음이 깨끗해야 참된 출가

대한불교원효종 종정 정광 스님



我見出家人 不入出家學
欲知眞出家 心淨無繩索
澄澄絶玄妙 如如無倚托
三界任縱橫 四生不可泊
無爲無事人 逍遙冥快樂

내가 출가하여 출가한 사람을 보니 출가한 배움에는 들지 못하였네. 참된 출가를 알려거든 마음이 깨끗하여 얽매임이 없어야 하네. 씻은 듯 맑아 현묘(玄妙)가 끊기고 본디 그러하여 의탁(倚托)할데 없어야하고 삼계에 마음대로 종횡함이니 사생에 어디에나 대일곳 없네. 하염없고 일없는 사람이니 소요(逍遙)히 쾌락(快樂)에 맡길뿐.

믿음과 신뢰로 청정함 찾아야

(사)대한불교해동종 종정 혜봉 스님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삶과 말씀을 오늘에 되새겨 자신을 반성하고 이 중생사회를 밝혀 가는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탐진치에 물들어 거짓에 가득차고 미혹으로 가득한 자기를 지극한 참회로 참된 자기를 바로 봅시다. 내 안의 본래의 청정함을 찾아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여 인류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 갑시다. 모든 생명체와 산하 대지가 공존공생의 삶이 되도록 바로보고 바로 행하도록 합시다.

모두가 스승이며 선지자

(재)한국근본불교조계종 종정 의륜 스님



不擇師 無以法 不折我 無以學
不修學 無以成 不觀心 無以通

스승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법 받을 것이 없으며 나를 꺽지 아니하면 배울 수 없다. 3학을 배우지 아니하면 보리를 이룰 수 없고 마음을 관하지 아니하면 도를 통할 수 없다. 우리 모두가 스승이며 선지자 이므로 부처님 탄신을 다시보는 생각으로 부처님 법을 배우고 나의 고집을 놓고 비우면 마음관으로 도를 통하여 뜻을 이룰 수 있나니. 모든 중생들과 부처님 오심을 찬탄합니다.

오늘 불교는 이것을 해야한다

(사)한국불교종단연합회 회장 성철 스님



"지금 저 달을 가르키고 있는 손가락을 바로 달인 줄 아는 미혹의 중생들에게 그 손가락이 달이 아니라고 말하고 바로 달을 보라"고 우리는 중생들이 잘못보고 있음을 자각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부처님의 저 간곡한 말씀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올바르게 지키고 있는가? 우리는 부처님을 형식으로만 믿지 않았을까? 부처는 우리의 생명 속에 계시며 심장으로 믿을 때 진실로 나투십니다. 깨달음은 말에 있지 않고 실천에 있음을 우리는 상기해야 합니다.

이웃을 위한 봉사가 佛法

(사)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 회암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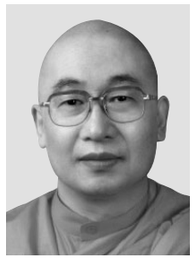


三界熱惱 猶如火宅
基忍淹留 甘受長苦

삼계의 중생세계는 탐진치의 번뇌로 약육강식의 생존경쟁속에 욕심으로 불타는 세계다. 사회는 온갖 부조리와 자승자박의 자가당착적인 요인들이 한시도 쉬지 않는다. 오늘 우리 모두가 본심으로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도와주므로 지혜와 공덕을 갖추게 되며 해탈의 경지에 이르며 육신의 번뇌가 밝아 뜻을 이룬다는 부처님의 말씀이니라.

성공은 가피입니다

세계승가회 회장 수완나 스님



積一行得佛이라. 올바른 일에 정진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그 속에서 허물을 보고, 그 허물을 올바르게 변화시키려 정진한다면, 그는 최고의 행복에 도달할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는 님, 그는 공양 받을 만한 고귀한 님입니다. 수행이든 행복이든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은 실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가피입니다. 꾸쌀람.

부처 자비로서 희망 등불되자

(사)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청봉 스님



오늘부터는 모든 중생이 부처인 것을 알고 오직 자비로써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 우주의 주인이시며 인천의 스승이며 사생육도의 어버이시고 만고광명의 등불이신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광명의 날입니다. 고통 속에 빠져있는 중생을 구제하시고자 자비의 화신으로 출현하신 것입니다. 이를 믿고 의지하여 우리 중생들도 새로 태어나는 뜻 깊은 날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오며 불자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사회의 희망과 등불이 되기를 서원하는 바입니다. 나무석가모니불.

풍요로운 극락정토 실현

(사)대승불교본원종 종정 대화 스님



부처님께서는 불기 2560년 음력 4월 초파일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고자, 또 지혜 광명으로 고해중생 건지고자 자비복덕의 큰 가르침을 전해주시기 위해 이 사바세계에 오셨습니다.

다 같이 마음의 등불 밝혀 봉축하고 부처님 오신 뜻 거룩하게 받들어 실천 봉행함으로써 이 땅위에 평화롭고 풍요로운 극락정토를 실현합시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 석가모니불.

허공에 싸고 걷다

대한불교총화종 종정 남정 스님



來興白雲來 去隨明月去 去來一主人 畢竟左何處로다. 죽음을 슬퍼함은 흰 구름과 함께 왔고 가실 때는 밝은 달빛 따라 갔네. 오고 가는 한 주인은 마침내 어느 곳에 있을 고.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마음자리가 잘 정돈되어야 한다. 마음은 모든 법의 근본이 되어 악한 행동과 선한 행동을 따르게 하여 이는 곧 수레가 바퀴를 따르는 것과 같다. 初心은 빈배, 상서로운 한 줄기 빛, 너는 이것을 보았는가. 허공을 모두 싸고 자꾸 폈다 걷었다 한다. 바람 따라 비를 끌며 집에 돌아가리.

마음 밖에 부처가 없음을 나부터 알고 행합시다”

계행 지켜 생명 자리를 알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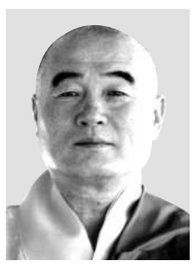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혜봉 스님



석가여래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두루 비추어서 능히 불법으로 평안을 얻게 하시고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의 가피가 충만하오니 우러러 부처님오신날을 찬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생사의 굴레를 벗어나 해탈에 이르기를 염원하시는 대자대비이십니다. 이 뜻을 알아 진실된 이치만을 염원하고 불성을 찾아 정진해야 합니다. 마음을 정진하는 법은 우선은 계행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안정을 통해 근본 생명의 자리를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오신날 좋은 날. 다함께 견성성불 합시다.

자비성찰의 계기로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
맹복지재단 회장 무산 스님



고통 받는 중생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과연 불교가 금과옥조처럼 주장하는 자비의 실천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우주법계의 진리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여 가지만 인간의 미혹이 이를 가려 어두운 방황의 길을 재촉하고있는 이때 불기 2560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우리 종교지도자가 자리이타의 근본정신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봉축의 위대함도 그야말로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자비로운 마음을 실천하자. 자비무적이라 하지 않았는가? 우린 자비로웠나 다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생각해 보자.

존귀함을 알고 참된 삶을 살자

(사)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회장 송산 스님



부처님오신날 이날, 밝은 연등을 높이 들어 봉축하고 마음을 다해 공양을 올립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법은 서로를 위하고 나누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곧 부처의 길입니다. 우리 스스로 존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의 고귀한 가치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부처님의 삶을 되새겨 어렵고 힘든 우리의 이웃을 위해 희망과 용기를 나누어 주는 참된 삶을 실천하는 정토사회가 구현되기를 서원합니다.

꽃이피고 지니 자연이네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홍산
현블 스님



梅枝片白足知春 花開花落一春事
一去一來無窮意 一二三四本自然

매꽃이 피었으니 봄식이 분명하고, 꽃이 피고짐은 한가지 봄의 일이거늘, 한번가고 옴이 무궁한뜻 지녔어도, 한둘셋넷 그대로가 자연인 것을.

진리는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항상 다른 곳에서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은 내가 있기에 세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평상심을 가지고 여여하게 나를 바로보고 정진 합시다.

마음의 등불을 밝혀야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종정
능인 스님



사바세계가 없다면 여래는 이 땅에 오시지 않았고, 수 억겁을 윤회의 굴레속에서도 여래를 만나지 못하니 여래는 오직 중생의 근기에 따라 나타나며 오고감인데, 한순간 탐욕이 사슬에 갇혀있는 눈만 탓하는 구나.

항상 자신만의 이익을 따져 생활하지 말고, 상대방을 부처님 같이 생각하고 응대 한다면 결국 자신도 같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조금도 인과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마음의 등불을 밝히길 기원드립니다.

바른행 실천 참 불자가 되자

해동불교임제조계종 종정
동진 스님



빛으로 오신 부처님! 부처님 오신 날은 스승의 날입니다. 억조창생의 위대한 스승이신 부처님 말씀 전하며 함께 기뻐하는 날입니다. 불자로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날이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오신 뜻은 진리를 구하되 서로가 화합하고, 상생하는 세상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흐트러진 자세와 혼란스런 마음을 참회하며 기도 정진합시다. 부디 자신 안의 청정함을 찾아 무거운 업장을 떨쳐버리고 인류를 위해 사회와 가정을 위해 바른 행을 실천하는 참다운 불자가 되기를 서원합시다.

불생불멸의 참인연 맺길

(사)호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유심 스님



오늘은 4월 초파일이라 부처님오신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因緣無門

불자님들은 여래장 종자 연등 밝히는 것을 스승으로 삼아 우리 몸은 실체가 없다는 것과 색과 공이 다르지 않다는 것과 불성 한 물건은 오고감이 없는 불생불멸입니다.

한번 태어난 육신은 사대(지,수,화,풍)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인연이란 이렇게 표현 하렵니다. 우리 불자들은 모두 인연 공덕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연등, 마음 등불 밝혀

(사)대한불교금강종 종정
무학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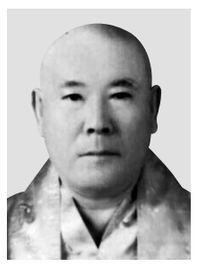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므로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 되느니라” 〈법구경〉

친애하는 불자 여러분! 인류의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신을 축하하는 불기 256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80세의 생애를 오로지 중생들을 위해서 길에서 태어나셔서 길에서 열반하셨습니다. 봉축을 맞이하여 진정한 연등(蓮燈)불,마음의 등불인 각자의 자명(自明) 등불을 밝혀서 행복한 사바세계를 이룩합시다.

모든 생명을 사랑합시다

(사)대한불교금강조계종 종정
법호 스님



모든 생명을 부처님과 같이 존경합시다. 만법(萬法)의 참 모습은 둥근 햇빛보다 더 밝고 푸른 허공보다 더 깨끗하여 항상 때묻지 않습니다. 악하다 천하다 함은 겉보기뿐 그 참모습은 거룩한 부처님과 추호도 다름이 없어서 일체가 장엄하며 일체가 숭고합니다. 눈 앞의 모든 것부터 광대한 우주까지 두루 보아도 부처님 존재 아님이 없으며 부처님 나라 아님이 없어서 모든 불행은 자취도 찾아 볼 수 없고 오직 영원한 행복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서로 모든 생명을 부처님과 같이 존경합시다.

불법은 우리들 가슴속에 영원히

대한불교대원종 종정 신풍 스님



사바세계에 오신 부처님의 깊은 뜻은 중생제도 및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어디에도 없는 연기 설법으로 팔만사천이나 되는 경전의 말씀은 지금까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설하고 계십니다. 心性卽 種種法生(심성즉 종종법생) 心滅卽 種種法滅(심멸즉 종종법멸) 마음이 생기면 갖가지 법이 생기고 마음이 소멸하면 갖가지 법이 소멸한다. 부처님의 말씀은 믿음을 넘어 우리들 가슴속에 영원히 존재합니다. 항시 부처님께서 이 예토에 오신 뜻을 다시금 마음속에 담아 사성제 육바라밀 행과 팔정도를 관조하는 일에 매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인연세상 소망 일구길

원융교단 대한불교조계산문
무문총림 대법주 보당 스님



병신년 부처님 사바강탄 봉축일을 맞이하여 거룩하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구류중생과 더불어 안심입명의 변화신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소망과 희망은 단순히 마음으로 새기고 뇌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방편을 실천하는데 있습니다. 불필요한 기억에 사로잡혀 행업을 생산하지 말고, 어떠한 경계에 다다라서도 우선의 손익 계산에 따라 행동하지 말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조화로운 삶을 택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사회적 갈등이 치유되고 조화롭고 진취적 삶을 일구어가는 광명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중도로 분별 고집 버려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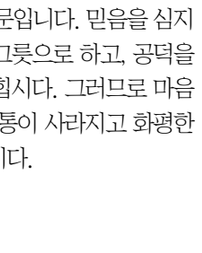
(사)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운남 스님



그 어느 때 보다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소중한 오늘입니다. 오늘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다시한번 나를 돌아보고 소외되고 억압받는 많은 이웃을 돌아 봅시다. 동체대비의 실천으로 나눔과 이타행으로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모든 불자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진실한 마음의 등불을 들고 이웃을 나로 보고 내가 이웃이 되고 열이 하나가 되고 백도 하나가 되는 융화의 중도를 바로보고 분별의 고집을 버립시다. 우리 서로 모든 생명을 부처님 같이 존경하고 존경합시다.

파거불행 노인불수

(종)대한불교삼보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법장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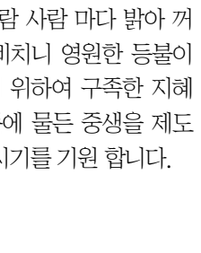


불기 2560년 사팔봉축을 맞이하여 대덕큰스님과 사부대중 사원과 각 가정 부처님 공덕 가득하소서! 우리 인생은 전셋집에 이 몸을 담고 젊고 늙음을 막론하고 어느 시에 전셋집에서 나올지 모릅니다. 파거불행(破車不行)이요(깨진 수레는 행하지 못함이요) 노인불수(老人不修)로다(늙으면 닦지 못함이라)

송죽의 절개는 북설한풍을 지낸 후에 그 절개를 알게 되듯이 봉축의 기운이 온 국민과 함께하여 서로 상생하고 공부심으로 평화의 불국토를 발원합니다.

오직 마음의 평화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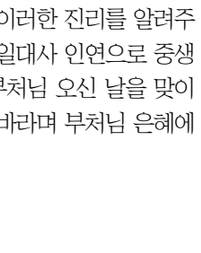
(사)대한불교법상종 총무원장
해월 스님



석가모니 부처님은 만 생명이 평등하며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세상 두두물물이 유한하여 영원한 것은 없지만 불법만이 홀로 존귀하여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늘 오신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오늘 하루 탐진치에 물든 나를 바로보고 본래의 청정을 찾으려 다시한번 마음을 가다듬어야 하겠습니다. 물질은 유한하여 만족이 없으므로 오직 마음의 평화를 찾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나와 다름이 아님 부처님 큰 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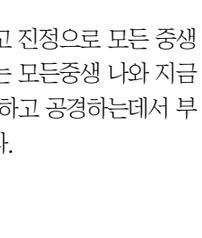
대한불교원융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



모든 불제자 여러분과 함께 2560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광대한 우주를 두루 보아도 부처님 존재 아님이 없으며 부처님 나라 아님이 없어서 모든 불행은 자취도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영원한 행복만이 있을 뿐입니다. 선악과 귀천의 모든 모습은 껍때기일 뿐 그 참모습들은 거룩한 부처님과 같아서 일체가 거룩하며 숭고합니다. 이는 나와 다름이 아니며 곧 부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경건한 마음으로 아픈 이웃을 돌아보며 부처님 오심의 큰 뜻을 마음에 새기도록 합시다.

아름다운 마음이 지혜와 자비

(사)대한불교염불종 종정
성인 스님



화엄경에 “진리의 등불을 밝히려면 믿음을 심지로 하고, 자비를 기름으로 하며, 생각을 그릇으로 하고, 공덕을 빛으로 하여, 탐진치 삼독심을 없애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세상의 진실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이 지혜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비입니다. 부처님오신날 오늘 우리 모두는 지혜의 자비로 나와 남이 없는 일체된 마음으로 살아 가겠다고 서원합시다. 밝은 등불로 장엄된 기쁜 이날, 시방세계 모든 존재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불하세요.

믿음을 심지로 자비를 기름으로

대한불교화엄종 총무원장
화응 스님



“부처님의 몸은 법계에 가득하시니, 모든 중생 앞에 나타나시며, 인연따라 골고루 나아가지만, 언제나 깨달음의 자리에 항상 계시네” 부처님 오신날을 경축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오심으로 해서 헤아릴 수 없는 가피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심지 삼고 자비를 기름으로 삼으며 생각을 그릇으로 하고, 공덕을 빛으로 하여 삼독을 태우는 연등을 밝힙시다. 그러므로 마음속의 연등은 밝게 빛나 뭇 중생들의 고통이 사라지고 화평한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다함께 성불합시다.

세세년년이 영원한 등불이다

(사)대한불교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스님



불멸등혜장명등(不滅燈兮長明燈), 장명등혜불멸등(長明燈兮不滅燈)

인인개개인인등(人人皆皆人人燈), 세세년년세세등(世世年年世世燈)

언제까지도 꺼지지 않을 등불이여 영원토록 밝아 꺼지지 않는 등불을 사람 사람 마다 밝아 꺼지지 않는 등불로 세세 년년이 밝게 비치니 영원한 등불이어라. 부처님 오신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구족한 지혜를 등불과 같이 밝히시고 탐진치 삼독에 물든 중생을 제도하소서,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자연은 그러할 뿐이다

법안조계종원로원장 대현 스님



日上月下(일상월하), 山心水淨(산심수정) 해가뜨니 달이지고, 산이 깊으니 물이 깨끗하다. 자연은 그러할 뿐입니다. 아무런 가식도 드러남도 없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여여(如如)하게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자리도 이와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 중생세계에 나투셨습니다. 일대사 인연으로 중생계에 강림하신 부처님! 불기 256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중생들의 혜안이 한층 밝아지길 바라며 부처님 은혜에 두손 모아 감사드립니다.

중생 아픔이 부처 아픔이다

(사)한국전통민족종교총연합회
회장 각성 스님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곧 부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하나의 중생, 일원화, 획일화, 단일화된 중생이 아니라 하나 하나 모두 다른 중생인 그들 본래가 부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하늘과 땅속에 계시지 않고 진정으로 모든 중생 그중에서도 나와 지금 관계를 맺고있는 모든중생 나와 지금 관계를 맺고있는 바로 그 사람을 예배하고 공경하는데서 부처님은 광명과 환희로 나투는 것입니다.

소외 계층의 어둠 밝히는 자비광명 되기를

일심동행으로 걸어갑시다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



부처님 가르침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한 조계종립 동국대가 올해로 건학 1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일제 강점기 국운이 스러져가는 어려운 시기에 불법홍포와 애국계몽을 위해 세워진 민족사학인 동국대가 세계 일류 명문동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학내 크고 작은 갈등을 이겨내고, 교육과 연구중심의 대학본연 가치에 집중을 해야합니다.

이제는 시대정신과 지식사회를 선도하는 참사람 열린 교육, 대학다운 대학, 신바람 나는 캠퍼스 조성을 위해 새로운 110년의 장도를 일심동행으로 힘차게 걸어 나아갑시다.

중도사상과 화쟁 가르침 펼 때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



부처님께서는 2640여 년 전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 출가와 구도, 성불과 열반이라는 80생애 인간의 모습으로, 모든 중생은 불성이 있다는 평등의 삶을, 인간은 신의 피조물이 아니라 존귀한 존재라는 자유의 삶을 일깨워 주신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결코 인간 위에 군림하지 않으시고 스승으로서, 친구로서, 어버이로서, 그리고 나 자신으로서 항시 우리와 더불어 같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회 계층간의 갈등과 소외받는 계층의 어둠도 모두 환히 밝히는 광명이 되기를 기원합시다.

뭇 생명을 보살핍시다

(사)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부처님이 2016년 지금 오셨다면 이 시대를 보고 과연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행동하셨을까? 그는 곧 생명을 존중하는 분이다.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서있는 바위 위에서 기어다니는 짐승까지 온갖 것이 온전한 가치로 그 본래의 모습을 드러 내는데 계신다. 하물며 인간이야 더 말할 수 있겠는가? 부처님이 오늘에 계신다면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자비로 화합하는, 즉 불교의 사회적 기여와 대자비의 불교 중생을 이익케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것이다.

진정한 마음의 연등을 달아야

대한불교선종총무원장 정관 스님



미혹에 빠져있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오늘 나투셨습니다. 해마다 사찰에 연등을 달고 소원을 부처님께 올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음의 연등을 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고, 바로 나 자신을 일깨우는 일입니다. '오되 옴이 없고, 가도 감이 없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도리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부처님 오신날 오늘 하루만 기리는 행사가 아니고 영원한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해야 하겠습니다. 불자님 가정과 하시는 일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합장 발원합니다.

공생으로 거듭나야

(사)한국불교원광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법륜 스님



사월이라 초파일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며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 밝혀 광명으로 거듭 납시다. 탐진치의 무명 속에서 고통 받는 중생들을 위해 기꺼이 밝은 빛으로 오신 우리 부처님.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의 문을 열고 공생의 마음으로 다시 태어 납시다.

인연 지중하신 불자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어리석어 성불할 줄 모르고 있으므로 깨달음의 모습으로 일대사인연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그 큰 뜻을 알고 우리 모두 등불 밝혀 마음껏 봉축하고 소리 높여 찬탄합시다.

세상 만물이 곧 부처

(사)대한불교율사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청파 스님



세상 모든 만물이 곧 부처라는 큰 가르침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처께서는 우리 미혹한 중생이 행복하게 사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자리이타 동체대비로 서로를 위해 나누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미묘한 법을 잊어 버리고 미움과 원망으로 서로를 탓하는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질없는 망상인가를 하루라도 빨리 깨달아 참된 삶을 살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고요함이 세상 제일락

(사)대한불교삼계종 총무원장 일초 스님



知足弟一富 無病弟一利
善友弟一親 寂정弟一樂

세상사는 유구계고(有求階苦)다. 즉 구하는 것이 있으면 다 고통이 된다는 것이다. 지족(知足), 즉 자기 만족을 느끼는 것이 제일 큰 부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억만원의 자본보다도 건강이 제일 큰 자본이 된다고 해서 조신양생하여 무병한 신체를 갖는 것이 제일이라고 한 것이다. 신외(身外)에 무물(無物)이라는 말과 같이 병든 몸에 백억대의 재산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한참씩 고요하게 쉬는 재미야 말로 제일락(弟一樂)이 되는 것이다.

지혜의 등불을 밝힙시다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자비로운 마음 풍요로운 세상을 위한 사부대중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가까운 일본을 비롯하여 자연 재해로 인해 국민을 잃은 세계 여러 나라의 조속한 재건을 위해 전국의 불자여러분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오직 중생들에게 모든 행복은 자신의 마음 속에 가득 차 있음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스승이신 부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사회에 희망과 나눔의 등불이 되기를 서원하며,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사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열정이 등불이 되게 하소서

박순 불교여성개발원장



이 세상 중심에 서 계시는 부처님!

오! 부처님. 상서로운 빛, 환희의 미소로 사바세계에 축복으로 오신 님!

님께 사계의 공양미를 두 손 모아 바칩니다.

일심으로 예경하고 우러러 합장합니다. 언제나 우리들은 있고 없고 모든 것을 아래 위 가득 채워진 그릇 인가! 빈 그곳에 서서 힘들다 했네.

이 세상 중심에 서 계시는 님께 비우려는 마음으로 차 공양을 올리듯 큰 기쁨을 안고 따뜻함을 나누는 5월의 오늘처럼 찬란한 열정이 거리마다 피어 오르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국민화합과 상생에 기여할 터

김상인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



우리사회는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 양극화와 극심한 개인주의 풍조의 만연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 공무원 불자들이 화합과 상생의 길로 세상을 이끌어 갈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불자들이 앞장서서 우리사회에 드리워진 무명의 어둠을 떨쳐내고, 더불어 존재하는 사회구현에 밑거름이 되는 삶을 실천해 가야 할 것입니다. 금년에는 부처님의 공평무사한 가르침이 정부정책에 스며들어 사회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불자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재소자 불법으로 교화하자

이용도 (재)진각미란다 이사장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합니다.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과거에 만든 습관적 번뇌를 소멸해야 합니다. 재범 없는 '미란다 불교 민영교도소' 본격 추진은 불국정토 건설을 여는 자비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부처님께서 평생 길에서 맨발로 법을 전했듯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재소자들을 부처님 연기법의 선근으로 교화하고, 다시는 악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출소자에게도 배려와 나눔, 관심과 자비로서 새로운 삶이 영위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소통하고 화합을 이룬다면 그것이 바로 불국정토를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무한생명 일체진리를

윤기순 종교신문 발행인



우리 인간은 불성(佛性) 인간 자신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무한생명의 담지요, 지혜와 덕상을 모두 갖춘 불성의 소유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일체의 진리를, 즉 삶과 죽음을 한번에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이 보여준 진리의 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았기 때문에 이미 인간적이면서 인간의 모든 속성을 간직한채 초월하였던 것입니다. 부처님의 간절한 인간선언, 우리는 누구나 가치있는 존재자임의 선언에 대하여 고개숙여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가 자기의 자그마한 지위와 재력과 명예로 인간을 얕잡아 볼 수 있단 말인가?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합니다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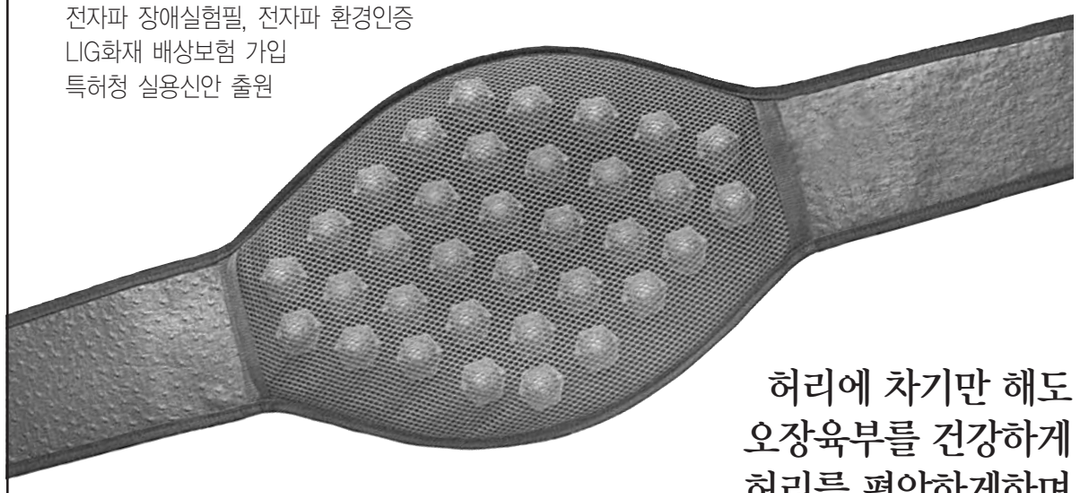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佛紀 2560年 丙申年 | 전면광고

자비로운 마음 풍요로운 세상 | C11

이 세상에서 천박하고 불타는 욕망을 억제한 사람은 온갖 근심 걱정이
말끔히 사라지리라. 물방울이 연잎에서 떨어지듯이. (법구경)

대한불교조계종

성 륜 사

주 지 명 원

사부대중일동

■ 전남 곡성군 옥과면 산 1
TEL 061)363-0081

대한불교조계종 • 무등산

證心寺

주 지 연 광

사부대중일동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56번지
전화 062)226-0108 / 전송 062)222-5997
www.jeungsimsa.org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광주포교당

성 거 사

주 지 혜 공

사부대중일동

■ 광주광역시 남구 서2동 143-2
TEL 062)676-1080

대한불교조계종

운 주 사

회 주 학림 현문
주 지 운주 정행

사부대중일동

■ 전남 화순군 도암면 천태로 91-44

대한불교조계종

불 갑 사

주 지 만 당

사부대중일동

■ 주소 : 전남 영광군 불갑면 불갑사로 450
전화 : 061)352-8097

대한불교조계종

길 상 사

- 초사흘법회 매월 음력 1~3일
- 지장재일법회 음력 16~18일
- 관음재일법회 음력 24일
- 일요가족 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 길상사 예불 (새벽, 사시예불)
- 어린이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목련합창단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 한글학당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 금강경 강의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 고월당 인문학 강좌 및 희망과 사랑의 작은 음악회 매주 셋째주 금요일 오후 7시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로 5번길 7
전화 062)955-4407 www.kilsang.kr

대한불교조계종

도 갑 사

주지 설 도

■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 8번지
TEL 061)473-5122

대한불교조계종

비 전 사

사부대중 일동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2동 489-22번지
TEL 062)951-3562

아주미디어

대표 오태준

**콘서트. 체육대회,
대학축제, 지역축제
음향, 무대, 조명, 의자**

■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 42-6
TEL 062)381-8052
FAX 062)381-8056
010-3624-2321

한국불교태고종

보은산 금곡사

주지 보각스님

■ 전남 강진군 군동면 파산리
1012-2번지
전화 061)433-3407

지장도량 미륵사

주지 혜 법

사찰음식 전문점

수 자 타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469-3
전화 062)222-1145

佛紀 2560年 丙申年 | 전면광고

자비로운 마음 풍요로운 세상 | C12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 남이 했건 말았건 상관하지 말라,
다만 내 자신이 저지른 허물과 게으름만을 보라. (법구경)

한국불교태고종
만 덕 사
주 지 시 각
운영위원장 정법심
신도회 일동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1로 74-11 전화 062)652-4920

대한불교조계종
법 림 사
대해노인복지센터
주지 무진
■ 광주광역시 동구 내남동 649-1번지 TEL 062)234-2207

대한불교조계종
동 원 사
회주 지각
주지 지장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1-6 TEL 062)227-3516

대한불교 조계종
문빈정사
사부대중 일동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96번지 TEL 062)222-2202

한국불교태고종
세 심 정 사
회주 지 암
주지 보 응
사부대중 일동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길 57-15

대한불교조계종
만 경 사
주 지 증현
■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산49-4 TEL 062)263-3180

대한불교조계종
광 덕 사
주 지 효진
■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31-5 TEL 062)652-6050

대한불교조계종
연 화 사
주 지 명신
[부설]
연화유치원, 어린이집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2동 448-2번지 TEL 062)227-7295 유치원 227-0173

대한불교조계종
무등산 원효사
주 지 현 지
신도회 일동
■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846 TEL 062)266-0326

한국불교태고종
법 륜 사
주 지 월 인
신도일동
광주전통불교영산보존회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23호
작법기능보유자

대한불교조계종
행복 나눔 도량
금 선 사
사부대중 일동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산 4-1번지 TEL 062)942-3260

한국불교태고종
율 곡 사
주 지 혜 령
광주전통불교영산보존회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23호
범음기능보유자
율곡범음대학 의식교육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269-4번지 TEL 062)263-4575

대한불교조계종
달 마 사
주지 학봉
■ 전남 화순군 청풍면 곰치로 1601-24

대한불교조계종
정 안 사
주 지 동초
신도회 일동
■ 광주광역시 북구 분토길 90 전화 062)265-0801

대한불교조계종
관 음 사
주 지 소 궁
고불총림
광주관음사불교대학
■ 광주 동구 충장로46번길 7 전화 062)223-7666

부처님오신날 큰스님이 그립습니다

한글법어의 숨겨진 이야기

성철 스님과 원택 스님

1981년 성철 스님이 종정에 추대되시고 첫 부처님오신날을 맞았을 때의 일입니다. 총무원에서 큰스님께 법어를 내려주셔야 한다고 연락이 왔지요. 큰스님이 불러서 부리나케 달려갔습니다. 큰스님이 내민 종이 한 장을 보니 법어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아뿔사! 그런데 선방에서 쓰는 한문으로 된 상당법어인 것입니다. 외람되지만 큰스님께 불호령이 떨어져도 한 말씀 드려야겠다고 작심했습니다.

"큰스님, 이제 스님께서는 산중 스님이 아니십니더. 모든 국민들에게 부처님을 대신해 한말 씀 하시는 것입니더. 스님 쉬운 한글로 법어를 내려주셔야 합니더."

"무슨 소리하노. 내가 평생을 한문으로 살아왔는데"

가야산 호랑이로 유명한 큰스님이 벼락이라도 치실까 걱정하며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데 성철 큰스님은 한참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쏘아보는 화등잔 같은 눈길이 따갑게 느껴지는 순간, 큰스님은 말문을 여셨습니다.

"그래? 그라만 내가 다시 한 번 써보지."

처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큰스님이 다시 방에 들어가



셨습니다. 마음으로는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큰스님은 다음날 아침 또 부르셨습니다.

그래도 반은 한글, 반은 한문이었습니다. 내친김에 다시 간청을 올렸습니다.

"스님, 나머지 한문도 한글로 해 주실 수 없습니까."

"어허 그놈 참 사람 힘들게 하네. 한문체를 버리려니 허전하고 글에 힘이 안 실리니 어쩌노. 다시 생각해보자."

큰스님은 그 다음날 다시 법어를 내리셨습니다. 한글법어의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생명을 부처님과 같이 존경합시다. 만법의 참모습은 둥근 햇빛보다 더 밝고 푸른 허공보다 더 깨끗하여 항상 때가 묻지 않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고민하고 고민하여 나왔을 그 법어를 보는 순간 저절로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한글법어에 대한 재가불자와 일반인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특히 1982년 봉축법어 '자기를 바로 봅시다'는 종교를 떠나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어려운 주문으로 맞선 상좌의 고언을 받아들여주신 그 큰 공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감사하는 마음에서 2014년 8월 〈성철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찬불가를 출간하고, 2015년 12월에는 큰스님 법어를 가사로 청소년 랩음악경연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번 부처님오신날에는 이 대회 노래가 CD로 나올 예정입니다.

스스로 엄격한 우리시대 어른

법정 스님과 덕조 스님

불임암에서도 그렇거니와, 스님께서는 번잡한 것을 싫어하셨고, 그 누구에게도 신세를 지는 것을 멀리 하셨습니다.

"신도들에게 부담 주지 말거라. 그리고 특히 시은을 무서워 하거라."

항상 큰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께서 1974년 불일암 지을 때 있었던 일을 얘기하곤 하셨습니다. 당시 스님은 조금밖에 되지 않는 원고료로 불일암 불사를 진행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한 재력있는 불자에게 불사를 도와달라고 했답니다. 긴 시간이 지나고 그 불자님이 '참 죄송하다'며 거절했습니다.

큰스님은 이를 두고 "그 거절의 말을 들으며 '그 분이 얼마나 곤란했을까' 생각했다"고 하셨습니다. 큰스님은 이후 절대 불자들에게 신세를 지지 않겠다고 마음 속으로 다짐했다고 합니다.

이런 큰스님의 확고한 마음이 있으셨기에 부처님오신날이면 전해지는 길상사 '자비의선물'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는 신세를 진 이웃에 대한 보은의 마음에서 시작됐습니다.

1997년 길상사가 창건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길상사가 생기자 성북동 일대에는 교통대란이 발생했습니다. 주말이면 신도들이 몰려 이웃주민들이 힘들어 했습니다.

"이웃에게 민폐를 끼치니, 안되겠다. 곧 있으면 부처님오신날인데, 자비를 말로만 펴지말고 실천하자꾸나. 멀리 말고 가까운 이웃부터 돕자꾸나."

이웃에 대한 배려는 현재 유명한 길상사 음악회로 이어졌습니다. 종교행사가 아닌 마을잔치로 이웃들을 초청했습니다. "종교는 벽을 없애고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웃과 더불어 즐기며 느끼고 함께 나누는 것이다."

음악회는 사실 큰스님에게 곤혹스러운 것이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스님께서는 강원도 암자에 묵으셨고, 길상사에서는 하룻밤도 주무시지 않으셨습니다.

큰스님께서는 웬 만해서는 밤중에 거동하시는 일이 없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오셔서 저녁 7시에 길상사 점등 후 진행되는 음악회를 보시고 다시 강원도로 향하셨습니다. 한번은 봉축음악회가 끝나고 스님의 안색이 너무 안좋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밤 10시쯤이어서 암자에 가면 새벽이었습니다.



상좌 입장에서 스님의 건강이 걱정됐습니다. 스님께 오늘만큼은 주무시고 가시는 것이 어떠신지 여쭈었습니다.

스님께서는 "나 자신과 한 약속을 한번 어기면 한번이 두번이 된다"고 하시며 주저없이 암자로 떠나셨습니다. 당신의 약속에 대해 스님은 '당신의 질서'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스스로에게 엄격했던 모습때문에 아직도 은사 스님의 삶의 향기가 오래남아 있습니다.

蓮紙 '후후' 불었던 그 시절

재석 스님과 일진 스님

은사, 재석 스님! 제가 스님께 출가한 때는 1970년이죠. 지금으로부터 48년 전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오니, 어려웠지만 그리운 그 때가 생각이 납니다. 출가 당시 저는 은사 스님과 함께 서울 만법사에 있었습니다. 정월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사찰을 찾습니다. 지금은 대중들이 모여서 합동으로 정월 불공을 올리지만, 당시에는 개개인이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정월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를 '독불공(獨佛供)'이라고 했죠.

낮에 불공이 끝나면, 밤부터는 본격적인 부처님오신날 준비에 들어갑니다. 연등 만들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연등의 기본인 연꽃과 연잎을 이루는 종이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일단 까만 OB 맥주병을 얻어다가 따뜻해지도록 아랫목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미리 종이집에서 재단해 준비한 분홍색, 파랑색 연등 만들 종이들에 물을 촉촉이 적셔두고 밟으면 종이에 힘이 생깁니다. 이것을 따뜻해진 맥주병에 대고 낚시줄로 감아 눌러주면 연잎 주름이 잡힙니다.

이렇게 준비한 연꽃 종이들을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오면 하나하나 불어서 떼어냅니다. 그리고 끝을 말아서 연꽃과 연잎을 모



양을 만들고 연등 만들기에 들어갑니다. 사형, 사제들과 함께 하루에 200~300개는 만들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은사 스님의 지휘 아래 일사분란하게 이뤄졌습니다.

부처님오신날 당일이 되면 은사 스님께서는 법회를 봉행하고 사찰에 오는 불자들을 대접하느라 바쁘셨습니다. 그러다보니 여유있게 관등놀이를 하고 있을 상황이 못 됐습니다. 정월부터 이어진 강행군이 끝나면, 스님께서는 하루 산행을 통해 그간의 고단함을 잊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스님의 나이가 됐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이나 사중행사가 있을 때 학인들에게 은사 스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공양주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대중들을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스님은 학교를 많이 나오거나 유명한 스님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어려운 시절 본인이 배를 곯을지언정 대중을 위해 탁발을 하고, 훌륭히 공양주를 사셨던 숨은 수행자이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훌륭한 스님이 될 수 있도록 인재불사에도 힘쓰셨습니다.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는 것도 은사 스님의 원력과 지원 덕분입니다.

매년 부처님께서 오시면 이제는 열반하신 은사 스님이 생각이 납니다. 남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셨던 스님과 함께 했던 1970년대는 제 인생 가장 애틋했던 기억이자 수행자로서 살아가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은사 스님.

구법의 나침반 인생의 버팀목 '스승'

불교에서 스승만큼 중요한 존재는 없다. 초조 달마대사는 "만약에 선지식(善知識)을 만나지 못하면 일생을 헛되이 보낸 것"이라고 했다. 부모에게 육신을 받았다면 스승에게서는 법을 받아 진리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다.

부처님오신날이면 스승에 대한 존경과 그리움이 더욱 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자 스님들은 스승과의 인연을 행운이라 여기고 다음 생에도 사제의 인연으로 만나 못다 한 공부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고독한 구법행의 길에 버팀목이 되었던 스승의 삶을 떠올리는 것 만으로도 마음의 위안이 되기 때문이다.

부처님오신날 큰스님 제자들이 들려주는 스승과의 인연담을 통해 불자 개개인도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기를 기원한다. 큰 스승의 부재라고 까지 하는 시대라고 모두가 한탄하는 지금, '중생이 아프면 부처도 아프다'는 가르침처럼, 어리석은 중생과 함께하는 후학들의 활약도 기대해 본다.

정리=신성민 · 노덕현 기자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합니다.

재단법인 진각미라다

진 과 정

재

이

주 서 시 마 구 신 로 0길 5 진 2
(아 6)
02) 6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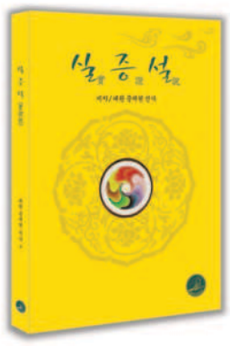
대원 문재현 선사님 현재 74권의 저서 출간!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마음대로 앉아 죽고 서서 죽고

우리들 모두 생사를 초월하여 해탈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대로 앉아 죽고 서서 죽기를 자재했던 이분들이 증명하고 있다. 이 책의 열반상들은 인류에게 있어서 큰 용기와 힘, 영원히 사들지 않는 향기가 될 것이다.



실증설 (實證說)

불법의 참뜻을 보이기위해, 홀연히 써내려간 대원 선사님의 실증설, 체험한 자가 아니고는 설파할 수 없는 일구의 도리와 실증의 법문



바른 불자가 됩시다

바른 신앙과 바른 수행의 길잡이!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도서출판 문젠 (구,바로보인) ☎ 031-534-3373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혜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 종 안 내



총무원장 무공당 혜봉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重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종도님(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십니다.

입 종 서 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맡으실 스님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혜봉 스님 직통 010-3545-5060



법민스님의 산사 음악회 CD 발매



법민스님은 2004년 범어사 계명암오솔길을 직접작사하여 찬불가음반을 발표하고 2006년 목탁새 노래로 방송 활동 중이며 2016년 3월에는 일본 고베 켄벤션 센타에서도 콘서트공연을 가졌다.

현재 전국가요대행진 등 복지TV, 실버TV, 아이넷TV, MBC넷 등 방송 활동과 산사음악회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음반 수록곡으로 소원 · 업보 · 님이오는 소리 · 상념 등이 있다.

산사음악회 CD 목차

① 목탁새
② 계명암 오솔길
③ 백일기도
④ 소원
⑤ 업보
⑥ 상념
⑦ 사랑은 주는거야
⑧ 님이 오는 소리
⑨ 목탁새(slow)
⑩ 목탁새 경음악

각종 사찰행사에 음성 공양 원하시는 사찰은 연락바랍니다.

구입문의 다 산 불 원
051-231-6455 / 010-9049-0016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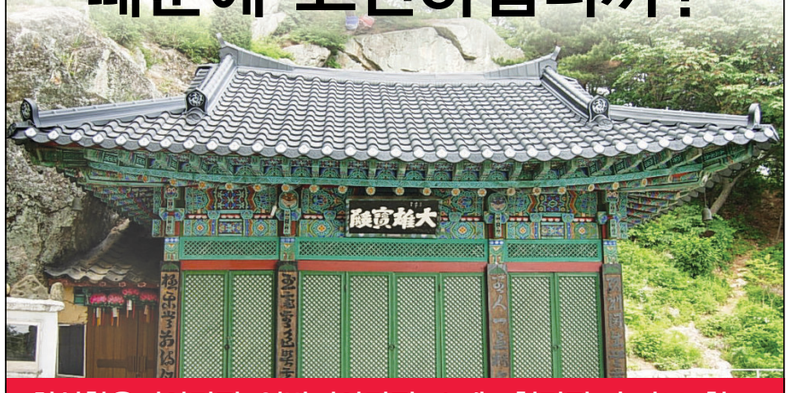


◀ 태징
◀ 대북
◀ 2자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 고 제 작
www.yangjikukak.com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0-3511-668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왜? 울금(강황)과 Phytoncide(피톤치드, 편백수) 인가!

『대리점 및 소액 점포/사찰답례품 창업주 모집』
불황을 타개 할 참신한 제품입니다.

불 도량에 알맞는 품격있는 제품입니다.

울금365 는
울금, 황금, 미강으로 구성되었으며 잦은 음주와 스트레스, 음식의 과잉섭취, 각종 공해에 찌는 현대인에게 꼭 권장할 만한 건강식품입니다.



울금 박사가 만들었습니다.
하루 적정 섭취량을 고려했습니다.
3box 6병(3개월 분) = 89,000원
1box 2병(1개월 분) = 39,000원

- 울금과 강황을 이용한 식품일체(동분야 국내최고 권위자)
피톤치드, 편백수(국내 최대생산라인 확보,성분타의 추종을 불허함)
약용식물을 이용한 건강식품 다수(특허등록)
당찬하루, 팔자보(남자의 팔자), 울금365 등

100% 천연편백수 산림욕장을 실내로!



아토피, 피부미용, 새집증후군, 천연방향제
의류 및 침구류, 신발장, 화장실 등의 항균,탈취
70ml (휴대용)×1병 = 3,900원
6병×1box = 21,600원
200ml(가정용)×1병 = 8,000원
2병×1box = 15,000원
500ml(대용량)×1병 = 15,600원

오랜 전통과 기술이 축적된 산학협력 및 정부지원 업체입니다.

Sanchon Herb NAVER 산촌허브 검색

문의전화 T. 055) 632-2233 F. 055) 635-6500
H. 010-3215-3998 www.sanchonherb.co.kr
농협 351-0633-0485-13 산촌허브(주)

漢 文 한글 겸용 불교상용의식집

"漢文/한글 겸용 불교상용의식집"은
漢文念佛 한글염불 경전공부까지 스님들과 불자님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불교 상용의식집입니다.



- 제1권(예경/각청)
- 제2권(천도/시식)
- 제3권(수계/방생)
- 제4권(장의)
- 제5권(점안)
- 제6권(독송집)
- 제7권(토속의식 모음집)

각권 20,000원

발행인 : 금불 장엄사 주지 성묵 스님
(경북 칠곡군 기산면 봉산4길-54)
주문처 : 054)974-1345(장엄사)
010-7144-7339(총 무)
010-5277-8024(스 님)
계좌번호 : 농협 735091-52-058288 박명덕
(전국 불교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 3칸 겹집 목조건물 : 11,000×6,000×4,800㎜ ■ 가격 : 평당 1,500,000
다그라스 목재기둥 : 180×180×2,700㎜ 다그라스 대들보 : 180×240㎜
다그라스 목재도리 : 108×180㎜ 다그라스 목재서까래 : 100×100㎜
목재판매 : 120×18㎜ 전통강판기와 주춧돌 : 300×300×300㎜
원하는 평수가능
토목공사 부가세별도

황토흙 ALC블럭 내화벽돌 판넬 자유선택



■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조립식 평상 : 1,800×1,030×400㎜
~~가격 : 290,000~~ ➡ 할인가 : 190,000 부가세, 운송비 별도
폴리프로필렌자재기둥 : 110×90×400 도리 : 80×35 중간대 : 80×35 마루판 210×12
연결이동 사용할 수 있으며 보관 설치가 간단한 평상

지 구 산 업
www.지구산업.com
TEL (063)323-3011~2 / FAX (063)323-3010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 급 형 민 속 죽 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⑰ 현장법사의 출가 이야기

참된 출가자 탄생… 세상에 큰 빛 전하다

한 사람의 스님이 나오기 위해선 얼마나 많은 복연이 겹쳐야 하는가?

한 사람의 스님이 나오면 또한 얼마나 많은 복연이 이어지는가?

현장법사야말로 그런 대표적인 예~

그분 한분의 위대한 복연으로 불법이 크게 흥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그 복연 속에 있구나. 그렇다면 그분 나오기까지의 인연도 당연히 범상치 않겠지? 그분께서 금선자란 수행자로서 오랜 기간 수행을 해 온 몸이라는 것은 이미 말했던가? 그 수행의 인연이 어떻게 금생에 이어졌던가?

때는 당(唐)왕조 태종 년간 나라에 인재를 뽑기 위해 큰 과거를 시행하는데 거기에 장원으로 급제한 인물 있다. 그 이름 진악(陳 𡘙, 자(字)는 광예(光𡘙)라 당시 승상벼슬을 하던 은개산의 따님 은교 아가씨와 인연이 있어 화촉동방의 가연을 맺으니 둘 사이의 아름다운 사랑에 전생의 금선자요, 금생의 현장법사 인연이 깃들었도다.

장원급제자인 진악에게 강주사마의 벼슬이 내려지니 꽃다운 아내와 임지로 내려간다. 가던 길에 머문 여관 앞, 금빛 잉어를 파는 이 있는데 이 잉어가 비보통 잉어로다. 물고기인데도 눈을 깜박이니 진악이 기이하게 여겨 이 잉어를 사서 놓아주네.

그리고 다시 길을 재촉하는데 아아~ 홍강 나루에서 흉악한 도적을 만난다. 은교교 부인의 미색에 홀린 유흥과 이표라는 두 사공 으슥한 곳에서 진악을 죽여버리고 부인 은교교를 겁박한다. 어느 덧 세월이 흘러 뱃속의 아기 태어나니, 고추달린 옥동자라 남극성군(南極星君) 현몽하여 비범한 인연 있음을 알려준다. 부인 피눈물 흘리며, 또 손가락 깨물어 피를 내어 자세한 내력을 혈서로 써 아이 품에 넣고 판자에 묶어 강물에 떠내려 보낸다. 금산사란 절에 법명화상이란 덕높은 스님 계셨네. 선정 삼매 속에서 아이 울음 듣고 강가에 나오셨다가 아이를 구하셨네. 아이가 장성하자 현장이라는 법명을 내리고 제자로 삼으니 바로 이이가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인 현장법사!

한 위대한 인물 태어나는데 참으로 기구한 인연이 엮여 있구나. 현장법사 스승에게 자신의 내력을 여쭈니 스승께선 감춰두셨던 혈서를 보여주신다. 강주에 이르러 은밀히 어머니 은교교 부인 만나 모자의 인연을 확인하고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장안에 가서 외할아버지 은승상 만나서 사정을 아뢰어 유흥 도적을 토벌할 군대를 일으키네. 원한 갚고 아비가 죽은 강가에서 통곡하며 제를 지내는데 물위로 아비 시체가 떠내려온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시체가 아니다. 차츰 몸을 움직이더니 깨어나누나! 이게 또 어찌된 일인가? 알고보니 또한 더더욱 묘한 인연 있었네. 진악이 부임길에 놓아준 금빛 잉어가 알고보니 용왕이었다네.

은인의 혼백과 시체를 고이 보존하고 있다가 제자리로 돌려보낸 것이로세.

인과응보… 참으로 무섭지 않은가? 하늘의 그물은 성글고 성근듯 하지만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다고 하였던가? 이렇게 무사히 모든 인연 정리하고 속세의 인연을 마무리한 현장법사

다시 불문제자의 신분으로 돌아와 홍복사에서 수행을 계속하시니 이 기구한 인연의 길을 통과한 분이시라 그 수행의 각오도 드높을 수 밖에!

우리 이야기의 진실한 주인공이 현장법사라는 거, 잘 알고 계시지요?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등은 모두 현장법사라는 실제 인물의 여러 측면을 나타낸 것이구요. 손오공이 맹활약을 하기에 손오공을 전면으로 내세웠지만, 역시 실제 인물인 현장법사가 그 중심일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현장법사가 현장법사로 있게 된 인연담을 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압축한 이야기로 살펴보시니 어떠세요? 물론 이 이야기는 서유기에 나온 현장법사의 인연담입니다. 실제 인물인 현장법사의 전기는 그리 자세하지 않아요. 아 물론 자세하지 않다는 것은 현장법사가 인도 다녀오기 전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는 워낙 유명해지고, 또 두드러진 활동을 했으니 잘 알려져 있죠. 젊은 시절의, 인도에 가기 전의 현장법사는 속명이 진위(陳褘)이며, 형을 따라 낙양의 정토사에서 불법을 공부하다가 13세에 승적에 이름을 올렸다는 등의 간략한 이야기만 알려져 있을 뿐이지요. 서유기는 이러한 현장법사의 이야기를 재미있는 인연담으로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한 위대한 인물이 그러한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것은 금생의 노력만으로는 이루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게 마련이지요. 부처님에게는 엄청난 '본생담'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습니까? 수없는 생애를 쌓아온 결과가 이생에서 이러한 꽃을 피웠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마도 평범한 사람들이 좀 납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가 아닐까 싶기도 하지만요. 아무튼 현장법사도 본디는 부처님 회상에서 수행하던 금선자라는 분이었다고 하지요. 자그만 죄를 저질러 하계로 환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함께 하구요. 거기에 진악이라는 분과 부인의 이야기가 곁들여지고, 또 잉어로 잡혀온 용왕과의 인연이 얽히는 신비한 인연담이 전개되는군요. 한 인물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외에도 매우 길고도 복잡한 인연의 줄기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건강한 생각일 것 같구요. 단지 우리가 보는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오만한 생각이지 않습니까?

한분의 스님이 출현한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인연이 겹쳐야 나올 수 있는, 참으로 귀하고도 귀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욕락(五慾樂)이라는 것을 추진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는 전혀 다른, 진리에 대한 추구에 온 삶을 바치는 분들! 그런 삶이 바로 스님의 삶이지요. 그런 분 하나 출현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 세상에 큰 빛을 던지는 일이지요. 거기다 현장법사처럼 역사에 큰 빛을 드리고, 우리에게 불법의 큰 인연을 전해준 큰 분의 출현이야말로,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인연들이 빚어낸 결과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분 한 분이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그 이전의 수많은 스님들이 이룩했던 바탕 위에, 그분의 위대한 노력이 더해지면서 그런 큰 결과를 이룬 것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욕락의 길이 아닌 진리의 길에 몸을 던지신 수많은 스님들의 잿빛 가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불법이라는 큰 인연이 이어진 것이겠지요. 현장법사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승가에 대한 존경심을 북돋우는 귀한 소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변함없는 그 구도심이 서유기의 처음과 끝이라는 점을 잊지 않기로 다짐하면서! 다음 시간에 뵈어요.



그림 · 최주현



법인설립 허가번호 제 2014-4호

특허청 특허출원번호 42-0005848 호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연합회

총재 **각 성** / 고문 **무 산** / 회장 **성 철** / 전국지부법인종단관리위원장 **무 공** / 대표이사 **율 담**

한중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광
금강불교조계종 이사장 활안
무궁화무한월드 회장 애무린
대한불교무량종 종정 혜안
대한불교조계미륵선종 총무원장 설송
생활불교범행종 총무원장 지광
대한불교금륜조계종 종정 지광 등운
대한불교승가회 총재 무공
환국불교조계종 종정 아산
한국거창배왕석예술문화연구원 위원장 석호
마애삼존불상무량정토성지순례봉찬회
우리불교우리절용암산미륵사 총무원장 청송
고려대장경진흥원유지재단 이사장 장수
대한신불교천우종 종정 일강
대한불교단체총연합회국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성철
한국불교조계종 종정 정암
대한불교조계선종 이사장 지암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서울지부지회장 청산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부산지부지회장 구암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대구지부지회장 지영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인천지부지회장 석수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광주지부지회장 만봉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대전지부지회장 태대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울산지부지회장 월정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강원지부지회장 월광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경기남부지부지회장 일오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경기북부지부지회장 광명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경남지부지회장 청광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경북지부지회장 설송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전남지부지회장 동화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제주지부지회장 경흥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충남지부지회장 정섭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강원지부지회장 병대
한국불교약불조계종 종정 불광
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인
대한불교대선종 총무원장 대봉
법사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해동
달마선원예술문화진흥원유지재단 이사장 청광
대한불교신인종 종정 보인
대한불교천우종 총무원장 지암
환단도 이사장 태대
한국불교천신종 종정 정암
백산소도삼신문화재단중앙본부 이사장 일광
전통사찰조계종 총무원장 진상
해동불교임제조계종 총무원장 동진
대한불교해탈종문화재단 종정 대광
환국불교환인종 종정 아산
대한불교마야종 종정 정암
정토불교조계종 종정 일오
한국종교무교천왕종 종정 송월
한국도교본산수성궁 회장 금란
세계불교달마조계종 종정 태일
대한불교호국조계종 종정 무량수
대민불교조계종 종정 일공
국제대성황문화재단 이사장 환인
대한불교구생종 총무원장 원당
한국불교조계종종단연합회중앙본부문화재단 이사장 월정
진언불교 종정 도성
법행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광
선한국불교조계종총무원총본산법천사
불교대학,불교출판사,무차회,보리회 총무원장 법천
대한불교승정원문화재단 원장 현각
금산문화재단 이사장 길주
대한불교유마종 총무원장 무허
한국생활불교보림종 총무원장 운장
천지신명봉양회 회장 성덕
대한불교종단단체사암총연합회 회장 도광
한국무교총본산 회장 일강
한정연무교총연합회 회장 일광
무궁화어머니재단 회장 뮤린
한국고건축진흥원예술문화재단 회장 광선
한국불교조계교종 종정 법성
대한선불종 종정 명조
대원불교유심종 종정 법일
한국범종교단체연합회 종정 청산
지역복지교정협의회 종정 인산
대한불교달마선종 종정 현광
대한불교의성종 종정 의성
대한불교해탈종총본산소원사문화재단 회장 동환
대한불교태선종연합 종정 태선
한국불교동방조계종 총무원장 법성

대선불교조계종 종정 현묵 혜승
세계불교약사종 종정 인산
대한불교전법조계종 총무원장 일웅
한국불교원각종 종정 혜철
월드불교법왕청 종정 청암
대한불교가야조계종 종정 혜산
대한불교팔만종 종정 운월
대한불교연화종 종정 동원
대각불교조계종 종정 혜남
용화세계미륵종 종정 월단
대한불교불광종 종정 청원
법왕불교조계종 종정 보문
세계불교지장선원종 종정 혜봉
사회복지재단황손보살의집 원장 지영
해탈불교조계종 종정 대광
박정희 육영수추모제례진흥회 재단 회장 대광
법천불교종단연합회 회장 법천
해동불교화엄종 총무원장 영관
대한불교약사법사종 총무원장 약산
한국불교원효종 종정 법민
대한불교구화종 종정 구화
세계불교승가회 회장 원당
동도해인대법국미륵진법강원 회장 해인
목멱사랑회 회장 재연
중앙불교조계종 종정 우담
한국고건축예술문화진흥원 회장 태인
대한불교대각종 종정 만청
선법륜종 총무원장 월암
대안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월
현대불교미륵종 총무원장 원공
세계불교화엄종 종정 월담
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청봉
한국불교내외종 종정 청담
대한불교관음성종 총무원장 관행
미타불교조계종 종정 월산
대한불교조계종봉정선원 총무원장 법기
한국전통불교천부종 총무원장 서광
한국불교미타종 이사장 원상
대한불교금강여래종 총무원장 연화
법신불교정법종 총무원장 법통
대한불교반야종 총무원장 지법
대각교단대한불교현수종 총무원장 금화
정통불교조계종 종정 신풍
한국불교현조계종 총무원장 도현
대한불교법인종 종정 만오
대한불교선조계종 종정 기복
세계선불교조동종 총무원장 공산
대한불교약사여래종 총무원장 법환
대한불교천왕종 총무원장 해인
임제불교조계종 종정 지암
대한호국불교소림선종 총무원장 연화
세계불교종단연합회 회장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현불
선종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명
대한불교반야수교원 총무원장 월성
천지대학일월용봉신선도문화재단 이사장 선학
세계불교대각종 종정 보각
한국선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현
삼신신앙봉천재단 재단장 진순
참좋은인연문화재단 이사장 밀허
한국불교천불종 총무원장 혜담
통일불교조계종 종정 벽암
한국불교나한종 종정 대보
한국불교법인선원덕선사 이사장 도운
세계평화불교연맹 이사장 혜승
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선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선
한국불교승가종단연합회 회장 지암
현대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동화
임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암
대한불교연합조계종 총무원장 혜일
대한불교신조계종 총무원장 금당
해동대한불광종 종정 법경
한국불교청동불상예술연구원 원장 청담
대한불교임제선원문화재단 주지 법현
대한불교조계종금강회 주지 청광
대중불교조계종문화재단 종정 향덕
세계불교국제연맹재단조계종 총무원장 향덕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총무원장 원광
대한불교일월여래종 원장 해월
대한불교원조계종 총무원장 만오

세계평화재단 법황청 총무원장 태산
한국전통범종연구소 소장 광식
대한불교밀인수증회 주지 덕천
한국불교미술원보응문도회 사장 규진
한국불교환인종 종정 정안
대한불교전국비구니진흥회 이사장 일경
세계불교만불종 종정 일월
세계불교세심종 총무원장 범행
대불조계종 총무원장 대명
대한불교대각조계종 총무원장 부건
한국전통불교천불종 총무원장 만봉
대한불교여래종 종정 혜담
한국법화종 종정 법천
대한불교일월조계종 총무원장 장원
동방선도총본산 도령 이지영
용화사 월대도 도주 용화
해동불교금강종 총무원장 해원
대한불교법운종 종정 지암
대한불교연지조계종 종정 황봉
한국불교종단단체협의회 회장 성철
한국도교삼청관문화재단 도장 대도
세계불교승가회한국본부 회장 보각
대한불교본조계종 총무원장 불광
천지불교태극종 종정 법성
대한불교통합조계종 총무원장 해봉
한국불교금강종 총무원장 진공
대한불교조계종국제승가총연맹 종정 혜산
대한불교용산조계종 종정 철산
한국불교화엄지장종 총무원장 영암
반야의세계진법불교조계종신선둥지문화복지재단 종정 진표
대한대승불교조계종 종정 성범
석가불교조계종 종정 대각
대한호국무불천지종 종정 청산
유신불교조계종 종정 금강
대한불교조계종통합불교연합 이사장 영월
환국신앙천신교 종정 법안
세계불교법황청 종정 법열
대한불교염불종 종정 만공 호조
세계불교선종 총무원장 제성
정법대승불교조계종 종정 고림
한국불교조견종 총무원장 성문
대한불교법인통합조계종 총무원장 지현
조선불교조계종 종정 중천
한국전통민속문화협회강원도교구 교구장 만오
대한용화불교칠성산신종 총무원장 천공
대한불교보현종 총무원장 영사
세계불교법사종 종정 청하
21세기디지털불교미륵대도 종정 대광대사
대한불교태고종 총무원장 현송 고림
대한불교승가조계종사회복지협력봉사단 총무원장 월암
(사)대한불교단체총연합회복지재단 이사장 도광
대한불교대조계종 총무원장 대공 법해
대현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청각
불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운봉
대한불교법음종 종정 청암
세계불교조계종 종정 자현
생사참사랑실천회(웰다잉) 회장 보성
한국고미술문화재진흥협회 회장 무산
문화예술불자연예인협회 협회장 운봉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 각성
대성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거목
실천생활불교진흥원 원장 경산
대한불교불조계종 총무원장 혜암
대한불교서각종 총무원장 법운
강원율사율원승가교육원 원장 월성
대한불교조계종승가회 회장 경보
포항시불교사암승가연합회 회장 법진
대한불교연화조계종 총무원장 일경
한국불교염불선종 총무원장 영운
사회복지법인대한불교보현종영사복지재단 원장 영사
한국전통문화총연합회 충남교구 교구장 태극
한국전통문화총연합회 강원도교 구교구장 신명
대한불교유가종 총무원장 법륜
대한불교원각회보리원 원장 각화
대한불교반야선종 총무원장 도우
한국대중불교불이종 총무원장 도원
한국불교선조계종 총무원장 법성
마하야나불교조계종 회장 청송
한국전통승복양공진흥회 회장 여래심
대한불교연화종 용남사 주지 법성
한국불교태극조계종 총무원장 해도

대한불교용화조계종 종정 능견
자비실천운동본부 본부장 해광
종단세계선불교 총무원장 안심
대한불교국제중도선 원장 동천
대승불교삼론종 종정 석봉
한국불교효예종 총무원장 법진
한국불교성지종 종정 원담
마하야나승가조계종 종정 청송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원봉
문무대왕대제보존진흥협회 회장 운담
중생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성문
대연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연
대한불교해인삼보종 총무원장 해인
법신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무허
화쟁교단분황종 종정 현불
한국불교염불선종 총무원장 영운
대한불교근본조계종 총무원장 성공
홍지문화재단 원장 홍지
사회복지법인 산촌마을사람들복지재단 이사장 인봉 동인
한국불교의식문화교육진흥협회 총무원장 일관
국제고미술교류진흥협회 회장 성철
대한불교삼계조계종 총무원장 해공
대한불교일붕조계종 총무원장 진공
한국불교선화종 총무원장 법산 호원
육영수생가보존회등육영수여사탄신숭모제례보존회
대표 법성 동방
국제불교조계종직할제1교구본사 청일사 총무원장 성철
한국불교대각종 총무원장 대각
국제불교금륜종 총무원장 청광
한국불교금륜종 총무원장 청광
한국고미술국제진흥원 이사장 도현
대한불교선화조계종 총무원장 혜원
사회복지법인세계불교복지재단자비원 원장 강현자
지장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공
한국불교조계종사회복지실천자비원 원장 명진
대한불교승가문화예술진흥회 회장 현불
대한불교칠불종 총무원장 혜선
대한불교천불종 총무원장 지선
대한불교조계종금강회원응사 회장 진해
대한불교칠여래종 총무원장 진성
대한불교묘법연화종 총무원장 만오
사회복지법인대한불교전국불자총연합회태승사복지재단
재단장 혜원
대한신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연운
한국불교조계종총본산태승사 총무원장 혜원
행복세상만들기운동본부 본부장 혜봉
세계불교선불종 총무원장 무성
한 · 중고미술국제진흥원 원장 도현
사회복지법인수암사마야복지재단 총무원장 운산
한국불교전법조계종 총무원장 도현
한국전통민족불교소원사 총무원장 소원
자비실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보륜
대한불교대원종 종정 신풍
한국불교천불종 총무원장 천불
대성불교정토종 총무원장 성각
마니산천부단복원추진위원회 회장 대경
대한불교조동종 종정 덕공
사회복지법인화정토원복지재단 회장 원오
대한불교혜명조계종 총무원장 혜명
한국전통불교조계종 종정 태함
호국불교선미륵종 종정 효진
한국불교동산조계종 총무원장 원덕
세계불교법사종 종정 고산
행복나눔종교치과문화재단 재단장 성해
대한불교보법종 총무원장 법성
행복나눔치과문화재단 재단장 성해
한국초능력협회 회장 혜봉
사회복지법인금조복지재단 이사장 일경
대한명리사협회 회장 지공
대한불교전국호국무예봉사단총연합회 회장 박주석
사회복지법인대체의학자연치유국제문화교류복지재단
이사장 혜승
불교조계종대선불교대학 학장 현묵
한국불교마야조계종 총무원장 해공
대한불교수암조계종 총무원장 태일
한국불교불광종 총무원장 안개 지공
천상의전상조극락정토원 대표 정관법사
한국불교천지조계종 총무원장 성진
범종단환경보호연합회 이사장 혜봉
한국,네팔 문화교류협회 회장 정관 일해
대한불교전법조계종 총무원장 현도

"중생정재의 합리적 관리와 통합불교의 일불제자 구현"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연합회

110-858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909호
전화 : 02)2198-5022(代), 2198-5023~4 팩스 : 02)2198-5025 H.P : 010-4167-3666 E-mail : jonggyo119@hanmail.net http://kntga.or.kr